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31권 제2호 (통권 107호) / 2026. 6

신앙과 학문

제31권 제2호 (통권 107호), 2026년 6월호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동열 (서울대학교)

편집인 손화철 (한동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8-1, 3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대표메일)

faithscholar@naver.com(논문투고)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한 기독교 교수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역설과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 강영택
An Autoethnography Study of a Christian Professor on Christian Teaching
- Christian Teaching as Paradox and Community | Young Taek Kang
- 045 공공신학으로 조망한 칼빈의 난민신학 -이주성, 환대성, 초국적성, 그리고 교회연대성의 국제운동 | 이봉근
Calvin's Refugee Theology Viewed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Migration, Hospitality,
Transnational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hurch Solidarity | Bong-geun Lee
- 067 밥 하웃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 최용준
Bob Goudzwaard'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 Yong Joon (John) Choi
- 091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 류영식 · 배귀희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 Practical Theological Study Based on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 Young Shik Ryu · Kwi-Hee Bae
- 117 교회학교 성경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탐구: A 교회 주중성경학교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 김정준
An Inquiry into the Meaning-Making Process in Church School Bible Reading:
Focusing on Student Questions at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 Jeongjoon Kim
- 151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연구: 교회의 지원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 송현아 · 정유경
A Study on Christian Perception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Exploring Church Support Measures | Hyun-a Song · Yugyeong Jung
- 183 AI 시대의 노동·자본 담론: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성경적 경제학적 해석 | 김성민 · 김미경
Labor and Capital Discours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Text-Mining Analysis and a Biblical Economic Interpretation | Sung Min Kim · Olivia Hye Kim
- 211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 고기숙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 Ki Sook Ko
- 245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과 교사양성 체계 모색: 기독교대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유정
Structural Gaps i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he Reconfiguration of Teacher Education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 You Jung Jang
- 277 목회자의 일중독 형성과 회복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 엄고운
A Christian Counseling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and Recovery of Workaholism among Pastors:
Focusing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Ministry Identity | Koun Eom
- 295 성령의 성화 사역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 연구 : 개혁주의적 조망을 중심으로 | 김성준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i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s Sanctification: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 Sungjun Kim
- 321 나치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독일교회의 태도에서 살펴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의 신학적 고찰 | 김기흥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German Church's Attitude toward Nazi Persecution of the Disabled | Ki-Heung Kim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한 기독교 교수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 역설과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An Autoethnography Study of a Christian Professor on Christian Teaching
- Christian Teaching as Paradox and Community**

강영택 (Young Taek Kang)**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 "What are Christian teachings?" This simple yet profound question cannot be answered solely through academic discussion and intellectual reflection. It must be answered theoretically and logically, while simultaneously demonstrating its practical application through life. Therefore, from the planning stage, this study adopted autoethnography, a research methodology that explores the researcher's personal life.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er's life into four periods and analyzed the life experiences of each period, exploring how they interacted with the social context and cultural factors of the time.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uncover how the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has evolved through this exploration.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discovered through the use of autoethnography was not entirely new. However, some aspects that had previously remained unclear to the researcher were brought to light. This confirms that the two values pursued by Christian teaching—religiosity, or faith and publicness—are not mutually exclusive, but rather exist in a paradoxical relationship where both are absolutely crucial. Similarly, the meaning of Christian teaching possesses universality while simultaneously reflecting regional specificities. Furthermore, it demonstrates that while academic theoretical orientation must be pursued, practicality is paramount. While these aspects may seem conflicting, it emphasizes that they are not a matter of choice but of integration

* 2026년 2월 10일 접수, 4월 30일 최종수정, 6월 1일 게재확정

** 우석대학교 (Woosuk University)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교육관 3411호.
ytkang@woosuk.ac.kr

within the context of paradox. Most importantly, this discovery highlights the communal nature of Christian teaching. This suggests that Christian teaching is best expressed within a good community, and it sh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strengthening of that community. Therefore, Christian teaching will, above all, foster a learning community of hospitality and care, and through this community, Christian teaching will be enriched and experienced.

Key words: Christian teaching, autoethnography,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movement, paradox of Christian teaching, communal nature of Christian teaching, learning community of hospitality and care

I. 들어가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인 교육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붙들고 씨름했을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와 논의의 범위가 무척 달라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 용례에 따라 대략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독교를 가르침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보는 경우이다. 이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교육이나 신앙교육 혹은 교회교육이라는 말들을 사용할 때 염두에 두는 의미와 상통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기독교를 세계를 보는 관점 혹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개 기독교세계관 혹은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란 말을 사용할 때 갖는 의미와 상통한다. 전자를 ‘기독교교육’으로 후자를 ‘기독교적 교육’으로 간단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박상진, 2025). 전자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이 종교적 혹은 종파적인 것으로 한정되고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 교회나 가정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그 논의가 신앙과 교회라는 종교적 내용과 공간을 넘어 기독교학교와 공교육과 같은 공론의 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인 인식론과 페다고지 등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아가 대안적 관점을 토대로 교육개혁의 방향과 방법의 제시와 같이 교육 전반에 대해 열린 토론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에서 전자의 입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후자의 입장을 더욱 중요하게 수용할 것이다. 어쩌면 위에서 제시한 두 범주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접근이 더욱 낫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정, 교회, 기독교학교와 같은 기독교 교육기관을 탐구의 대상에 포함하지만 공교육 전체를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기독교교육 혹은 종교교육 실시 여부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교육 영역에서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이 기독교교육이라는 종교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참된 교육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기독교학교교육 연구소, 2008 ; 김세미·김정미, 2025 ; 박상진, 2025 ; 유은희, 2023 ; 이정미·송수지, 2012 ; 장유정·정희정, 2020 ; Edlin, 1999 ; Gaebelein, 이창국 역, 1991 ; Smith, 유은희 역, 2024 ; Van Brummelen, 1998 ; Overman & Johnson, 2003 ; Wolterstorff, 2003).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 주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 기간 동안 기독교적 교육과정 재편성을 포함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 논문이 전문 학술지에 51편 발표되었다고 한다(장유정·정희정, 2020). 이 중에서도 2011년부터 2021년 까지 발표된 논문은 그 총수의 78%인 40편이 된다. 이처럼 최근까지 이 주제에 대해 연구와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다시 이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새삼스러운 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는 이 주제가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세 가지 이유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와 관계하며 본 연구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연구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그에 근거한 실천 방안들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교육현장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목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논의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기독교대안학교이고, 그 학교들의 역사는 길게 잡아도 이제 30년이 겨우 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대안학교 역사의 중·후반기에 세워진 많은 학교들은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와 실천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연구 영역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반복되는 일상적 교육현상들을 새로운 관점 혹은 방식으로 보게 하여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적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격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의 예외(강영택, 2008b; 2020 ; 이정미·송수지, 2012)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대안)학교와 같은 기독교교육기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대개 연구의 범위를 일반 공교육까지 넓히기를 주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에서 공교육을 제외하면 공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과 입시교육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이 줄 수 있는 교육회복의 가능성을 막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교육과 세속교육 혹은 공교육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적 가르침이라는 종교적인 색채가 가미된 이 개념을 공론의 장에서 교육학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는 선행연구에서 발견되는 연구 주제의 편향성과 관계한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한계는 공교육이라는 연구 영역 혹은 대상을 배제한 것이라면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연구 주제

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며 추상성과 관념성에 갇혀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연구에서 주된 관심 이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변혁과 실천 중심의 새로운 관점의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mith, 유은희 역, 2024).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주로 교과 지식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거나 학문과 신앙의 통합과 같은 다소 추상적인 면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에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교수-학습의 과정이나 페다고지(Pedagogy)와 같은 교실에서 일어나는 가르침과 배움의 구체적인 경험들에 대한 탐구는 주목하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Smith, 유은희 역, 2024). 이러한 지적과 함께 또한 지금까지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기독교 세계관 논의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비판적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시각을 성경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온전한 교육의 목표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세상을 단순히 어떤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그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어떤 관점 혹은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사랑하는가와 그것을 위해 어떤 실천을 습관화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mith, 박세혁 역, 2018). 그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는 기독교세계관이나 '통합'과 같은 이슈에 대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지적으로 흘러 대중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주지주의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박상진, 2025 ; Smith, 박세혁 역, 2018).

지금까지 본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들을 비판적으로 거론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적 가르침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사 연구영역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는 연구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자서전적(Autobiography) 방식과 문화기술지(Ethnography)가 결합된 형태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삶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기술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 반영된, 때로는 그 경험을 산출한 당시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일반대학에서 교육학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정, 교회,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의 다양한 모임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로 살았고, 기독교학교의 학부모, 연구자, 그리고 이사로 학교에 관여해 왔으며 지금은 다양한 교육현상들을 기독교적으로 연구하는 기독교적 교육학자로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가 본연구에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한 이유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평생 마음에 품고 기독교교육 영역과 공교육 영역을 넘나들며 살아온 한 기독교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종교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체적인 핵심 연구 질문과 그에 따른 세 개의 하위 질문들을 가진다. 먼저, 논문 전체를 이끄는 주요 질문은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와 그가 작성한 글들을 통해 이해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이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하위 연구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 삶의 스토리, 작성한 글들은 연구자의 생애 시기에 따라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 그리고 글들의 분석을 통해 생애 시기에 따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이해의 변화 그리고 이해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은 무엇이었나?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통해 얻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성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왜 중요한가?

II. 이론적 배경: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공시적 이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말의 의미를 앞에서는 일상적 용례에 따라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학술연구에서 종종 사용하는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역사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 접근이다. 먼저 역사적 접근이라 함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사용되던 초기 기독교학교 역사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어떻게 이해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고찰하는 방식이다. 공시적 접근이라 함은 최근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 비교적 활발하게 실천, 연구되고 있는 한 시점에서 이 말의 의미가 이해되는 다양한 방식을 체계화시켜 보는 작업이다.

1.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역사적 이해

기독교적 가르침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기독교학교들의 등장이라는 사회 현상과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들이 대거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학교 설립 운동이 있었다. 첫째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된 초기 기독교학교운동이었고, 둘째는 1990년대 중엽 이후부터 202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유행처럼 일어난 기독교대안학교 운동이었다. 이 두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적 가르침과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그것을 이해한 방식이 매우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과 기독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의 차이는 그들이 제기하는 교육적 질문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 그들이 추구하는 교육목표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되었던 바들을 간단하게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초기 기독교학교의 등장 배경과 기독교적 가르침

구한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학교들이 다수 개교하였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었다.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은 신앙교육을 바탕으로 근대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였다. 1885년 미국 감리회 선교사인 아펜젤러에 의해 배재학당이 설립되었고, 1886년 미국의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에 의해 경신학교가 창설되었다. 같은 1886년 미국의 감리회 선교사 스크랜턴에 의해 첫 여학교인 이화학당이 설립되었다. 반면 우리의 민족지도자들과 토착 교회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기독교학교들도 다수 생겨났다. 이들 학교는 위태롭게 놓여있던 조국에 근대교육과 신앙교육을 통해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갖고 있었다(강영택, 2021a). 이처럼 민족교육을 중시한 기독교학교들 가운데 1906년 안창호가 평남 평양에 설립한 대성학교를 비롯하여 이승훈이 1907년 평북 정주에서 학교설립을 주도했던 오산학교가 있었고, 김약연 등 민족지도자들이 고향을 떠나 북간도 명동촌에서 1909년 설립한 명동학교 등이 대표적인 기독교 민족학교들이다. 이처럼 기독교학교들은 급속히 증가하여 1910년에는 700개가 넘는 기독교학교들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손들을 교육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범주의 기독교학교들에서 보여주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는 서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전자에 속한 즉, 외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들은 근대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학교 채플이나 성경시간에 틈틈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기독교적 가르침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반면 후자에 속한 학교들 즉,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이 세운 기독교학교들은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을 강조했고, 신앙교육이란 학교에서 중요하게 실시했던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강영택, 2021a).

(2) 1990년대 이후 기독교대안학교 운동과 기독교적 가르침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에 부흥했던 기독교학교들은 일제의 핍박으로 축소되어 갔고, 해방 이

후에도 기독교학교의 부흥을 촉진시킬 만한 특별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대안학교운동과 함께 기독교대안학교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을 사유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만든 대안교육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가정과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2010년부터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일반 공립학교는 물론이거니와 신앙을 학교설립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사립미션스쿨에서도 신앙교육에 많은 제약을 가하였다. 이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교육을 학교 채플 시간뿐 아니라 교과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계의 매우 매력적인 사역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런 배경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불기 시작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성경적 관점으로 세계와 교육을 보고자 하는 염원을 기독교대안학교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다. 성경적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한 노력들은 세속적 성공주의에 기반한 공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뿐 아니라 신앙교육을 학교교육의 본질이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는 오랜 전통의 기독교학교- 소위 미션 스쿨-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발흥한 기독교대안학교는 그 말을 구성하는 ‘기독교’, ‘대안’, ‘학교’의 세 요소들 중 특히 ‘기독교’를 강조하면서 기독교대안학교의 의미를 그 이전 미션스쿨과는 달리 해석하였다. 즉, 기존의 기독교학교들은 기독교를 학교나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교육을 기독교 신앙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해했다. 기독교대안학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기독교적 관점이 학교 교육의 전반에 특히 교육과정에 스며드는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임을 자임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강조는 기독교적 관점을 기독교적 삶과 동일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잘 예측하지 못했다.

그런데 기독교대안학교들 가운데는 기독교세계관의 영향보다는 일반 대안학교 운동의 흐름 가운데 등장한 학교들도 있었다. 이런 학교들의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교육문제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다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육적 대안으로 만난 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일어났던 대안학교운동이 발생 배경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획일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입시교육이 주류를 차지했던 공교육에 반발하여 설립된 대안학교들은 자율성, 자발성, 공동체성, 생태적 삶 같은 대안적 가치들을 교육의 모토로 내세웠다. 이 맥락에서 기독교계는 두 가지의 방식으로 반응했다. 먼저는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로 삼은 기독교대안학교들의 등장이었다. 이러한 기독교대안학교들은 그들 학교의 모델로 알려진 풀무학교를 그들이 닮아가야 할 전형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

계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한국교육 전체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대안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은 공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를 ‘교회(당)의 활용’, ‘신앙교육’, ‘전도’, ‘세속으로부터 분리’ 등으로 해석하여 대안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이 학교들은 교회 내의 교인 자녀들에게 세속과 분리된 환경 속에서 신앙과 교과 지식을 함께 가르치고자 했다.

2.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공식적 이해

(1) 기독교사들이 인식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유형

오늘날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이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먼저 기독교적 가르침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독교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유정과 정희정(2020)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가 결합된 Q방법론을 사용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기독교사들의 이해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바 있다. 이 유형화 작업은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성을 보여준다. 그 네 가지 유형화 작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유정·정희정, 2020).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먼저 성경적 관점에서 각 학문을 탐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기독교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유형을 간단히 ‘신앙과 학문의 통합’ 모형, 혹은 ‘기독교적 수업의 재구성’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대안학교운동에 영향을 크게 끼친 개블라인(Gaeblein), 반 브루멜런(Van Brummelen) 그리고 오버만과 존슨(Overman & Johnson)등이 대표적으로 이 유형에 속한 학자들이다. 이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주류적인 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개블라인은 어떤 교과목이든 교과목이 신앙과 통합되는 방식은 신앙으로 충만한 교사를 통해서라고 한다. 즉, 성경말씀이 교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그 교사가 가르치는 교과목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조망에 의해 변화된 지식으로 이들의 내면에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았다(Gaeblein, 이창국 역, 1991). 반 브루멜런(1998)의 통합 모델은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교과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오버만과 존슨(2003)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 수업(BWI) 모델은 교과 내용을 세계관의 기본 구조인 5개 영역(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장유정(2024)의 연구가 이 유형에 기반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신앙과 가르침을 통합하고자 하는 기독교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자료들이 이 유형과 관련하여 소개되었다.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을 기독교적 수업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교육행정, 재정문제, 학생과 교사

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등 모든 교육 활동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이는 기독교적 수업 재구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를 둘러싼 다양한 교육활동들이 기독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 두 번째 유형을 ‘기독교 세계관과 모든 교육활동의 통합’ 유형이라 명명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교사의 기독교적 삶을 통해 학생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입장이다. 즉, 여기서 전제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의 삶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업의 질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관계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결과는 학생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기독교적 삶의 모델링’ 유형이라고 명할 수 있다.

넷째, 기독교적 가르침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가르침을 구분하여 인식하는 방식이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가르치는 일은 교육답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교사가 가르치면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거나 성경말씀을 교과와 연결하려는 시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상이 교과지식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적 가르침

이상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경험하는 기독교사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해보았다. 기독교사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신앙과 교과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지식과 삶의 통합’ 등 통합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통합이란 단어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실천 영역에서 중요하게 언급될 뿐 아니라 이 주제를 탐구하는 학문적, 이론적 영역에서도 핵심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통합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통합이란 단어 앞뒤에 오는 단어들 즉, 학문, 교육, 가르침, 신앙 등이 상호 간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나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과 같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에서 통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교육학자들은 통합의 의미를 신중하게 사용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김세미·김정미, 2025 ; 장유정, 2024 ; Gaebelein, 이창국역, 1993 ; Overman & Johnson, 2003). 장유정(2024)은 통합의 개념과 모형들을 설명하면서 참된 통합이 아닌 경우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자는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통합의 개념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는 반(反)통합적 관점인 분리적 이해이다. 둘째는 통합을 추구하지만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에서 부분적으로만

통합이 일어나는 부분적 이해이다. 셋째는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의 본질에서 통합을 추구하여 그 가능성을 보이는 전면적 통합 이해이다.¹⁾ 이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적 접근이다. 이는 달리 말해 반(反) 통합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세계를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으로 본 전통적 관점에 가깝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 신앙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신앙을 갖게 하거나 신앙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대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회교육과 가정교육 또는 기독교학교교육 등에 주 관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는 기독교교육이 세속 교육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교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Peshkin, 1989).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기독교학교운동의 주류를 차지한 복음주의권 학교나 근본주의권 학교들에서 종종 발견되곤 하였다.

둘째, 부분적 통합 접근이다. 이 접근 방식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다수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칠 교과목 관련 분야의 학문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탐구한 뒤 그것을 기반으로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그 기반이 되는 교육 철학과 전제 그리고 교육 목표 등이 기독교 신앙과 괴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통합교육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으로 교과 지식을 이해하게 하고, 이러한 이해는 비기독교적 관점이 난무하는 이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지식과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이해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그 분야 지식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총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는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접근에 해당하는 예들은 다수 있다. 창조-타락-구속의 개혁주의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육과정의 각 단원을 재구성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브루멜론의 모델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의 다섯 가지 요소들 - 하나님, 창조, 인류, 도덕체계, 목적 등 - 을 통합하여 수업계획안을 설계하도록 돕는 오버만과 존슨의 성경적 세계관 통합(BWI) 수업 모델(Overman & Johnson, 2004) 등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합모형들을 여기서는 전면적 통합모형으로 보기보다는 부분적 통합 모형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사용되는 기독교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주지주의적이고 엘리트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과 관계한다고 할 수 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성향을 갖는 기독교세계관은 가르치는 교과목의 목표나 내용 등을 기독교신앙과 연결시키는데는 기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구체적인 학습경험이나 전인적인 성장과정에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논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유은

1) 본 연구자는 다른 논문에서 통합을 보는 기준을 조금 달리하여 분리적 접근, 피상적 통합 접근, 내면적/본질적 통합 접근과 같이 세 범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강영택, 2020).

회, 2023)

셋째, 전면적 통합 접근이다. 이는 부분적 통합 접근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론적 차원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넘어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실천의 요소들을 강화하여 새로운 통합의 모형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가 제시하는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교수 학습 활동이 학생의 전인적 형성이 되기 위하여 단지 기독교세계관이나 그 세계관으로 해석된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넘어 사회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활동의 의미를 규정하는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를 형성하여 그 속에서 생활하게 할 때 비로소 학생은 그 가르침을 부분이 아닌, 총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이다(유은희, 2023). 역사적으로 중세시대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은 대학에 속한 공동학습회관인 페다고지움(Pedagogyum)에서 교수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 당시에는 페다고지를 오늘날과 같이 가르치는 방법이나 기술, 교수활동의 체계적인 단계로 보기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한동안 살아가고 배우는 보금자리로서의 집이나 가정을 만들어 가고,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다(Smith, 유은희 역, 2024).

III.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

1.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는 질적연구의 대표적인 한 방법론으로 문화인류학자들의 낯선 세계에 대한 탐구를 그 기원으로 삼고 있어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는 문화기술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지역 혹은 집단의 문화를 탐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는 독립된 방법론이기도 하다.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개념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복합어를 구성하는 세 어근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된다. 먼저, ‘자전적(自傳的, auto)’에 있는 초점은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고, ‘문화(ethno)’에 있는 초점은 문화적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지(graphy)’에 있는 초점은 개인적, 문화적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의미들을 종합하여 체계화하면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개념이 완성된다. 그래서 자전적 문화기술지를 정의한다면 연구자를 둘러싼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상황 속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을 성찰하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인 것이다(Mao et al., 2023).

배은주(2008)는 질적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를 밝히는 글에서 질적 연구의 최근 동향으로

‘자전적, 참여적, 연행적, 심미적’ 등 네 가지 특징들을 제시했다. 이들 중에 특히 ‘자전적’ 특징을 중요하게 보았다. 과거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 가서 낯선 타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타자(세계)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우리 가까이 섞여 살아가고 있음을 본다. 이는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연구자와 연구 대상 혹은 연구참여자가 함께 상호협력을 하는 가운데 연구가 수행된다. 연구란 과거에는 연구 대상인 타자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연구를 통해 타자를 포함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전적 성격을 가진 연구방법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오늘날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인 부단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형성해 가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어울려 되어가는(becoming together)’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고 있다(배은주, 2008).

자전적 문화기술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글을 쓰는 작업은 문화기술지와 자서전적 방법을 결합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방법은 문화기술지의 특성인 자기 자신의 세계를 초월하여 외부 세계를 보게 하는 동시에 자서전적 방법의 특징인 자기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의도를 가질 것이다(Mao et al., 2023). 즉,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이나 사건을 사적이고 감성적인 글쓰기 방식을 통해 제시하지만 개인의 삶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이는 개인의 주관성이 선천적으로 주어졌다고 보다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은 결과라 보는 입장에서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분석하면서도 개인적 차원을 넘어 그것을 배태한 사회문화적 측면들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과 그 유형에 대해 기독교사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통적인 연구방법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을 연구 주체와 분리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 말의 개념, 역사, 기독교교육적 상황과 공교육적 상황에서 이해와 시행의 차이 등 중요한 점들을 밝혀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에 따른 이해는 개념적이고 인지적인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들이 마주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지,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본 연구와 같이 자전적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실천되었는지, 그것이 한 집단에서의 상호작용과는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이러한 탐구과정은 연구자 자신의 내적 성찰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지 등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연구의 초점을 기존의 축적된 학문체계로부터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

로 옮기고자 한다.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현상의 다층적 의미를 새롭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들을 회상하여 기술하고 이를 과거에 썼던 글들과 함께 시기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들을 분석하여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적 가르침을 삶의 중요한 주제로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 기독교인 교육(학)자가 머리와 가슴과 손발로 추구하면서 깨달은 바들을 토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심화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전적 문화기술지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면에서는 매우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성향을 갖지만 동시에 연구자 개인의 경험들이 당시 사회적, 시대적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래서 이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독교적 가르침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규명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2. 자료의 수집과 분석

질적연구에서 자료수집과 분석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자전적 문화기술지의 자료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를 거치는 것이 선호되는 한 방식이다(Ellis et al., 2011). 즉, (1) 과거를 연대기화 함, (2) 자기자신의 목록을 수집함, (3) 자기를 시각화 함, (4) 자기 관찰을 수행함, (5) 자기성찰적 자료를 편집함 등이다.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을 위에 제시한 다섯 가지 단계를 고려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되는 자료 가운데는 연구자의 생각을 진술한 글들이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먼저 연구자의 경험과 글들을 연대기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자의 생애를 몇 가지 시기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시기에 써서 발표한 글들과 그 시기에 경험한 삶의 스토리들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자의 생애 시기를 구분할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된 사건은 인생 중년에 있었던 미국 유학이었다. 그래서 유학 시기를 중간에 두고 유학 전 교사로서의 활동 시기와 유학 후 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학자로서의 활동 시기를 들여다보니 전반기에는 기독교교육적 이슈에 주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였고, 후반기에는 교육학적 주제에 대한 글을 주로 썼음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학 전 교사로서 활동 시기(1989-1999): 기독교적 가르침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형성 시기

둘째,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1999-2006): ‘기독교적’과 ‘가르침’의 다양한 의미 탐색 시기

셋째, 귀국 후 기독교교육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하던 시기(2006-2017):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탐색한 시기.

넷째, 교육학자로서의 활동 시기(2017-2026 현재): 기독교적 가르침이 갖는 의미의 외연 확대와 개념의 심화 시기.

다음 <Table 1>은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 관련 글들을 생애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연구자의 글은 논문, 저술, 잡지 기고 원고, 강연 원고, 일기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이 글들에 대한 분석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천 혹은 심화되어 왔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 그리고 이 글들에 나타나는 연구자의 생각과 생각의 변화들이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들과 어떻게 어울리며 상호작용 해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 The list of the researcher's writings on Christian teaching issues>

연구자 생애 시기	글과 책 제목	글의 종류 및 출판사	기독교적 가르침 관련 내용
1. 고교 교사 시기 (1989-1999)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풀무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기독교적 학교운영을 위해서는 교육 주체들 중 하나인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
	-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와 과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 (1999)	-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개혁의 방향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학교가 운영되는 기독교학교를 추구함.
	-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예영출판사 (1999)	기독교세계관에 터한 교육과정, 교수방법, 교육행정, 교사양성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을 추구
2. 미국 유학 시기 (1999-2006)	- A comparative study of Fundamentalist and Reformed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Calvin Seminary에서의 석사논문을 보완)	<i>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i>	- 미국의 기독교학교는 그 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의 성격을 가진다. 학교가 처한 상황이 어떤 그룹의 사람들에게 불의하게 작용한다면 교육은 그것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 Leadership to build a democratic community within school (MSU에서의 박사논문 보완)	<i>Asia Pacific Education Review</i>	-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라도 그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공동체적 문화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귀국 후 기독교교육 학자로서 활동 시기 (2006-2016)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	2008년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강연 원고	-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기독교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교육의 내용, 방법, 목적, 교육의 주체 등의 영역에서 일반 교육학과는 다른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지지 되는 새로운 관점의 교육학을 제시함.
	- 교육 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	신앙과학문 (2008)	- 수월성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수월성이 개인적인 경쟁력을 뛰어넘게 하기보다는 사회적 수월성을 강조함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의 병폐를 극복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형성된다.
	- 살롬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논총 (2008)	- 기독교적 가르침이 종교적인 성격을 넘어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이 논문은 보여준다.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학문 (2015)	- 기독교교육은 살롬을 위한 교육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쁨과 책임을 갖게 한다.
4. 교육학자로서의 활동시기 (2017-2025 현재)	청소년들이 경험한 씬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교육 (2021b)	्ष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ष을 통하여 우리는 지식의 근원적 바탕과 추구하는 목표를 성찰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2022)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에서 연구자는 오늘날 중요한 교육적 이슈인 마을교육공동체의 뿌리로서 일제강점기하의 오산학교와 명동학교를 꼽는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모두 기독교적 가르침을 중요한 학교의 특징으로 삼는 학교였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까지 영향을 주어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어나가는 것이다.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살림터 (2024)	-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의 머릿말에는 연구자가 대학 졸업 이후 걸어온 삶의 여정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진실과 아름다움을 교육자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밝히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신앙과 삶 (2023)	-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가지일 수 있다. 기독교수로서는 무엇보다 환대의 정신으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교육의 미래 3: 미래교육의 길목에서: 탈학습	교육 비전 (2025)	- 미래로 가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비판적 성찰을 통해 탈학습할 것이 무엇인지 숙고가 필요함. '기독교적'을 종파적, 분리적, 개체적으로 오해한 측면이 많았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로부터 탈학습할 것을 기대함.

3. 연구자의 경험과 삶의 스토리와 작성한 글들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한 생각을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경험은 상당히 길고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났고, 그 시공간은 문화적으로 다양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덧붙여 경험에 중요하게 작용한 요인은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이었다. 입시교육의 한 중앙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친 서울의 공교육 국어교사에서 기독교교육의 전통이 오래된 지역에서 미국의 신학대학원 학생으로 그리고 동시에 개혁주의 전통의 기독교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모로서 역할을 하였다. 귀국 후에는 기독교(대안)학교의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한국의 상이한 유형의 기독교학교에 자녀들을 보낸 학부모로 그리고 일반 대학의 교수로서 그 역할이 매우 다양하였고, 이 위치성이 실제 한 사람의 경험과 그 해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제 생애 시기별로 연구자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것이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 왔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유학 전 교사로서 활동 시기: 1989-1999

연구자는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의 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용어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 학교가 기독교학교는 아니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적극적이어서 신우회 모임을 결성하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성경공부도 하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 대학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다. 이것이 당시 많은 기독교사들이 지향했던 (기독교적) 가르침이었다. 연구자 역시 이런 형태의 삶을 살면서도 당시 편만하던 입시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보다 바람직한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학원을 다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내 신우회 모임과 동시에 학교 밖 기독교사운동단체인 기독교사회(TCF)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다. 대학원에서는 교육학을 공부하며 입시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효시라 할 수 있는 풀무학교의 다양한 교육 주체들에 대해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되었다. 대학원을 마치고도 진정한 교육에 대한 열망은 계속 되어 근무하던 학교 내에서 7-8명의 교사들과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한 공부모임을 결성하여 꾸준히 공부를 하였다.

교직 초기부터 참여했던 기독교사회에서는 성경공부를 통해 기독교인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했다. 그 모임에서는 기독교사로의 부르심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의 부르심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2년에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ACTS) 산하에 기독교교육원이라는 작은 교육연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에서 실시한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993년과 1994년에 기독교사회 주최로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4일에 걸쳐 '겨울실험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학교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실제 교육활동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던 실험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 모임을 주도했던 연구자는 그 학교의 목적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모든 삶과 학문의 주인됨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강영택, 1999: 224). 1990년대 후반에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연구 모임의 수련회에 참석하여 그린(Albert Green) 박사과 브루멜렌(Van Brummelen) 교수의 글들을 읽으며 기독교적 교육의 개념을 보다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하며 그 모든 영역의 교육은 성경적 관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신앙을 가진 기독교사로서 올바르게 좋은 교육을 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당시 연구자의 마음에 있었던 주된 정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파행적 입시교육으로 인한 낙담과 비애감이었다. 어느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자율학습 -사실은 반 강제적인- 감독을 마치고 밤 10시가 훨씬 넘은 시간 집으로 가다 혹시나 해서 우리 학급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동네 사설 독서실에 잠시 차를 멈추었다. 목직한 독서실 문을 열자 뻘뻘이 앓아 공부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열기가 훅하고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수업 후 연이어 학교 '자율학습' 까지 했는데 아이들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독서실에 온 것이다. 그들의 독서실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소설책도, 연애편지에 인용할 시집도, 철학책도 아니었다. 오직 시험을 위해 존재하는 참고서와 문제집들이었다.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기독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과연 교육이라 할 수 있는가? 이처럼 아슬아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날 이후 이런 고민들은 더욱 깊어져 갔다. 이 당시 많은 번민과 방황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교육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실천을 계속한다면 그 바탕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땅의 아이들이 겪고 흘린 고통과 눈물이 있었음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유학 전 교사로 근무할 때 썼던 글 가운데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된 대표적인 글은 세 편으로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이 첫 번째요, 1998년 제1회 기독교사대회 강연원고들을 보완하여 1999년 출판한『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에 실린 기독교학교에 대한 글이 두 번째요, 아시아연합신학대학(ACTS)의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독교학교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해 온 교사와 교수들이 함

게 제작한 기독교학교에 대한 단행본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학교』를 출간했을 때 그 한 장의 글이 연구자의 세 번째 글이다. 석사논문에서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설립, 운영되는 풀무학교의 다양한 운영 주체들 가운데 학부모의 교육참여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단행본에 포함된 두 편의 글은 당시 공교육의 난맥을 극복하고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당대 교육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던 무신론과 휴머니즘을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교육은 무신론적 입장을 넘어 교육의 토대를 성경으로부터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강영택, 1999: 236-238). 그래서 교육을 새롭게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유신론적 관점에 근거한 기독교학교를 세워 학교교육의 모델링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이처럼 첫째 시기에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는 당시 우리나라에 막 소개된, 학교교육의 전 활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행한다는 기독교학교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하게 표출되어 치밀하게 질문해야 할 바들이 그저 스쳐 지나쳐 버린 면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이 시기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는 표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땅의 청소년들을 피폐한 상태로 몰고간 입시교육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은 치열하고 날카로웠다. 반면에 이러한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기독교학교 모델은 서구세계로부터 소개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사유가 부족한 상태였다.

(2)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 1999-2006

38세라는 중년의 나이에 안정된 직장에 사표를 내고 가족 모두를 데리고 낯선 땅 미국에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를 넘어 미국으로 가게 만든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첫째는 당시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큰 변화가 없지만, 입시교육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여 연구자 개인의 능력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에 가깝다는 패배의식이 작용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교육개혁의 한 모델이 되리라 기대했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은 열망이었다. 한국에서 소문과 책으로만 알던 이들 학교와 교육에서 한국 교육의 형클어진 혼란스러움을 풀 수 있는 매듭을 찾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가 두 번째 석사과정 공부를 위해 미국에서 선택한 학교는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시(Grand Rapids)에 있는 칼빈신학대학원(Calvin Theological Seminary)이었다. 기독교적 교육과 기독교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진 화란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19세기 중반 이후 가난과 신앙의 핍박을 피해 미

국으로 이주하여 몇 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미시간주의 그랜드 래피즈이고 이곳에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천하는데 토대가 되는 신학적, 철학적, 교육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칼빈신학대학원과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가 있었다, 이뿐 아니라 개혁주의 교단(Christian Reformed Church) 본부와 기독교학교 연합회 성격의 국제기독교학교(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 본부, 개혁주의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판매하는 출판사들도 그 도시에 있어 그곳에 가면 한국에서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은근히 작용하였다.

연구자가 유학 첫 공부를 위해 선택한 칼빈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 전공 석사과정(MA)은 연구자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 토대와 기독교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함께 공부하기에 적절한 과정이었다. 그곳에서 중요하게 배운 바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교육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가정의 영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우리는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치 원리를 찾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배웠다. 석사논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와 국가를 보는 기독교적 관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주의 기독교의 관점으로 씌어진 기독교학교의 사회교과서와 근본주의 기독교의 관점으로 씌어진 사회교과서를 비교하면서 이 두 기독교 공동체들이 사회와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하여 기독교적 가르침이 하나로 존재하기보다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은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랜드 래피즈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 집 아이 둘이 기독교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우리가 출석한 미국개혁교회의 재정적 도움으로 다니게 된 기독교학교는 그 사역을 학교만의 과업으로 보지 않고 교단 전 공동체의 사역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정, 교회,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가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개혁교회(CRC)라는 교단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고백하는 언약신앙의 토대 위에 현실세계의 형성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하나님나라 백성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보호자인 부모, 학교교직원, 기독교학교 교육구의 교육위원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생각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자가 학부모로서 경험한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징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과 학교를 운영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점이었다. 영어를 하나도 못 한 채 유치원과 초등 1학년으로 들어간 우리 집 아이들은 언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서도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했다.

3년 동안의 그랜드래피즈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같은 미시간주의 이스트랜싱(East Lansing)에 위

치한 미시간주립대학교(MSU)의 교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다. 유학을 때 처음 생각했던 2-3년의 시간은 유학의 목표였던 ‘입시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 교육’ 탐색을 하기에는 턱없이 짧다는 것을 알았다. 그 목표 중 이제 겨우 ‘기독교적’이란 말의 의미와 실체를 조금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 과제는 가르침 혹은 교육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많은 과제로 쫓기듯이 공부하느라 처음 가졌던 문제의식이 조금 흐려진 면이 있지만 박사과정에서 중요하게 배운 바는 분명했다. 그것은 교육이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교육은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반면 공동체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과 공동체는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공동체로서의 학교교육’과 ‘학교와 공동체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라는 두 주제는 앞으로 계속 탐구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생각은 먼저 연구자의 박사논문으로 표출되었다. 그 논문제목은 ‘학교에서 진정한 공동체 세우기: 한국의 두 고등학교의 사례연구 (Building authentic community within schools: Case study on two Korean high schools)’였다. 7년이라는 유학생생활을 통해 ‘기독교적’의 다양한 의미와 ‘가르침’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했다.

미국 유학 시기 중 전반기 칼빈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기독교적?’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고, 후반기 미시간주립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가르침?”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다. 그 공부의 결과는 각 학위논문으로 표출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앞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이 기독교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기독교학교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점은 ‘기독교적’이란 말 속에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의미들이 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교육 출판사 두 곳에서 발간한 기독교학교 사회교재들을 비교 분석한 석사논문에서 그 책들은 사회와 윤리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독교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적 가치규범과 윤리가 비교적 잘 지켜지던 미국사회에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기독교적 규범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을 들어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반면,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미국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므로 특정 부류의 사람만이 아닌 누구든지 와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강영택, 2007). 이처럼 ‘기독교적’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기독교적 가르침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박사논문을 쓰면서 배운 점은 ‘가르침’ 혹은 교육이란 것이 학교의 설립이념이나 공식 문서에 나와 있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잘 실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를 민주적 공동체로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지만

평소 교사들이 교사 상호간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민주적이고 친근하게 소통을 하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강영택, 2008). 기독교적 가르침은 형식화되고 제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가르침이 자연스러운 문화의 옷을 입고 그 학교에 자리 잡을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에서의 유학 시기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해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천의 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큰 깨달음이지만 ‘기독교적’이란 말에 대한 다양한 이해 방식 가운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는 다시금 세심하고도 심각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일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은 그랜드래피즈 기독교학교에서 발견한 교육의 실제 모습이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교육과정이나 교재와 같이 문서나 사물과 같은 형태 속에 존재하기보다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환대와 배려의 마음과 태도가 만들어 내는 따뜻한 공동체적 분위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3) 귀국 후 기독교교육학자로서 활동 시기: 2006-2016

2006년 귀국 후 두 곳의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두 곳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시기는 (기독교)대안학교가 성장하던 때였는데 교회, 학부모, 교사, 학자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상호협력과 연대로 기독교교육의 성장의 토대를 이루었음을 본 연구자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기독교대안학교들에서 실천되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개별 학교나 교사들이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는 수준의 교육인 경우가 많아서 종종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대안학교들의 교육성고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었다(강영택, 2012).

당시 연구자가 한 대학원에서 했던 수업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방학을 맞아 각 지역에서 올라 온 원생들 -대부분 기독교인 공교육 교사이거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들임-은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두 주간을 꼬박 수업에 참여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과 교수는 원으로 둘러앉아 교수가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한 뒤 그 이론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하여 질문들을 제기하였고, 그 질문에 대한 토의가 수업의 주 내용을 이루었다. 아침 9시에 시작한 수업이 저녁 6시경 마치면 학생들은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방에 모여 토의를 이어갔다. 수업을 이끄는 교수나 함께 했던 원생들은 모두 수업에 몰입되어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때의 교실은 말 그대로 ‘배움의 공동체’였다. 수업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난 후 만난 대안학교 교장이었던 한 원생으로부터 그때의 그 수업시간들은 마치 경건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시

간 같았다는 말을 들었다. 강의를 제공했던 연구자 본인도 그 당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을 기억한다. 이를 통해 배우는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우수한 교사 일인이 만들어 가는 개인적 활동이 아니라 교수자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많은 요소들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공동체적 작업이란 사실이었다. 즉,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 학생, 학습 주제, 교실 공간의 구조, 분위기 등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²

이 시기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동시에 부정적인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들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연구자가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한국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귀국한 뒤 한국의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 1년 동안은 생각보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 주었다. 진학할 고등학교를 찾다가 거주지와 다른 도시에 있지만 같은 도에 속한 지역에 있는 한 기독교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그 학교는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교사가 기독교인이며 학교 채플을 통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의해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했다는 소문이 있는 인기 있는 학교였다. 그러나 아들은 그의 시각에서 경험한 학교의 권위주의 교육풍토, 융통성 없는 관료적 문화, 무조건 교재의 내용을 외우도록 요구하는 수업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아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실천되는 교실로부터 도피하였고, 나중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홀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다수에게 유익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소수의 학생 혹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 가르침을 과연 기독교적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다. 함께 공부하는 그룹에서 가장 적응하지 못하는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떠한지 하는 것이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는 내면적 아픔을 심하게 겪어 미국의 대학에 진학한 후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학교에서 시행한 소위 ‘기독교적 가르침’이 아이에게 맞지 않아 아이를 힘들게 한 것처럼 집에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이의 아빠인 본 연구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교육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서 아이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화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들이 변하여서 아빠를 따라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규범, 가치,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2) 이런 배움의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때를 회고해 보면 당시 수업 기간 중 발생했던 아프칸 한인 피랍사건이며 선생과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자녀교육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며 위로했던 따뜻한 분위기는 분명 성령의 임재 때문이었음을 믿는다. 그러나 성령을 교육의 요인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학과 기독교교육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교육학적 연구로서의 본 논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각주에서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 비용을 지불한 셈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기독교교육에 대해 연구를 했고 글들을 썼다. 귀국 직후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컨퍼런스에서 연구자는 바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하였다. 연구자가 정한 부제는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 강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네 가지의 교육적 질문 - What?(교육내용), How?(교수방법), Why?(교육목적), Who?(교사론)-에 대한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생각을 전개하였다 (강영택, 2008: 5-12).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기독교학자들이 종종 취하는 관점인 ‘관계적 존재론’과 ‘인격적(personal) 지식론’ 혹은 ‘대화로서의 교육’ 등을 토대로 교육활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래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인식 주체와 대상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할 때 또는 유기적 공동체를 형성할 때, 그래서 상호간에 참된 대화가 일어날 때 배움이 활성화 된다고 보았다. 이런 대화적 관계 가운데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헌신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에는 인격적 교류를 통한 기쁨과 헌신이 필수적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가르침과 배움을 기쁨과 헌신에 연관시키는 것은 개혁주의 철학자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분석하면서 체계화시킨 생각이었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 ‘살림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보다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평화, 정의, 기쁨과 감사가 토대가 되는 살림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살림을 지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활동이 된다. 앞에서 언급한 대학원 수업에서 연구자가 경험한 것도 일종의 살림 공동체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즈음에 발표한 논문 ‘교육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은 우리 사회의 큰 병폐인 능력주의(meritocracy)와 결합하여 단순히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수한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비교육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의 근원을 탐구하였다. 사회적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다양한 수월성 등 수월성의 개념을 넓게 생각한다면 경쟁을 조장하는 학교의 문화가 조금은 덜 삭막하게 될 것이다.

이 시기에 연구자가 경험한 삶과 작성한 글들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이론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어야 됨을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함께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따뜻하게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배울 수 있었다.

(4) 교육학자로서 활동 시기: 2017-2026 현재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한 교육의 발전을 주제로 하는 『마을을 품은 학교공동체』가 책으로 출판된 것이 2017년 이었다. 사실 이 주제는 한국에서 쓴 석사논문과도 관계있고, 미국 유학기간 동안 가장 흥미있게 공부한 분야이기도 하였다. 이 주제가 본 연구자의 마음 속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동안 기독교학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 미뤄두고 있었다. 책을 저술하던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낯선 명칭으로 이 주제가 봄을 타고 전국의 대부분 교육청의 중심 정책과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책이 출판되고 나서 연구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이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역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마을교육공동체의 역사 탐구에 대한 책을 출판하였다. 이처럼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쉼과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시와 예술과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논문과 책을 저술하였다. 마을교육공동체, 쉼과 교육, 시와 교육 등은 연구자가 갖는 관심사의 주요 주제들이다. 이러한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연구와 글쓰기는 이전에 연구자가 오랫동안 해 왔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즉, 마을교육공동체, 쉼, 시와 아름다움 등에 대한 사유와 글쓰기로부터 기독교적 가르침이 가져야 할 중요한 점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는 안식 혹은 쉼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시가 추구하는 진실과 아름다움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견지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임을 인생과 교육을 알아갈수록 더욱 깨닫게 되는 것 같다.

본 연구자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초기부터 연구자의 문제의식에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육문제를 삶의 참 진리 되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교육(학)계 일부에서 현대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할 대안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제시할 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주제에 대한 연구와 실천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와 가정, 지역공동체의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삼는 이 운동이 현대의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도 있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주체가 신앙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했던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교회와 학교였다는 사실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학교나 교회의 차원을 넘어 사회와 국가의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하는 당위성과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강영택, 2022).

2010년대 후반부터 연구자가 재직하던 대학에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이 석박사 과정으로 대거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중국인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 당시 한국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가르치는 일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었다. 학위를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해 여기로 온 이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공부에 열심이었고, 교수에 대한 존경의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나 대학 당국이 유학생 유치에 열을 내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인 목적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계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선교적 차원에서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신앙을 갖지 않은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같은 질문들을 떠올리곤 했다. 한 기독교 매거진에 투고한 글에서 본인은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환대’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심지어 선교라는 정당한 활동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환대와 돌봄(care)이 우선되어야 한다. 환대는 방문객의 수용 여부를 나의 기준이나 뜻에 의하지 않고 그 방문객의 뜻을 존중하여 타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돌봄은 환대한 타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타자가 필요로 하는 바에 적절한 반응(response)을 보임으로 책임있는(reponsible) 관계망을 형성하여 타자의 안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대하는 자세는 그들이 외국인인지 혹은 기독교인인지 등은 하등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고려할 점은 그들이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인지 하는 여부이다.

교실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선생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멀리 바다를 건너 온 유학생들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최선을 다해 정성껏 가르치고 평소에도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은 소통이 있는 배움의 공간/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공간에서의 배움의 경험은 분명 이전에 그들 나라에서는 겪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즉 교실이 인격적 교류를 바탕으로 기쁨과 헌신을 배우는 장으로 작용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기독교인 교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어찌 기독교적 가르침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시기에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쓴 중요한 글과 책에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쉼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 연구’,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등이 있다. 쉼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글에서 쉼은 배움 혹은 교육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요 배움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금 정립하게 하는 순간이 된다고 했다(강영택, 2021b). 이와 더불어 쉼은 그 본질적 활동인 사색과 관조(contemplation)를 통해 공부란 활동에서 얻기 어려운 사물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얻기도 한다. 즉, 쉼은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신의 은총으로서의 지식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쉼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가장 중심 자리에 놓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어떤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준다. 연구자가 사례로 들고 있는 명동마을과 명동학교는 오늘날 소개되고 강조되는 마

을교육공동체와 닮은 데가 많아 이 학교를 우리나라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요한 뿌리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을의 화목하고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같은 풍부한 시적 감수성과 뜨거운 민족정신으로 삶을 살았던 청년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토양이 되었다. 다시 말해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사와 학생 같은 개인적 관계나 교사와 다수 학생 사이와 같은 교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보다 넓게 학생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 현장까지 확대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을 혹은 지역사회 전체가 기독교적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쓴 가장 최근 책인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은 연구자의 현재 생각들이 압축적으로 담겨있어 지금 연구자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교육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라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 책에서 ‘시(詩)적 교육론’을 제시하는데 이는 시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낯선 진실을 발견하게 하고 상투성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끼도록 하듯이 교육 역시 시와 같이 진실(眞)과 아름다움(美)을 추구하는 활동임을 보여준다. 즉, 참된 교육은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도 그 속에서 기쁨과 헌신을 배울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진실과 아름다움을 경험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IV. 기독교적 가르침: 이해의 확산과 심화

1.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변화와 영향요인

앞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탐구와 연구자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인생을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겪은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였고 동시에 연구자가 각 시기에 쓴 글들을 근거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제시하였다.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변화를 일으킨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의 문제들이 연구자의 경험과 글을 기술한 앞 장에 군데군데 얽혀있다. 그 인식의 변화 내용과 그 변화의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여 생애 시기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hanges in Researcher's Understanding of Christian Teachings and Influencing Factors Across His Life Stages>

생애 시기	핵심 키워드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변화 (What & How)	영향 요인 (Why)
1. 고교 교사 시기 (1989~1999)	성경적 원리, 기독교세계관, 기독교학교	[제도적 대안으로서의 기독교학교 모델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신앙적 열심을 다해 입시 성적을 잘 내고 성경공부를 하는 것. • 후기: 무신론적 입시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에 토대를 둔 대안적 '기독교학교' 설립의 필요. 	[파행적 입시교육의 병폐와 교사로서의 무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교육 인문계고 국어교사로서 강제적 자율학습과 독서실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 • 서구의 기독교학교 이론 접촉 및 기독교사운동 참여와 대안교육 공부 모임 주도.
2. 미국 유학 시기 (1999~2006)	한대와 배려의 문화, 민주적 공동체, 공동체적 문화	['기독교적'의 복수성 인식 및 '문화/한대'로서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적'이라는 의미가 신학적 전통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함을 깨달음. •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완벽한 교재나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교사의 '한대와 배려'가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적 문화에 있음을 인식. • 교육과 (지역)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함을 배움. 	[기독교학교 학부모로서의 경험과 다양한 학문적/문화적 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미시간주(칼빈신학대학원, 미시간주립대)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및 최신 교육학이론 심층 연구. • 학부모로서 자녀를 미국 기독교학교에 보내며, 아이들이 특별한 교재가 아닌 '교사의 친절과 배려'로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을 직접 목격.
3. 귀국 후 기독교 교육학자 활동 시기 (2006~2016)	새로운 교육학, 사회적 수월성, 공공성, 살롬	['기쁨과 헌신, 살롬'을 위한 배움의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주체와 대상이 인격적으로 교류하며 '기쁨과 헌신'을 누리는 대화적 교육. • 평화, 정의, 감사가 토대가 되는 '살롬'을 경험하는 과정. • 우수한 교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적 작업'이며, 능력주의를 넘어서는 '사회적 수월성' 추구. 	[배움의 공동체 경험과 자녀의 부적응(상처)으로 인한 성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 후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의 성장기 목격 • 대학원 수업에서 '예배와 같은 배움의 공동체' 긍정적 경험. • 아들이 한국의 억압적이고 관료적인 고등학교에서 큰 상처를 받고 부적응한 경험.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적 규범도 인간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성찰.

<p>4. 교육학자로서의 활동 시기: (2017~2026 현재)</p>	<p>쉼과 성찰, 마을공동체, 환대, 탈학습</p>	<p>[마을로의 확장, 쉼과 시적(미적) 진실의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르침의 영역이 학교를 넘어 마을/지역사회로 확장. • 기독교적 가르침의 핵심 요소로 피조물의 한계를 깨닫는 쉼(안식)과 진실-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詩)적 요소 포함. • 분리적/종파적 기독교 이해에서 벗어나는 '탈학습' 강조 및 환대와 돌봄(Care) 추구. 	<p>[시대적 교육 정책 변화 및 비기독교인 타자와의 조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의 전국적 확산 및 오산/명동학교 등 기독교 마을공동체의 역사적 뿌리 연구. • 비기독교인 중국인 유학생들을 다수 가르치게 되면서 선교의 도구가 아닌 연약한 타자로서 그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실존적 고민 발생. • 쉼, 안식, 시(문학) 등 삶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성찰 심화.
---	------------------------------	---	--

이 글에 나타난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음을 볼 수 있다. 1기에서 연구자는 입시교육의 비교육적 제도화에 반대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을 찾던 중 서구에서 발생한 기독교학교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서구의 기독교학교들처럼 교육에 대한 성경적 원리 혹은 기독교세계관을 탐구하여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 행정 등 학교교육의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2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학교의 실체를 공부하고 학부모로서 경험하면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학교 정관이나 교재 등과 같은 문서에 나타나기보다는 학생들과 늘 함께 하는 교직원들의 환대와 배려의 문화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신앙공동체 가운데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3기에서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이론과 실천 그리고 학문과 실제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하며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알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학습공간을 구성하는 교사, 학생, 학습주제, 교실공간 등이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학습공간이 살림이 넘치는 공동체, 달리 말하면 정의와 평화와 감사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4기에서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일어나는 교육공간이 기독교학교의 교실에서 확장되어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로 이어진다. 이와 함께 가르침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전에는 신앙을 가진 혹은 신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가르침의 주 대상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타자 혹은 방문객들이 가르침을 받는 자리를 채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의 결과일 수도 있고, 외부 상황 변화의 결과일 수도 있다.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든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이러한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특정 종파성을 벗어나 인간의 보편적 영성과 가치와 윤리를 가르친다. 외국 유학생들이 한

국 대학을 많이 찾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교사에 의해 환대와 돌봄의 정신이 가득한 교실을 형성한다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는 그의 저서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에서 제시한 아름다움과 진실의 추구로서의 시(詩)적 교육은 그 자체로 기독교적 가르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와 생각이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는 연구자의 위치성(positionality)이 교사, 유학생, 학부모, 대학교수 등으로 달라졌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실존적 경험들과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일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자 개인의 내면적 변화는 연구자가 살았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의 폭이 넓어져 간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의 깊이가 심화해 간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고 심화된 연유를 연구자와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기서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얻게 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성과 핵심적 요인들을 기존의 논의와 비교하면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역설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본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 찾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과 이해 방식이 하나가 아닌 다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다수로 존재하는 특성들 가운데는 서로 유사한 것들도 있지만 상반되게 보이는 것들도 다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분명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를 넘어서는 것들도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적 가르침을 설명할 때 역설(paradox)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역설은 기독교의 진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방식인 듯하다(Palmer, 이종태 역, 2006). 역설은 기독교교육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역설적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보편적 특성을 띠면서 동시에 지역성 내지 상황적 특수성을 가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필수적인 요소로 등장하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이나 신앙과 학문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의 말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사용하는 지역에 관계 없이 어디서나 유사하게 일반화되는 방식으로 이해되곤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논의할 때 종종 미국이나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 형성되고 발달한 개념을 알기 위해 그 나라들에서 출

판된 책들을 참조하곤 한다. 그러나 교육은 그것이 행해지는 곳과 때의 문화적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기독교학교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기독교적 가르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생겨난 기독교대안학교에서 추구하는 기독교적 가르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일제강점기 기독교적 가르침은 근대문명의 수용과 민족의 자주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반면 2000년대 들어서 활발해진 기독교대안학교에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은 인성교육을 압살하는 과도한 입시 경쟁교육의 극복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기에 미국 그랜드래피즈에서 경험한 기독교적 가르침과 한국의 기독교학교에서 경험한 것의 현격한 차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시행되는 학교와 그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교육과 신앙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부터 연유하는 바가 다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가르침의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의 보편적인 성격을 탐구하는 동시에 오늘날 이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자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전통적으로 학문적 논의를 통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해를 얻고자 강구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져왔고, 통합에서도 부분적 통합 보다는 전면적 통합이 보다 바람직한 개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의 참된 의미를 논함에 있어 보편적 개념에 대한 탐구와 함께 그 교육이 실시되는 지역의 특성(locality)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시되고 있다(OECD, 2019). 이와 함께 AI의 대중화와 기후 위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대적 이슈들도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들이다. 즉, 현시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기독교적 가르침 논의에 포함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탐구해 온 보편적인 지식을 중요시하면서 시대적 특성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역성과 AI와 기후 문제 같은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긴장과 갈등 가운데 머물지 않고 역설적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종교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중시한다. 기독교학교는 그 설립 목표부터 기독교 신앙과 관계한다. 신앙이 없는 학생들에게 신앙을 갖도록 안내하며 이미 신앙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보편적인 과업이다. 즉, 종교적 목적과 성격은 기독교학교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 종교성이 배타적인 종파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기독교학교도 학교의 한 유형이라는 사실이다. 즉, 학교는 유형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교육활동에서 학생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학생을 대상화하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한국 학생들 뿐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멀리 해외로부터 공부를 위해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을 대학이 직면한 재정문제의 해

결 수단으로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비성경적인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경향으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소중한 방문객으로 환대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반이 될 것이다. 기독교세계관이 강조되고 기독교적 학문과 문화가 중요하게 논의되던 때 경건한 종교성이 건강한 공공성의 토대가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종교성은 결코 공공성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독교교육 안팎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회를 살림의 공동체 즉, 보다 정의롭고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삶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Wolterstorff, 2003). 우리는 일제강점기 동안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민족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신앙과 공공성이 대립하기보다는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기독교적 가르침의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셋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이론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실천을 강조한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론화 작업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왔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기반이 되는 기독교세계관에 터한 학문의 검토와 해석 등의 활동이 기독교학자들에 의해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져왔다.³ 기독교세계관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학문과 신앙의 통합, 신앙과 통합된 가르침 등의 주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론화 작업을 체계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이 이론화 작업이 오히려 기독교적 가르침을 교수 학습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유은희, 2023).

기독교 신앙을 세계 회피적 종교로 보지 않고 세계 형성적 종교로 보는 기독교학자는 학문에 임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실천을 중요시하게 된다(Wolterstorff, 2003). 월터스토프에 따르면 기독교교육은 이 땅에 살림을 실현해가는 활동으로 보았다 그는 철학이나 교육학과 같은 학문을 할 때 이론화 작업이 실천활동과 상반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실천지향적 이론화 작업’이 그리스도인 학자들의 사명이라고 하였다 (Wolterstorff, 홍병룡 역, 1983) 월터스토프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함께 이어받고 있는 데이빗 스미스(Smith, 유은희 역, 2024)는 기독교적 실천을 위한 기독교적 가르침을 제시함으로 기독교교육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실천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 ‘실천을 중시하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에서 실천의 중요성은 기독교교육에서 뿐 아니라 일반 교육에서도 최근 들어 강조되는 바이다. OECD에서 강조하는 역량(competence)교육은 기존의 지식교육을 넘어 지식의 활용과 태도와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이니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을 재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3) 학술지 『신앙과 학문』이 그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넷째, 기독교적 가르침은 개별적인 성격과 공동체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전통적 이해는 대개 교사나 학생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 신앙고백의 차원으로 축소시킨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향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리라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 근대 학교제도가 정착하면서 뿌리 내린 경쟁체제를 근간으로 한 교육시스템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기독교세계관으로 잘 무장된 교사가 기독교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에 의해 신앙으로 훈련된 학생들을 경건하게 교육시키는 활동으로 이해되곤 했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의 성공여부는 신앙과 학문 혹은 교육이 통합되어 교과 지식과 교수방법을 기독교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가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이처럼 개인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자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학습자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교수자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학문과 신앙과 교수활동이 잘 통합되고 결합된 교사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교사를 선발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도 다른 교사들과 팀웍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생의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독교신앙에 기반한 교과교육을 잘 받아 우수학생으로 인정받으면 능력지상주의(meritocracy)가 만연한 사회에서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키고 자기 개인의 신앙적 우월성을 자랑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은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동체적 접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앞 장의 연구자의 경험에서 제시된 것처럼 기독교적 가르침은 좋은 공동체를 통하여 잘 드러나며, 그런 공동체의 형성이 기독교적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했다. 기독교적 가르침의 공동체적 성격은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3.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와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적 가르침과 관련하여 기술되어 있는 네 시기의 연구자 개인의 경험들과 글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다양한 특징들이 발견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게 두드러지는 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가르침이 공동체적 성향과 관계한다는 점이다. 먼저 유학 전 기독교학교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과도한 기대를 갖고 유학을 떠나 실제 오랜 전통의 기독교학교 학부모로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경험한 바는 그 가르침의 고갱이가 가시적인 교육과정이나 문서 혹은 개별교사의 특별한 교수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신 학교와 교실에서 느껴지는 친절한 기독교인 교사들 가운데

존재하는 환대와 돌봄의 정신(spirits)과 풍토 속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귀국 후 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했을 때 겪었던 바는 앞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그 경험 역시 기독교적 가르침은 교수와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가는 교실 혹은 공동체의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고 나아가 그 가르침은 그들이 만나는 교실을 보다 따뜻한 배움의 공동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에서 중국으로부터 유학 온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각했던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중국 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실이 앞의 두 사례 교실과 다른 점은 교실이 기독교신앙을 표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교신앙에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자는 더욱 분명하게 교실을 환대와 돌봄이 있는 배움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비교적 적극적으로 교수자의 의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어 학생과 교수 간 그리고 학생 상호 간 소통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때 연구자는 “가르친다는 것은 진리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라는 파머(Palmer, 이종태 역, 2006)의 조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타자의 말을 전심으로 경청할 것을 강조하였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 즉, 침묵과 성찰 역시 중요한 수업활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처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나눔으로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졸업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8월중순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학술과 배움의 공동체(Academic & Learning Community)’를 설립하여 위챗(WeChat) 단체방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방학에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교육자와 연구자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를 주고 받는다. 그리고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들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연구 영역과 주제를 찾기도 한다. 교실에서 형성된 학습공동체가 졸업 후 일상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주요 관심사이다.

연구자가 여기서 중국 유학생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이 사례가 기독교적 가르침인가를 논하고자 함이 아니다. 단지 참다운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또 하나의 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좋은 가르침이란 좋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요, 교실에서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삶이 이루어지는 마을 혹은 지역사회로 확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면 깊은 삶의 문제까지 함께 공유하는 돌봄의 공동체로 심화되어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과 확대 과정은 성도의 비전안 살림의 구현과정과 닮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 과정에서 삶의 나눔 가운데 자연스럽게 선생의 신앙이 고백 되고 고백 된 신앙이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 반복될 때 신앙은 공동체의 토대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연구자는 여러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다른 무엇보다 환대와 배려의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본질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발견된 것이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으로 이어져 오던 것이 얼마 동안 단절되었다가 최근 새롭게 재인식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중세시대의 페다고지움은 기독교적 가르침이 생활공동체와 동행한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학교를 포함한 마을 전체를 아름다운 마을교육공동체로 만들 고자 애를 쓴 기독교 민족학교의 예들도 기독교적 가르침과 마을공동체의 유기적 관계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강영택, 2022). 북간도의 명동학교와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등은 기독교적 가르침을 학교의 교육토대로 삼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땀흘려 가꾼 학교와 마을공동체였다. 이 학교와 마을에는 낯선 손님들이 자주 찾아 왔지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밥을 정성껏 대접하고 잠 자리를 제공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김약연을 비롯한 명동학교의 설립자들은 명성 높은 유학자들이었지만 당시 그들에게 낯선 근대사상과 기독교신앙을 조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는 과감함을 보였다. 그들은 시대의 전환기에 낯선 사람들과 사상을 맞이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환대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배려와 환대가 숨 쉬는 그곳 명동 마을은 윤동주 같은 청년들에게 나라 잃은 설움 속에서도 시적 감수성을 키우며 뜨거운 민족정신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한 따뜻한 돌봄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주었던 것이다(강영택, 2022).

환대와 돌봄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은 두 영역인 기독교(교육) 영역과 환대, 돌봄, 공동체의 영역이 교차하는 점을 주목한다. 환대는 기독교 전통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핵심 가치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낯선 타자를 배척하지 않고 환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한 전통은 구약성경에 많은 환대 관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과 상통한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환대의 정수를 보여 주셨다. 그는 늘 수많은 낯선 타자들 가운데 살았고 그의 사명은 그를 찾아오는 낯선 이들, 당시 사회의 주변인들에게 환대를 베푸는 일이었다. 거의 매일 예수께서 길을 걸어실 때 낯선 이들은 예수께 나아왔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신의 바쁜 스케줄을 제쳐두고 그 낯선 이들 앞에 멈추어 서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들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다. 예수께서 보이셨던 환대의 모습은 현대 철학자들 레비나스(Immanuel Levinas)와 데리다(Jacques Derrida) 등에 의해 환대 철학으로 체계화되었다. 레비나스는 낯선 얼굴로 윤리적 명령을 내리는 타자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을 환대라 하였고, 데리다는 타자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무조건적 환대’를 강조하였다.

돌봄은 건강한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취약한 인간들이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인식하고 돌봄을 주고받음으로 상호간 안녕(Well-being)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ronto, 김희강·나상원 역, 2024). 오늘날 우리가 종종 만나는 교육현장에는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럴 때 기독교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환대의 태도이다. 그리고 도움이 다방면에서 필요함으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보다 환대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V. 나가는 글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이 짧고 단순한 질문을 부여잡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이 질문이 짧지만 심각한 이유는 단지 책 읽기와 지적 사유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적, 학문적으로 했다면 그 다음은 실천으로, 나의 삶으로, 궁극적으로 나의 전 존재로 그 답을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탐색은 선불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엄중함을 알면서도 이 연구를 결심한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이 본인 삶의 회고와 성찰을 통해 오랫동안 지녀왔던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획할 때부터 방법론은 자서전적(Autobiography) 방법이나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 방법 중에서 선택하고자 했다. 연구자 개인의 생애에 초점을 두고 그 경험을 기술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경험을 분석 대상으로 삼되 그 경험이 일어난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 자전적 문화기술지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들을 회상하고 기술할 때 그 경험들은 대개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교차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식하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은 그것을 배태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조금씩 변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발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개념은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에게 분명치 못하던 것들이 분명해진 면들이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지향하는 두 가치인 종교성/신앙과 공공성이 상호 대립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두 요소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적 가르침은 보편적 성격과 지역의 특수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학문의 이론 지향성과 실천 지향성이 상호 갈등

대신 역설적 종합을 이루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발견한 바는 기독교적 가르침의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성’이다. 이는 환대와 돌봄이 기독교(교육)의 요체이며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이 자리 잡은 공동체에서 가장 잘 발현되고, 동시에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강화해 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한 기독교 교육(학)자의 삶의 형상화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 시키는데 기여했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본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와 유사한 연구방법이나 혹은 다른 형태의 내러티브(Narrative)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질 것이며 이는 기독교적 가르침이 이 땅의 교육 전반을 새롭게 회복하여 기쁨과 책임 그리고 진실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교육을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택 (1997).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풀무학교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강영택 (1999). 기독교학교운동의 역사와 과제, (기독교사연합 기획). **다음세대를 책임지는 기독교사**. IVP.
- 강영택·이숙경·오춘희·임태규·최희원 (1999). **우리가 꿈꾸는 기독교 학교**. 예영.
- 강영택 (2008a).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 기쁨과 헌신의 배움을 위한 가르침. **2008년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자료집**.
- 강영택 (2008b). 교육수월성에 대한 기독교적 재개념화와 대학입시의 개혁. **신앙과 학문**, 13(3), 9-55.
- 강영택 (2008c). 살림을 위한 기독교교육: Nicholas Wolterstorff의 교육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Vol.17, 193-218.
- 강영택 (2012).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육성과를 말한다**. 예영.
- 강영택 (2015).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기독교학교의 과제. **신앙과 학문**, 20(1), 7-37
- 강영택 (2020). 살림의 교육: 공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통합연구**, 22(1), 7-26.
- 강영택 (2021a). 일제강점기 북간도 기독교학교운동의 특징과 교육적 시사. **미래교육학연구**, 31(1), 1-25.
- 강영택 (2021b). 청소년들이 경험한 쉼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생애사연구. **한국교육**, 48(1), 5-30.
- 강영택 (2022). **지속가능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위하여**. 살림터.
- 강영택 (2024a).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신앙과 삶**. Vol.31, 6-7. 강영택 (2024b). **시로 읽는 교육의 풍경**. 살림터.
-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2008). **제2회 기독교학교 교사 컨퍼런스 자료집**.
- 김세미·김정미 (2025). 국내 신앙과 학문 통합 연구의 시기별 변화와 핵심 키워드 분석 -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7(2), 204-228.
- 김영천 (2013). **질적연구 방법론**. 아카데미프레스.
- 김희강·나상원 역 (2024). **돌봄 민주주의**. Tronto, J. (2013) *Caring Democracy*. 박영사.
- 박상진 (2025). 기독교 교육 인식론에 근거한 기독교적 가르침: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에 대한 인식론적 성찰.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 박세혁 역 (2018). **습관이 영성이다**. Smith, J. (2016). *You are what you love*. 비아토르.
- 배은주 (2008). 질적연구의 최근 동향과 그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1(2), 1-27.
- 유은희 (2023). 기독교적 교수-학습 모형 탐색: D. Smith의 '기독교적 실천으로서의 가르침'. **신앙과 학문**, 28(3), 91-121.
- 유은희 역 (2024). **기독교적 가르침과 배움**. Smith, D. (2018). *On Christian Teaching*. 이레서원.

- 이정미·송수지 (2012).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의미: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면담 연구: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면담 연구. **장신논단**, 44(1), 213-247.
- 이종태 역 (2006).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Palmer, P. (1983). *We know as we are known*. IVP.
- 이창국 역 (1991). **신본주의 교육**. Gaeblein, F. (1954). *The Pattern of God's Truth*. 기독교문서선교회.
- 장유정·정희정 (2020). 기독교사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주관성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Vol.67, 165-197.
- 장유정 (2024).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새로운 접근의 필요. **생명과 말씀**, Vol.39, 119-158.
-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IVP.
- Edlin, R.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 Ellis, C., Adams, T. & Bochnen, A. (2011). Autoethnography: An Overview.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12, No. 1, Art.10.
- Greene, A.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lorado Springs, CO: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Kang, Y. (2007). A comparative study of Fundamentalist and Reformed Christian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11, 177-195.
- Kang, Y. (2009). Leadership to build a democratic community within school.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237-245.
- Mao, J., Romero-Hall, E. & Reeves, T. (2023). Autoethnography as a research method for educational technology: a reflective discourse. *Education Tech Research Dev* (2024) 72:2725-2741.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 Overman, C. & Johnson, D. (2003). *Making the Connections*. The Biblical Institute: Washington.
- Peshkin, A. (1989). *God's Choi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n Brummelen, H. (1998). *Walking with God in the classroom?* Alta Vista College Press: Washington.
- Wolterstorff, N. (2003). *Education for Sahlom*. Grand Rapids, MI.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한 기독교 교수의 자전적 문화기술지 연구 - 역설과 공동체로서의 기독교적 가르침

An Autoethnography Study of a Christian Professor on Christian Teaching - Christian Teaching as Paradox and Community

강영택(우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적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이 질문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이유는 단지 학문적 논의와 지적 사유로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론적, 학문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삶과 실천으로 그 답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이 연구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자 개인의 삶을 탐구 대상으로 삼는 연구방법론인 자전적 문화기술지(Autoethnography)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생애를 네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일어난 삶의 경험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당시 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문화적 요소들이 한 인식 주체로서 존재했던 연구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그 탐색을 통해 연구자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자전적 문화기술지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발견한 기독교적 가르침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 분명치 못했던 것들이 분명해진 점들이 있었다. 기독교적 가르침이 지향하는 두 가치인 종교성 혹은 신앙과 공공성이 상호대립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두 요소 모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설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적 가르침의 의미가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한 기독교적 가르침은 학문적 이론 지향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동시에 실천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발견한 점은 기독교적 가르침의 공동체성이다. 기독교적 가르침은 환대와 돌봄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잘 발휘되고, 더불어 그런 공동체를 형성, 강화해 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보다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 공동체를 통해 기독교적 가르침은 풍요롭게 경험될 것이다.

주제어: 기독교적 가르침, 자전적 문화기술지, 기독교(대안)학교운동, 기독교적 가르침과 역설,
기독교적 가르침과 공동체, 환대와 돌봄의 학습공동체

공공신학으로 조망한 칼빈의 난민신학 -이주성, 환대성, 초국적성, 그리고 교회연대성의 국제운동*

**Calvin's Refugee Theology Viewed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Migration, Hospitality, Transnational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hurch Solidarity**

이봉근 (Bong-geun Lee)**

ABSTRACT

This study redefines the 16th-century Reformation as a massive “movement of refugees,” illuminating John Calvin’s ministry as “Refugee Theology”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Utilizing Heiko A. Oberman’s concept of *Europa Afflicta*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Calvin perceived Christians as “rootless sojourners” (*peregrinis sine radicibus*) and the church as “churches under the cross” (*ecclesiis sub cruce*).

The research focuses on two historical contexts. First, in Geneva, Calvin welcomed thousands fleeing persecution, establishing welfare systems like the General Hospital and the *Bourse française* to support them not as aid recipients but as bearers of the *Imago Dei*. Second, the study explores the 1555 mission to “Antarctic France” in Brazil. Through the tragic history of Huguenots at Fort Coligny, it establishes that Calvin’s theology was a “transnational ecumenical movement” extending to the New World.

In conclusion, this paper draws public theological implications from Calvin’s spirit of hospitality and justice for the contemporary church facing global refugee crises. For Calvin, caring for refugees was a theological imperative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historical model offers a vital paradigm for overcoming modern xenophobia and building the body of Christ.

Key words: John Calvin, refugee theology, public theology, *Europa Afflicta*, hospitality

* 2026년 5월 13일 접수, 6월 2일 게재확정

** 칼빈대학교(Calvin University) 신학과 조교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bgleekr@calvin.ac.kr

1. 들어가는 말

재론의 여지없이 이민은 초기 종교개혁의 특징을 규정하는 요소였다(Holt, 2020: 375-382).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도망치거나, 종교적 자유를 찾거나, 선교사를 보내거나, 난민을 맞이하는 등 끊임없이 기동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언어와 문화와 상호작용하며 국경을 넘고, 새로운 땅에 교회를 세우며, 성경이 요구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의와 환대’(justice and hospitality)의 문제와 씨름했다. 존 칼빈의 도시 제네바는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들(new comers)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외국인 혐오’(xenophobia)와 ‘자기민족 보호주의’(ethno-centricism)의 유혹에 저항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제네바는 난민의 유입과 선교적 파송이라는 이주의 양면성(double-sidedness)을 모두 체득하고 있었다. 이 도시는 유럽전역의 다양한 문화와 각 왕국에서 온 수천 명의 난민들을 수용했을 뿐 아니라, 정착민, 선교사들, 목회자들을 유럽대륙과 그 너머로 파송하기도 했다. 특히 칼빈의 지도 아래 제네바는 프랑스 선교에 깊이 관여했으며, 제네바에서 교육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프랑스로 귀환해 위그노 교회에서 사역했다(Maag, 1995). 루터란 사가 카터 린드버그(Carter Lindberg)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제네바는 난민을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난민을 만들어 냈다.”(Geneva not only welcomed refugees, it created them.)(Lindberg, 2010: 249-250).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이주의 경험은 개혁운동의 자기 이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들이 겪은(경험했던) 이러한 깊은 격변에 대한 영적이고 정치적인 반응은 21세기 기독교인들이 현대(그리고 지속적인) 이민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교훈을 제공한다. 존 칼빈 자신도 프랑스의 정치적 망명자요 난민으로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피신한 후 제네바에 정착하여 유럽 전역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해 온 개신교 난민들을 위한 피난처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교회 질서를 세웠다. 칼빈은 자신의 생애 내내 박해받는 개신교도, 특히 모국 “프랑스(위그노)”¹ 출신의 개신교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했다. 칼빈은 제네바와 다른 유럽 지역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시’(cité céleste)로의 지극히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로 한 “뿌리 없는 나그네들에게”(peregrinis sine radicibus, aux voyageurs sans racines),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ecclesiis sub cruce, aux églises sous la croix)(Calvin, 1863-1900: 36: 102-103) 이야기한 것이다.

1) 정체성도 그랬다. 위그노의 정체성은 단순한 국적이 아니라 법적 지위와 기억의 함수였으며, ‘칼빈주의 신앙’이라는 종교적 정체성과 국경 이동에 따른 ‘외국 개신교 이주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었다(Lechenicht, 2007: 309-331).

1545년에서 1555년 사이 프랑스에서의 박해는 제네바로 대규모의 난민 유입을 초래했다. 이 시기 제네바의 좁은 지리적 경계와 제한된 자원은 시민들이 모든 난민들을 영구히 환대하는 것을 막았다. 공간의 부족과 전세계적 선교에 대한 열정이 결합되어 결국 유럽과 그 너머에서 여러 개신교 재정착 선교를 촉발시켰다.

이 모든 과정에서 칼빈과 그의 동료개혁자들은 ‘이주성’(migratory)과 ‘환대성’(hospitality), ‘초국적성’(transnationality)과 ‘교회연합성’(ecumenicity)을 동시에 가진 다양하고 복잡한 국제운동을 육성했다(Maag, 1995). 16세기 제네바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대단히 간단했다. 즉, “당신이 특별한 위치에 있을 때 환대를 베풀라, 머지않아 당신도 환대가 필요한 이주민(난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미국에서는 자칭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은(self-identified Calvinists) 반이민(경계선상의 인종차별주의자) 지도자들과 잔인한 이민정책을 흔쾌히 지지(침묵, 외면, 공모)했다.²

본고는 ‘보수 복음주의적 칼빈주의자’들의 도덕적·정치적 침묵주의는 낯선 이를 환대하고 폭군에 저항하며, 정의를 세우고, 취약함과 신앙으로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오랜 칼빈주의 전통에 대한 비극적인 배신임을 시사한다. 또한 칼빈이 법치주의에 집착하는 차가운 바리새적인 인물이라는 일반적인 오해를 불식시키며, 대신 그를 제네바의 모든 주민이 돌봄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교회와 시민정책을 마련한 인문주의 개혁가로서 더 정확하게 재조명 했다(Chalamet, 2013: 289-308). 당시 칼빈에 의한 교회 주도의 사역들은 현대의 사회복지 네트워크와 달리 진정한 돌봄 네트워크로 설계되었다(Kingdon, 1993: 665-673).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가 채택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적 방법론은 교회를 사적인 영적 영역에 가두지 않고, 당대의 사회적·정치적 위기-특히 전 지구적 난민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과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실천적 신학 담론을 의미한다. 현대 유럽과 미국의 극우적 반이민 정책이 때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방관되거나 정당화되는 현실 속에서, 칼빈의 난민 사역은 단순한 과거의 교회사적 기술(記述)을 넘어 오늘날 교회가 지녀야 할 공적 책임의 강력한 신학적 전거(historical paradigm)가 된다.

2) 2020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국경 집행 정책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비판받는 이민자 구금시설을 확장하였다. 이 시설들은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고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취약한 수감자들을 간수들에 의한 육체적·성적 학대 위협에 노출시켰다(Pompa, 2019; Gonzales, 2019; ACLU, 2024).

II. 칼빈의 신학적 지평: ‘고통당하는 유럽’과 ‘난민들의 종교개혁’³

제네바와 브라질에서 전개된 칼빈의 난민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빈이 당시 유럽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델란드 위트레흐트(Utrecht) 출신의 에리조나 대학교(UA)의 저명한 교회사학자 헤이코 오버만(Heiko A. Oberman)은 칼빈을 단순한 ‘도시 종교개혁자’가 아닌, “난민들의 종교개혁”을 이끈 인물로 재평가하며, 그의 시각이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에 맞닿아 있었음을 지적한다(Oberman, 1992: 91-111).

오버만은 칼빈이 주도한 ‘제2세대 종교개혁’이 기존의 도시 종교개혁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전면적 종교개혁”(total Reformation)이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칼빈은 통상적인 의미의 ‘도시 종교개혁자’에 머물지 않았다. 칼빈에게 유럽은 붕괴 위기에 처한 영적 전장이었다. 오버만의 분석에 따르면, 칼빈은 제네바에 주둔한 ‘병사’(soldier)인 동시에 유럽 전체 전선을 지휘하는 ‘장교’(officer)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럽 대륙과 영국 제도를 ‘우리의 세계’(noster orbis)”(Calvin, 1863-1900: 36:399B)로 간주했으며, 그 안에서 “기독교가 붕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Calvin, 1863-1900: 36:178A)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당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었다. 칼빈이 1549년 “유럽이 고통당하고 있다”(afflicta est Europa)고 선언했을 때, 이는 중세 암흑기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동시대 박해받는 형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의 표명이었다.

둘째, 칼빈은 특정 교구나 지역, 혹은 국가의 경계에 갇히지 않았다. 칼빈은 자신을 제네바라는 한 도시의 목회자로 국한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유럽 전역에 흩어진 “뿌리 없는 나그네들”(peregrinis sine radicibus)과 “십자가 아래 있는 교회들”(ecclesiis sub cruce)(Calvin, 1863-1900: 36:102-103)을 이끄는 지도자로 인식했다. 이러한 범유럽적(pan-European) 시각은 칼빈이 제네바의 전통적인 정치적 목표였던 ‘공공선’(bonum commune)을 넘어, 영적 차원의 ‘공동의 구원’(salus communis)(Calvin, 1863-1900: 32:629A)을 추구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 된다. 그는 제네바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도 영적인 의미에서 스스로를 ‘난민’(Refugee)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 교회’(catholicity)의 회복을 의미했다.

3) 본고의 소재목은 교회사학자 오버만(Heiko A. Oberman)이 제시한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그는 칼빈의 사역을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 국한된 ‘도시 종교개혁’(City Reformation)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박해받는 “뿌리 없는 나그네들”을 위한 ‘난민들의 종교개혁’(Reformation of the Refugees)으로 재정의했다. 여기서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은 칼빈이 당시 유럽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영적 전장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기제로서, 본고 칼빈의 신학을 공공신학적 난민 신학으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Oberman, 1992: 91-111).

셋째, 칼빈의 개혁은 사회적 관습과 문화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향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재단사가 아니었다”(Calvin, 1863-1900: 49:681C)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 투박한 비유는 당시 ‘피난민’(refugees)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화려한 복식과 사치에 몰두하던 제네바의 도시 엘리트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칼빈에게 있어 난민의 삶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순례’임을 자각하고 검소와 절제를 통해 ‘하늘 시민권’을 지향하는 삶이었다. 따라서 그의 난민 신학은 단순한 구호 활동을 넘어, 성도들의 ‘삶의 양식’(lifestyle) 자체를 개혁하려는 목회적 시도였다.

결국 칼빈의 교회론은 특정 지역의 ‘시민 공동체’(civil community)와 구별되는, 박해 속에 ‘모이는 교회’(gathered church)를 지향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corpus Christi)은 정치적 공동체(corpus politicum)와는 다르다”(Calvin, 1863-1900: 49:501A/B)고 강조하며, 제네바의 모든 거주민이 영원한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적 정체성을 가질 것을 역설했다. 이러한 “고통당하는 유럽”에 대한 칼빈의 인식이 바로 제네바를 넘어 브라질(남극 프랑스)로 이어지는 난민 환대와 선교운동의 신학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오버만의 분석은 본 연구가 지향하는 공공신학적 방법론의 토대가 된다. 칼빈에게 있어 종교개혁은 개인의 영혼 구원에 머무는 ‘사적 경건’(private piety)의 차원을 넘어, 박해받는 난민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옹호하고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선 ‘공적 정의’(public justice)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즉, ‘고통당하는 유럽’이라는 현실 인식은 교회가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공적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묻는 공공신학적 질문의 출발점이다.

III. 난민들이 제네바로 모이다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하던 시기(1536-1564)에 종교개혁은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 쟁투(爭鬪)를 벌이고 있었다. 개혁운동은 유럽 전역에서 가톨릭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다. 1536년 박해를 피해 도망친 프랑스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제네바로 몰려들었다. 미국의 위스콘신-메디슨 대학(Wisconsin-Madison)의 칼빈과 제네바 사회의 관계를 미시사적 방법론(micro-historical)으로 분석한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의 추정에 의하면, 단 10년 만에 제네바의 인구가 13,100명에서 최대 21,400명으로 증가했다(Kingdon, 1982: 223-224).

재론의 여지 없이 이처럼 몰려드는 난민들은 이미 한계에 달한 도시의 사회복지 인프라를 더욱 악화시켰다. 평상시에는 제네바의 원주민 인구 중 5%(500명)가 구빈원(General Hospital)으로부터 정기적인 지원을 받았다. 여기에 대규모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사회복지 기관들은 1년 동안 최대 1만 명의 외부인들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Naphy, 2011: 114-116).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난민들 모두가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에 영구적으로 정주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들이 다른 개혁과 정착지로 가기 위해 단순히 이곳을 경유해 간 덕분에 도시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미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난민들을 위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신속히 이주시켜야만 하는 현실적인 시급성은 여전했다. 이러한 절박한 재정착의 과제는 역설적이게도 후일 제네바가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선교 활동을 확장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선교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가 되었다.

칼빈과 제네바 토착민들 사이의 부단한 마찰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는 망명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대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칼빈의 영적, 정치적 주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1523년에는 소수였던 이주가 30년 이후에는 대규모로 변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개신교 난민들은 칼빈의 설교와 그가 주도한 환대적 시민 개혁에 매료되어 제네바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17세기 칼빈주의적 네덜란드인들의 이주와 혁신 사례(Schilling, 1983: 7-33)와도 궤를 같이한다. 1555년까지 도시 제네바는 토착시민들보다 이민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토착시민들의 불만도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난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자원을 고갈시키며 망명해온 프랑스의 부유한 귀족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제네바의 문화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제네바 자체가 쇠퇴할 것이라고 불평했다. 그러나 분명 토착 제네바 시민들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분노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기 중반까지 제네바의 모든 지역목회자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이 몇 년 전 도시의 독립을 주장하며 자신들을 지역귀족들로부터 해방시켰으나 이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 경제문제에 있어서 과도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다고 불평했다(Innes, 1983: 205-236).

반(反)이민정서는 1551년 이미 아미 패랭(ami Perrin, 1500년경-1561)이라는 이른바 리베르팡(Libertines)의 수장의 지도 아래서 절정에 달했다. 제네바의 토착 엘리트였던 그는 또한 반(反)칼빈적 정서를 지닌 사람으로서 칼빈의 정적이기도 했다. 아미 패랭은 자신을 제네바의 애국자라고 칭하면서 외국 소유의 사업체들을 위협하도록 거리의 폭도들을 선동하기도 했다(Naphy, 1995: 87-97; Paquin, 2000: 91-113). 거리의 폭도들은 시의회를 둘러싸고 위정자들을 위협하기 위해 결집했다.

칼빈도 직접 이러한 난장판에 뛰어들었다. 칼빈은 “프랑스인을 죽여라!”라고 외치는 분노한 군중 사이에 서서 자신도 역시 프랑스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피를 흘려야 한다면 내 피부터 흘려라!”(si du sang doit conler, que ce soit le mien!)(Lindberg, 2010: 251-252 ; Naphy, 1995 ; Paquin, 2000 참조). 아미 패랭은 이후 칼빈을 무력으로 축출하려고 했으나 패배하고 도시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칼빈은 공적인 승리는 그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정치적 지지를 통해 난민들의 필요를 더 잘 돌보게 하는 튼실한 기반을 지니게 되었다(Gordon, 1996: 64-81). 사실상 아미 패랭을 중심으로 한 리베르탕의 패배는 억압의 승리가 아니라 제네바 종교개혁의 제도적 공고화(consolidation)였다(Benedict, 2011: 94-113).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은 가톨릭의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에게 자선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제네바에 설립되었다. 그리고 칼빈은 오랜 세월 자신의 뻣뻣한 수입에서 각출한 돈으로 프랑스 기금 활동을 조용히 지원했다. 제네바의 목사회도 동참했다. 긴급구호와 의료 서비스 외에도 집사들은 이 기금을 사용해 난민 가정에 주거를 제공하고, 난민들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금은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종자돈의 역할을 했으며 난민들이 정기적으로 자선에 의존하지 않도록 직업훈련비도 지원했다. 초창기에는 어떤 나라에서 왔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은 프랑스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박해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폴란드 등 여러 민족 공동체가 제네바에서 자신들의 기금을 마련해 난민들을 지원했다(Mottu-Weber, 1987).

종교개혁의 다국적인 성격은 제네바에서의 집사직의 사회적, 경제적 실천에 대한 칼빈의 헌신을 뒷받침 했다. 유사한 세계시민적(cosmopolitan) 성격은 제네바 아카데미 설립에도 구현되었다. 이 국제적 학교는 유럽과 이후 세계의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초기 개신교 공동체를 섬길 목회자들과 학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이고 이주적인 종교개혁의 맥락에서, 칼빈이 교회 질서와 국경을 초월한 교회간 교류에 대하여 제시한 비전이 오늘날 우리가 이른바 ‘지역주의’(localism)와 ‘다문화적 관용’(multi-cultural tolerance)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를 어느 정도 드러낸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의 상명하달식 보편주의(top-down universalism)와 달리 칼빈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각기 고유한 신앙고백을 지닌 다양한 회중들을 교회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Olson, 1989 ; Naphy, 2003: 101-143 ; Kingdon, 1991: 33-39). 그리고 이러한 국제적이고 다문화적인 네트워크는 상호 지원적이고 상호 교정적(mutually correcting)인 관계를 지향했으며 공통된 교류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허용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였다.

IV. 영적이고 세상적인 동정심의 신학

칼빈은 그의 저작 『기독교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인간들 사이에서 유지되도록” 정부를 세우셨다고 주장했다(Calvin, 1960: IV.20.3). 칼빈은 통치자를 공적 복지의 신성하게 임명한 보호자이자 수호자로 보았다. 통치자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에서 가장 신성하고 명예로운 소명”이라고 불렀다(Calvin, 1960: IV.20.6).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외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경건의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위치를 방어하며, 우리의 삶을 인간사회에 맞추고, 우리의 사회적 행동을 시민적 의로움(정의)에 맞추며, 우리를 서로 화해시키고, 일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Calvin, 1960: IV.20.1-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칼빈에게는 선호하는 정부형태가 존재한다. 칼빈은 영적(교회) 정부와 세속적(국가) 정부 사이에 역할 분담이 있다고 믿었지만, 세속(세상) 정부의 시민적 정의와 외적 도덕의 확립이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내적인 왕국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연원(淵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이 둘은 서로 상충되지 않음을 천명했다. 영적 정부는 사실 지상에서 천국의 시작을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가고 있으며 이 덧없고 일시적인 삶 속에서 불멸하고 부패하지 않는 축복을 미리 보여준다(Calvin, 1960: IV.20.2).

칼빈의 교회론에서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거행뿐 아니라,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한 구체적인 ‘돌봄의 정치’(politics of care)가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했다. 이는 제네바에서는 ‘프랑스 기금’을 통한 환대의 시스템으로, 브라질에서는 박해를 피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피난처 건설’로 구체화 되었다. 즉, 제네바의 ‘수용’(Inflow)과 브라질로의 ‘파송’(Outflow)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한다’는 칼빈의 일관된 교회론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교회도 국가도 완전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둘 다 성도와 죄인, ‘선택된 자’(electi)와 ‘유기된 자’(hypocritae)가 ‘혼합된 사회’(Corpus permixtum)이기 때문에 영적·세속적 통치 모두에 내재된 모호함과 긴장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Calvin, 1960: IV.1.7-8, 12).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강력하게 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명령은 왕, 통치자들, 사법관계자들 뿐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다.”(Calvin, 1992: 419).

제네바의 이민자들에 대한 저항은 칼빈의 사역 동안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1559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이민자의 아들이 200명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자에 앉는 것이 허용되었

고 칼빈이 죽은지 약 35년이 지난 1594년에야 이민자의 아들의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지닌 ‘소의회’(Small Council)에 들어갔다(Watt et al., 2000).

칼빈은 단순한 기독교적 의무를 근거로 신학적, 정치적으로 반이민 정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히브리서 13장 2절의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는 부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던 접대의 권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향에서 난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의무를 더욱 권장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영접한다고 생각했지만 때때로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아브라함과 뜻을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 누군가 이것이 드문 일이었다고 반박한다면, 나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때 단지 천사뿐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다(Calvin, 1994: 204-205).

칼빈은 ‘환대’와 ‘공동체 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들을 고난받는 지체들처럼, 곧 우리의 삶과 같은 이들로 받아드려야 한다.”(Nous devons ouvrir nos bras à ceux que le Christ nous envoie, comme à nos membres souffrants, car ils sont de notre chair.)(Calvin, 1926-1962: 2:722). 칼빈은 망명자들을 ‘타자’(étranger)나 ‘외부인’(forain)이 아니라 ‘자신의 지체’(nos membres)로 간주했다. 이는 ‘환대’(hospitalité)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교회의 연합’을 나타낸다는 그의 신학적 실천의 행위였다.

또한 칼빈은 순례자로서의 자기 인식이 선명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언제나 우리의 진정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Nous sommes pèlerins sur cette terre, et nous devons toujours avoir les yeux tournés vers notre vraie patrie céleste.)(Calvin, 1926-1962: 1:68). 칼빈은 신자들이 지상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civitas caelestis)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다며 망명은 이 ‘순례적 삶’-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순례이다(vie est un pèlerinage sur la terre)-의 현실적 표현이었다.

그리고 칼빈은 교회의 초국적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왕국들의 국경에 묶여있지 않고, 동일한 신앙과 사랑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 있습니다.”(La véritable Église de Christ n’est pas liée aux frontières des royaumes, mais s’étend dans le monde entier, unie par une même foi et une même charité)(Calvin, 1926-1962: 4:449).

칼빈은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을 망명 현실 속에서 실재적으로 이해했다. 난민들은 새로운 지역 교회에 소속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의 교회를 구성했다. 요컨대 칼빈의 난민신학은 “순례자 의식,” “선민으로서의 환대,” 그리고 “초국적 교회 연합”이라는 세 개의 기둥 위에 정초되어 있었던 것이다.

V. 난민들이 남극 프랑스로 흩어지다

유럽의 신대륙 정부와 식민화 이야기를 할 때 특정한 서사가 계속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최초로 정착했다는 주장이나 라틴 아메리카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리우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 외곽에 있던 개신교 정착지인 콜리니 요새(Fort Coligny)의 짧은 역사는 이러한 통념에 도전한다. 콜리니 요새는 초기 종교개혁의 이주적 성격, 비전, 그리고 그 성격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제공한다.

제네바가 브라질에 목회자를 파송한 것은 단순한 이민자 돌봄을 넘어선 교회론적 확장이었다. 그들은 신대륙이라는 이교적(pagan) 공적 공간에 제네바의 예배 모범과 치리(discipline)가 작동하는 ‘참된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자 했다. 따라서 콜리니 요새에서의 성찬식 거행과 이후의 순교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저항하고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가장 치열한 공공신학적 ‘증언’(witness)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555년 제네바 목사회는 신세계(New World)를 향한 첫 번째 개신교 선교를 결의했다. 이는 영어권 개신교도들이 뉴잉글랜드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하기 60여 년 전의 일로, 제네바는 13인의 위그노 난민들과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 1506-1580)⁴ 목사를 당시 ‘남극 프랑스’(Antarctic France)로 불리던 브라질로 파송했다. 그 목적은 원주민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Léry, 1994: 109-110). 리시에 목사는 1557년 3월 21일, 제네바 예배모범에 따라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세계에서 최초로 거행된 개혁파(제네바식) 성찬식이었다.⁵

4)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ier)는 1556년 프랑스 남극 식민지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로 원정을 떠난 필립 드 코르기에레(Philippe de Corguilleray)와 동행한 프랑스 칼빈주의 신학자였다. 그는 제네바에서 파견된 14명의 칼빈주의자로 구성된 파견대의 일원이었다.

5) “교회는 비록 다른 면에서는 많은 ‘결함’(vitii)—칼빈은 가장 강한 뉘앙스의 ‘악덕, 타락’의 의미인 ‘vitium’을 사용했고, 약한 뉘앙스의 ‘불완전함’(defectus)을 사용하지 않았다—이 보이더라도 어디서든 ‘성례’가 순수하게 시행되는 곳에 존재한다”(Calvin, 1960: IV.1.12). 바로 여기에 칼빈의 교회론에 내재된 ‘교회 표징’(symbolae ecclesiae)으로서의 역동성(dynamik)이 드러난다(Selderhuis, 2003: 195-214). 한편, 위그노인 프랑스 해군 제독 콜리니(Gaspard II de Coligny, 1519-1572)

당시 제네바는 넘쳐나는 위그노 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제네바 교회 당국(Geneva Consistoire)은 훈련과 재정 지원을 마친 두 명의 목사와 정착민들을 축복하며 파송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 온 이민자들은 낯선 땅에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 뿐이었다. 그들은 정치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깊은 소외감과 불안 속에 머물러야 했다. 무엇보다 개혁파 정착민들이 선택한 라틴 아메리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었다. 이곳은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Alexander VI)가 반포한 칙서 ‘인터 카에테라’(Inter Caetera)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독점적 선교지로 규정된, 개신교도들에게는 금지된 땅이었기 때문이다.⁶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의 개신교도들은 종종 그들이 곧바로 발각되어 체포되고, 종교재판을 받았다. 고문을 당하면서 대다수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주로 자신의 신앙을 철회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일부의 사람들은 화형에 처해졌다(Baez-Camargo, 1952: 135-136). 이러한 초기 개혁파 신자들의 이주 경험은 위협, 불안정성, 그리고 소외감의 연속이었다.

1555년 가톨릭 프랑스 왕실은 신세계 탐험 사업의 일환으로 600명의 시민을 보호할 섬 요새화 건설을 허락했다. 이 요새는 위그노이자 프랑스 해군 제독인 가스파르 드 콜리니의 이름을 따라 콜리니 요새라고 명명되었다.⁷ 콜리니 요새는 최근 개신교로 개종한 부제독 니콜라 뒤랑 드 빌레가농(Nicolas Durand de Villegaignon, 1510-1571)의 지휘 하에 있었다. 빌레가농은 콜리니 제독을 설득해 위그노 난민들로 요새를 구성하게 했다⁸

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유일한 두 명의 목격자에 의한 기록이 위그노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들은 1560년에 요새가 포르투갈의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회고록은 존 폭스의 『순교사』(1563)에 수록되어 종교 논쟁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 사료적 객관성에는 한계가 있다(McGrath, 1996: 385-397). 가톨릭

는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고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1555년 브라질에, 1562년 미국 플로리다(Florida)에 탐험대를 파송했다. 그러나 플로리다를 식민지화하려던 그의 계획은 1565년 스페인 군대가 포트 캐롤라인(Fort Caroline)의 프랑스 정착촌을 공격하여 수많은 위그노 주민들을 학살함으로써 좌절되었다(Beaver, 1967: 14-20; Lestringant & Blair, 1995: 285-295).

6) 이 교황 칙서는 스페인의 가톨릭 군주인 페르디난드와 이사벨라에게 아조레스(Azores) 제도와 카보베르데(Cape Verde) 제도에서 서쪽으로 100리그(약 555km) 떨어진 지점을 지나 북극에서 남극까지 이어지는 선을 긋고, 그 서쪽과 남쪽에 있는 발견된 혹은 발견될 모든 땅을 할당했다(교황 칙서 원문 및 번역: Doctrine of Discovery Project, n.d.).

7) 콜리니(Coligny) 제독은 프랑스 종교전쟁(1562-1598) 당시 위그노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샤를 9세(Charles IX)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나, 국왕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는 두 사람의 우정을 강력히 반대하여 1572년 8월 22일 콜리니 암살을 모의했다. 이 사건은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St. Bartholomew’s Day Massacre, 1572년 8월 24일)을 촉발시켰으며, 파리와 주변 지역에서 거의 1만 명 이상의 위그노가 학살당했다. 카트린 드 메디치는 이탈리아 왕국의 독살극과 암살 시도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련한 정치인이었다(Knecht, 2014: 157-170).

8) 콜리니는 프랑스 위그노들을 위한 피난처로서 브라질에 식민지를 설립하기 위해 왕실의 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그노 부대를 보충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파리 감옥을 살살이 뒤져야 했다(Good, 1909: 179-181).

릭 왕은 궁극적으로 신세계에 자신들의 식민지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 개신교 사업을 지원했던 것이다(Good, 1909: 179).

콜리니의 정착민들은 그들의 새로운 고향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빌레가농의 서신에 의하면 그의 병사들과 위그노 난민들 모두 식량부족에 시달렸고 새로운 기후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는 위그노 난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내심과 친절함을 지닌 민족”으로 묘사하며 그들이 대부분의 노동을 수행하여 “최고의 일꾼들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술회했다(Good, 1909: 179-180).

빌레가농은 위그노 정착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아 프랑스 왕 앙리 2세(Henri II)와 제네바의 위정자들에게 더 많은 개혁과 장인들(artisan)과 목사들을 콜리니 요새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서신들은 현존하지 않는다. 다만 제네바 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제네바 교회는 브라질에 있는 빌레가농에게 칼빈의 서신을 전달하는 두 명의 목사, 즉 피에르 리시에(Pierre Richer=Richier)와 기욤 샤르피에르(Guillaume Charretier)를 추가로 파송했으며, 그 서신은 1557년 3월 7일에 도착했다. 이처럼 프랑스 가톨릭 왕실의 지원을 받아 콜리니 요새는 종교적 자유를 찾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개혁과 이민자(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1557년 최초의 개혁파 예배와 성찬식이 신세계에서 뉴잉글랜드가 아닌 브라질에서 제네바의 교회법과 규제에 따라 거행되었다(Beaver, 1967: 14-20).

1557년 4월 배편으로 빌레가농의 서신과 두 명의 목사들이 보낸 서신이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 전달되었다. 빌레가농은 개신교 목사들이 도착한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 그는 또한 원주민들로부터의 위협,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데 겪는 육체적 고통, 일부 정착민들이 “겪는 고난 때문에 프랑스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도 “어려움에 다소 낙심했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그 여행(순례)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위험에 굴복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Good, 1909: 181). 빌레가농의 편지는 위그노 정착민들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며 칼빈의 선교활동을 지지하는 언어로 끝맺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며 교회의 사역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하시기를 기원합니다.”(Good, 1909: 181).

그러나 빌레가농의 칼빈에 대한 지지는 상황적 실용주의에 근거한 그다지 뜨겁지 않은 것이었고, 루터파인 장 쿠엥타(Jean Cointat)가 제네바식 성찬식과 세례의식에 이의를 제기하자 빌레가농은 그를 지지하며 결국 제네바식 예배모범을 금지시켰다. 칼빈에게 그들이 제네바의 규범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어긴 것이다.⁹ 위그노 콜리니 제독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빌레가농의 개신교 신앙고백은 진실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콜리니 요새에 로마 가톨릭 교리를 강요했고 개혁파

예배를 금지했지만 은밀하게 진행했으며 결국 위그노들은 섬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다시 한 번 난민이 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요새에서 쫓겨나 브라질 본토로 추방된 위그노들은 자신들을 환대해 준 투피남바(Tupinamba)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례로 식민지 주민이었던 장 드레리는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해 투피남바어 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다(Parkman, 1865: 16-27). 그러나 또 안타깝게도 이들의 선교활동은 오래가지 못했다. 빌레가농이 그들을 이단이자 스파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하여 체포한 후 사형을 선고했기 때문이었다.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은 신앙을 철회했다. 그리고 이들 중 피터 부르동(Peter Bourdon), 존 보르텔(John Bortel), 그리고 매튜 베르누이(Matthew Vernuil) 등 세 명은 처형당해 신세계에서 개신교 교리와 선교를 위해 목숨을 바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일행 중 한 명인 존 볼스(John Boles)는 콜리니 요새 남쪽에 정착해 현지 부족들 사이에서 매우 성공적인 설교자가 되었으나 예수회(Jesuit)에 의해 체포되어 8년 동안 감금된 후 1567년에 화형에 처해졌다. 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첫 번째 개신교 신앙재판(auto da fé)으로 기록되었다(Good, 1909: 185-186).

결국 콜리니 요새의 비극은 단순한 선교 실패의 서사가 아니다. 이는 칼빈의 난민신학이 제네바라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신대륙으로까지 확장된 ‘초국적 교회연대’의 실재를 보여준다. 낯선 땅에서 쫓겨나고 순교하면서도 신앙의 공적 증언(witness)을 포기하지 않은 위그노들의 모습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뿌리 없는 나그네’임을 자각하게 하며, 국가와 국경을 초월하여 고통받는 타자를 환대해야 한다는 공공신학적 연대의 당위성을 확증해 준다.

VI. 나가는 말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가운데서 환대와 가난한 자들, 난민들 외국인들에 대한 돌봄을 은혜와 인간에게 있는 신성한 형상의 신학적 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어떤 구절에서는 칼빈은

9) 빌레가농의 급격한 태도 변화와 변절은 단순한 변심이라기보다 신학적 갈등과 정치적 생존 본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첫째, 신학적 갈등이다. 성찬식 거행 방식(포도주에 물을 섞는 문제, 누룩 없는 빵 사용 등)을 두고 제네바 목사들과 소르본(Sorbonne) 출신의 장 쿠엥타(Jean Cointat)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빌레가농은 초기 개신교적 입장을 철회하고 가톨릭의 화체설(transubstantiation)과 예전으로 회귀했다. 둘째, 정치적 압박이다. 그는 프랑스 왕실의 강력한 후원자인 기즈 가문(House of Guise)의 로렌 추기경(Cardinal of Lorraine)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식민지 운영을 위해 왕실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했던 그는 본국 가톨릭 세력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자신이 초청한 제네바 목사들을 “식민지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단자들”로 규정하여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다(Lestringant, 1990: 187-202).

특히 종교적 난민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 안에 있는 신성한 형상이 “가장 세심하게 주목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낫선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아는 표식-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경멸스럽고 가치가 없다고 강변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형상을 빛나게 함으로써 그를 존귀하게 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우리 앞에 데려오셔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께 진 빛(부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치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섬기는 것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Calvin, 1960: III.7.6).

재론의 여지 없이 칼빈이 망명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망명자들을 옹호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칼빈을 중심 깊게 연구하려 애쓰는 한 사람으로서 보건대, 제네바에서 환대와 사회적 평등을 추구했던 사역은 브라질에서의 선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WSU) 역사학 교수로서 종교개혁 시대와 현대의 ‘난민’(refugee) 문제에 천착해 온 제시 스포홀츠(Spohnholz, 2011 ; 2017 ; 2020: 147-148)¹⁰의 연구에 따르면, 이 두 가지 서사는 초기 개혁주의 운동의 이주적이고 다국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 즉,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제네바는 시민권의 한계를 초극(超克)해 진리를 향한 보편적 투쟁의 일부였음을 시사해 준다.

제네바와 콜리니 요새의 위그노들에 관한 서사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의 중요한 질문을 상기시키고 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작은 형제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제네바에서의 개혁파 시민(hosts)들의 환대와 콜리니 요새에 거주하고 있었던 개혁파 정주민들의 연약함, 위험, 그리고 고통은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이주 문제에 대한 경험과 투쟁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

10) 스포홀츠(Jesse Spohnholz)는 오버만(Heiko Oberman)과 연결된 난민, 망명, 디아스포라 연구 관련 학자군(이른바 ‘제4차 학자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동하는 개혁주의 신앙과 난민 정체성의 유동성에 천착한 역사학자이다(두 학자의 교류에 관해서는 Heiko Oberman Papers, MS 576, Series 1: Correspondence, 1950-2001).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는 것은 움직임, 즉 여정이나 순례를 포함하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자체로 판단할 때 수많은 방식으로 고통스럽고, 불안정하며, 불행하고, 어떤 면에서도 분명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재화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덧없고, 헛된 것이며, 여러 가지 혼란한 악에 의해 손상되어 있음을 배운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들은 이 삶에서 투쟁 외에 아무것도 바라거나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Calvin, 1960: III.9.1). 그러나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들을 위한 그의 고귀한 희생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은 공적(public)이고 정치적(political) 응답을 요구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 이민자(난민)들, 정치적 난민들이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동안 방관하는 것은 분명한 죄악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들의 기독교적 의무는 자비의 사역을 통해 이러한 고통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정치적 질서를 세워 이러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다(Calvin, 1960: III.7.6).

개혁과 신학에서 ‘우상숭배’(idolatry)는 단순히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 피조물(국가, 인종, 국경, 이데올로기)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종교개혁 제2세대인 칼빈은 가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을 “가톨릭 우상숭배(idolatry)에 대한 척결”로부터 기동했다.

자국 중심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적 타협이다. 개혁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의 실정법이나 배타적 안보 논리를 하나님의 법(환대와 사랑)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미국의 일부 보수적 복음주의 진영은 가혹한 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거나 침묵으로 공조해 왔다. 이는 취약한 난민들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신학적 배교 행위와 다름없다. 더불어 한국의 개혁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본의 논리와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에 갇혀 이주민과 난민 문제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엄중한 경고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현대 교회의 도덕적·정치적 침묵주의는 칼빈의 신학적 유산에 비추어 볼 때 뼈아픈 회개와 심각한 재고가 요청된다.

21세기는 이미 ‘이주의 시대’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종교적 박해, 경제적 고통, 인종적 증오, 정치적 갈등 등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수많은 영혼과 몸의 거대한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 전 세계의 칼빈주의자, 개혁주의 신자들이 이러한 전례 없는 탈주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주의 역사를 통해, 그리고 난민 문제를 기독교적 실천 관점에서 조망한 최근의 논의들

이봉근

(Groody, 2022: 238-243 ; Măcelaru, 2018: 69-76 ; Aspray, 2024: 386-403 ; Koh, 2024: 1-19)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ACLU (2024, April 12). "Sexual Abuse in Immigration Detention". *ACLU*. (<https://www.aclu.org/sexual-abuse-in-immigration-detention>)
- Aspray, B. (2024). Jesus was a Refugee: Unpacking the Theological Implications. *Modern Theology*, 40(2), 386-403.
- Backus, I. & Benedict, P. (Ed.) (2011). *Calvin and His Influence, 1509-2009*. Oxford University Press.
- Baez-Camargo, G. (1952). The Earliest Protestant Missionary Venture in Latin America. *Church History*, 21(2), 135-145.
- Beaver, P. (1967).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Reformed Journal*, 17, 14-20.
- Bouwisma, W. (1986). Calvin and the Renaissance Crisis of Knowledge. *Calvin Theological Journal*, 21(2), 189-203.
- Calvin, J. (1863-1900). Calvin Opera (CO). in Baum, Cunitz, & Reuss (Ed.) (1863-1900). *Corpus Reformatorum*. Schwetschke.
- Calvin, J. (1926-1962).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Vols. 1-5). Barth, P. & Niesel, W. (Ed.) Chr. Kaiser.
- Calvin, J.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st.)*. McNeill, J. T. (Ed.) Trans. by Battles, F. 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Calvin, J. (1992). *Sermons on II Samuel*. Trans. by Kelly, D. Banner of Truth.
- Calvin, J. (1994).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Vol. 12: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and the First and Second Epistles of St. Peter*. Torrance, T. F. (Ed.) Eerdmans.
- Chalamet, C. (2013). John Calvin as a Humanist Reformer.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15(3), 289-308.
- Ganoczy, A. (1996). Calvin's Life and Work: Foundations of His Anti-clericalism. *Studies in Reformed Theology and History*, 3(1), 11-27.
- Gonzales, R. (2019, February 26). "Sexual Assault of Detained Migrant Children Reported in the Thousands Since 2015", *NPR*.
- Good, J. I. (1909). Calvin and the New World. *Journal of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5(4), 179-186.

- Gordon, B. (1996). Calvin and the Swiss Reformed Churches. in Pettegree, A., Duke, A. & Lewis, G. (Eds.) (1996). *Calvinism in Europe, 1540-1620* (pp. 64-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oody, D. G. (2022). Migration and refugees: A Christian Perspective. in Sachs, J. D., Sánchez Sorondo, M., Annett, A. & Thorson, J. (Ed.) (2022).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p. 238-243). Columbia University Press.
-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lt, M. P. (2020). International Calvinism. in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pp. 375-38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nnes, W. C. (1983). *Social Concern in Calvin's Geneva*. Pickwick Press.
- Kingdon, R. M. (1982). Calvinism and Social Welfare. *Calvin Theological Journal*, 17, 212-230.
- Kingdon, R. M. (1991). The Economic Behavior of Ministers in Geneva in the Middle of the Sixteenth Century.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50(1), 33-39.
- Kingdon, R. M. (1993). Calvinist Discipline in the Old World and the New. *Archive for Reformation History*, 84, 665-673.
- Knecht, R. J. (2014). *The French Civil Wars, 1562-1598*. Routledge.
- Koh, J. L. (2024). Immigration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The Challenge and Imperative of Racial Justice. *Political Theology*, 1-19.
- Léry, J. de. (1994). *Histoire d'un Voyage Faict en la Terre du Brésil*. Frank Lestringant.
- Lestringant, F. (1990). *Le Huguenot et le Sauvage: L'Amérique et la Controverse Coloniale, en France, au temps des Guerres de Religion (1555-1589)*. Aux Amateurs de Livres.
- Lestringant, F. & Blair, A. (1995). Geneva and America in the Renaissance: The Dream of the Huguenot Refuge, 1555-1600.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2), 285-295.
- Lindberg, C. (2010). *The European Reformations*. Wiley-Blackwell.
- Maag, K. (1995).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n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1560-1620*. Scholar Press.
- Măcelaru, M. V. (2018). Christianity and the Refugee Crisis. *Transformation*, 35(2), 69-76.
- McGrath, J. (1996). Polemic and History in French Brazil, 1555-1560.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7(2), 385-397.
- McKee, E. A. (2007). The Character and Significance of John Calvin's Teaching on Social and Economic Issues. in Dommen, E. & Bratt, J. (Ed.) (2007). *John Calvin Rediscovered* (pp. 3-24).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Mottu-Weber, L. (1987). *Économie et Refuge à Genève au Siècle de la Réforme: la Draperie et la Soierie (1540-1630)*. Société d'Histoire et d'Archéologie de Genève.
- Naphy, W. G. (1995). Baptisms, Church Riots and Social Unrest in Calvin's Geneva.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26(1), 87-97.
- Naphy, W. G. (2003). Geneva: Hospitality and Xenophobia. in Naphy, W. G. (Ed.) (2003). *Calvin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Genevan Reformation* (pp. 101-143).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Naphy, W. G. (2011). Calvin's Church in Geneva: Constructed or Gathered? Local or Foreign? French or Swiss?. in Backus, I. & Benedict, P. (Ed.) (2011). *Calvin and His Influence, 1509-2009* (pp. 114-116). Oxford University Press.
- Nowell, C. E. (1949). The French in Sixteenth-Century Brazil. *The Americas*, 5(4), 381-393.
- Oberman, H. A. (1992). Europa Afflicta: The Reformation of the Refugees. *Archiv für Reformationsgeschichte*, 83, 91-111.
- Olson, J. E. (1989). *Calvin and Social Welfare: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 Paquin, R. (2000). Calvin and Theocracy in Geneva: Church and World in Ordered Tasks. *The Journal of the Faculty of Religious Studies*, 28, 91-113.
- Parkman, F. (1865). *Pioneers of France in the New World*. Little, Brown.
- Pompa, C. (2019, June 24). "Immigrant Kids Keep Dying in CBP Detention Centers, and DHS Won't Take Accountability", *ACLU*.
- Sachs, J. D., Sánchez Sorondo, M., Annett, A. & Thorson, J. (Ed.) (2022). *Ethics in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illing, H. (1983). Innovation through Migration: The Settlements of Calvinistic Netherlanders in 16th-17th-century Central and Western Europe. *Social History*, 16(31), 7-33.
- Selderhuis, H. J. (2003). Kirche im Theater: Die Dynamik der Ekklesiologie Calvins. in Ortiz, P. (Ed.) (2003). *Calvin im Kontext der Schweizer Reformation* (pp. 195-214). TVZ Theologischer Verlag.
- Spohnholz, J. (2011). *The Tactics of Toleration: A Refugee Community in the Age of Religious Wars*. University of Delaware Press.
- Spohnholz, J. (20217). *The Convent of Wesel: The Event that Never was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pohnholz, J. (2020a). Refugees. in Holder, R. W. (Ed.) (2020). *John Calvin in Context* (pp. 145-1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tt, I. M., Kingdon, R. M. & Lambert, T. A. (Ed.) (2000). *Register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I, 1542-1544*. Trans. by McDonald, W. Eerdmans & Meeter Center.

공공신학으로 조망한 칼빈의 난민신학 -이주성, 환대성, 초국적성, 그리고 교회연대성의 국제운동

Calvin's Refugee Theology Viewed through the Lens of Public Theology: Migration, Hospitality, Transnationality, and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Church Solidarity

이 봉 근 (칼빈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16세기 종교개혁을 ‘난민들의 이동’으로 재해석하고, 오버만의 ‘고통당하는 유럽’(Europa Afflicta) 개념을 빌려 존 칼빈의 사역을 ‘난민 신학’(Refugee Theology)으로 규명한다. 연구는 두 가지 역사적 현장을 조망한다. 첫째, 16세기 제네바에서 칼빈은 난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접하며 ‘구빈원’과 ‘프랑스 기금’(Bourse française) 등 체계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1555년 브라질 ‘남극 프랑스’ 선교 사례를 통해 그의 신학이 신대륙까지 확장된 초국적 연합 운동이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칼빈이 보여준 환대와 정의의 정신이 오늘날 난민 위기와 반이민 정서(xenophobia)에 직면한 현대 교회에 주는 공공신학적 함의를 도출한다. 그에게 있어 난민 돌봄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학적 당위이자 정치적 책임이었다.

주제어: 존 칼빈, 난민신학, 공공신학, 고통당하는 유럽, 환대

봄 하웃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Bob Goudzwaard'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최용준 (Yong Joon (John) Choi)**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laim of value neutrality in modern economics through an analysis of the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of Dutch Reformational economist Bob Goudzwaard. Through a literature-based analysis of Goudzwaard's major works, the study explores the core themes of his economic thought, focusing on hi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his concept of economism. The findings indicate that Goudzwaard understood the economic system not merely as a technical or institutional mechanism but as a cultural expression shaped by ultimate religious commitments. He argued that economism, in which economic growth becomes an end in itself, weakens normative responsibility toward human beings, communities, and the created order by absolutizing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market autonomy. Furthermore, this study applies Goudzwaard's insights to the context of South Korea's compressed industri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While economic growth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material prosperity, it has also reinforced a cultural paradigm that reduces human flourishing to the logic of competition and expansion. As an alternative, Goudzwaard's vision of a "caring economy" calls not only secular economic discourse but also Christian communities to reconsider the moral and spiritual foundations of faith and practice. Although his proposals require further development at the level of concrete policy design, his thought provides an import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cholarship and for reorienting economic activity toward stewardship and the common good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Key words: Bob Goudzwaard, economism, faith in progress, caring economy, reformational philosophy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3일 최종수정, 6월 5일 게재확정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AI 융합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I. 서론

21세기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사실상 전 세계 경제 질서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체제가 전제하는 인간관, 사회관, 그리고 궁극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신학적 성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경제학은 흔히 가치중립적이고 기술적인 학문으로 이해되며, 종교적 신앙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경제 질서와 학문 활동 자체가 특정한 세계관과 궁극적 헌신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경제 이론과 정책은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 그리고 선(善)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전제하며, 따라서 경제학 역시 가치와 신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네덜란드의 기독교 경제 사상가 밥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 1934-2024)는 현대 서구 자본주의를 단순한 경제 체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사회를 규정하는 종교적 신념 구조로 분석하였다. 그는 특히 ‘진보신앙(vooruitgangsgeloof)’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이 마치 인간 해방과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절대화되는 문화 현상을 비판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은 더 이상 인간의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었으며, 그 결과 경제적 효율성과 확장이 인간 존엄, 공동체적 연대, 그리고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잠식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하우즈바르트의 이러한 통찰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철학 전통, 특히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선형적 비판(transcendental critique)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도여베르트는 모든 학문 활동이 종교적 기본 동인(religious ground motive)에 의해 방향 지어지며, 이론적 사유 역시 궁극적 헌신으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Dooyeweerd, 1953-58, 1963). 하우즈바르트는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경제 영역에 적용하여 경제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의 전제를 비판하고, 경제 질서를 문화적·종교적 표현으로 재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경제철학은 단순한 경제윤리의 차원을 넘어 학문과 신앙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포함한 학문 활동이 결코 신앙으로부터 중립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신앙이 학문적 해석과 방향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혁주의 철학 전통에 기초하여 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주의 분석을 고찰하고, 그의 대안적 경제 비전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지니는 의미를 평가한다. 연구 방법은 사상사적 분석과 개념적 비판을 결합한 철학적 해석 방법을 따른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을 주로 서구사회의 신학적·윤리적 논의 맥락에서 이해해 온 한계를 넘어, 그의 경제철학을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현실을 해석하는 틀

로 적용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통해 괄목할 만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동시에 성장과 발전을 사회적 선으로 간주하는 문화적 경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성장 중심 패러다임은 경제 영역뿐 아니라 교육, 과학기술, 그리고 학문 활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하우즈바르트가 제기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 비판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해석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하우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은 어떠한 철학적·종교적 성격을 지니는가. 둘째, 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가치중립성을 표방하는 현대 경제학과 학문 이해에 대해 어떠한 비판을 제기하는가. 셋째, 그의 사상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현대 한국 사회의 학문과 경제 현실에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가.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도여베르트의 선험적 비판과 연관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그의 사상의 철학적 기초를 체계적으로 밝힌다. 둘째,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문제를 학문의 종교적 전제라는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신앙과 학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심화한다. 셋째, 그의 경제주의 비판을 한국 사회의 성장 중심 문화와 학문 풍토에 적용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 연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하우즈바르트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개혁주의 철학 전통과 기독교 사회사상 연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의 대표 저작인 *Kapitalisme en vooruitgang*(자본주의와 진보사상, 1976), *Genoeg van te veel, Genoeg van te weinig*(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충분함, 1986), *Hope in Troubled Times*(혼란스러운 시대의 희망, 2007)는 현대 경제 질서에 대한 신학적·철학적 비판을 전개한 주요 저술로 평가된다. 초기 연구들은 그의 경제사상이 도여베르트와 폴렌호븐(D. H. Th. Vollenhoven)의 개혁주의 철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그는 경제 영역의 규범성과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비판을 강조한 대표적 개혁주의 경제학자로 평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의 사상을 보다 넓은 기독교 경제윤리 및 신학적 경제 비판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요스트 헝스트멩겔(Joost Hengstmengel)은 도여베르트 전통의 규범적 경제학을 연구하면서 하우즈바르트를 경제 현실의 종교적·규범적 구조를 분석한 대표적 사상가로 평가하였다(Hengstmengel, 2026: 99-121). 또한 룰 용어네일(Roel Jongeneel)은 개혁주의 경제학의 규범성에 관한 연구와 하우즈바르트와의 공동 저술을 통해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비판과 규범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하우즈바르트가 추구한 경제학의 종교적·규범적 성격과 긴밀히 연결된다(Jongeneel, 2019: 220-244 ; Goudzwaard and Jongeneel, 2014.).

한편, 그의 경제주의 비판은 신학적 경제 비판(theological critique of economics)의 흐름 속에

서도 논의됐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 체제를 단순한 제도적 구조가 아니라 특정한 인간 이해와 궁극적 신념이 구현된 문화적 질서로 해석하며, 시장과 성장 중심 사회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비판한다. 특히 마이클 노스콧(Michael Northcott)은 현대 경제 체제가 종교적 성격을 띠는 문화적 질서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하우즈바르트의 문제의식과 상당한 접점을 보여준다(Northcott, 2004: 104-117).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는 하우즈바르트를 개혁주의 경제학 전통 내부에서 소개하거나 그의 경제 윤리적 통찰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그의 사상을 학문 일반의 종교적 전제 문제로 확장하여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둘째, 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주의 개념은 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복지국가의 맥락에서 논의됐으며,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 사회에 대한 적용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셋째, 국내 연구의 경우 하우즈바르트 자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개혁주의 철학과의 연관 속에서 그의 경제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단순한 경제윤리 이론이 아니라 신앙과 학문의 관계를 설명하는 철학적 틀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진보신앙 비판을 도어베르트의 선험적 비판과 연결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성장 중심 문화와 학문 풍토에 비판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본 연구는 경제주의를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종교적 전제와 궁극적 헌신의 문제로 분석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 연구를 한국적 맥락 속에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

1. 하우즈바르트의 생애와 사역

하우즈바르트는 1934년 네덜란드 남부 델프트(Delft)에서 태어났다. 그는 1951년부터 1957년까지 로테르담(Rotterdam)에 있는 에라스무스(Erasmus)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1971년에 같은 대학에서 *Ongeprijsde schaarste(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희소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에서 그는 오염의 비시장적 비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물, 생존할 수 있는 동식물, 그리고 기타 충분한 천연자원과 관련하여 경제 연구에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희소성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경제 영역의 규범성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 후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1879년에 설립한 반혁명당(ARP: Anti-Revolutionaire Partij)의 연구소인 카이퍼 재단(Dr. Abraham Kuyperstichting)에서 1959년부터 1966년까지 일했다. 그는 1967년까지 하원에서 반혁명당을 지지했으며 1967년부터 1971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냈고 그 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으며 1986년부터는 철학부에서 사회문화 철학도 가르치다가 1999년에 은퇴하여 자유대 명예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1975년에 반혁명당, 기독교역사연합당(CHU: Christelijk-Historische Unie) 및 천주교 국민당(Katholieke Volkspartij)이 합쳐 기독교민주당(CDA: Christen-Democratisch Appèl)이 1980년에 설립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는 1977년에 이 당의 선거 선언문인 Niet bij brood alleen(빵만으로는 안 된다)를 공동 집필했다. 하지만 같은 해 판 아흐트(Van Agt) 내각의 보수적인 노선에 실망하여 1980년에 사임했다. 나중에 그는 진보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인민당(EVP: Evangelische Volkspartij)의 이념가가 되었으나 당원이 되지는 않았다.

그는 빈곤과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 기독교와 교회의 책임에 대한 성찰과 기독교 사회사상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2년 네덜란드 사자 훈장 기사(Ridder in de Orde van de Nederlandse Leeuw) 작위를 받았으며, 2011년 네덜란드 개신교 신학 대학(Protestantse Theologische Universiteit)으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4년 4월 20일, 고향인 하위스 테르 하이데(Huis ter Heide)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

2. 하웃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

1) 이론적 배경: 개혁주의 철학

하웃즈바르트는 정치와 사회사상에서는 흐룬 판 프린스터러(G. Groen van Prinsterer, 1801-1876) (최용준, 2023: 123-143), 카이퍼(A. Kuyper, 1837-1920) (최용준, 2022: 187-205) 및 네덜란드의 정치인으로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총리를 지냈던 헤르브란디(P.S. Gerbrandy, 1885-1961), 윤리 사상은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D. Bonhoeffer, 1906-1945), 교회 활동에서는 세계교회 일치 운동(ecumenism), 과학과 철학 분야에서는 도여베르트(최용준, 2005: 37-66)와 특히 그와 폴렌호브(최용준, 2008b: 105-131)에 이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나온 2세대 개혁 철학자 중 한 명이었던 메케스(J.P.A. Mekkes, 1898-1987)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최용준, 2025: 467-498). 하웃즈바르트는 도여베르트가 모든 학문적 사고와 문화의 종교적 근원을 드러낸 선형적 접근(transcendental approach) (Dooyeweerd, 1935-1936. 1953-1958. 1963 ; Kraay Trans. Vander Vennen & Zylstra ed. 1979 ; Choi, 2000)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를 “광의

의 기독교적 영감을 받은 과학 활동의 선구자”인 동시에 “서구 문화의 원리와 사회 구조에 대한 심층적 비판의 공간을 창조한 사람”으로 본다(Goudzwaard, 1995: 36).

그는 도여베르트의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개혁된 관점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 서구사회의 실제 문제들의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 철학적 성찰을 시도했다. 도여베르트의 양상 이론에 따라(최용준, 2024: 45-65) 하우즈바르트는 현실의 규범적 구조(normative structure of reality), 특히 경제적 측면의 규범성(normativity of the economic aspect), 그리고 창조된 현실의 응답적 구조(responsive character of created reality)을 강조한다. 전자는 그의 초기 논문 “경제 이론과 현실의 규범적 측면(De economische theorie en de normatieve aspecten der werkelijkheid)”에서 명확히 드러난다(van Dijk e.a., 1961: 310-324). 따라서 그는 경제학을 양상 학문으로 강조하며, ‘사실’과 ‘규범’, ‘설명’과 ‘가치’ 사이의 엄격한 신칸트적 구분을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회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완전히 중립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는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접근법을 자신의 연구에 적용하여 다양한 경제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한 대화는 “그 기본 전제가 명확해질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0: 97).

그는 또한 “모든 인간의 경제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창조물인 모든 최소한 재화를 검소하게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주장하며 창조된 현실의 응답적 구조를 강조한다(Goudzwaard, 1970: 10-11, 168).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요 1:1). 창조는 마치 말씀과 같으며,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도록 부름을 받았다(최용준, 2008). 이러한 응답적 구조와 현실의 규범성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문화 활동에서 규범적 원리에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우즈바르트의 경제학 비판은 단지 윤리적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는다. 그의 문제 제기는 경제학이 표방해 온 ‘가치중립성(Wertfreiheit)’의 전제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접근은 직접적으로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에 근거한다. 도여베르트에 따르면, 이론적 사고는 결코 자율적이거나 중립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는 모든 이론적 사유가 세 가지 선형적 질문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첫째, 이론적 사고는 무엇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가(이론적 태도의 형성)? 둘째, 분석의 기준이 되는 질서와 통일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셋째, 이론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이론이 항상 선이론적(pre-theoretical) 현신, 곧 종교적 기본 동인에 의해 방향 지어진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 관점에서 보면, 경제학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성은 사실/가치의 이분법을 전제하는 근대적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학은 자신을 경험적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과학으로 규정하며,

가치 판단은 외부 영역에 속한다고 본다. 그러나 도여베르트의 분석에 따르면, ‘사실’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이미 특정한 규범적 구조의 선택을 전제한다. 예컨대 경제학이 희소성, 효율성, 성장, 생산성 등을 중심 범주로 설정하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경제적 양상만을 절대화하는 선택을 수행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방법론적 결정이 아니라, 현실의 다차원적 구조를 특정 양상으로 환원하는 종교적 방향성의 표현이다.

아웃즈바르트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 경제학은 경제적 양상의 자율성을 선언하면서, 경제 성장을 사회 질서의 궁극적 기준으로 격상시킨다. 이때 경제는 하나의 기능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규정하는 중심 규범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도여베르트가 말한 ‘양상적 환원’의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범주가 다른 모든 문화 영역—윤리, 법, 공동체, 신앙—을 판단하는 최종 잣대로 기능하게 될 때, 경제는 더 이상 상대적 질서가 아니라 절대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아웃즈바르트의 가치중립성 비판은 다음과 같은 선형적 구조를 지닌다. 첫째, 경제학은 사실/가치 구분을 통해 자신을 중립적 학문으로 제시하지만, 둘째, 그 이론적 범주 선택 자체가 이미 특정한 종교적 근본 동인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셋째, 그 결과 경제적 양상이 현실의 통합 원리로 오인되고 절대화된다. 이러한 분석은 경제학이 단순히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수준의 비판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제학의 이론 형성 조건 자체가 종교적 방향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선형적 비판이다. 다시 말해, 경제학은 신앙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 과학이 아니라, 특정한 궁극적 헌신—특히 근대 인본주의적 진보 동인—에 뿌리를 둔 문화적 실천의 한 형태이다.

이 점에서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경제학과 신앙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시도가 아니라, 학문 활동의 존재론적·인식론적 전제를 해명하는 철학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더 자세히 논의할 그의 진보신앙 비판은 결국 학문의 자율성 신화를 해체하고, 모든 학문이 궁극적 헌신에 응답하는 행위임을 드러내는 시도이다. 따라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은 외부적 결합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종교적 근원의 자각과 방향 전환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2) 진보신앙 비판

아웃즈바르트는 특히 진보(vooruitgang)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현대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전제를 예리하게 분석한 후, 이 개념에 대한 자신의 선형적 비판을 제시하고, 이어서 자신의 기독교적 대안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우선, 1972년 교수 취임 연설에서 그는 인간의 진보 신앙(vooruitgangsgeloof)이 도여베르트가 묘사한 “자연

의 완전한 통제를 향한 르네상스의 파우스트적 야망”, 즉 근대 서구 사상과 문화의 자연적 이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2: 5; Dooyeweerd, 1958: 64 ; Goudzwaard, 1974: 98-131). 그는 사회적 진보와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 측면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 서구 문화 전체에 뿌리내려 왔으며, 진보적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J.K. Galbraith, 1908-2006)와 네덜란드의 미래학자였던 폴락(F.L. Polak, 1907-1984)이 대표자들이라고 본다(Goudzwaard, 1972: 15).

진보 신앙은 그의 다른 책 *과도하게 발전한 서구에 대한 도움*(*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1975)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그는 여기서 서구 국가들을 심각한 과잉 개발과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이는 “문화 전체와 비교하면 기술 및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발전한 것”을 의미한다(Goudzwaard, 1975). 그는 인플레이션, 실업, 대중의 신뢰 저하, 에너지 및 자원 부족, 노동자 불만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는 생태적,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성장 모델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 과잉 개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면서, 그는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이 지닌 구원적이고 해방적인 힘에 대한 깊은 믿음, 즉 “성장하는 자유 시장 생산의 틀 안에서 현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 동인이었다고 주장한다(Goudzwaard, 1975: 3). 그 이후 그는 “화폐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과 경제 체제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다(Goudzwaard, 1975: 4).

이것을 다른 말로 ‘경제주의(economism)’라고 부르는데, 이는 경제적 논리와 성장, 시장 효율성을 사회 전반의 판단 기준으로 절대화하는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신념 체계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산업 혁명 이후 근대 자본주의가 확산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기술적 효율이 인간 번영과 사회 문제 해결의 최고 가치로 숭배되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현대 서구인은 경제 체제의 자율적 발전을 선언하고, “경제적 진보가 그 방향이나 인간이나 자연의 희생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선언했다”라고 그는 분석한다(Goudzwaard, 1975: 13). 하우즈바르트는 이를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학문적 편향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근대 서구 문화와 사상의 종교적 기반, 즉 인간 진보에 대한 신앙과 결합된 문화적·종교적 이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주의의 핵심 구조는 경제적 성취와 기술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절대화하고, 사회적·윤리적 고려보다 성장과 효율성을 우선하며, 인간과 자연, 공동체 등의 다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원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제주의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도여베르트적 선형 비판을 통해 분석될 수 있는 문화적·철학적 현상이며, 한국 사회에서도 성장과 경쟁, 효율을 절대적 선으로 숭배하는 사고 속에서 여전

히 작동한다.

하우즈바르트는 경제적, 기술적 성장과 사회적 진보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창조적 잠재력으로 이 세상에 부여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기술과 경제를 종교로 만들 때 위험이 발생한다”라고 경고한다. 즉, 우리가 그것들에 믿음과 신뢰를 두고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들을 절대화할 때 위험해진다는 것이며 그 결과, 현대 서구사회에 “무력감”이 스며들었고 “인류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선로에서 기관사 없이 기차에 앉아 파괴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다(Goudzwaard, 1975: 54). 다른 말로 그는 현대 서구사회를 ‘터널 사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는 함께 터널 안을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그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5: 30). 하지만 일단 한번 터널 안으로 들어오면 다른 길이 없기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진보 개념 또한 인간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생명 없는 사물 사이의 관계로 대체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바로 이것이 서구가 지금 위기에 직면한 이유라고 말한다. 즉, 인간이 자연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자연에 대한 통제력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저서 *자본주의와 진보사상(Kapitalisme en vooruitgang)*¹에서 하우즈바르트는 서구 문화의 지배적인 종교적 동인인 인간 진보의 추구에 대한 믿음과 서구사회 구조의 핵심 요소인 자본주의 사이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킨다(Goudzwaard, 1976). 그에 따르면, 진보에 대한 이러한 인본주의적 믿음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특징이었다. 이는 교육의 발전,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그리고 현대 기술의 혁신을 통해 이룩된 진보가 모든 종류의 사회 문제의 궁극적 해결과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임을 의미한다. 이 신앙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러한 진보를 계속 추구해야 함을 암시한다. 하우즈바르트는 자신이 선택한 가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Goudzwaard, 1976: xxii-xxiii.). 첫째로 인간의 진보라는 주제는 서구 문화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으며, 특히 산업 혁명 직전 계몽주의 시대에 번성했다. 둘째로 이 진보라는 모티브는 실제로 신앙의 모습으로 자주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 진정한 신앙의 고무적인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묘사되었다. 셋째로 근대 서구 세계의 서로 얽혀 있는 문제들, 가령, 환경과 자원 문제, 인플레이션과 실업, 소외와 외로움 등은 어떤 식으로든 서구의 기술적, 경제적 진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보라는 단어는 여러 작가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1) 부제는 *Een eigentijdse maatschappijkritiek(현대 사회 비판)*. 2판이자 개정판은 1978년에 출판되었다. 영어 번역은 Josina Van Nuis Zylstra, (1979). *Capitalism & Progress: A Diagnostic of Western Society*. Toronto and Grand Rapids: Wedge and Eerdmans.

이처럼 자본주의의 발전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검토함으로써, 하우즈바르트는 서구사회 질서가 진보에 대한 이러한 인본주의적 믿음으로부터 뚜렷한 영향을 받았으며, 그러한 영향이 서구사회에 대한 현대적 도전의 출현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이전 확신을 재확인한다. 그는 이러한 진보와 성장에 대한 믿음이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자본주의, 윤리적 영역에서는 공리주의, 예술 영역에서는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그리고 과학 영역에서는 실증주의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진보 동인이 실제로 도여베르트의 근대 서구사회의 종교적 근본 동인인 자연(nature)과 자유(freedom) 동인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한다(Goudzwaard, 1976: 13-14). 인본주의적인 서양의 근대 철학 및 문화는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대표되듯, 자연 과학적 이상을 절대시하는 ‘자연’ 동인과 인간의 인격 이상을 강조하는 ‘자유’ 동인이 공존했으나 양자가 결국 화합하지 못하면서 변증법적 갈등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현대 서양 문화의 위기라고 도여베르트는 분석했다(Dooyeweerd, 1963).

종교적 신념과 그 문화적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하우즈바르트는 “인간과 하나님, 및 그의 이론적·실천적 추구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성경적 규칙”을 언급한다(Goudzwaard, 1975: 14). 첫째, 모든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피조물 중에서 상대적인 무언가를 절대화하여 섬긴다. 둘째,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image of image)으로 변형되거나 변질된다. 셋째, 그 결과 인간은 이 왜곡된 형상에 따라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에 따라 그는 현대 서구 문명을 분석한다. 우선, 현대 서구인들은 경제 성장, 과학, 기술의 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 왔다. 따라서 그들은 이처럼 진보 신앙에 사로잡힌 서구사회의 구조 속에서 이러한 우상들의 형상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 그들은 이제 앞서 언급한 다양한 변증법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처럼, 그는 사회경제적 삶은 사람들이 믿는 바를 고백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하우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는 서구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고도성장의 경험 이후 형성된 성장 중심의 사회적 상상력은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거의 자명한 선(善)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문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동해 왔다.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효율성, 경쟁력, 생산성은 가치 중립적 기준으로 제시되지만, 이는 사실상 특정한 세계관과 신념 구조를 전제한 학문 이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사회의 학문 풍토는 하우즈바르트가 지적한 ‘준 종교적 진보신앙’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낸다.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문의 목적은 점차 진리 탐구나 공동선보다는 성과 지표, 취업률, 기술적 유용성으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며, 학문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총체적 성찰보

다는 경제 성장에 봉사하는 도구로 이해된다. 이는 학문이 신앙적·윤리적 성찰로부터 분리된 채 자율화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웃즈바르트가 비판한 진보신앙과 경제주의는 서구사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특히 고도성장의 경험 이후 형성된 성장 중심의 사회적 상상력은 경제 발전과 기술 진보를 거의 자명한 선(善)으로 받아들이게 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학문 영역에서도 강하게 작동해 왔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은 1인당 약 0.78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확인된다(OECD Society at a Glance 2022 보고서). 이는 OECD 평균 1.51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로,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사회복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또한 통계청의 2025년 고용동향 자료는 청년층(15-29세) 고용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이 약 44.8%에 불과하며, 청년 고용자는 전년 대비 약 218,000명 감소했다는 점은 경제성장률이 높아도 청년 세대의 고용 안정이 동반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시점의 통계에서도 15-29세 고용률이 약 44.6%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www.kostat.go.kr). 이러한 지표들은 단순한 경제 성장 수치만으로 사회적 번영을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며, 한국 사회가 여전히 성장 중심 패러다임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성과 지표와 경쟁,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는 학문적 풍토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점에서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한국 사회에서 학문과 경제 활동을 신앙의 관점에서 재사유할 수 있는 비판적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기독교 경제 철학적 대안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적 헌신이나 삶의 지향이 바뀔 때만 해결될 수 있다고 아웃즈바르트는 주장한다. 서구 문명에서 과학, 경제, 기술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지배적인 믿음은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과잉 개발의 영향으로 기대했던 진보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보 교리를 대체하기 위해, 그는 서구인들이 완전히 다른 신앙고백을 통해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건강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를 위해 서구인들이 경제생활의 종교적 뿌리를 인정하고 서구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부분을 형성하는 결정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웃즈바르트에 따르면, 진정한 진보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을 존중하고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2: 16).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해방하고 인도하는 힘이 있

으며 교회의 증거는 능력이라는 믿음을 표현한다(Goudzwaard, 1975: 20-21).

먼저, 경제적 삶에 대한 신성한 규범은 청지기 정신(rentmeesterschap, stewardship)이다(눅 12, 16장; 벰전. 4:10). 하웃즈바르트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창조의 응답 구조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한다(Goudzwaard, 1975: 56-57). 그에 따르면,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되지만”, 서구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지적한다. 즉, 먼저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노력한 다음 “동물, 식물, 그리고 다른 환경에 가한 피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Goudzwaard, 1975: 57). 그는 이러한 서구 사회경제 시스템이 진보에 대한 세속적 신앙에 의해 구축되었다고 확신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장차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대체할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다(마 4:4).

경제(Economy)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집(Oikos)인 이 세상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Nomos)을 바로 알고 그 법칙대로 다스리고 발전시킴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적 세계관을 현대 서구사회에 적용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방식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이 개방적 소유와 청지기 정신의 실천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행 2:44-47). 그는 오늘날 서구사회가 개방적이라기보다는 폐쇄적이라고 주장하며, 서구사회를 터널 끝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터널 사회”라고 규정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부실한 청지기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분[그리스도]은 모든 것이 그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실 것이다.”(Goudzwaard, 1975: 30)

그의 다른 저서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Idols of our Time*)에서 하웃즈바르트는 권력/안보, 번영, 혁명, 민족주의와 같은 현대 서구의 이상적 이념들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한다(Goudzwaard, 1981).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상적 이념들을 규탄하고 “셋별”로서 하나님의 새날을 알리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적인 순종의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촉구한다(계 22:16). 더 구체적으로, 광야와 같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그는 진보, 성장, 착취의 경제보다는 돌봄과 자족의 경제(economie van zorg en genoeg)를 옹호한다(Goudzwaard, 1986).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희생할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대안적인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둘째로, 하웃즈바르트는 청지기 정신과 함께 개혁된 소명(beroep, calling) 개념을 강조한다. 인간은 경험적 구조 속에서 신성한 규범을 실현해야 하는 문화적 행위자이다. ‘경험적’ 현실과 ‘규범적 현실’ 사이의 큰 불일치를 극복하면서, 그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규범이 인간이 인도하거나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각각의 ‘색깔’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다. 그는 심지어 모든 사업 활동이 청지기 직분을 확립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주장한다(Goudzwaard, 1986: 253-254). 따라서 그는 노동자들의 참여(medezeggenschap)를 지지한다. 또한, 카이퍼가 강조한 영역 주권(領域 主權, souverainiteit in eigen kring, sphere sovereignty), 즉 사회의 모든 영역은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각자 고유한 주권이 있으므로 한 영역이 절대화되어 다른 모든 영역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상이 예를 들어 기업 경영의 정부 개입에 대한 정적인 방어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오해에 맞서, 하우즈바르트는 더욱 정교한 원칙, 즉, 각 영역에 대한 책임(verantwoordelijkheid in eigen kring)을 주장한다.

환경, 시스템, 그리고 서구 인간의 취약성을 통해 진보의 변증법적 딜레마를 지적하면서, 그는 현대 서구 문화가 위기에 직면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이 위기는 자율적인 인간, 즉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자연을 무한히 복종시킨 인간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 동인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다시 한번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적 접근에 빛지고 있음을 인정한다(Goudzwaard, 1979: 155-156). 그는 이 위기에서 부분적인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가 이미 주장했듯이, 여기서도 “우리 사회에서 진보 그 자체의 위치를 논의할 때”에만 관점이 생긴다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Goudzwaard, 1986: 263). 더 구체적으로, 그는 생존할 수 있는 사회 구조의 결정 요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진실, 정의, 책임, 청지기 정신, 그리고 사랑이라는 규범으로의 회귀를 촉구한다.

나아가 그는 프랑크푸르트학파(Frankfurter Schule)의 사회학자였던 마르쿠제(H. Marcuse)의 혁명 사상, 미국 라이히(C. Reich)의 탈출과 반문화 사상, 깰브레이스의 사회와 인간 및 헝가리계 영국인 물리학자 데니스 가보르(D. Gabor)의 수정과 같은 다른 사상가들의 대안들을 검토하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회(disclosing society)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공개적 사회를 위한 네 가지 조건을 언급한다. 우선, 그는 “[우리는]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진보가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인간은 진보의 길을 따라 특정한 중요한 발전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Goudzwaard, 1979: 193). 네덜란드의 기독교 기술 철학자요 동료였던 스푸르만(E. Schuurman)의 주장, 즉 현대 사회의 ‘기술주의(technicism)’ 비판에 공감하면서 하우즈바르트는 진보의 힘, 즉 경제, 기술, 과학의 상호 불가분리적인 연결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경제, 기술, 과학은 “각각의 고유한 좁음을 서로 연결하는 세 개의 통합된 갈래기”이다(Goudzwaard, 1979: 197-199). 과학의 좁아짐은 자연 과학적 사고방식의 독점에 있다. 기술의 좁아짐은 기술이 주어진 자료의 자유로운 설계로서 “기술을 위한 기술”로 좁혀지는 기술주의로 귀결된다. 경제의 좁아짐은 모든 것을 화폐라는 잣대로 독점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가격이 없는 것은 어떤 가치도 갖지 못한다. 이 “3단 로켓은

... 우리 사회라는 우주선을 물질적으로 풍요한 약속의 땅을 향해 단일 궤도를 따라 더욱 높이 올라간다.”(Goudzwaard, 1979: 200)

둘째, “이러한 발전 동력이 사회의 궁극적 기준이라는 역할을 포기해야 한다.”(Goudzwaard, 1979: 193) 따라서 우선순위의 의식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 자연, 가치, 창조, 그리고 먼 이웃에 대한 의미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이 제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만 과학, 기술, 경제의 방향과 범위가 확립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셋째, “사회의 생산 부문에 직접적이고 완전한 책임을 재도입하여 도덕, 정의, 기술, 경제의 의무적이고 확고한 규범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Goudzwaard, 1979: 209)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적 책임은 단순히 시장의 점진적인 효율성 그 이상을 요구한다. 기업은 환경, 건강, 그리고 노동자와 집단의 복지 측면에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 기술적 책임은 단순히 그것이 작동하는지만 묻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전형적인 인간 도구의 창의적인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 있는지도 질문해야 한다(Goudzwaard, 1979: 213).

마지막으로, “노동과 인간 규범적 책임에 대한 관점을 포함하여 공리주의적 행복의 지평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Goudzwaard, 1979: 242). 사회적 관계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향하는 필수적인 규범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비록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문을 품고 있지만, 하우즈바르트는 진보라는 우상의 죽음으로 인해 발생한 공백에 새로운 종교적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부버(M. Buber)와 함께 이를 위해 창조주의 율법을 간구한다. 노예화하는 자율성이든, 해방하는 타율성이든, 유평피아를 제한하는 것이든, 아니면 성경적 종말(eschaton)의 고무적인 개방성이든 말이다. 여기에 우리의 가장 깊은 선택이 있다(Goudzwaard, 1979: 249). 하우즈바르트가 메케스가 강조한 도여베르트의 개현 과정(opening process) 개념을 여기서 적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카이퍼가 네덜란드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각 영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기 위해 시작한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기독교 사회 쾅그레스(Christelijk-Sociaal Congres) 1991년 대회에서 서두 연설을 한 하우즈바르트는 진보 신앙이라는 인본주의적 동인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다듬으며, 각자가 합리적으로 자신의 길을 갈 때 가능한 모든 세계 중 최상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순진한 진보 신앙은 사라졌다고 인정했다. 그는 오늘날 그것이 더욱 복잡하고 회의적으로 되었다고 계속 말한다. 진보 신앙 그 자체는 이제 정부, 기업, 노동조합 운동, 심지어 학교, 병원 및 기타 사회 기관과 같은 서구사회의 제도와 구조에 구체화하였다. 경영자들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충분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Goudzwaard, 1992: 74).

하지만 네덜란드 노동조합 연합(FNV: Federatie Nederlandse Vakbeweging)의 메스만(L.A.G. Mesman)은 이러한 하우즈바르트의 의견을 비판했다(Congresboek van het christelijk social congress, 1991: 82). 메스만은 모든 형태의 경제 성장은 잘못되었다는 하우즈바르트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개발도상국들이 빠른 경제 성장 없이 어떻게 합리적인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메스만은 제삼 세계의 성장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들이 경제 발전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메스만에 따르면 지속적인 발전은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3.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의의와 한계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현대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신화와 성장 중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경제 활동의 종교적·문화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그는 경제 문제를 단순한 정책이나 제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 헌신(ultimate commitment)과 문화적 방향성의 문제로 이해함으로써 경제학 논의를 철학적·신학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사상은 여러 이론적·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그의 사상의 현대적 의의 역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1)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의의

첫째, 하우즈바르트는 경제학의 가치중립성 신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구하였다. 근대 경제학은 일반적으로 경제 현상을 객관적 사실로 분석하는 가치중립적 학문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하우즈바르트는 도여베르트의 선형적 비판을 경제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경제학 역시 특정한 종교적 전제와 문화적 신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학이 희소성, 효율성, 경쟁, 성장 등을 중심 범주로 설정하는 순간 이미 현실에 대한 특정한 규범적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며, 모든 경제 이론은 궁극적 가치와 인간 이해를 전제한다. 이러한 통찰은 경제학뿐 아니라 현대 학문 전반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비판을 제공한다. 특히 기술주의와 실증주의가 지배적인 현대 사회에서 학문의 종교적·문화적 전제를 재성찰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그의 공헌은 여전히 유효하다.

둘째, 그는 성장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대표적 공헌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에 대한 근대 사회의 신념을 단순한 정책 선호가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 현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이다. 그는 진보신앙이라는 개념을 통해 경제 성장 자체가 인간 구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현대 문화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한 경제 비판을 넘어 문화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성장률, 생산성, 경쟁력이 사회 전체의 가치 기준이 된 현대 사회에서 그의 비판은 경제주의(economism)가 어떻게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셋째, 그는 경제 문제를 공동체적 책임과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주류 경제학은 대체로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이해한다. 이에 반해 하우즈바르트는 경제를 청지기직의 실천 영역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 활동을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창조 세계와 이웃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만든다. 특히 환경 위기와 양극화, 공동체 붕괴 문제가 심화되는 오늘날 그의 ‘돌봄과 자족의 경제’ 개념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논의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넷째, 그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경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작업은 단순히 경제 문제에 성경 구절을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다. 그는 경제 이론 자체의 철학적 전제를 분석함으로써 신앙이 학문의 외부에 존재하는 부가적 요소가 아니라 학문 형성의 근원적 토대임을 보여주었다. 이 점에서 그의 작업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학문 전통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하우즈바르트 경제철학의 이론적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은 몇 가지 중요한 이론적 한계를 지닌다. 첫째, 경제 성장의 긍정적 기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우즈바르트는 성장주의의 이상적 성격을 예리하게 비판하지만, 경제 성장이 역사적으로 수행한 긍정적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인다. 실제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인류의 평균 수명 연장, 교육 기회 확대, 절대 빈곤 감소 등 다양한 사회적 진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은 경제 성장이 단순한 물질적 축적을 넘어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복지 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고도성장을 통해 전후 빈곤을 극복하고 교육과 의료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할 때 성장 자체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둘째, 성장 비판과 성장 거부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 하우즈바르트는 반복해서 경제 성장을 절대화하는 태도를 비판하지만, 실제 정책 논의에서는 성장 자체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나 신흥 경제국의 경우 경제 성장은 여전히 빈곤 감소와 기본적 인간

육구 충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장의 방향과 목적을 비판하는 것과 성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비판자들은 아웃즈바르트의 논의가 선진국 중심의 문제의식에 머무르며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셋째, 현대 경제 체제의 복잡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아웃즈바르트는 경제주의를 현대 사회의 중심적 문제로 진단하지만, 오늘날의 경제 체제는 국가, 시장, 국제기구, 기술 플랫폼, 금융 네트워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위기를 단일한 종교적 동인이나 진보신앙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플랫폼 경제, 인공지능 기반 노동시장 변화 등은 경제주의 개념만으로 충분히 분석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3) 다른 경제사상과의 비교를 통한 한계

아웃즈바르트의 독창성은 다른 경제사상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지지만 동시에 그의 한계 역시 드러난다. 우선 자유주의 경제학은 시장을 단순한 효율성의 장치가 아니라 개인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한다. 이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집단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자발적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아웃즈바르트는 시장이 지닌 자유 창출 기능보다는 이상화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분석은 시장이 왜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를 구조적 착취 체제로 비판한다. 아웃즈바르트 역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지만, 마르크스와 달리 계급투쟁이나 생산수단의 소유 구조를 핵심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는 문제의 근원을 인간 마음의 종교적 방향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 책임을 강조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제 구조와 제도적 권력 문제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공동체와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아웃즈바르트와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구체적 정치 제도와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반면, 아웃즈바르트는 보다 근본적인 종교적 전환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의 대안은 철학적·신학적 수준에서는 강력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4) 정책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

아웃즈바르트 사상의 가장 큰 약점은 정책적 구체성의 부족에 있다. 그는 ‘돌봄의 경제’와 ‘자족의 경제’를 강조하지만, 이러한 원리가 실제 국가 경제 운영과 기업 활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국가 예산, 조세 정책, 국제 무역, 산업 정책,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구체적 영역에서 그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이 때문에 그의 사상은 강력한 규범적 비전(normative vision)을 제공하지만, 실천적 정책 이론(policy theory)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세계 시장과 긴밀히 연결된 경제 구조 속에서 ‘돌봄의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5) 비판적 평가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우즈바르트의 사상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핵심 공헌은 특정한 경제 정책을 제안한 데 있지 않고, 경제를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의 전환을 촉구한 데 있다. 그는 경제 문제를 기술적·제도적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인간의 궁극적 헌신과 문화적 방향성의 문제로 재해석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완결된 경제 이론이라기보다 현대 사회의 성장주의와 경제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만드는 규범적·철학적 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경제 발전의 성공 경험이 강한 사회에서는 그의 비판이 성장의 성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의 목적과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한 성찰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하우즈바르트의 기독교 경제철학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학문의 통합, 그리고 경제와 문화의 관계를 재사유하기 위한 중요한 철학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다.

III. 결론

본 논문은 밥 하우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을 고찰함으로써 현대 경제 질서에 내재된 종교적 성격과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탐구하였다. 그는 현대 사회가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보신앙’이라는 새로운 이상승배에 빠졌다고 진단하였다. 그는 경제를 가치중립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사회, 그리고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적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경제성장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제주의를 비판하고, 인간의 책임, 상호 돌봄, 청지기적 관리, 그리고 자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경제 질서를 제시하였다.

하우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은 개혁주의 철학, 특히 도여베르트의 사상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도여베르트가 인간 문화와 사회제도 속에 작동하는 종교적 기본 동인을 강조하였다면, 하우즈바르트

는 이를 현대 경제 체제에 적용하여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가 사실상 종교적 헌신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의 분석은 경제 문제를 단순한 정책적·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가치와 신앙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아웃즈바르트의 통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저출생, 청년 세대의 미래 불안, 과도한 경쟁, 장시간 노동, 그리고 공동체 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사회적 번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아웃즈바르트의 비판은 경제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재검토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적 책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회는 경제적 성공을 신앙의 축복과 동일시하는 번영주의적 경향을 경계하고, 정의와 돌봄,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웃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경제철학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기독교 세계관적 의미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그의 경제사상이 실제 경제 정책이나 현대 글로벌 경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그의 사상을 현대 생태경제학, 복지국가론, 공동체 경제론 등과 비교·분석하는 작업 역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아웃즈바르트의 경제철학을 현대 한국 사회의 경제·복지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을 탐구하고, 생태 위기와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그의 통찰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의 사상을 도여베르트를 비롯한 개혁주의 철학자들의 사회철학과 연계하여 연구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경제윤리와 사회 질서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웃즈바르트는 경제 성장과 진보를 절대화하는 현대 사회의 이상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창조 질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한 경제 이해를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경제적 효율성과 물질적 풍요를 넘어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창조 세계의 온전한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최용준 (2005). 헤르만 도여베르트: 변혁적 철학으로서의 기독교 철학의 성격을 확립한 철학자.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IVP, 37-66.
- 최용준 (2008a). **응답하는 인간**. SFC.
- 최용준 (2008b). 디르크 볼렌호브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철학**, 6권, 105-131.
- 최용준 (2023). 흐른 판 프린스터리의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8(3), 123-143.
- 최용준 (20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3), 187-205.
- 최용준 (2024).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한 고찰: 헤르만 도여베르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1), 45-65.
- 최용준 (2025). 요한 메케스(Johan P. A. Mekkes)의 기독교 철학에 나타난 특징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44, 467-498.
- Choi, Y. J. (2000). *Dialogue and Antithesis: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Herman Dooyeweerd's Transcendental Critique*. Buijten & Schipperheijn.
- Dooyeweerd, H. (1935-1936). *De Wijsbegeerte Der Wetsidee*, H.J. Paris.
- Dooyeweerd, H. (1953-1958).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 Dooyeweerd, H. (1958). *Maatstaven ter onderkenning van progressieve en reactionaire bewegingen, Rede 150-jarig bestaan Koninklijke Akademie van Wetenschappen*, N.V. Noord-Hollandsche Uitgevers Maatschappij.
- Dooyeweerd, H. (1963). *Vernieuwing en Bezinning: om het reformatorisch grondmotief*. van den Brink & Co. Kraay, J. Trans. Vander Vennen, M. & Zylstra, B. ed. (1979). *Roots of Western Culture: Pagan, Secular, and Christian Options*.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Goudzwaard, B. (1961). "De economische theorie en de normatieve aspecten der werkelijkheid", Van Dijk, W.K. e.a., *Perspectief: Feestbundel van de jongeren bij het Vijftienvintig-jarig bestaan van de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 Kok, 310-324.
- Goudzwaard, B. (1970). *Ongeprijsde schaarste: Exprietiale of ongecompenseerde effecten als economisch-theoretisch en economisch-politiek probleem*. Van Stockum.
- Goudzwaard, B. (1972). *Economie en Vooruitgangsidee*. De Erven F. Bohn N.V.
- Goudzwaard, B. (1974). *Schaduw van het groei-geloof*. J.H. Kok.

- Goudzwaard, B. (1975). *Aid for the Overdeveloped West*.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Goudzwaard, B. (1976). *Kapitalisme en vooruitgang: Een eigentijdse maatschappijkritiek*. Van Gorcum. Van Nuis Zylstra, J. trans. ed. (1979). *Capitalism & Progress: A Diagnostic of Western Society*. Wedge and Eerdmans. 김병연 역, (198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IVP.
- Goudzwaard, B. (1981). *Genoodzaakt goed te wezen: christelijke hoop in een bezeten wereld*. J.H. Kok. Trans. Vander Vennen, M. (1984). *Idols of our Time*. Downers Grove. (김재영 역 (1987).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IVP.)
- Goudzwaard, B. (1986). *Genoeg van te veel, Genoeg van te weinig: Wissels omzetten in de economie*. Ten Have. 3e ed. 1991. Goudzwaard, B. & de Lange, H. (1995). *Beyond Poverty and Affluence: Toward an economy of care*. Eerdmans/WCC.
- Goudzwaard, B. (1986). Christian Social Thought in the Dutch Neo-Calvinist Tradition. in Block, W. & Hexham, I. (Ed.) (1989). *Religion, Economics and Social Thought: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The Fraser Institute, 253-254.
- Goudzwaard, B. (1992). Samenhang tussen de oorzaken van de sociale problemen. in Mr. Cammaert, P. A. G. & van den Berg, C. A. (Ed.) (1992). *Congresboek van het christelijk social congress: 1991*. J.H. Kok.
- Goudzwaard, B. (1995). Dooyeweerd's maatschappelijke opvattingen. in De Bruijn, J. (Ed.) (1995). *Dooyeweerd herdacht. Referaten gehouden op het Dooyeweerd-symposium aan d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VU Uitgeverij, 25-38.
- Goudzwaard, B. Vander Vennen, M. and Van Heemst, D. (2007). *Hope in Troubled Times: A New Vision for Confronting Global Crises*. Baker Academic.
- Goudzwaard, B. & Jongeneel, R. (2014). Reformed Christian Economics. in Oslington, P. (Ed.) (2014). *The Oxford Handbook of Christianity and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engstmengel, J. (2026). Normative Economics in the Dooyeweerdian Tradition: An Evaluative Survey. *Philosophia Reformata* 91 (1):99-121.
- Jongeneel, R. (2019). Economic Normativity: The Case of the Budget Constraint. *Philosophia Reformata* 84, no. 2: 220-244.
- Northcott, M. S. (2004). The Market, the Multitude and Metaphysics: Ronald Preston's Middle Way and the Theological Critique of Economic Reason.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2), 104-117. DOI: 10.1177/095394680401700215.
- Woldring, H. E. S. & Kuiper, D. T. (1980). *Reformatrice Maatschappijkritiek. Ontwikkelingen op het gebied van sociale filosofie en sociologie de kring van het nederlandse protestantisme van de 19e eeuw tot heden*. Kok.

OECD Society at a Glance 2022 보고서.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society-at-a-glance-asia-pacific-2022_7ef894e5-en.html)

통계청의 2025년 고용동향 자료. (<https://www.kostat.go.kr/>) <https://allofliferedeemed.co.uk/bob-goudzwaard/>

봄 하우즈바르트의 진보신앙 비판과 기독교 경제철학: 한국 사회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Bob Goudzwaard's Critique of the Faith in Progress and Christian Economic Philosoph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최용준 (한동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경제 사상가 봄 하우즈바르트(Bob Goudzwaard)의 기독교 경제철학을 분석함으로써 현대 경제학이 전제해 온 가치중립성의 주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본 연구는 하우즈바르트의 주요 저작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그의 '진보 신화' 비판과 경제주의(economism) 개념을 중심으로 경제철학의 핵심 내용을 고찰한다. 연구 결과, 하우즈바르트는 경제 체제를 단순한 기술적·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궁극적 종교적 헌신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 표현으로 이해하였으며, 경제 성장이 그 자체로 목적화되는 경제주의가 발전과 생산성, 시장 자율성을 절대화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 창조 세계에 대한 규범적 책임을 약화시킨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통찰을 한국 사회의 압축적 산업화와 고도성장 경험에 적용하여, 경제 성장이 물질적 번영을 가져왔음에도 인간의 삶을 경쟁과 확장의 논리로 환원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을 강화하였음을 논의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하우즈바르트의 '돌봄의 경제'는 세속 경제 담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신앙과 실천의 도덕적·영적 기초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비록 그의 구상이 구체적 정책 설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완을 필요로 하지만, 그의 사상은 한국 사회에서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청지기적 책임과 공공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주제어: 봄 하우즈바르트, 경제주의, 진보 신앙, 돌봄의 경제, 개혁주의 철학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 Practical Theological Study Based on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류영식 (Young Shik Ryu)**

배귀희 (Kwi-Hee Ba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through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and the biblical theology of shalom. Existing studies on missional ecclesiology have mainly emphasized the church's identity, practice, leadership, and publicness, while studies on resident self-governance have largely focused on institutional design,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This study identifies a shared limitation in these discussions: the insufficient articulation of an ethical grammar that explains why the church and local communities must respond to the vulnerable Other.

Using a theoretical and integrative literature-based approach, this article examines Levinas's concepts of the face, asymmetrical responsibility, hospitality, substitution, and the third, and places them in conversation with *Missio Dei*, the *imago Dei*, the incarnation, the command to love one's neighbor, Matthew 25, Luke 10, and especially Jeremiah 29:7. The study argues that a missional church should not approach residents as objects of evangelistic expansion, recipients of religious programs, or instruments of institutional growth. Rather, residents should be encountered as concrete others whose dignity calls the church to listening, hospitality, public responsibility, and shared participation.

Likewise, resident self-governance should not remain at the level of procedural participation or

* 2026년 5월 13일 접수, 6월 2일 최종수정, 6월 5일 게재확정.

** 송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일반대학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박사과정,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남면 백운길 18, rys2580@hanmail.net

*** 송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khb07@ssu.ac.kr

administrative cooperation;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thical practice that protects vulnerable voices, widens participation, fosters deliberation, and cultivates trust for the common good. The article further proposes a practical model of “listening-hospitality-co-decision-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ibility,” through which the church may participate in local self-governance without religious domination or strategic self-expansion.

In conclusion, the convergence of Levinasian ethics,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offers a practical-theological paradigm for a community for and with the Other, in which public discipleship is embodied through the pursuit of local shalom.

Key words: Missional ecclesiology, Emmanuel Levinas, ethics of the other, resident self-governance, hospitality, publicness, shalom, public discipleship

I. 서론

현대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의 약화,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성장주의에 대한 피로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여전히 선교를 말하지만, 그 선교가 실제 현장에서는 조직 확장과 프로그램 유지의 언어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시에 주민자치는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참여의 형식만 남고 공공적 책임과 공동체적 신뢰의 밀도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공적 삶이 어떤 관계 윤리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며, 교회의 자기 보존과 확장주의를 비판해 왔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교회 성장 전략이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이해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선교는 교회 확장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적 증언이며, 교회는 자기들만의 폐쇄적 세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넘어 타자를 향해 열린 증언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일관된 지향이다.

주민자치 역시 주민 참여와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절차적 참여에 머무르거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 모델을 넘어, 교회와 지역공동체가 타자를 어떠한 윤리적 관계 안에서 만나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주목한다. 레비나스는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제삼자의 개념을 통해 공동체를 타자에게 열린 책임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선교적 교회가 타자를 선교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존엄한 이웃으로 만나는 이유를 설명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를 단순한 참여 제도가 아닌 책임과 환대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물론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만으로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근거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왜 교회가 타자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조, 성육신, 십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살림의 신학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 담론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논의가 서로를 보완하고 비판하며 지역의 살림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담론을 재해석하고, 양자를 연결하는 규범적·실천적 틀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담론이 공유하는 윤리적 공백을 분석하고, 레비나스의 얼굴, 책임, 환대, 제삼자 개념을 통해 선교적 교회와 주민 자치의 통합을 위한 실천 모형으로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의 제도화’의 네 단계를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공백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정초와 성서적 근거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분석하고 이를 주민자치의 윤리적 원리로 재해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 의의와 실천 모형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공백

국내 레비나스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레비나스 철학 전반의 입문과 해설에 관한 연구이다. 강영안은 레비나스를 서구 근대 주체 철학에 대한 근본 비판자로 읽으며 얼굴, 타자, 책임의 개념을 윤리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다(강영안, 2005). 이러한 해설 연구는 레비나스의 난해한 사유를 한국 철학계와 신학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레비나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다. “내가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하는 사건은 이해의 차원에 있지 않고 만남의 사건 자체에 있다”. 타인과의 만남은 내가 결코 그 위치에 설 수 없는 비대칭적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주도권도 가질 수 없다(강영안, 2005: 124-128).

둘째는 레비나스 윤리의 정치적 확장에 관한 연구이다. 박예은은 제삼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레비나스 윤리가 일대일 대면 관계를 넘어 정의와 정치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박예은, 2016). 이 연구는 레비나스가 단지 개인윤리에 머문다는 통념을 넘어 제도, 배분, 비교의 문제까지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자치와 같은 공적 제도 논의에 레비나스를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가교로 작용한다.

셋째는 공동체와 환대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읽는 연구이다. 심상우는 마을공동체를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로 재독해하며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라는 이상을 제시하였다(심상우, 2019). 김경은(2022)은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실천 신학적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환대가 단순한 친절이나 수용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타자 개방의 영성임을 강조하였다. 김경은은 레비나스의 환대 윤리를 그리스도교 환대 영성과 연결시키려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박종균(2025)은

타자의 얼굴과 환대를 성서 윤리 차원에서 검토하여, 레비나스의 사유가 기독교적 이웃 사랑과 깊이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해외 연구에서는 레비나스를 현상학, 윤리학, 정치철학, 종교철학을 가로지르는 사상가로 다루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Critchley & Bernasconi, 2002 ; Critchley, 2014).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레비나스 개념 자체의 해명이나 정치 철학적 확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매개하는 실천 신학적 틀로 발전시키는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 지점이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연구 공백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선교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재정의 해 왔다. Bosch는 선교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선교를 교회의 부속 기능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로 파악하였고(Bosch, 김병길·장훈태 역, 2011), Guder는 북미 상황에서 교회 전체의 구조와 삶을 선교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uder, 박영돈·손신·황을호 역, 2013).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복음의 공적 증언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해석 기능을 강조하였다(Newbigin, 허성갑 역, 2007).

한국의 연구도 상당한 축적을 보였다. 이후천은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례와 기준지표를 검토하며,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냄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에 있음을 논증하였다(이후천, 2013). 박원길과 황병준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목회 리더십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박원길·황병준, 2015), 주상락과 최동규는 한국형 선교적 교회 모델을 유형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구체화하였다(주상락·최동규, 2021). 성석환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한국적 상황과 공공성의 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성석환, 2024).

그럼에도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대체로 교회의 정체성, 사역 유형, 리더십,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지만, ‘타자란 누구이며, 교회는 타자와 어떤 관계 구조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정초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그 결과 선교적 교회론은 때로 전략 담론으로, 때로는 지역 사회 친화적 교회 운영론으로 소비될 위험을 남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취약한 지점을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연구는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법제화, 주민역량, 사회적 자본, 행정 협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김순은은 주민자치 실험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가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김순은, 2014). 윤원수와 양덕순은 주민자치센터

참여 만족이 지역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윤원수·양덕순, 2014)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집 역시 주민자치가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밀착형 협치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 준다.(행정안전부, 2022)

그러나 주민자치 연구는 대체로 제도 설계와 운영 성과, 참여율과 사례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이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공성은 어떤 윤리적 기초 위에 성립하는지, 약자와 소수자의 얼굴은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지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 보조 장치나 지역 이익 조정 기제로 축소될 위험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를 설명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 제도를 지탱하는 윤리적 문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선교적 교회론은 공공적 참여의 신학적 동기를 제공하지만 타자 개념의 철학적 정초가 약했고,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와 성과를 다루지만 책임과 환대의 윤리학이 약했다. 본 논문은 이 두 담론의 공백을 레비나스 윤리와 성서적 살롬 신학을 통해 동시에 메우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독창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레비나스 연구와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 연구를 하나의 규범적 틀 속에서 교차 독해한다. 둘째, 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Missio Dei*, *imago Dei*, 성육신, 이웃 사랑, 살롬의 신학을 결합하여 책임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단순한 행정제도가 아니라 책임·경청·숙의·신뢰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를 전략적 선택이나 부가적 봉사가 아니라, 타자를 향한 선교적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는 통합 논지를 전개한다.

III.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정초와 성서적 근거

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점은 1952년 빌링겐 선교대회 이후 본격화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선교를 교회의 고유 사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운동으로 이해하도록 전환시켰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구조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증언자로 이해된다(Guder, 김병길·장훈태 역, Bosch, 2011 ; 박영돈 외 역, 2013).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수행하는 개별 활동을 넘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사

역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신학적 접근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단순한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미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다면 과거의 이원론적 구분을 극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 방식에서 찾는다. 결국 선교는 교회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질 그 자체이며, 모든 교회 활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다. 즉, 교회는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거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별하고 그 사역에 참여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이 복음 또한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의, 화해, 평화, 창조 세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총체적 구원으로 확장된다. 전도·사회봉사·정의 실현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자기중심성을 해체한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화해와 정의와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공적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보았고(Newbigin, 허성갑 역, 2007), Moltmann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Moltmann, 1977).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교회가 세상 밖에서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보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도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론이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향력 회복 전략이나 확장 주의적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은 자신의 실천이 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자를 교회의 목적 아래 포섭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기 비판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기비판의 철학적 근거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서 찾고자 한다.

2. 하나님 형상, 성육신, 이웃 사랑의 공공적 의미

선교적 교회가 타자에게 책임져야 하는 성서적 근거는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론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는 타자를 단지 선교의 대상이나 사역의 수혜자로 볼 수 없게 만든다. 타자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선교적 행위는 타자의 고유성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성육신은 이 원리를 더욱 구체화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고통과 일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그 삶의 자리에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사회 참여론이 아니라 성육신적 논리에 기초한다. 교회는 지역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주민을 추상적 집합이 아니라 이름과 얼굴을 가진 이웃으로 만나야 한다.

이웃 사랑의 명령 역시 경계와 배제를 넘어서는 책임의 방향을 제시한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에 중요한 전환을 요구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를 기존 주민, 다수자, 적극적 참여자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교회의 선교 역시 이미 친숙한 사람들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참된 이웃 사랑은 경계를 넘어서는 책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5-40절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임을 밝힌다.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 성서적 통찰과 깊이 공명한다. 물론 유대 철학자인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기독교 신학 및 선교적 교회론의 맥락으로 전이시킬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간과할 수 없다. 레비나스는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서(특히 이사야 53장)가 예언한 메시아와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메시아성이란 기독교의 성육신적 대속 사건이라기보다,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나’의 무한한 책임과 인질 됨(être otage)의 윤리적 구조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론적·기독교적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환대를 메시아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복음서의 시선과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실천적 지평에서 깊은 연대(Continuity)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강영안, 200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불연속적 지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가운데,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적 메시아성을 매개로 삼아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자치 속에서 ‘소외된 타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교회가 가난한 자, 이주민, 돌봄이 필요한 이웃, 지역에서 배제된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복지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서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은 복음의 외적 홍보가 아니라 취약한 얼굴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살롬 신학과 예레미야 29장 7절

살롬은 전쟁의 부재나 개인적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살롬은 관계의 회복, 정의의 확립, 삶의 온전함, 공동체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를 포함하는 통전

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교세 확장이나 종교적 영향력 강화로 제한될 수 없다. 선교는 지역의 살롬을 향한 참여이며, 그 살롬은 가장 약한 자를 포함할 때 비로소 참된 살롬으로 드러난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본 논문의 핵심 성서 본문이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명하신다(렘29:7). 이 명령은 포로 공동체에게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평안, 곧 공공선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동화주의가 아니라, 타향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도시의 복지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는 소명이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접점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는 본문이다. 교회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세속적 영역’이라고 외면할 수 없고, 주민자치를 ‘행정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교회가 지역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립, 돌봄 공백, 갈등, 배제, 불신의 문제에 공공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 참여는 살롬의 추구가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결국 살롬 신학은 레비나스 윤리와 주민자치 담론을 신학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레비나스가 윤리의 선행성을 말한다면, 살롬 신학은 그 책임이 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책임은 추상적 도덕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향한 실천이며, 주민 자치는 그 실천이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살롬 신학은 성서 본연의 구체적인 ‘환대의 논리(Theology of Hospitality)’를 통해 보완될 때 비로소 그 실천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1) ‘게르(Ger)’에 대한 환대와 하나님의 명령

기독교 신학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대응하는 가장 일차적인 성서적 논거는 구약의 ‘나그네(Ger, 타자) 환대 사상’이다. 구약성서에서 나그네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경제적·정치적 보호막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이자 레비나스가 말하는 ‘절대적 타자’의 현현이다. 레위기 19장 34절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고 명령한다. 구약의 환대 율법은 이스라엘 자체가 과거에 나그네(타자)였다는 역사적 기억에 뿌리를 둔다. 즉, 타자를 향한 환대는 선택적 자선이 아니라, 신명기적 사상(신 10:18-19)에 나타나듯 타자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존재론적 책임이다(Fraser, 2014).

2) 신약 성서적 근거 : 성육신적 환대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서에 이르러 환대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과 대속을 통해 극대화된다. 신학적으로 환대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라는 타자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요 1:14)이며, 예수는 스스로를 환대받아야 할 기독교적 타자(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5-40절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선언은 환대의 신학적 정점이다. 존 쾨니히(König, 1985: 84-89)는 이 문맥을 통해 기독교의 환대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에티켓을 넘어, 소외된 타자를 영접함으로써 그 경계선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성례전적 사건’임을 밝힌다.

이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한 부름을 듣는 레비나스의 현상학과 실천적 맥락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3) 선교적 교회론과의 결합 : 공적 환대로서의 주민자치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사상적 근거는 막연한 사회 봉사가 아니라, 성서적 환대의 공적 실천이다. 폴(Pohl, 이경직 역, 2004: 23-35)이 지적하듯, 기독교 역사에서 환대는 언제나 교회의 제도적 안정을 깨고 소외된 자들을 공적 공동체의 주체로 복권시키는 전복적 힘을 지녀왔다.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인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회의 확장 주의적 속성을 비판하고(Newbigin, 1989),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육신적으로 번역해내는 본질적 선교 수행이다.

이러한 신학적 전제는 주민자치라는 공적 영역과 만날 때 교회의 지역 참여를 단순한 봉사나 행사로 축소하지 않도록 돕는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적 실천이다. 교회가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웃의 삶에 깊이 연루되어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주민자치 참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육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V.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공공성의 철학

1. 얼굴과 윤리의 선행성

레비나스 철학의 출발점은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다.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우선시해 왔다면, 레비나스는 그러한 우선순위 자체가 타자를 동일성 안에 가두는 폭력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를 존재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타자의 얼굴이 주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타자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자에 제공되는 존재는 시간적 존재다. 이 존재는 연기 자체인 자신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폭력에 맞세운다. 시간이 뜻하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폭력에 바쳐진-존재의 모든 실존이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아님’이라는 사실이다. 이 ‘아직 아님’은 죽음에 대하여 물러남이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레비나스의 사상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타자의 얼굴이다. 그가 말하는 ‘얼굴’은 시각적 형상이나 심리적 인상을 넘어선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얼굴은 내가 설명하고 파악하고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를 넘어,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타자의 현전으로 제시된다. 레비나스는 얼굴이 동일자의 체계 안으로 완전히 정렬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도 절대적인 것으로 남는다고 설명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얼굴은 소유를, 나의 능력들(pouvoirs)을 거부한다. 얼굴의 에피파니 속에서, 표현 속에서, 감각적인 것, 아직 포착 가능한 것은 포획에 전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바뀐다. 얼굴은 내게 말을 걸고 또 그럼으로써, 향유든 인식이든 실행되는 내 능력과는 아무런 공통의 척도가 없는 관계로 나를 초대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이 통찰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지역 주민을 교회 사역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그들의 얼굴 앞에 서야 하며, 주민자치는 참여자를 단지 통계 수치나 대표 집단으로 보기 전에 그들의 구체적 삶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 얼굴은 모든 제도와 프로그램 이전에 놓인 윤리적 원점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의 얼굴은 교회와 주민자치가 자기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타자의 존엄과 호소를 먼저 듣도록 만드는 윤리적 출발점이 된다.

2. 비대칭적 책임과 대속의 구조

레비나스 윤리의 급진성은 책임의 비대칭성에 있다. 얼굴의 현전은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명령으로 나타난다. 그는 얼굴의 현전을 타자의 무한, 궁핍, 그리고 우리를 응시하는 제삼

자의 현전으로 설명하면서, 타자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한다고 본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근대 윤리학이 상호성, 계약, 균형, 보편 규칙을 중시했다면, 레비나스는 윤리의 시작점이 ‘내 권리’가 아니라 ‘타자의 취약성’에 있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체는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해 열려 있는 존재로 전환된다. 후기 레비나스의 대속(substitution) 개념은 이러한 책임을 더욱 심화한다. 대속은 타자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타자의 짐이 내 삶을 건드리도록 허용하는 자기 이탈의 구조다. 주체는 타자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는 기독교 신학과도 깊이 공명한다.

물론 비대칭적 책임은 오해될 수 있다. 그것은 부당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아니며, 약한 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윤리도 아니다. 오히려 이 원리는 힘과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함을 요청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원과 조직력, 공간을 가진 교회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타자의 필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주민자치에서도 발언권이 큰 집단은 자기 이익의 최대화보다 취약한 이들의 호소를 먼저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3. 환대와 자기 비움의 공공성

환대는 레비나스 윤리의 핵심 실천 형식이다. 환대는 타자를 내 체계로 흡수하거나 동질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자가 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다. 나의 집, 나의 언어, 나의 제도가 낯선 이를 위해 열릴 때 환대는 발생한다. 레비나스에게 집은 소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타자를 맞아들이는 윤리적 공간이다. 이 개념은 선교적 교회에 중요한 자기비판을 제공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만 접근할 때, 환대는 쉽게 온정주의로 변질된다. 그러나 레비나스적 환대는 교회가 먼저 듣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움의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다. 선교는 타자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교회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환대는 결정적이다.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민총회와 회의가 실제로는 특정 시간대, 특정 언어, 특정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회의실 문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낯선 주민과 조용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때 주민자치는 절차를 넘어 환대의 공적 형식이 된다.

4. 제삼자와 정의: 윤리의 제도적 번역

레비나스 윤리가 개인적 관계만을 다룬다는 비판은 제삼자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레비나스에게 제삼자는 한 타자와 나의 관계 안에 이미 함께 현전하는 또 다른 타자이다. 그는 “제삼자는 타인의 눈 속에서 나를 응시한다”고 말하며, 언어와 정의의 문제를 제삼자의 등장과 연결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제삼자의 등장은 비교, 판단, 배분, 법, 제도를 필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의는 윤리의 배신이 아니라, 다수의 타자들 앞에서 윤리를 사회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주민자치는 레비나스 윤리의 공적 번역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총회, 의제 선정, 예산 배분, 갈등 조정, 복지 네트워크 형성은 모두 여러 타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삼자의 공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얼굴이 더 쉽게 지워지고 어떤 목소리가 더 쉽게 배제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정의의 제도여야 한다.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헤게모니가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감수성이다. 교회는 특정 신앙공동체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압력 집단이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이웃의 얼굴을 공적 언어 속으로 번역해 내는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때 레비나스의 제삼자 개념은 교회의 공공성과 주민자치의 윤리적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5.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네 요소: 경청, 참여, 속의, 신뢰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 능력을 갖춘 자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의 조건이다. 자아는 먼저 독립적 개인으로 세계에 등장한 뒤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인에 대한 부채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체험한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강제나 지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타자의 부름 앞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으로 눈떠 가는 방식이며, 타율성이 곧 인간성의 근원적 작동 원리임을 보여 준다(Benaroyo, 2022).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서』에 나타난 ‘말함’, ‘환대’, ‘제삼자’, ‘대속’의 개념을 주민자치의 실천적 요소인 경청, 참여, 속의, 신뢰로 재해석한다. 이 재해석은 레비나스 개념을 단순히 주민자치 용어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절차적 참여에 머물지 않고 타자의 얼굴을 실제로 보호하는 윤리적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실천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1) 경청: 말함의 피동적 노출

첫째 요소는 경청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태도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경청은 누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의 고통을 공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적 조건과 연결된다. 주민총회와 공론장이 평일 낮 시간에만 운영된다면 노동자, 돌봄 제공자,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언어와 문서 중심으로만 정보가 제공된다면 언어적·문화적 자본이 낮은 주민은 주민자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경청은 회의 시간, 정보 전달 방식, 발언 순서, 의제 접근성, 공간의 물리적 개방성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비나스가 말한 ‘말함’은 단순한 음성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주체가 타자 앞에서 자신을 방어 없이 노출하는 윤리적 사건이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필자는 이 ‘말함’의 피동성에 주목하여, 주민자치 현장에서 교회가 미리 준비한 선교적 정답을 내려놓고 주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윤리적 경청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경청은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아니라, 타자의 삶이 교회의 판단과 실천을 흔들도록 허용하는 응답의 방식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경청은 선택적 태도가 아니라 공공적 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교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교회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필요가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자신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경청이 가능할 때 주민자치는 행정 절차를 넘어 타자의 호소가 공적 의제로 전환되는 책임의 장이 될 수 있다.

(2) 참여: 환대와 거처의 개방

둘째 요소는 참여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보다 ‘누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생활 돌봄의 사각지대, 고립된 노인, 이동약자, 이주민 가정, 위기 청소년과 같이 쉽게 보이지 않는 얼굴을 공적 의제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주민자치는 윤리적 깊이를 얻는다. 레비나스에게 주체는 자기만의 성체를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거처’를 타자에게 열어 타자를 맞아들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이러한 거처의 개방은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 단순히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하는 행정적 행위를 넘어, 교회의 물리적 공간과 인적 자원, 그리고 관계망을 주민들의 공론장으로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에 있어 참여란 제도적 회의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낮추고 타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존재론적 개방이다.

이러한 참여는 교회 건물을 회의 장소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시간, 공간, 관계, 돌봄의 역량을 지역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교회가 자신의 공간과 관계망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순간, 주민자치는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타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구체적 장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자아의 폐쇄성을 깨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참여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주민 자치안에서 감당해야 할 환대적 실천이다.

(3) 속의: 제삼자와 정의의 실현

셋째 요소는 속의다. 제삼자의 공간에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다수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속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주민들이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판단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가장 쉽게 잊히는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약자의 얼굴을 잊지 않는 속의만이 윤리적 주민자치의 이름에 합당하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제삼자의 등장은 한 사람의 타자를 넘어 다수의 타자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때 타자들의 요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곧 정의의 문제로 등장한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본 논문은 이 제삼자의 정의 개념을 주민자치 의사결정 과정인 속의의 신학적·윤리적 번역으로 해석한다. 주민자치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속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외된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정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속의는 회의 기술이나 절차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묻는 윤리적 훈련이다. 선교적 교회는 주민자치의 속의 과정에 참여할 때 자기 신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으로 서기보다, 발언하기 어려운 이웃의 얼굴이 공론장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돕는 책임 공동체로 서야 한다.

(4) 신뢰: 대속과 책임의 축적

넷째 요소는 신뢰다. 사회적 자본 연구는 주민자치가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김순은, 2014 ; 윤원수·양덕순, 2014). 그러나 신뢰는 단순히 자주 만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내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경험, 나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렸다는 경험, 공동체가 나의 취약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신뢰는 행정적 효율성의 산물이기보다, 레비나스적 의미에서 환대와 책임이 축적된 사회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비나스 윤리의 정점인 대속은 타자의 고통과 책임을 주체가 대신 짊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체가 타자를 위해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자처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Levinas, 문성원 역, 2024). 필자는 이러한 대속적 책임이야말로 파편화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주민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동력이자 실천적 기제라고 판단한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신뢰는 교회가 대속적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자산이다.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교회의 자기희생적 태도는 깨어진 지역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뢰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에서 신뢰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민들이 서로의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가 약자의 고통을 함께 책임진다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선교적 교회는 이 신뢰 형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과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타자의 짐을 함께 지는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축적이 주민 자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윤리적 동력이 된다. 물론 레비나스의 윤리는 기독교 신학과 동일한 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타자의 얼굴 앞에서 책임이 선행한다는 그의 통찰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구조와 깊이 상응한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 윤리는 신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자를 대상화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1> 레비나스 윤리와 선교적 교회·주민자치의 통합 분석틀

레비나스 타자윤리 개념	의미	선교적 교회로의 적용	주민자치 및 거버넌스적 적용
얼굴	타자의 현전이 먼저 나를 호출함	주인을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만나는 존재 방식	주인을 통제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주체로 대면하는 제도
비대칭적 책임	권리 이전에 타자에게 먼저 책임짐	교회의 자기 확장보다 타자의 필요를 앞세우는 공적 책임	다수의 이익보다 취약한 주민의 호소를 우선 고려하는 구조
환대	타자가 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자리 비움	공간 개방, 경청, 자기비움의 선교	접근성 보장, 참여 장벽 완화, 포용적 의사소통
대속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음	돌봄과 연대의 실천, 고통의 공동 부담	취약층 대변, 생활문제 공동 해결, 책임의 분담
제삼자와 정의	다수의 타자들 앞에서 윤리의 제도화가 요청됨	종교적 언어를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공적 참여	속의, 배분, 갈등조정, 소수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의 실현

<표 1>은 레비나스의 주요 개념이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의 실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비대칭적 책임의 개념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를

고정한다. 우리는 대개 ‘기브 앤 테이크’식의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지만, 레비나스는 내가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주체의 윤리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회가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어떤 보상이나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타자인 주민 그 자체의 존엄성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한다.

V.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주민자치 참여의 의의

1. 선교의 대상화 비판과 타자 중심 전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참여는 단순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협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 참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활동의 한 형태이다.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접점은 먼저 교회의 자기비판에서 나타나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자기비판은 교회가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를 선교의 대상, 교회의 잠재적 확장 영역, 혹은 이미지 개선의 무대로 여기는 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 개념은 교회가 이러한 도구적 접근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주민과 주민자치 조직은 교회가 변화시켜야 할 객체가 아니라, 먼저 그 얼굴 앞에서 교회가 자신을 성찰해야 할 타자이다. 이러한 전환은 선교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선교는 더 이상 교회 밖으로 나가는 활동의 총합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과 호소 앞에서 교회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방식이 된다. 이때 주민자치 참여는 단순한 시민적 봉사가 아니라 공공적 제자도이며, 복음의 사회적 증언이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 공간에서 교회는 주도권을 쥐는 기관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 동시에 주민자치 역시 교회를 하나의 이해집단이나 자원 제공 기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공적 주체로서 지역의 선과 정의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다. 다만 그 참여는 종교적 헤게모니의 언어가 아니라 번역 가능한 공공 언어, 강요가 아니라 설득,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는 서로를 정화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2.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과 확대의 실천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입증된다. 첫째, 공간의 개방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과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이 공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학적 선언이 될 수 있다. 낯선 주민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일은 레비나스적 환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적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생활 밀착형 동행이 요구된다. 선교적 교회는 주민자치 회의체에 이름만 올리는데 머물지 않고, 지역의 실제 문제, 곧 돌봄, 안전, 고립, 세대 갈등, 다문화, 빈곤, 교육, 환경에 대한 경청과 연대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해결사라기보다 동행자에 가까워야 한다. 주민의 언어를 듣고, 필요를 함께 분별하고, 다른 기관과 연결하며, 취약한 주민이 홀로 남지 않도록 관계망을 만드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공공적 책임이다. 셋째, 취약층의 대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과정은 대체로 발언 능력과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말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권력 행사가 아니라 레비나스적 의미의 대속과 대변의 실천이며,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가장 작은 자를 향한 돌봄과도 연결된다. 넷째, 종교 언어와 공공 언어 사이의 번역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살림, 사랑, 이웃, 섬김, 정의라는 신학적 언어를 사용할 때, 주민자치의 공론장에서는 이를 돌봄, 포용, 참여, 안전, 공공선, 신뢰와 같은 공유 가능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번역 없는 참여는 오해를 낳고, 자기 언어만을 앞세우는 공공성은 결국 타자를 다시 배제할 위험이 있다.

3. 주민자치를 통한 레비나스의 실천 모형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 자치의 통합을 위한 실천 모형으로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의 제도화'의 네 단계를 제안한다. 첫째, 경청의 단계에서 교회는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민의 얼굴과 서사를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마을 조사, 비공식 만남, 돌봄 현장 방문, 지역 네트워크 대화는 이 단계의 핵심 실천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공동체가 된다.

둘째, 환대의 단계에서 교회는 공간과 관계를 개방한다. 주민 모임 장소 제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규모 만남, 갈등 당사자 간의 안전한 대화 공간 마련은 환대의 구체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사의 주최자나 관리자가 되기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 결정의 단계에서 교회는 주민자치의 공식 구조 안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의제를 다루며, 자신의 이해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선을 위한 판단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교회는 종교적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삼자의 정의를 고려하며, 특히 취약한 이웃의 관점에서 의제를 재구성하려

고 노력해야 한다. 공동 결정은 교회가 지역사회 위에 서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책임의 제도화 단계에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선의나 일회적 실천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와 지역 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를 공적 의제로 연결하는 속의 체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연계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이 정착될 때 교회의 공공적 참여는 일시적 이벤트를 넘어 타자를 위한 책임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며, 그 결과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와 협력, 정의와 돌봄이 축적되는 책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체계 구축보다는 취약한 타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의 제도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모형은 선교를 주민자치 안으로 흡수하거나 주민자치를 교회 사역의 하위 영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가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향한 책임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모델이다. 이때 교회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4. 비판적 검토와 한계

이러한 통합 논의에는 몇 가지 긴장이 존재한다. 첫째, 레비나스의 비대칭적 책임은 현실 공동체에서 과도한 부담과 번 아웃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 소수 헌신자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의 윤리는 개인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 분담과 제도적 보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는 정교분리와 종교 중립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회가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과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공공 언어로의 번역, 과정의 투명성, 타자 존중, 그리고 자기 특권의 절제이다.

셋째, 주민자치 자체가 국가와 행정의 논리에 흡수될 위험도 있다. 주민 참여가 실제 권한 이양 없이 동원과 정당화의 도구가 될 때, 교회의 참여 역시 쉽게 제도적 장식물로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자치가 실제로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론적 통합에 초점을 둔 문헌 연구이므로 구체적 지

역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본 논문이 제안한 윤리적·신학적 틀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거나 실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교회론의 재구성: 타자를 위한 공동체

레비나스와의 대화는 선교적 교회론의 교회 이해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든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 조직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보냄 받은 공동체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때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감수성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정체성은 ‘구별됨’과 ‘열림’의 긴장 속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론적 전환은 예배와 교육, 봉사와 선교, 지역 참여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게 한다. 예배는 공적 책임으로부터 분리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리여야 한다. 교회 교육 역시 교리 지식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낮은 이웃을 만나는 법, 공공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 차이를 견디며 함께 숙의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성숙은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 이러한 윤리적 감수성의 성숙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은 통제와 동원보다 분별과 경청, 권한 위임과 공공 협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선교적 리더십은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도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때 교회는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역의 살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된다.

본 논문이 시도한 통합은 철학을 신학 아래 종속시키거나, 반대로 신학을 윤리 철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신학이 종종 간과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교회가 자신의 언어와 제도 속에 타자를 포섭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반대로 기독교 신학은 레비나스가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 책임의 근원과 목적, 곧 왜 타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창조와 성육신,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서사로 응답한다. 따라서 철학과 신학의 만남은 상호 대체가 아니라 상호 정화와 상호 조명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철학은 신학을 자기비판 하도록 만들고, 신학은 철학적 윤리에 역사적·구원사적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상호 조명은 선교적 교회의 공공 실천을 더 겸손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대화는 언제나 맥락화의 과제를 동반한다. 서구 철학과 서구 선교 담론을 한국의 지역사회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제도 문화, 종교 지형, 주민자치의 실제 운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세심한 번역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가 공유하는 핵심 문제를 타자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성서적 살롬 신학을 통해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의 공공선에 책임져야 하지만, 그 실천은 언제나 타자를 대상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지만, 윤리적 토대가 결여될 경우 절차주의와 다수자 중심 논리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제삼자의 개념은 이 두 담론을 동시에 비판하고 새롭게 연결하는 윤리적 문법을 제공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윤리적 문법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 형상론, 성육신, 이웃 사랑,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살롬 명령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얻는다.

교회는 자신이 서 있는 지역의 평안을 구해야 하며, 그 평안은 가장 약한 주민을 포함하는 공공적 평화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참여는 교회 본질과 무관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보냄 받은 공동체가 지역의 살롬을 위해 감당하는 선교적 책임의 한 형식이다. 결국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진정한 접점은 권력, 영향력, 조직 확장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교회가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고, 주민자치가 타자와 함께하는 제도가 될 때, 두 영역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수렴된다. 그 지향점은 지역의 살롬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 '타자를 위한, 그리고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배워야 할 공공적 제자도의 형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라는 서로 다른 학문적·실천적 영역을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매개로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가 주로 교회의 정체성, 사역 유형,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교회가 왜 타자를 향해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윤리적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 연구가 제도 설계와 참여 확대, 행정적 성과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주민자치를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책임과 환대의 실천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는 각각의 영역을 넘어 공공적 책임과 공동선의 추구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만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이 제안한 '경청-환대-공동결정-책임의 제도화' 모형은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를 단순한 봉사나 행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공공적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회는 주민을 선교의 대상이나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바라보지 않고, 먼저 그들의

얼굴 앞에 서서 경청하고 환대하며 함께 결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역시 단순한 참여의 절차를 넘어 취약한 타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축적하는 윤리적 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종교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신뢰와 돌봄, 정의와 화해를 촉진하는 공공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이론적 틀을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대형 교회와 소형교회, 다양한 주민자치 운영 환경에서 타자 중심의 선교적 실천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이는데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뿐 아니라 공공신학, 시민사회론, 공동체주의 이론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의 모델을 넘어, 타자를 위한 공동체와 책임의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실천 신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를 질적·비교 연구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칭적 책임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의 긴장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한국적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종교 언어와 공공 언어의 번역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를 하나의 실천 신학적 틀 안에서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 속 교회의 공공적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 김정은 (2022).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신학과 실천**, 78, 159-183.
- 김도형·문성원 역 (2022). **타자성과 초월**. Levinas, E. (1970). *Altérité et transcendance*. 그린비.
-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2025).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관한 시론**. Levinas, E. (1961).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그린비
- 김병길·장훈태 역 (2011).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기독교문서선교회.
- 김순은 (2014).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 연구**, 28(3), 3-34.
- 문성원 역 (2024).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Levinas, E. (1974).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그린비.
- 박영돈·손신·황윙호 역 (2013). **선교적 교회**. Guder, D. L. (1998).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예은 (2016).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제3자의 정치철학. **인문논총**, 73(1), 307-336.
- 박원길·황병준 (2015).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5, 43-73.
- 박종균 (2025). '타자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선교와 신학**, 67, 77-109.
- 성석환 (2024). 한국적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재구성. **선교와 신학**, 64, 75-107.
- 심상우 (2019).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53, 364-397.
- 윤원수·양덕순 (2014). 주민자치센터 참여만족도가 지역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5, 57-86.
- 이경직 역 (2004). 손대접: 기독교 전통 안에서 환대의 회복. Pohl, C. D. (1999).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복있는사람.
- 이용재 역 (2017). **미국의 민주주의 I**. Tocqueville, A. de. (1835). 아카넷.
- 이후천 (2013).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례와 그 기준지표에 대한 고찰. **선교신학**, 34, 141-165.
- 주상락·최동규 (2021). 한국형 선교적 교회 연구: 현상학적 질적 연구 중심으로. **선교신학**, 64, 252-288.
- 행정안전부 (2022). **2022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 허성갑 역 (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IVP.

- 홍종락 역(2014). **사랑과 정의**. Wolterstorff, N. (2011). *Justice in Love*. IVP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aroyo, L. (2022). The Significance of Emmanuel Levinas'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Medical Judgmen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5, 327-332.
-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Orbis Books.
- Critchley, S. (2014).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Derrida and Levinas* (3rd ed.). Edinburgh University Press.
- Critchley, S. & Bernasconi, R. (Ed.). (2002).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ser, G. (2014). Scapegoating Immigrants is the Oldest Trick in the Book. *Guardian*.
- Guder, D. L. (Ed.). (1998).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Eerdmans.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 Levinas, E. (1985). *Ethics and infinity: Conversations with Philippe Nemo*. Trans. Cohen, R. A. Duquesne University Press.
- Levinas, E. (1998).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Lingis, A. Duquesne University Press.
- Moltmann, J. (1977).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SCM Press.
-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 König, J. (1985). *New Testament hospitality: Partnership with strangers as promise and mission*. Fortress Press.
- Tocqueville, A. de. (2000). *Democracy in America*. Trans. Mansfield, H. C. & Winthrop, 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 Practical Theological Study Based on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류영식 (숭실대학교)

배귀희 (숭실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와 성서적 '샬롬(Shalom)' 신학을 매개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기존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주로 교회의 정체성, 실천, 리더십, 공공성을 강조해 왔으며,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 설계, 참여, 행정 성과, 사회적 자본에 치중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지역공동체가 왜 취약한 타자에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윤리적 문법'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론적이며 통합적인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본고는 레비나스의 핵심 개념인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그리고 '제삼자'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성육신,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0장, 특히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과 대화시킨다. 연구의 결과로, 선교적 교회는 주민을 전도 확장의 대상이나 종교 프로그램의 수혜자, 혹은 제도적 성장의 도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주민은 교회의 경청과 환대, 공적 책임과 공동 참여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타자'로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또한 단순히 절차적 참여나 행정적 협력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민 자치는 취약한 목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넓히며, 속의를 촉진하고, 공동선을 위한 신뢰를 배양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이라는 실천적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종교적 지배나 전략적 자기 확장 없이 지역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레비나스 윤리,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의 수렴은 타자를 '위하고'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실천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여기서 공적 제자도는 지역적 샬롬을 추구함으로써 구체화 된다.

주제어: 선교적 교회론, 에마뉘엘 레비나스, 타자 윤리, 주민자치, 환대, 샬롬, 공적 제자도

교회학교 성경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탐구 : A 교회 주중성경학교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An Inquiry into the Meaning-Making Process in Church School Bible Reading: Focusing on Student Questions at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김정준 (Jeongjo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Bible school students construct meaning from their questions during the process of reading and understanding the Bible. This inductive qualitative case study analyzed a year of accumulated teacher logs from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examining students' questions and their resolution processes to trace the journey of meaning-making.

The study found that students asked three types of questions: (1) foundational inquiry questions for factual verification, historical exploration, and symbolic interpretation; (2) deepened thinking questions regarding logical reasoning, extra-textual assumptions, and the nature of God; and (3) spiritual application questions concerning moral values, eschatology, and practical life application. To resolve these questions, students engaged in three main processes: self-directed inquiry (self-questioning), communal inquiry (peer discussion, information searches, and AI utilization), and leader-supported inquiry (teacher and ministry staff interven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students' questions progressed from basic textual exploration to advanced reasoning and spiritual application. Furthermore, students demonstrated an active role in constructing meaning through self-directed and communal inquiry, moving beyond passive learning. This study's significance is twofold: academically, it extends the Community of Inquiry model to the context of youth religious education and incorporates AI as a new variable. Practically, by providing a concrete analysis of student questions and meaning-making processes, it provides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유아교육과 부교수, 서울특별시 사당로 143, jjkim@csu.ac.kr

김 정 준

critical insights for designing learner-centered pedagogical models in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Key words: Church School, Bible Reading, question, meaning-making, communal inquiry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원천이자,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과 교육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 기반이다. 존 칼빈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Calvin, 문병호 역, 2020). 기독교 교육에서 성경 읽기는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과정이다. 성경 읽기는 단순히 텍스트의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신앙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전인격적인 의미 구성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서혜정, 2021 ; 신현광, 2013 ; 신현호, 2023 ; 안은주, 1999).

‘의미 구성’이란, 학습자가 텍스트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 환경적 배경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고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의미 구성 개념은 구성주의 학자들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비고츠키(Vygotsky, 1986)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기능과 의미 구성 과정은 개별적인 지적 활동에 국한되지 않으며,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여 내면화된다. 특히 학습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사적인 언어와 사회적 대화는 사고를 발달시키는 인지적인 도구가 된다. 여기에 학습자의 근접발달 영역(ZPD) 내에서 교사의 정교한 비계설정이 더해지면 의미 구성은 더욱 촉진된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가르치는 교사는 지식의 일방적 전달자가 아닌 학습자의 탐구를 돕는 ‘안내자’가 되어야 하며, 학습자는 수동적인 지식의 수용자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미를 발견해 가는 ‘주체’로 서야 한다(고아라, 2025). 하지만 교회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어렵게 하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그것은 교육의 내용이 되는 성경이 성인이 이해하기에도 어려운 문서인 동시에 충분한 학습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고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한자어 기반의 어휘, 복잡한 서술 방식과 많은 등장인물은 학습자의 이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윤철희, 2017).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였는데도 그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성인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거의 읽지 않거나 사건이나 인물 중심의 성경 이해 수준에서 머무르는 성도도 많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신앙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한국교회 내 성경 읽기 노력의 부재는 신앙의 미성숙을 넘어, 기독교인의 정체성 결여, 이단의 현혹, 기독교 신뢰도 하락의 원인으로까지 지적된다(송우재, 2013). 게다가 교회학교 교육 시간 중에서 성경을 읽고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은 대부분 20분을 넘지 않고,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 수업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초중등 학생이 성경을 읽은 후 제기한 ‘질문’을 성경의 의미를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주목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질문은 텍스트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노력과 삶에 적용하려는 영적 고민이 담긴, 의미 구성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렌즈가 될 수 있다. 학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문은 질문 주체자의 인지 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배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질문은 학습 내용에 대한 흥미와 이해의 수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짐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고아라, 2025 ; 박보미, 2019). 학생의 질문은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이자,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며 여타의 다른 학습 방식에 비해 학습자 이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촉매제가 된다(Graesser & Person, 1994).

또한 학습자의 질문은 교사에게도 중요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한다. 교사는 학생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사의 교수 행위를 성찰하며 자기 계발을 자극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박정진·윤준채, 2004 ; 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영, 2011).

교실에서의 질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의 질문 형태를 분석한 연구(강향립, 2009 ; 정선화, 2010 ; 진영은, 2000 ; 최일선·지옥정, 2006)와 교사의 질문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권낙원·민용성, 2003 ; 박라미·안준희, 2005 ; 선주원, 2003 ; 이종일, 2004) 등 교사의 질문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연구는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를 돕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대안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실제 학생이 수업에서 무엇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알게 되는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학생 질문에 대한 국내연구는 구성주의의 도입과 함께 활발해졌는데, 이런 연구들은 학생의 질문이 수업에 미치는 효과나 의미 구성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생 질문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김성근·여상인·우규환, 1999 ; 이명숙·조광희·송진웅, 2004 ; 최선미·여상인, 2011), 학생 질문 문화의 실태와 질문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연구(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영, 2011) 등이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의 질문 혹은 학생 질문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동시에 다루는 연구(박보미, 2019 ; 박정진·윤준채, 2004 ; 박정진, 2006 ; 손은주·박영태, 2011)도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구성주의 관점에 근거하여 교사와 학생 양측을 모두 수업의 주체로 보는 입장에서 질문의 기능과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축적된 선행 연구는 대부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실행된 연구이며 교회학교에서의 성경 읽기나 질문,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이나 의미 구성에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질문은 수업의 질을 가능하고 학습 성취도 향상에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교회학교에서 학생의 질문은 가치가 더욱 크다. 우선, 교회학교 교육을 위한 텍스트는 학교 교육을 위한 텍스트와 비교된다. 학교 교육을 위한 교재는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 전문가들이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한다. 이에 비하여 성경을 교재로 하는 교회학교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생이나 동일한 교재인 성경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경 본문은 분량도 많고 어휘의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표현도 일상적이지 않아 학교의 교과서에 비해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 성경 번역본을 달리한다 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김재우, 2017). 이는 성경의 내용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배경, 물리적 환경과 현저히 동떨어진 ‘까마득한 그때, 거기’를 다루고 있으며, 다수의 등장인물과 복잡하게 얽힌 사건과 서술구조에서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초중등 학생이 어떤 질문을 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분석한다면 학생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출석하는 교회의 독특한 프로그램인 주중성경학교 설립 초기부터 8년째 함께 하면서 초등, 중등 학습자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중 하나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 수준을 파악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상호작용적 수업 모형을 찾아가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사역자와 함께 교사의 수업 일지를 살펴보거나 행정지원팀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주중성경학교 학생들의 질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깊이, 삶에 적용하려는 고민이 성인을 방불하여 놀라곤 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였고, 교사와 학습자가 친밀해질수록 질문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질문의 내용이 달라졌는데, 질문이 학생의 사고와 인지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았을 때 질문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 발달의 단계를 가늠하고 교사가 학습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발문을 준비하는 등 상호작용적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파울러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이론을 기초로 신앙 발달 이론을 확립하고, 인간은 일생 동안 6단계를 거쳐 신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Fowler, 사미자 역, 1987).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감각운동기에 해당하는 영아기의 무분별한 신앙 단계(0단계)와 전조작적 특성을 보이는 유아기의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 단계(1단계)를 지나 구체적 조작기인 학령기가 되면 논리적 사고가 시작된다. 구체적 조작 수준에 있는 학습자는 발달을 지속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과 별의 관점에서 우주의 규칙을 이해하는 신화적이고 문

자적인 신앙 단계(2단계)에 이르게 된다. 형식적 조작기로 진입하는 만 12세 무렵이 되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인간관계와 소속집단의 가치관을 자신의 신앙으로 종합하는 인습적 신앙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후 청년기와 성인 초기가 되면 개별적이고 성찰적인 신앙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연구자는 주로 2단계에 있거나 3단계로 진입하는 학생의 질문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 발달 단계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의 교수-학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의미있는 통찰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하여 활발하게 질문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탐구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개리슨, 앤더슨과 아처(Garrison, et al., 2000)는 교수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탐구공동체(CoI)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학생의 질문은 인지적 실재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며, 교사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해결 과정은 사회적, 교수적 실재감을 구현하는 활동이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할 때 학습자 내면의 의미 구성은 촉진된다. 따라서 CoI 모형은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질문-해결-의미 구성의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에 연구자는 교사의 수업 일지에 나타난 학생의 질문 내용과 해결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의미 구성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교회학교 수업 설계를 위한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생의 질문이 그들의 사고 수준을 파악하는 핵심 단서가 되며, 이 질문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단순한 개인의 인지 작용을 넘어 공동체적 탐구의 역동 속에서 이루어질 때 심화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A 교회 주중성경학교를 사례로, 학생들이 성경 읽기 과정에서 제기하는 질문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1년간 축적된 교사의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귀납법적인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교수법 개발과 교회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천적 토대를 마련하고, 신앙 교육 현장의 실제적 고민을 학문적 탐구와 연결하여 미래 기독교 교육이 나아가야 할 참여적 교수학습 모델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학문적, 실천적 의의를 두고 아래와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주중성경학교 학생들의 성경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질문의 유형과 특성은 무엇인가?
2. 학생의 질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가?
3. 학생의 질문과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의미가 구성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기관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성경 텍스트를 매개로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떤 질문을 하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지식과 의미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보는 사회적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일지에 기록된 질문과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속에서 이루는 의미 구성의 과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한 귀납적 접근의 질적 사례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기관은 연구자가 협력권사 및 프로그램 자문으로 활동하는 A 교회의 주중성경학교다. 해당 기관은 2025년 3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 1학기 16주 32회와 9월 2일부터 11월 27일까지 2학기 12주 24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개강일과 종강일, 매월 한 번씩 코너별 전체 특별활동이 이루어지는 7회의 바이블 데이, 소풍, 체육대회 등 10회의 행사를 제외하고,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루 1시간 30분씩 총 46차시의 성경 본문 탐구와 연계 활동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순위 형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참여를 원하는 중학생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며 타 교회 교인과 비신자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연구 기간인 2025년도 본문 진행 일정은 표 1과 같다. 연구 기간인 2025년에는 1학기 창세기, 2학기 출애굽기 본문을 다루었다.

표 1.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연간 일정표

1학기			2학기		
월	일	본문/일정/내용	월	일	본문/일정/내용
3	4	개강예배/목장 모임	9	2	개강예배/목장 모임
	6	1과 모든 것의 시작 (창1:1-2:3)		4	1과 이집트에서 시작되는 구원 (출1:1-2:25)
	11	2과 에덴에서 일어난 일 (창2:4-3:24)		9	2과 모세야, 모세야! (출3:1-4:31)
	13	3과 첫 사람의 세 아들 (창4:1-5:32)		11	3과 여호와가 누구냐? (출5:1-6:27)
	18	4과 이 세대에 의로운 사람 (창 6:1-7:24)		16	4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재앙의 시작 (출6:28-8:32)
	20	5과 언약의 증거 (창8:1-9:29)		18	5과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계속되는 재앙 (출9:1-10:29)
	25	6과 우리의 성을 세우자 (창10:1-11:26)		23	6과 이 날을 기념하라 (출11:1-13:22)
	27	바이블데이 ¹		25	7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출14:1-15:27)
4	1	7과 복이 되어라 (창12:1-13:18)	30	8과 광야에서 먹는 양식 (출16:1-17:16)	
	3	8과 별을 세어 보아라 (창14:1-15:21)	2	바이블데이/체육대회	
	8	9과 새 이름에 주신 언약 (창16:1-18:16)	7	추석 연휴	
	10	10과 악한 땅에서 일어난 일 (창18:17-19:38)	9	한글날	
	15	11과 나를 웃게 하셨다 (창20:1-21:34)	14	9과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 (출18:1-19:25)	
	17	12과 그가 준비하실 것이다 (창22:1-23:20)	16	10과 열 개의 계명 (출20:1-21:36)	
	22	13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창24:1-67)	21	11과 여호와와 법과 절기를 지켜라 (출22:1-23:33)	
	24	바이블데이	23	12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24:1-25:40)	
5	29	14과 두 형제 이야기 (창25:1-26:33)	28	13과 회막을 만들어라 (출26:1-27:21)	
	1	15과 복을 빌어 주십시오(창26:34-28:9)	30	14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출28:1-29:37)	
	6	Break	4	15과 날마다 여호와 앞에 향을 피워라 (출29:38-31:18)	
	8	Break	6	바이블데이	
	13	16과 하늘에 닿은 사다리 (창28:10-30:24)	11	16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출 32:1-33:23)	
	15	17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창30:25-31:55)	13	17과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라 (출 34:1-35:29)	
	20	18과 형님을 만나러 가는 길 (창32:1-33:20)	18	18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출35:30-37:29)	
	22	19과 제단을 쌓아라 (창34:1-36:43)	20	19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38:1-39:31)	
27	20과 꿈꾸는 아이 (창37:1-38:30)	25	20과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다 (출39:32-40:38)		
29	소풍	27	종강예배/수료식/달란트데이		

1) 바이블데이는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데 학생 전체가 다 모여서 조를 나누어 본문과 관계된 코너별 놀이나 활동을 한다.

6	3	21과 고난을 만날 때 (창39:1-40:23)	겨울 방학
	5	22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창41:1-57)	
	10	23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창42:1-43:34)	
	12	24과 내가 요셉입니다 (창44:1-46:27)	
	17	25과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 (창46:28-48:22)	
	19	26과 아버지의 축복 (창49:1-50:26)	
	24	바이블데이	
	26	종강예배/수료식/달란트데이	
		여름 방학	

연구 기관은 학기가 시작되기 4주 전, 교회 광고를 통해 학생을 모집하며, 초등학생을 주 교육대상으로 한다. 2025년 재학생은 중학교 1학년 여자 1명, 2학년 남자 1명을 포함하여 1학기 58명, 2학기 60명이었다. 학생들은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5년째 주중성경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들은 2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본 교회 혹은 타 교회의 성도 혹은 교역자²였다. 학생의 거주 지역은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중심이 되지만, 온라인 목장은 거주지에 구애받지 않아, 통학이 어려운 수도권 지역(구로, 김포, 수원 등)과 대전, 강릉 등 지방 및 해외 거주(노르웨이) 학생도 있다. 특히 지방이나 해외 거주 학생은 본 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사한 가정의 자녀들이다.³ 2025년은 학생 2~6명이 한 학급을 구성하며 담임교사 1명이 배치되고 필요에 따라 보조교사가 유동적으로 배치되었다. 담임교사는 25년 1학기 18명, 2학기 18명이었다.⁴ 그 외에 섬김교사 5명, 협력권사 2명, 담당 사역자 2명이 사역하였다. 2025년 주중성경학교 담임교사의 주중학교 경험 및 교육 관련 경력, 목장 구성과 인원은 표 2, 3과 같다. 목장을 구성할 때는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하고, 한 목장의 인원이 5명이 넘지 않도록 하였다.

2) 학생 중 1명은 타 교회 교역자의 자녀였다.

3) 노르웨이 목장에 참여한 학생 1명은 부모님이나 학생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본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참여하였다.

4) 교사 중 2명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인해 케냐와 노르웨이에 거주하였다. 케냐 거주 교사는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목장을 담당하였고, 노르웨이 거주 교사는 이전의 주중성경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 현지에서 자기 자녀와 이웃 자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2.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담임교사 현황

	교사	학기		주중성경학교 교사경험	관련 경험 ⁵
		1	2		
1	J	○	○	8년차	현 미술 치료사, 주일학교 교사경력 13년
2	O	○		1년차	초등학교 교사(휴직), 주일학교 교사 12년차
3	H	○	○	3년차	주일학교 교사 15년차
4	P	○	○	2년차	주일학교 3년, 현 독서지도사
5	K	○	○	3년차	전 회사원, 주일학교 교사 5년차
6	J	○	○	2년차	본교회 새가족부 교사
7	C	○	○	1년차	전업주부
8	K2	○	○	1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차
9	O2	○	○	1년차	타교회 교인, 주일학교 교사 21년차
10	L	○	○	2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 교육학 전공 석사
11	L2	○		2년차	주일학교 교사 2년차
12	O	○	○	9년차	주일학교 및 은혜부 교사 34년차, 전 학원 수학교사
13	C2	○	○	3년차	전 임상영양사 주일학교 교사 15년차
14	S	○	○	1년차	전업주부
15	C3	○		6년차	몬테소리 영어교사, 케냐 선교지 한글학교 교사 경험 주일학교 교사 31년차
16	L3	○	○	4년차	주일학교 교사 경력 16년, 전 학원강사, 몬테소리 영어교사, 현재 케냐 거주. 나이로비 한글학교 교사
17	K3	○	○	3년차	현재 노르웨이 거주
18	L4		○	1년차	주일학교 교사 및 부감 12년
19	Y		○	2년차	어와나 교사 6년,
20	K4		○	1년차	전 고등학교 교사
21	J2		○	3년차	신대원 재학 중, 주일학교 교사 3년
	계	18	18	평균 2.8년	

5) 주일학교 교사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년차로,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년수로 기록하였고, 주일학교라 함은 영아
부부터 고등부까지 교회학교 전체를 의미한다. 교육 관련 경험과 주중성경학교 교사 선발은 무관하다.

표 3. 2025년 A 교회 주중성경학교 목장편성표

1학기				2학기		
방식	목장	교사	학생구성	목장	교사	학생구성
현장	1목장(7세/1학년)	J	7세 남 1명 초1 남 2명	1목장(1학년)	L3	초1 남 2명 여 2명
	2목장(1학년)	O	초1 여 2명	2목장(1학년)	Y	초1 여 3명
	3목장(1학년)	H	초1 여 3명	3목장(1학년)	J	초1 여 3명
	4목장(2학년)	P	초2 여 3명	4목장(2학년)	C	초2 여 3명
	5목장(2학년)	K	초2 남 2명	5목장(3학년)	J2	초3 여 4명
	6목장(3학년)	J2	초3 여 4명	6목장(2/3학년)	K	초2 남 1명 초3 남 1명
	7목장(3학년)	C	초3 남 3명	7목장(4학년)	L	초4 남 3명
	8목장(4학년)	K2	초4 여 3명	8목장(4학년)	K2	초4 여 3명
	9목장(4/5학년)	O2	초4 남 2명 초5 남 4명	9목장(5학년)	O	초5 남 3명
	10목장(5학년)	L	초5 여 3명	10목장(5/7학년)	K4	초5 여 2명 중1 여 1명
	11목장(6/7학년)	L2	초6 여 3명 중1 여 1명	11목장(5/8학년)	O2	초5 남 2명 중2 남 1명
	12목장(6/8학년)	O3	초6 남 2명 중2 남 1명	12목장(6학년)	P	초6 여 5명
현장인원	소계	39명	현장인원	소계	39명	
ON	13목장(2-4학년)	C2	초2 남 1명 초3 남 1명 초4 남 3명	13목장(1-3학년)	H	초1 남 1명 초2 남 1명 초3 남 2명
	14목장(4학년)	S	초4 여 3명	14목장(3-5학년)	C2	초3 여 1명 초4 여 1명 초5 여 1명
	15목장(4/5학년)	C3	초4 여 1명 초5 남 2명 초5 여 1명	15목장(4학년)	S	초4 여 3명
	16목장(6학년)	L3	초6 여 1명 초6 남 3명	16목장(4/5학년)	J3	초4 여 2명 초5 여 2명
	18목장 (노르웨이)	K3	7세 여 1명 초3 여 1명 초4 남 1명	17목장(6학년)	L3	초6 남 4명
				18목장(노르웨이)	K3	7세 여 1명 초3 여 1명 초4 남 1명
온라인인원	소계	19명	온라인인원	소계	21명	
합계	현12+온5+해외1	합계	58명	현12+온5+해외1	합계	60명

주중 성경학교의 일과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하여 20분간의 전체 예배 후 각 반으로 흩어져 수업을 하고 5시 30분에 다시 전체가 모여 간단한 퀴즈로 배운 내용을 확인한 후, 간식을 받고 헤어진다. 수업은 1교시 성경 본문 탐구⁶와 2교시 본문에 대한 연계활동⁷으로 이루어진다. 주중성경학교 일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A 교회 주중성경학교 일과표

시간	활동 내용	모임 형태와 장소	비고
~ 15:55	간식, 자유놀이	전체 모임 예배실	일찍 등교한 학생은 간식을 먹고 허용된 공간에서 놀이하며 교제한다.
15:55~16:00	배운 내용에 대한 영상 자료 시청		온, 오프라인 공동
16:00~16:20	예배와 기도 나눔		
16:20~16:25	교실로 이동		
16:25~17:10	본문 탐구	학급별 모임 각 반 모임 장소	커다란 공간을 4~5학급이 공동 사용
17:10~17:30	본문 연계활동	전체 혹은 학급별 모임	
17:30~	예배실로 이동 퀴즈 및 간식 배부, 귀가	전체 모임 예배실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한 퀴즈 하나를 답하고 귀가

담임교사는 1명의 신대원 재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교회 평신도이며 초임부터 9년 차 교사까지 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있거나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원 강사, 과외교사, 각급 학교 교사 이력을 가진 경우도 있다. 교사들은 학기가 시작되기 전(방학 중)에 다음 학기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매 학기 개강 직전 이틀간 약 8시간의 교사 세미나⁸와 개강 후 매주 이루어지는 교사 모임⁹을 통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 6) 본문 탐구는 자체 개발 교재에 따라 진행된다. 교재의 한 과는 도입 질문, 4~5장으로 나눈 본문 읽기와 궁금한 단어 알아보기, 말씀 생각하기, 말씀 정리하기로 구성되었다.
- 7) 연계활동은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경험하는 활동으로 연계활동 연구팀이 제안한다. 예를 들어 1과 모든 것의 시작 (창1:1-2:3)에서 1교시는 본문을 탐구하고 2교시에는 만화경을 만들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고 느껴보거나 라파엘의 천지창조 성화를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연계활동은 저학년과 고학년, 온라인 목장에 따라 활동을 다르게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 8) 개강 전 교사 세미나는 교회 부교역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해당 학기 본문 강해와 연구로 이루어진다. 2025년 1학기에는 창세기, 2학기에는 출애굽기 강의를 이틀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총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사를 위해 줄 강의를 병행하며, 강의를 녹화하여 해의 거주자나 필요한 교사가 반복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9)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 일주일 전에 담당 사역자가 진행하는 수업 연구 강의를 듣고 팀별(저학년, 고학년, 온라인팀) 토의를 하며 교사의 모의수업, 발문 연구와 연계활동 관련 회의와 자료 점검 등 다음 주 수업을 준비한다.

담당 사역자는 2명으로 프로그램 운영, 교재 개발, 수업 연구와 교사 교육 및 학부모 상담을 담당하는 예배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도사 1명과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대원을 졸업한 주중성경학교 담당 1년 차 강도사 1명이 행정과 온라인 목장 운영을 담당한다.

연구자는 연계활동과 프로그램 자문 및 협력 권사로, 유아교육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자의 배경과 위치는 연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자는 해당 주중성경학교 설립 준비 단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프로그램 연구와 준비, 8년간 협력 권사로 활동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 교육, 운영 전반에 대한 리더십으로 깊이 관여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연구자에게 두 가지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 첫째, 내부자로서 사역자 및 행정지원팀, 교사와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는 다른 연구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교사의 수업 일지와 회의를 통해 현장의 미묘한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연구자는 구성주의의 관점과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외부자로서,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 Fowler의 신앙발달 이론, CoI 모델의 학문적 렌즈를 가지고 현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치가 가져올 수 있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과정에서 특정 이론의 틀에 자료를 맞추기보다 교사 일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수집된 자료의 목소리를 듣는 귀납적 분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 또한 사역자 및 리더십과의 회의, 교사 모임, 정기적인 연계활동 자문회의, 평가회를 통해 수업과 일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 분석 과정을 나누는 등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수집

담임교사는 수업을 마친 후 가능한 2~3일 내 교사 일지를 작성한다. 교사 일지는 Google sheet에 출결 사항, 1교시(본문 읽기와 묵상)와 2교시(연계활동)의 수업 내용과 건의 사항, 기도 제목과 학생의 반응, 교사의 수업 성찰을 입력하도록 양식화되어 있으며 입력과 함께 모든 주중학교 구성원에게 공개된다. 본격적인 자료수집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교사 일지 활용 범위, 그리고 익명성 보장 방안에 대해 모든 담임교사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여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사일지의 기록 항목은 양식화 되어있으나 서술은 교사에 따라 자유롭게 기록한다. 교사 중에는 일지를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는 사람부터 수업 중 대화까지 자세히 기록하는 경우까지 개인

차가 있었으며 간혹 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날도 있으나 대체로 성실히 일지를 기록하였다. 연구자는 2025년 1, 2학기의 담임교사 21명의 교사 일지 1년 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를 출력하여 인쇄하였을 때 1학기 일지가 A4용지 9pt로 262페이지, 2학기 일지는 284페이지 분량이다.

연구자는 교사 일지를 담당 사역자와 같이 일지를 읽고, 혼자 반복적으로 읽으며 교사와 학생의 질문과 그 해결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이후 일지에 나타난 학생의 질문과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 내용을 발췌하였으며 이를 정리하였을 때 분량은 MS-Word로 66페이지, 106KB였고 도출된 질문은 모두 251개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서 첫째, 연구자는 교사 일지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의 질문, 질문에 대한 또래/교사의 반응,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이해 변화나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1차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내용을 MS-Word로 텍스트화하여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인 타게트(Taguette.org)에 업로드하고 추출된 의미소에 대한 데이터 중심 코딩법으로 자료를 1차적으로 분석하고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그룹화하여 꼬리표를 붙여 예비 범주를 구성하였다. 셋째, 분석된 결과는 연구 문제를 1차 뼈대로 삼아 학생의 질문, 이에 대한 교사와 또래의 반응을 분석하고 잠정적으로 범주 명을 붙여 분석한 후, 각 범주를 비교하면서 수정하거나 보완 작업을 거쳐 의미있다고 판단된 요소를 최종적인 범주로 도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최종 범주가 연구 목적과 문제에 부합하고 상호 독립적인지, 각 범주가 동일 수준상에 있는지, 범주 명이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하였다. 넷째, 추출된 자료와 분류된 범주는 타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시 엑셀 파일로 반출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읽고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범주별 특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추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와 추가 면접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학생의 질문은 3개 대범주의 9개 하위 범주, 해결 과정은 3개의 대범주의 6개 하위 범주로 분류하였다. 추출된 질문과 해결 과정에 대한 범주를 표로 제시하면 표 5, 표 6과 같다.

연구자는 자료 분석과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실의 참여관찰, 보조교사, 사진 및 학생 활동 작품 검토와 수집, 교사와의 비형식적인 대화, 추가 면담, 기관의 관리자인 담당 사역자, 총무, 연계활동 팀장과의 회의 및 자료 검토를 통한 삼각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표 5. 학생의 질문 유형 범주

대범주	하위 범주	설명
1. 기초적 탐구 질문 -성경의 사실과 배경 이해	1.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본문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파악하려는 질문
	2.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본문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는 질문
	3. 의미와 상징의 해석 질문	본문의 맥락과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질문
2. 심화된 사고형 질문 -논리와 신학적 가치 탐색	4.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논리적이거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5.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은 가상적 상황에 대한 질문
	6.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통치에 대한 질문
3. 영적인 적용 질문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	7. 도덕과 윤리, 가치에 대한 질문	인물의 심리, 행위, 상황과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적 질문
	8. 초월적 요소나 종말에 관한 질문	초월적 요소나 구원, 종말에 대한 탐구와 적용 질문
	9. 현실적 실천이나 적용에 관한 질문	본문의 실천이나 삶의 적용에 관한 질문

표 6. 학생 질문의 해결 방안

대범주	하위 범주	설명
자기 주도형	자문자답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공동체 탐구형	또래 간 설명	또래끼리 설명하고 해결하기
	토의와 대화	또래와 교사가 함께 의견을 나누기
	자료 검색과 AI 활용	자료나 영상 검색, AI에게 질문하여 해결하기
지도자 지원형	교사의 개입	교사가 설명하거나 재질문하기
	사역자 지원	사역자가 설명하거나 개입하기

III. 연구 결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성경 본문으로 다루면서 교사가 일지에 기록한 학생의 질문은 3개 범주에 대한 9개의 하위 범주로,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은 3개 범주에 대한 6가지 하위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를 연구 문제에 따라 각 범주별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학생의 질문유형

(1) 기초 탐구형 질문

학생들은 성경 텍스트를 읽고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학년에서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 전체 질문 중 기초 탐구형 질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질문은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누가, 언제, 어디서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질문,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 비유가 뜻하는 바나 상징을 해석하기 위한 질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①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학생들은 성경 본문을 읽고 사실이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 전체 질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이 나타난 범주는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이다. 추출된 질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려는 질문, 문맥과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질문, 식물 이름이나 도량형에 관한 질문이었다.

저학년은 단순히 어휘의 뜻을 묻는 질문이 많은 반면, 고학년과 중학생은 어휘의 뜻과 함께 성경 본문과 다른 성경을 연결 짓는 상호텍스트적인 질문도 나타났다. 예를 들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는 여자 사사 드보라랑 같은 사람인가요?(초4RA)”, “야곱이 물어달라고 하는 막벨라 동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그 곳이죠?(초6A)”, “라헬이 묻힌 이 베들레헴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유대땅 베들레헴인가요?(중2A)”와 같이 이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이나 혹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기반으로 성경 전체를 연관지어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려 하였다.

도량형에 관한 질문은 모든 학년에서 나타났는데, 저학년의 경우는 그게 무엇이냐고 직접 묻는데 반해,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은 사백 세겔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초4B)”, “규빗이 얼마 만큼이에요?(초5A)”, “세 스아는 어느 정도 인가요?(초6A)”와 같이 현재의 단위로 환산한 가치를 궁금해하며 현실과 연결하였다.

②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당시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는 질문은 고학년이 더 많았지만 저학년도 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름에) 성이 없어요? 우리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잖아요(초1A)”와 같은 질문은 1학년의 질문으로 우리 문화와 성경에 나타난 문화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고학년은 “이집트 사람들은 왜 목자를 싫어했어요?(초4A)”,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예요(초4C)”, “시날, 바빌로니아, 엘

라살...여기 나와있는 이름들이 지금의 나라처럼 독립된 나라인가요?(초5A)”, “(요셉이 파라오에게 갈 때 다섯 형제만 데려간 본문을 읽으며) 다섯 명만 데려간 건 이유가 있나요?(초6B)”.와 같이 당시의 관습,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 황적인 역사에 관해 물었다.

③ 의미와 상징 해석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상징성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질문하였는데 이런 질문은 주로 고학년에서 나타났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다 3년 이네요? 왜 꼭 3년이에요. 3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초4B)”, “ ‘유다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흰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초6A)”, “그러면 (이삭의) 눈이 어둡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못알아본다는 뜻인가요?(중2A)”와 같이 문자적 의미가 아닌 내포된 의미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그동안 읽었던 성경 지식에 근거하여 “(노아의 방주 사건)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까?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광야 40년, 가나안 정탐 40일 성경엔 40 숫자가 많은데 무슨 뜻이 있나요?(초6A)”라고 묻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당일 읽은 성경 본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특정 숫자가 제시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인지하고 숫자에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으로 본문 이해가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성경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와 사실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과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 역사와 배경 탐구 질문, 의미와 상징 해석과 같은 기초 탐구형 질문을 하였다.

(2) 심화된 사고형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논리를 따지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는 이성적인 질문, 논리적인 의심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질문,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논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질문이 나타났다. 이 범주에 속하는 질문 유형은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관한 질문으로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었다.

① 논리나 과학적 추론에 근거한 질문

학생들은 문맥의 의미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려는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탐색형 질문을

자주 하였다. 이런 질문은 고학년이 많았고, 저학년은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추론에 근거하였다. 예를 들어 “(규빗으로)길이를 잴 때 왜 팔길이로 했어요? 다리로 잴 수도 있잖아요? (초1B)”,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면 위생적이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초3A)”는 질문은 본문 이해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논리적 추론을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호기심이나 현실에 기초한 질문이다.

초등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창세기를 다룰 때 창조와 진화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과학 도서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성경 본문과 비교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식은 남자만 둘인데 어떻게 자식들을 낳았어요?(초3A)”,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아담이 먼저예요?(초3B)”, “하늘 위에도 바다예요? 과학에서도 막 같은게 있었다고 해요(초4D)”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정보와 자신이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의 정합성을 찾거나 과학적 상식에 기초하여 논리적 추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고학년은 본문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기반으로 본문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논리와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양상이 보였다. 예를 들어 “날마다 두 번씩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동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요?(초4E)”, “비돔과 라암셋성이 창고성이라는...그렇다면 왕이 머무는 성은 아니네요?(중2A)”, “방주의 크기가 모든 생명체를 싣기에 충분한 크기였을까요?(초6B)”, “바다에 사는 짐승, 물고기들은 비가 와도 죽지 않는 거 아닌가요?(초6A)”와 같이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며 본문 이해를 심화하였다.

② 텍스트 너머의 가정형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기반으로 자신의 추론을 첨가하여 “만약 ~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와 같은 가정형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질문은 본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건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정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하와)만 먹고 남자는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자만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여자를 또 만들어 주셨을까요?(초2A)”, “하나님이 계속 (파라오를) 일부러 고집스럽게 하셨는데 그럼(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을 안했을까?(초4D)”,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착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셨겠죠?(초5C)”, “(만일) 이집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의 장자도 죽나요?(초6C)”와 같은 질문이 나타났다. 또한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적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바벨탑 사건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후 아래와 같이 질문하였는데 내용을 통해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과 연관지어 추론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만약에 바벨탑을 안 쌓았으면 말이 이렇게 나눠 질 일도 없고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언어가 한 개였잖아요. 언어가 한 개였을 때는 다들 너무 편했을 거 같아요. 중국어를 안 해도 되고, 영어를 안 배워도 되고...근데 지금 우리는 이것 다 배워야 해서 너무 싫어요 (초2A, 2025.3.25)

③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질문

본문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많은 질문을 하였다. 어떤 질문은 매우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질문도 있었다. 이는 학생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그냥 방주를 ‘딱’하고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초2A)”, “아론은 정말 리더로서도 큰 잘못을 했어요.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도 지내게 했는데 그런데(하나님은) 왜 아론은 죽이지 않았을까요?(초3B)”,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전에 아담도 있었는데...(초3C)” 등이다.

초6A: (유다가 가족을 떠나 우상의 소굴이 아둘람에서 산 본문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유다가 나쁘게 되게 만드세요?

교사B: 유다가 선택한 일 같은데~

초6A: 아 하나님을 떠나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거예요?

중2A: 그렇게 살다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생각을 못하나?

초6A: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중2A: 하나님께서 곁에서 지켜보시고 계신 거겠죠?

교사B: 오늘 묵상과 나눔이 너무 좋다~ A형의 이야기처럼 곁에서 안타깝지만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 믿어지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같아. (2025.05.27)

위의 사례에서 족보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학생이 유다가 아둘람에서 하나님을 잊은 듯이 살았었는데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을 통해 오신 것에 놀라워하였다.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3) 영적 적용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세계관, 가치관으로 내면화하고 삶에 적용하거나 미래의 소망으로 연결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주로 고학년과 중학년에 나타났지만, 저학년에에서도 드물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주의 질문은 도덕과 윤리, 가치에 대한 질문, 초월적 요소나 종말론에 관한 질문, 현실적 실천과 적용에 관한 질문의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도덕과 윤리, 가치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인물의 행동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 기준을 정립하거나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는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어 저학년에 “제사장만 왜 좋은 옷을 입었어요?(초1B)”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런 질문은 제사장만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가치 판단이 포함된 직관적인 질문이다. 고학년에 “모세는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나요?(초4C)”, “자기가(사라가 하갈에게) 아기를 가지라고 해놓고 왜 갈보기 시작하는 거예요?(초4B)”, “모세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나중에 나오는데 그건 뭔가요?(초5)”, “드라빔은 수호신 같은 우상인데 라헬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그걸 챙겨요?(초6A)”와 같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의문을 가졌다. 다음 질문은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대한 성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심화 추론하는 사례다.

아브라함은 이계(사라를 누이라고 아비멜렉에게 속인 것)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봐요? 사라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다르니까 완전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하는 걸로 보면 아브라함은 죄라고 생각은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맘에 안드시니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겠죠? (초2B, 2025.04.17)

특히 여학생은 성경 본문이 남성 위주로 기술된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인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였다. “양피가 뭐예요? 근데 왜 남자만 했어요?(초4B)”, “그런데 야곱이 왜 디나는 축복해주지 않았어요?(초4F)”,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잉? 왜요?(초4D)”, “왜 성경에는 남자만 나와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나요?(초5)”, “하나님은 남자만 좋아하시나요?(중1A)”와 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은 남학생한테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초월적 요소나 종말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그 내용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종말, 천국,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은 비유인가요, 진짜인가요?(초3A)”, “고센 땅은 (재앙이)없었네요?(초5D)”, “그 모든 계(출애굽의 전 과정)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건가요?(초5E)”와 같은 초월적 요소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또한 “세겔은 죄를 저질렀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초4A)”, “예수님은 언제 오세요?...그럼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시겠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초5F)”와 같이 구원과 종말에 관한 질문도 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했다.

③ 현실적 실천과 적용에 관한 질문

학생들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면서 그 메시지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가 있고 부탁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부탁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을까요?(초6C)”라며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또한 성경을 아는 데서 더 나아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성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십계명을 배우는 본문 중에 나온 “내게는 엄마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나요? (초4G)”라는 질문도 학생이 십계명을 삶에 적용하려는 고민이 엿보인다. 또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읽고 “돌을 다듬는 것은 성형하는 것 같아요. 성형은 죄인가요?(초5G)”라고 돌을 다듬는 것을 성형의 개념으로 보고 그것을 현실의 문제로 가져와 실제 삶에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특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로 (우상은) idol이예요.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뭐가요?(초5F)”와 같은 질문은 현대 미디어의 비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반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생의 질문은 본문의 지식을 습득하는 기초 탐구형 질문, 본문의 의미를 상고하고 지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논리와 신학적 가치를 탐색하는 심화된 사고형 질문, 본문에 제시된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자기 삶에 적용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영적 적용형 질문의 3수준으로 나눌 수 있었다. 1수준의 기초적 탐구 질문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나타났다으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저학년의 질문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저학년의 질문은 단순하고 직관적인데 반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질문은 논리적인 추론을 동반하여 심화하고 어떻게 삶에서 적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

학생들은 교사나 같은 목장의 또래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질문을 해결해 나갔다. 이는 크게 세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즉 스스로 의문을 해결하는 자기 주도형, 교사와 또래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공동체 탐구형, 교사나 사역자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 지도자 지원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각 범주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자기주도형 - 자문자답

학생들은 본문에 대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해결하고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경적 표현이나 현상, 사건에 대하여 의문을 느끼고 질문을 하지만, 교사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혹은 스스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답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고학년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홍수가 그치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지구의 활동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초6D)”와 같이 자기가 묻고 스스로 해결하는 양상이 보였다.

(2) 공동체 탐구형

① 또래 간 설명

목장에서 본문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때 또래끼리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장인이 뭐예요?(초4B)”, “부인의 아버를 장인 장인어른이라고 해(초4A)”, “진을 치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초4H), 군대가 싸우려고 줄을 서고 자리를 잡는 거야(초4C)”와 같이 낱말의 뜻을 가르쳐주거나, 문맥의 의미를 묻고 답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에 대해 또래 간 학습이 이루어졌다. “족보에 다말의 자녀인 베레스와 세라가 적혀있는데 중요한 사람인가요?(초6B),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썼겠지?(중1A)”와 같다. 고학년의 경우 저학년보다는 성경의 문맥과 더불어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의문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② 대화와 토의

학생들이 한 질문에 대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또래와 교사가 함께 공동의 참여자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혼자

생각하고 모르는 채 넘어가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친구도 자신과 유사한 궁금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해결하였다. 또한 교사나 유능한 또래는 토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본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교사A: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의 의미는 뭘까?

중1A: 하나님께 못 들어가요

초5H: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중1A: 예수님이 죽으셔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초5B: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네요?

중1A: 그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2025.10.28)

초6E: 공짜면 좋은건데 (아브라함은) 왜 40억이나 되는 돈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살까요?

중2A: 자신에게 사라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정성과 댓가를 들어서 물어주고 싶고 잘 천국으로 보내고 싶은 아브라함의 마음일 거 같고, 나중에 또 헛사람들과 전쟁이 난다거나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공짜로 준거니까 내놓으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아예 차단하는 의미로 사서, 대대로 조상 묘 무덤으로 쓰려고 하는 뜻 아닐까요?

교사B: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 (2025.04.17)

공동체 내에서의 토의는 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논쟁이 되기도 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3학년 학급의 논쟁은 그날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열띤게 이루어졌다. 학생 둘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인가를 토의하였다.

초3B: 화석이나 고대 인간의 뼈 같은 걸 보면 인간은 원래 호모 사피엔스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한 증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화한 거예요

초3D: 그럼 어디서 진화했다고?

초3B: 유인원,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말야.

초3D: 그럼 오랑우탄이나 원숭이는 다 지금 사람으로 진화해 있어야지 왜 아직도 있어? (2025.3.25.)

③ 자료 검색이나 AI 활용

학생이 질문할 때 모바일 폰으로 일방향적으로 자료나 영상을 검색하거나 Chat GPT와 같은 AI에게 질문하며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질문이 나올 때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AI를 활용하여 함께 해결하고자 했다. 특히 횡적인 역사적 배경이나 사건, 문화나 종교적 배경과 관계된 질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먼저 AI에게 물어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본문에 여러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데 (이름에) 성이 없어요? 왜 이름만 있고 성이 없어요?(초1A)”라고 물었는데 이는 전혀 예상 밖의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교사는 “그건 선생님도 잘 모르겠네, AI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반응하였다. 또한 “운하가 뭐예요?(초4H)”라는 질문에 함께 인터넷 검색으로 운하의 사진을 찾아보거나, “창세기는 언제 써진 거예요?(중1A)”라는 물음에 AI를 활용하여 알아보기도 하였다.

(3) 지도자 지원형

① 교사의 개입

학생들이 성경 본문을 읽고 의문을 제기할 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기도 하지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가 재질문하거나 설명하여 개입하기도 했다. 교사는 개강 전 교사 세미나, 수업 전 교사 모임과 개인 연구 시간을 통해 본문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 준비를 했다. 이는 학생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초6D: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담에게) 왜 물어보셨을까요?

교사C: 잘못된 자녀가 한 일을 다 아는 부모가 무슨 일을 한 건지 묻는 건 어떤 대답을 원하는 마음인지 생각해 보자 (2025.03.11.)

초6A: 2절에 ‘땅이 혼돈했다’는 말씀은 뭔가 많은 상태의 복잡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아무 것도 없는데 왜 복잡할까요?

중2A: 창조하시기 전의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니까

교사B: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선생님의 생각을 붙잡았어. 이 이야기는 신명기의 말씀에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셨고 모든 것 위에 움직이시는...

(2025.03.06.)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는 사실과 정보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해 주었지만, 단순한 정보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답을 직접 가르쳐주기보다 학생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교사의 목상을 나누기도 하였다.

② 사역자의 설명과 지원

학생의 질문 중 교사가 잘 모르겠거나 혹은 신학적인 통찰이 필요한 질문일 때 사역자에게 묻고 설명을 듣는 방법을 찾았다. 교사는 사전 준비를 하지만 어떤 질문은 교사가 다루기에 조심스러운 내용이나 대답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교사나 학생이 사역자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도사와 강도사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각 반 교실을 다니며 수업을 참관하는데, 이때 교사와 학생은 사역자에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거나 대화를 주고받으며 궁금한 것을 해결했다.

초4A: 세겜은 죄를 저질렀지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까요?

강도사: 할례는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 믿음이 없다면 천국에 갈 수도 없어.
(2025.05.22.)

초6A: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혈통에 집착하시나요?

전도사: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시고 영적 축복을 주시는 그 자손들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것처럼... 그 귀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 장자된 언약으로 지명된 축복된 자녀라 매우 중요한 의미란다. (2025.04.2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은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 공동체적 탐구형의 또래간 설명, 토의와 대화, 자료 검색이나 AI 활용, 지도자 지원형의 교사 개입과 사역자의 설명과 지원으로 나타났다.

3. 질문과 문제 해결을 통한 의미 구성

학생들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단순히 지식으로 수용하지 않고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해결 과정에서 자신, 컴퓨터, AI, 또래나 교사, 사역자와 상호작용 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기초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해 나갔다. 그 과정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 3단계로 분류되었으며 객관적 의미 발견의 단계, 주관적 의미 심화의 단계, 실존적 의미 구성의 단계로 나타났다. 각 단계의 의미 구성 작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객관적 의미 발견-이게 무슨 말이지?

의미 구성의 첫 단계는 객관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로서 학생들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집중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사실과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며,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탐구하고 본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상징을 해석하려는 기초 탐구형 질문과 해결을 통해 텍스트의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객관적 정보를 조사하고 탐색하였다. 그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거나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였고, 교사나 사역자에게 질문하고 설명을 듣기도 했다.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거나 기존의 지식에 동화하려고 지명이나 인물의 이름에 대한 상호텍스트적인 질문을 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자신의 잘못된 추론을 수정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역사적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 동시대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조하거나, 자신이 이미 구성하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기반으로 추론하였다. 또한 성경 본문에 나타난 관습과 역사를 현재의 문화나 역사, 시대적 상황과 비교하거나 본문의 나타난 단어, 숫자, 표현의 표면적이고 문자적 의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려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거나 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여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아가는 1차적인 단계가 되었다.

(2) 주관적 의미 심화-그건 왜 그렇지?

의미 구성의 두 번째 단계는 주관적 의미 심화의 단계로서 학생들은 본문의 사건, 인물의 행동, 하나님의 통치는 왜 그러한지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납득하는데 집중했다.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애썼으며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논리를 제시하거나 추론하였다. 진화론과 창조론 중 어느 관점이 더 과학적인지, 증거가 있는지 갈등하고 친구와 토의하기도 하였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질문하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통치의 방법을 어떠한지 그 의미를 정립하였다. 때로는

본문에 사용된 단어를 기초로 지명의 의미를 추론하였고,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본문과 다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상상하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장자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하기도 했다. 특정 사건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며 사건은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가정하고 상상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현상, 인간의 행동, 하나님의 판단과 하시는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이해를 심화하며 지적으로 갈등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갈등은 단순한 의심이나 의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적 속성을 개인 차원에서 수용하고 이해해 가는 단계가 되었다.

(3) 실존적 의미 구성-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학생들은 본문을 읽고 기초적인 탐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단계에서 본문에 대해 주관적인 의미를 심화하며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자신의 삶의 수준에서 실존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학생들은 인물의 행동,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면적 윤리와 가치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연결되었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계명으로 받았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볼 수 있는지, 현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고민하고 그 문제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실적인 실천과 적용에 대해 성찰하는 3차적인 단계로 나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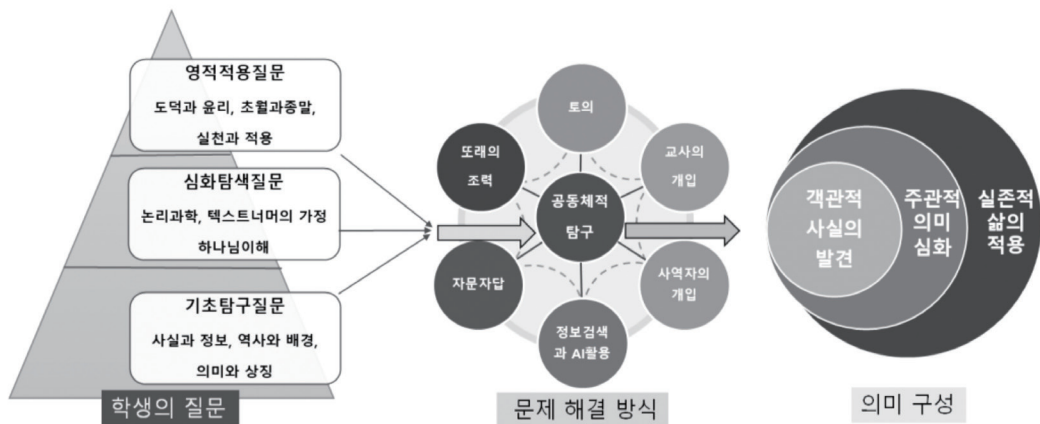


그림 1. 학생의 질문과 문제 해결을 통한 의미 구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통한 의미의 구성은 기초 탐구형 질문과 그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의미를 발견하는 지식습득단계, 심화사고형 질문과 논리적 분석, 사고의 정립을 통한 주관적 의미심화 단계, 더 나아가 영적 적용형 질문을 통한 적용과 가치 내면화와 실존적 삶에 적용하는 3단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학생의 질문유형, 해결 방안, 그 과정을 통한 의미의 구성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을 읽고 하는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초중등 학생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어떻게 그 질문을 해결하며 본문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2025년 1, 2학기 동안 실행한 A 교회 주중성경 학교를 통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3수준 9유형으로, 해결 과정은 3가지 유형의 6가지 방안, 의미 구성은 3단계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를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질문은 크게 기초적 탐구 질문, 심화된 사고형 질문, 영적인 적용 질문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각 유형은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학생들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초적 탐구 질문은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고르게 나타났으나, 심화된 사고형 질문과 영적인 적용 질문은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게 빈번하게 나타났다. 즉 세 유형의 질문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연령에 비례해 발전해갔다. 특히 저학년의 질문은 사실과 정보 확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고학년은 이와 더불어 의미와 상징의 해석,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도덕과 윤리, 가치관, 현실적 실천이나 적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둘째, 저학년의 질문은 직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다. 반면 고학년은 본문을 읽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 분석하였고 때로는 논리적 모순을 느끼며 갈등하였다. 그들은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내면화하려 했다. 그들은 기도 생활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고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파울러(Fowler, 사미자 역, 1987)의 신앙 발달 단계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으로 저학년은 아직 전조작적 특성을 보이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에 직관적이고 투사적인 신앙 수준에 있는 1단계의 신앙발달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면서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2단계인 신화적-문자적 신앙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점차 3단계인 종합적-인습적 신앙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

기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성찰, 현대사회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 성전의 돌을 다듬는 것과 연관 지은 의미 부여 등은 학령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아동이 개인적인 신앙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기 신념에 대한 도전이나 갈등을 종교기관의 신념 체계와 동일시하려는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파울러의 3단계 신앙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Fowler, 사미자 역, 1987). 특히 언약 백성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요셉이 아닌 유다에서 이어지는 본문을 읽고 매우 놀라워하는 것은 규칙과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동하는 2단계의 신화적이고 문자적인 신앙 수준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 관계, 구원의 문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은 3단계의 종합적이고 인습적인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Fowler, 사미자 역, 1987).

이처럼 학생들의 질문 수준이 신앙 발달 단계에 따라 심화하면서, 그 질문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더욱 다각적이고 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사실과 정보 확인을 넘어선 심화된 사고형 질문과 영적인 적용 질문들은, 개인의 고민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답을 모색하는 역동적인 탐구 과정으로 이끌었다.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 공동체적 탐구형의 토의, 또래의 조력, 정보 검색 및 AI 활용, 지도자(교사 및 사역자) 조력의 6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해결 방안이 개인의 내적 탐구가 아닌 공동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자기 주도형의 자문자답조차 완전히 고립된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질문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내면적 대화로 볼 수 있다. 이는 비고츠키(Vygotsky, 1986)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고 과정인 사적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깊이 뿌리를 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즉,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 역시 공동체의 암묵적인 지지와 존재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 읽기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학습 과정으로 기대하기보다 또래와 교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궁금한 것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적인 읽기 과정이 될 때 성경 본문의 의미가 이해되고 삶으로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경을 읽고 그 의미가 삶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깊이 있는 읽기 과정이 필요하며, 15~20분 남짓의 짧은 공과 공부로는 성경 본문 깊이 읽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동체 안에서 질문을 나누고, 또래와 토의하며, 때로는 교사 및 AI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총체적 과정은 개리슨 등이(Garrison, et al., 2000) 제시한 탐구공동체 모델과 일치한다. 즉,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실재감, 지속적인 소통과 성찰을 통한 인지적 실재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는 교사의 교수적 실재감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특히 비록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AI 활용을 통한 질문 해결은, 테크놀로지가 탐구공동체의 새로운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발견이다. 이전까지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찾거나 사전을 찾아보는 일방향적 수준이었다면 AI에게 질문을 작성하고 AI가 제시하는 답변을 읽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상호작용 방식의 활용은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양상이다. 그러나 이는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위험 또한 내포한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현장에서 AI의 역할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차바키리히터(Zawacki-Richter, 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 AI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역설적으로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를 이끌고 기술 활용을 안내하는 교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학생들이 AI가 제시한 정보의 의미와 가치를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비판적으로 탐색하도록 돕는 교사와 사역자의 지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주로 성인 고등교육 맥락에서 논의되던 개리슨 등의 탐구공동체 모델이 초중등 학습자의 교회 교육 현장에서도 의미 구성 과정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그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읽고 궁금한 것을 서로 묻고 대답을 찾아가고, 본문과 관련된 창의적인 연계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책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핵심적인 인지 활동이다(Graesser & Person, 1994). 질문을 통한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학습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쉽게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친밀한 분위기, 교사의 반응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A 교회 주중 성경학교에서는 65분간의 본문 탐구와 연계활동으로 운영시간 대부분을 할애한다. 이는 20여 분 남짓의 짧은 주일학교 공과 공부에 비해 3배 정도의 긴 시간이며 성경 본문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학생들은 성경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의미 이해를 돕기 위해 궁금한 단어의 뜻을 살펴봄과 본문 이해를 돕고 본문의 의미를 다양한 오감각 경험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묵상하는 연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본문의 내용을 여러 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진다. 이와 같은 교사와 행정 지원자, 부모의 협조와 노력은 성경 본문 이해와 질문을 촉진하고 자유롭게 탐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박보미, 2019 ; 박정진·윤준채, 2004 ; 박정진, 2006 ; 손은주·박영태, 2011 ; 양미경, 2002 ; 황청일·임호용,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성경은 혼자서 읽고 단순히 수용해야 할 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공동체와 함께 탐구하며 살아있는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역동적인 텍스트였다. 학생들은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깊이 사유하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 세대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주체적 신앙을 키워가도록 돕는 성경 중심, 공동체 중심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회학교 교육 현장의 실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질문과 의미 구성 과정을 학문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육적 통찰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음 세대가 깊고 넓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교회교육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수업 전사 자료를 활용하여 의미 구성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연령과 신앙 발달 수준에 맞는 교사 발문 전략, 질문을 촉진하는 수업 조건이나 구체적인 교사 지침, 의미 구성을 돕는 교사의 반응이나 비계설정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향림 (2009). 수업과정에서의 교사의 질문 전략과 그 효과. **부산교육학연구**, 22, 1-23.
- 고아라 (2025). **학생 질문에서 출발한 탐구 수업을 위한 협력적 실행과 성찰**.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권낙원·민용성 (2003). 인지양식에 따른 발문유형별 학습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3(2), 171-190.
- 김성근·여상인·우규환 (1999).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 질문에 대한 연구 (1) - 학생 질문을 강화한 수업의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9(3), 377-388.
- 김재우 (2017). 중학생의 성경 이해도에 관한 연구 - 세 종류의 한국어 성경번역본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논총**, 52, 329-359. <http://dx.doi.org/10.17968/jcek.2017..52.010>
- 문병호 역 (2020). **기독교 강요**. Calvin, John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생명의말씀사.
- 박보미 (2019). **학생의 질문과 교사의 반응간의 관계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라미·안준희 (2005). 미술수업에서 질문의 기능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초등미술교육 중심으로. **미술 교육논총**, 19(2), 285-319.
- 박정진 (2006). 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국어 수업의 수준별·주체별 질문활동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31, 71-98.
- 박정진·윤준채 (2004). 읽기 수업에서의 질문 들여다보기 -비판적, 창의적 질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12, 119-144.
- 사미자 역 (1987). 신앙의 발달단계. Fowler, J. (1981). *Stages of Faith: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nd the Quest for Meaning*.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서혜정 (2021).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경험. **생명과말씀**, 31(3), 214 - 265. <http://dx.doi.org/10.33135/srlt.2021.31.3.214>
- 선주원 (2003). 질문하기 전략을 통한 문학 교수학습 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 255-288.
- 손은주·박영태 (2011). 유아주도적 질문과 교사주도적 질문이 유아의 동화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1(4), 201-225.
- 송우재 (2013). **사례연구를 통한 성경공부의 원리와 적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 신현광 (2013). 기독교교육의 성경적 토대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4, 361-390.
- 신현호 (2023). 성경교육 커리큘럼 내용 선정의 신학적, 교육적 원리에 관한 소고. **신학과 실천**, 86, 579-612. <https://doi.org/10.14387/jkspth.2023.86.579>
- 안은주 (1997). 성서연구의 해석학적 패러다임. **기독교사상**, 41(7), 167-181.
- 양미경 (2002). 학생의 질문 행동 및 내용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 분석. **교육학연구**, 40(1), 99-128.

- 윤철희 (2017). **한자를 활용한 신앙교육 연구** : 성경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이명숙·조광희·송진웅 (2004). 소집단 실험활동에서 나타난 중학생 질문 - 응답의 유형과 빈도.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4(2), 277-286.
- 이종일 (2004). 개념 언어화를 위한 질문방법. **사회과교육**, 43(2), 3-26.
- 정선화 (2010). 질문 유형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어문연구**, 38(1), 489-513.
- 진영은 (2000). 고등학교 교사들의 수업 중의 질문법에 관한 분석. **인문과학**, 30(1), 81-100.
- 최선미·여상인(2011). 초등 과학 수업에서의 학생 질문 유형 분석. **과학교육논총**, 24, 137-146.
- 최일선·지옥정 (2006). 소집단 과학 활동에서의 유아 교사의 질문형태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44, 59-80.
- 황청일·임호용 (2011).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 질문과정과 저해요인 탐색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3), 55-74.
- Garrison, D. R., Anderson, T. & Archer, W. (2000). Critical inquiry in a text-based environment: Computer conferencing in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2(2-3), 87-105. [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https://doi.org/10.1016/S1096-7516(00)00016-6)
- Graesser, A. C. & Person, N. K. (1994). Question asking during tutor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1(1), 104-137.
-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A. Kozulin, Rev. ed.). MIT Press.
- Zawacki-Richter, O., Marín, V. I., Bond, M. & Gouverneur, F. (2019). Systematic review of research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in higher education-where are the educ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16(1), 1-27.

교회학교 성경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과정 탐구 : A 교회 주중성경학교 학생의 질문을 중심으로

An Inquiry into the Meaning-Making Process in Church School Bible Reading: Focusing on Student Questions at Church A's Weekday Bible School

김 정 준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학교 학생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A 교회 주중성경학교에서 2025년 1년간 기록된 교사 일지를 바탕으로 귀납법적인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참여자인 학생들의 질문과 그 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의미 구성 과정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은 첫째, 사실과 정보 확인, 역사 및 배경 탐구, 의미와 상징 해석을 위한 기초 탐구형 질문; 둘째, 논리와 과학적 추론, 텍스트 너머의 가정,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에 대한 심화 사고형 질문; 셋째, 도덕과 윤리적 가치, 초월과 종말, 실천과 적용을 위한 영적 적용형 질문을 하였다. 또한 질문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첫째,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자문자답; 둘째, 또래의 조력, 토의, 정보 검색과 AI 활용을 통한 공동체적 탐구; 셋째, 교사가 개입하거나 사역자의 설명을 듣는 지도자 지원을 통해 질문을 해결하였다. 학생들의 질문은 본문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탐색에서 심화된 사고와 추론, 영적 의미 탐색과 삶의 적용으로 심화되었으며, 단순히 교사의 설명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학습자를 넘어 또래 집단과의 토의, 정보 검색과 AI 활용 등 자기 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인 탐구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탐구공동체 모델을 교회학교 교육 맥락으로 확장하고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포함했다. 실천적으로는, 학생들의 질문과 의미 구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참여적 교수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제어: 교회학교, 성경읽기, 질문, 의미 구성, 공동체적 탐구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연구: 교회의 지원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ristian Perception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Exploring Church Support Measures

송현아 (Hyun-a Song)**

정유경 (Yugyeong Ju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s of Korean Christians regarding adolescent single parents, assessed the current state of church support, and explored directions for future church-based assistance. Specifically, the study identified the personal interest and prejudices held by Christians toward adolescent single parents, compared them with their perceptions of the interest and prejudices exhibited by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and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Data were collected from 236 Protestants nationwide through an online survey conducted in June 2025 and analyzed using SPSS 22.0, employing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d repeated measures ANOVA.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respondents reported having acquaintances who are single parents or having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 with the issue. Second, a distinct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interest in adolescent single parents and prejudice; that is, higher levels of interest we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prejudice. Third, Christians perceived themselves as having greater interest and less prejudice toward adolescent single parents compared to the levels they observed in the Korean church and society. Finally, while respondents demonstrated a strong awareness of the church's respon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support, they rated the actual level of current church-based assistance as considerably low.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church-based support strategies for adolescent single parents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along with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Key words: Christian perceptions, adolescent single parents, church support, Christian welfare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9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hsong@csu.ac.kr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ykjungwork@naver.com

I. 서론

성경은 기독교인과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눅 10:27). 특별히, 신구약을 관통하며 나그네,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것, 즉, 디아코니아(봉사)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강조한다(제해중, 2020). 신약을 통해 공생애 중 예수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돌보시고(마 4:23, 마 20:28, 눅 22:25-27),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 교제하며 이들의 삶과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제하시는 섬김과 이웃사랑의 본을 보여주신다(마 5:7, 막 2:17). 이러한 복지적 실천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와 기독교인 모두가 지속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손병덕, 2007 ; 양혜원·김희수, 2011 ; 오혜정, 2022). 이에 한국 교회는 사회 봉사부와 같이 교회 내 부서를 통한 이웃 섬김의 실천에서부터 사회복지법인설립 및 복지사업 위탁 등의 전문성을 갖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양혜원·김희수, 2011 ; 이준우, 2017). 양혜원과 김희수(2011)는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복지 사역의 형태와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교회 내 부서를 설치하여 진행하는 사역의 경우 저소득 아동 및 독거노인 지원, 노숙자 지원, 의료봉사,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복지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선교원이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노인과 아동 돌봄 관련 복지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위기청소년이나 청년 지원에 대한 교회의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계 지원이나 물품 지원과 같은 단회기적·일시적 지원이 주를 이루는 등(조숙인 외, 2023)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증가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은 낮은 실정이며, 소극적 경향을 보인다(박유미, 2022 ; 이준우, 2017). 교회가 위기가정 사역의 일환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등의 지원 사례나 미혼모 양육시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게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교회가 봉사와 복지사업의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교회의 규모나 재정 및 지역사회의 요구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교인들의 인식 및 지지의 정도가 교회의 물질적 자원 활용 및 교회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등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미숙, 2000). 따라서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교회와 교인의 관심 부족,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혹은 이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선입견 등이 내재적

원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기독교 사회복지 및 교회 사회복지 개념 및 정체성, 역할이 정립되어 감에 따라 교회의 복지 실천과 사역 방법, 목회 및 선교와의 연계 전략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민선·마은희, 2023 ; 손병덕, 2023 ; 오혜정, 2022). 하지만, 청소년 한부모 관련 기독교인의 인식이나 교회 지원 관련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복합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지원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실태를 기반으로 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교회에서 관련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 및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고, 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 방향성 등을 파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기인식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한부모 실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 모 또는 부라고 정의되고 있다. 한부모란 배우자와 사별,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부모를 의미하며,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된다. 특별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로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최근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추정 수는 약 1만 4천여 가구로서, 전체 한부모 가구(약 22만 7천여 가구)의 약 6.6%로 나타났고, 이 중 70% 정도는 모자가구일 것으로 추정한다(통계청, 2024 ; 이윤정, 2024 재인용).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양부모의 평균 소득(약 416만원)의 60% 수준이며, 한부모 가족의 절반 이상인 약 51.4%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된다. 박미진(2023)은 한부모가 자녀의 돌봄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진입이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주거 불안정, 사회적 편견을 포함한 심리 정서적 불안 등 한부모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 한부모는 준비되지 않은 임신 및 출산, 자녀 양육과 동시에 학업, 경제적 자립 등 일반 청소년기 과업 이상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성인 한부모에 비해 더욱 다중적·복합적 위기를 경험한다(백혜정 외, 2012; 이재희, 2022). 변수정(2023)은 만 15세~24세 청소년 미혼모 252명을 대상으로 학업, 자립 준비, 경제활동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자립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였으나 이 연구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오늘 하루를 생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학업이나 훈련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어려움을 밝히며, 청소년 미혼모와 그 가족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학업 지원, 돌봄, 경제적 지원 등 보다 통합적 지원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주희(2023)는 광주지역 청소년 한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주거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낮은 학력과 빈곤으로 인해 정부의 주거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여전히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인식했고, 이로 인해 거주지를 자주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는 학업, 임신 및 출산, 양육, 주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사회에서 더욱 쉽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이영호·박지윤, 2021 ; 최현주·양미연, 2025).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2022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고딩엄빠’라는 TV 프로그램이 청소년 한부모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전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던 실질적 청소년 한부모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재조명되었다. 청소년 한부모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으나(김영정, 2020), 대중매체 노출을 통한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한 형태임이 가시화되며 이들은 차별 및 배제 대상이 아닌 보호와 지지 대상으로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났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김가은, 2023).

사회적 인식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및 공동체가 상이한 맥락에서 직면한 문제를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한다(Pérez, 2013 ; 이재은, 2022 재인용). 다수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의 생각과 행동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백혜정·김지연(2013)은 청소년 미혼모가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낙태 또는 입양을 고려하다가도,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경우 출산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다고 보고하였다. 현장 전문가

들 역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원 확대가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및 자녀 양육 선택 증가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였다(백혜정·김지연, 2013). 이선희 외(2021)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미혼모가 임신 및 출산을 통해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단절돼 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사회적 지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은 그들의 삶의 전반에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유교 사상이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한부모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 결함, 무책임한 행동, 일탈이나 비행의 결과로 간주하는 부정적 시선이 여전히 지배적이며, 가족의 수치나 가정 해체의 상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김지연 외, 2013 ; 성정현·김희주, 2016). 가족 및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배제, 낙인은 청소년 한부모로 하여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윤정, 2024).

이러한 낙인과 편견의 문제는 비단 한국 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SmithBattle(2020)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낙인이 이들의 임상적 돌봄을 방해하고 삶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미혼모 대부분이 사회에서 편견 및 차별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취업 현장에서 이를 더욱 체감하는 것이 보고되었다(이혜영, 2013). 김영미와 이화명(2018)은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편견이 그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양육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화미·신정원·조명선(2024) 역시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이 청소년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사회윤리·도덕적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의 혼외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청소년 한부모의 삶을 이상적 가족 형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은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볼 때, 도덕적 엄격성과 죄의 문제,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신앙적 소명 사이에서 심리적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Festinger(1957)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모순되는 두 가지 인지 요소가 발생할 때 인지적 불균형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를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고 개념화하였고, 이는 심리적 불편함과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화를 찾으려 노력한다고 보았다(최규원·유승호, 2022 재인용). 혹은 기독교인들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관심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여 이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아직까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한부모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어 본 연구에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음을 선언한다(창 1:26-27). 이는 인간의 존엄성이 사회적 지위, 도덕적 성취, 혹은 가족 구조의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여된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의든 타의든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한부모로 살아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며,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도덕적 결함이나 일탈의 표상으로 여겨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품어야 할 책임을 지닌다.

유교적 가족 윤리와 보수적 기독교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종종 도덕적 실패나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로 낙인찍히며, 교회 안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불편한 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조혜정, 2014 ; 최혜림, 2024).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고 선언하며, 죄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죄의 심각성을 결코 경시하지 않으나,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회복이 모든 죄인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음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가 교제하시며(눅 15:11-32, 눅 7:36-50, 눅 19:1-10), 회복과 은혜를 베푸셨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성경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돌볼 것을 반복적으로 명하셨으며(신 10:18, 사 1:17, 약 1:27), 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로서의 책임임을 강조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전반에 걸쳐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섬기셨고, 이웃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 사랑의 표현임을 가르치셨다(마 22:37-40). 초대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집사 직분을 세워 공동체 내의 소외된 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보았으며(행 6:1-7), 이는 디아코니아(섬김)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잘 보여준다(손병덕, 2024). 이처럼 교회는 청소년 한부모를 정죄하고 배제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수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여야 한다(최혜림, 2024 ; Walker, 2015).

4.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작은 변화와 함께 정부의 지원정책과 서비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2014년에 신설되었고, 제17조에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진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2025)가 발표한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영역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 검정고시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주거 지원 등 공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도 각 시도별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 외 추가 서비스로 지역별로 특화 사업 운영하며, 관련 지역 복지센터들과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최현주·조성숙, 2024).

그럼에도 청소년 한부모 급여가 여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전달체계 시스템 이원화로 서비스 중복 및 정보 누락, 지역 간 배분의 차이로 인한 일관성 및 형평성의 문제 등 청소년 한부모 정책 및 제도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최현주·조성숙, 2024). 또한, 청소년 한부모 정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협소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한부모 청소년 자체보다는 자녀를 위한 양육자 입장 지원에 치우쳐 청소년 개인 삶의 성장 및 미래 준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고 교육 및 상담 지원과 사회 인식 개선 활동도 일회성 수준으로 그치는 등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자립 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이 지적된 바 있다(김영정, 2020 ; 은주희·임고운, 2020). 이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적 민간 자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한국교회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공적 지원 한계와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전인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하였듯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 및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인식과 실태를 기반으로 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수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응답자 본인의 인식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나 사회의 관심과 편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 관련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 없다면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등 교회지원 관련 인식과 기대를 파악하는 것 또한 탐색하였으며, 연구 결과에 기반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회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개신교인을 주요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교단,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인위적인 제한은 두지 않았다. 본 연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하여 연구진이 소속된 국내 대표적인 신학교 및 지역교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025년 6월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즉, 편의표집 및 눈덩이 표집을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3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성(57.2%)이 남성(42.8%)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50대 이상(42.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혼자(67.8%)가 미혼자(31.8%)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자녀 수는 2명(38.6%)과 무자녀(36.4%)가 주를 이뤘다. 직업은 목회자 및 선교사 등 종교직(22.9%)이 가장 많았으며 대학생, 주부,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3%가 장로교 소속이었고, 교회 규모는 3,000명 이상 대형 교회가 28%로 가장 많았다. 신앙 연수는 40년 이상(41.1%)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대다수(90.7%)가 주일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있었다. 세부 사항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 및 유사한 주제의 인식연구 설문 문항을 검토 및 분석하였고(김지연 외, 2013 ; 주유선 외, 2019),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독교 관련 분야 연구원 2명, 현장 전문가 1명,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교수 1명에게 문항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한부모’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설문 안내에 포함될 것을 권고받아 그렇게 수정하였고, 문항이 너무 많아 피로도도 인한 응답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문항의 수를 조정하는 등의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설문은 크게 (1)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자녀 수, 직업계열, 출석 교회 교단과 규모(성도 수 기준), 신앙 년수, 주일예배 성수의 정도를 포함하여 9개의 문항으로 구

표 1. 연구 대상 인구사회학적 특성 (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구 대상	성별	남	101	42.8
		여	135	57.2
	연령	20대 이하	51	21.6
		30-40대	85	36
		50대 이상	100	42.4
	결혼여부	미혼	75	31.8
		기혼	160	67.8
		기타	1	1
	자녀 수	없음	86	36.4
		1명	31	13.1
		2명	91	38.6
		3명 이상	28	11.9
	직업계열	교육(교사, 교수, 교육 관련 종사자 등)	18	7.6
		사회복지-상담	21	8.9
		종교(목회자, 선교사, 교회 직원 등)	54	23
		기업/사무(회사원, 사무직, 경영 등)	24	10.2
자영업/프리랜서		21	8.9	
학생		41	17.4	
주부		27	11.4	
기타		30	12.6	
소속 교회	소속 교단	장로교	213	90.3
		기타	23	9.7
	교회 규모 (성도 수)	100명 미만	43	18.2
		500명 미만	58	24.6
		1,000명 미만	26	11
		3,000명 미만	43	18.2
		3,000명 이상	66	28
	신앙생활 (년)수	10년 미만	7	3
		10년 이상 - 20년 미만	17	7.2
		20년 이상 - 30년 미만	60	25.4
		30년 이상 - 40년 미만	55	23.3
		40년 이상	97	41.1
	주일 예배 성수	매주 참석	214	90.7
		매주 참석 안함	22	9.3

성하였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관련 문항은 총 3개로 가족/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는지 여부, 청소년 한부모와의 대화 등 직접적 경험 유무, 청소년 한부모 후원 등 간접 지원 경험 유무를 질문하였다(0=경험없다, 1=있다). 셋째,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은 개인, 교회, 사회의 세 가지 차원에서 관심도와 편견의 정도를 각각 측정하였다(총 6문항). 모든 문항은 10점 척도(1~10점)를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심의 수준과 편견의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교회의 지원 여부(0=없다, 1=있다, 2=잘 모르겠다), 지원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인식(1=재정문제, 2=다른 복지사업 우선, 3=목회자 인식부족, 4=성도 인식부족, 5=기타),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서비스 유형 등을 질문하였다. 그 외,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질문과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총 25개의 설문 문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주요 변수 및 측정 방법 요약표

구분	변수	측정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남자(0), 여자(1)
	연령대	20대 이하(1), 30-40대(2), 50대 이상(3)
	결혼여부	미혼(0), 기혼(1), 기타(2)
	자녀 수	없음(0), 1명(1), 2명(2), 3명 이상(3)
	직업계열	교육(1), 사회복지/상담(2), 종교(3), 사무/행정(4), 프리랜서(5), 학생(6), 주부(7), 기타(8)
	소속교단	장로교(1), 기타(2)
	교회규모	99명 이하(1), 100-499(2), 500-999(3), 1,000-2,999(4), 3,000명 이상(5)
	신앙(년)수	10년 미만(1), 10-19(2), 20-29(3), 30-39(4), 40년 이상(5)
	주일예배 성수	매주 참석(1), 매주 참석 안함(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가족,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있다(1), 없다(2)
	직·간접 경험 여부	있다(1), 없다(2)
청소년 한부모 인식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 및 편견	전혀 관심/편견이 없다(1) ~ 매우 관심/편견이 있다(10)

교회 역할 및 지원 방안에 대한 인식	교회 지원 및 보호수준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10)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있다(1), 없다(2), 잘 모르겠다(3) ※ 프로그램 운영 시, 관련 개방형 응답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 (복수응답)	재정적 한계(1), 다른 복지사업으로 인해(2), 목회자 인식부족(3), 성도인식 부족(4), 기타(5, 직접입력)
	교회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	예(1), 아니오(2), 잘 모르겠다(3)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2),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3),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이 있어서(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5), 기타(6, 직접입력)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복수응답)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2), 주거 및 자립 지원(3),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4), 현금지원(5),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6), 정부 및 민간의 다양화 정책 정보 제공(7),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8), 기타(9, 직접 입력)
		교회의 역할 및 방향성(직접 입력)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성별이나 연령대, 결혼 여부 등과 같은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으며, 10점 평정척도로 측정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응답의 분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0점으로 측정된 관심과 편견 점수는 ‘낮음’, ‘보통’, ‘높음’의 3개의 범주로 재구성하고, 각 범주별 빈도와 백분율을 병행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 응답자 개인(본인),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심 및 편견 수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편견의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 및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평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수행하였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은 주로 독립되지 않는 한 집단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균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나, 한 집단의 다른 조건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Laerd Statistics, 2026).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이 본인, 교회, 사회라는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

고, 주요 가정인 등분산성은 Mauchly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구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Greenhouse-Geisser 교정값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및 편견 수준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소년 한부모 관련 경험

개인의 경험은 인식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험주의 학자인 존 로크와 데이비드 흄은 모든 인식과 지식이 경험을 통해 구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을 확장해 보면,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인식 또한 이들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의 유무와 양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경험적 측면을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주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의 존재 여부(간접 경험), 이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나 상호작용 경험, 그리고 대면 접촉은 없더라도 후원과 같은 사회적 지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1) 가족이나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가족이나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를 살펴본 결과 가족 혹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37%를 차지하였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47명으로 62.3% 정도였다.

표 3. 가족/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 존재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89	37.7
없다	147	62.3
합계	236	100

(2)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 경험 대화 여부

청소년 한부모와 직접 만나고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역시 전체 응답자 중 80명인 33.9% 가까운 이들이 ‘긍정’ 응답을 하였고, 156명인 66.1%는 ‘부정’ 응답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 경험 대화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80	33.9
없다	156	66.1
합계	236	100

(3) 청소년 한부모와의 간접 지원 경험 여부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후원을 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간접 지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명(18.2%)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193명(81.8%)이었다.

표 5. 청소년 한부모와의 간접 지원 경험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있다	43	18.2
없다	193	81.8
합계	236	100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

전술하였듯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의 정도를 각각 10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인식의 주체에 따라 총 세 가지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며, 둘째는 응답자가 지각하는 한국교회의 인식 수준, 셋째는 응답자가 평가하는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이다. 이를 통해 개인과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응답자'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응답자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관심과 편견의 두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관심 수준은 평균 5.15점($SD=2.28$)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표 6>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심이 낮은 응답자는 28.4%(67명), 관심이 높은 응답자는 16.5%(39명)로 나타났다. 편견 수준은 평균 4.62점($SD=2.27$)으로 조사된 b 어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관심 수준에 따라 편견의 정도에도 차이가 나는

지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심도와 편견의 정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12.757, p <.05$). 특히 관심 수준과 편견 인식은 반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관심이 낮은 집단에서는 높은 편견을 보인 비율이 54.2%에 달했으나, 관심이 높은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12.5%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이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응답자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2(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25(28.4)	29(23.4)	13(54.2)	67(28.4)	12.757* (.013)
	보통	44(50.5)	78(62.9)	8(33.3)	130(55.1)	
	높음	19(21.6)	17(13.7)	3(12.5)	39(16.5)	
	합계	88(100)	124(100)	24(100)	236(100)	
관심	평균(SD)	5.15(2.28)				
편견	평균(SD)	4.62(2.27)				

* $p <.05$; 낮음 1-3점, 보통 4-7점, 높음 8점-10점으로 구분하였음

(2) 응답자가 인식하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수준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한국교회의 관심 수준은 평균 3.88점($SD=1.91$)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3단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3%는 한국교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교회의 편견 수준은 평균 6.00점($SD=2.22$)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은 교회가 비교적 높은 수준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관심 및 편견 인식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X^2= 32.916, p <.001$). 교회의 관심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심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여 두 변수 간 명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표 7. 한국교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수준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2(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22(61.1)	50(36.8)	49(76.6)	121(51.3)	32.916*** (.000)
	보통	10(27.8)	78(57.4)	13(20.3)	101(42.8)	
	높음	4(11.1)	8(5.9)	2(3.1)	14(5.9)	
	합계	36(100.0)	136(100.0)	64(100.0)	236(100.0)	
관심	평균(SD)			3.88(1.91)		
편견	평균(SD)			6.00(2.22)		

*** $p < .001$, ** $p < .01$, * $p < .05$

(3) 응답자가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기독교인들이 인식하는 한국사회의 관심 수준은 평균 3.92점($SD=1.78$)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3단계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3.92%만이 한국사회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반면, 한국사회의 편견 수준은 평균 6.59점($SD=2.11$)으로 조사되어, 응답자들은 우리사회가 꽤 높은 수준의 편견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관심 및 편견 인식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X^2=17.918$, $p < .01$). 사회의 관심이 낮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관심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편견은 낮을 것으로 평가하여 두 변수 간 명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표 8. 한국사회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에 따른 편견 인식의 차이(n=236)

구분	편견				$X^2(p)$	
	낮음(%)	보통(%)	높음(%)	합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수준	낮음	18(69.2)	46(38.0)	56(62.9)	120(50.8)	17.918** (.001)
	보통	8(30.8)	70(57.9)	29(32.6)	107(45.3)	
	높음	0(0.0)	5(4.1)	4(4.5)	9(3.8)	
	합계	26(100.0)	121(100.0)	89(100.0)	236(100.0)	
관심	평균(SD)			3.92(1.78)		
편견	평균(SD)			6.59(2.11)		

** $p < .01$, * $p < .05$

(4)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과 편견 인식의 정도 차이 검증

본 연구는 관심과 편견의 관계성 검증에 더하여 응답자 본인의 인식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인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반복측정 분산 분석(repeated ANOVA)을 실시한 결과, <표 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개인’, ‘교회’, ‘사회’의 관심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470)=58.188, p<.001$). 이는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관심의 수준이 인식의 주체(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인식 대상별 관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효과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인식 집단	245.172	2	122.586	58.188	.000
오차	990.161	470	2.107		

사후검정(Post-hoc test) 결과, 개인-교회 및 개인-사회 간 관심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으나, 교회-사회 간의 관심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본인’의 관심 수준이 ‘교회’나 ‘사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이들의 시각에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관심 수준은 상호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0. 인식 대상별 관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사후검정(Bonferroni) 결과

구분	인식집단(I)	평균(M)	표준편차	비교 인식집단	평균차이	표준편차	신뢰구간 95%
청소년 한부모 관심	개인	5.15	.149	교회	1.229***	.141	.888 ~ 1.57
	교회	3.92	.116	사회	.038	.101	-.206 ~ .282
	사회	3.88	.125	개인	1.267***	.153	.899 ~ 1.635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응답자 ‘본인’의 편견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교회’ 및 ‘사회’의 편견 인식 수준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 또한 인식 주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F(2,470)=120.622, p<.001$).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 간의 차이를 넘어, 기독교인들이 ‘나’와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각각 서로 다른 수준의 편견을 지닌 주체로 명확히 구분하여 지각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표 11. 인식 대상별 편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 결과

효과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	F	p
인식 집단	485.037	2	242.518	120.622	.000
오차	944.963	470	2.011		

사후검정(Post-hoc test) 결과, 앞서 일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던 관심 변인과 달리, 편견의 경우 모든 주체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편견이 ‘교회’와 ‘사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한국 ‘사회’가 한부모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가장 높고, ‘교회’는 ‘사회’보다는 이들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는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인식 대상별 편견 수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사후검정(Bonferroni) 결과

구분	인식 집단(I)	평균(M)	표준편차	비교 인식 집단	평균차이	표준편차	신뢰구간 95%
청소년	개인	4.62	.148	교회	-1.386***	.142	-1.727~ 1.044
	한부모	6.00	.144	사회	-.589***	.100	-.829~ -.349
편견	사회	6.59	.137	개인	-1.975***	.145	-.2325~ 1.624

*** $p < .001$, ** $p < .01$, * $p < .05$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인식의 집단 간 차이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및 편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의 역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

(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

응답자들이 지각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 및 보호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균 3.38점($SD=1.74$)으로 조사되어 보통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식 수준을 범주화하여 구체적으

로 살펴본 결과,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137명)로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39.8%(94명), ‘높음’은 2.1%(5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참여자의 대다수가 청소년 한부모를 향한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 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 수준에 대한 인식(n=236)

구분	구분	빈도	%
한국교회 지원 및 보호수준에 대한 인식	낮음(1-3)	137	58.1
	보통(4-6)	94	39.8
	높음(7-10)	5	2.1
	평균(SD)	3.38(1.74)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소속 교회의 청소년 한부모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5%(20명)였다. 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7%(141명)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운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잘 모르겠다) 응답자도 31.8%(75명)에 달했다. 이는 한국교회 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실무적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지원에 대한 성도들의 인지도 또한 낮은 수준임을 시사한다.

표 1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20	8.5
아니오	141	59.7
잘 모르겠다	75	31.8
합계	236	100

(3) 청소년 한부모 관련 교회 운영 프로그램 및 지원 세부 내용(오픈형 응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응답한 20명(8.5%)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어떠한 것인지에 질문하였다. 지원의 형태를 살펴보면, 교회가 모자원이나 쉼터와 같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고,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기를

돌보는 사역을 한다고 응답한 이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미혼모를 위한 사역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 가정을 위한 현물과 현금 후원이 많았다.

(4) 교회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에 대한 인식 현황(복수 응답)

교회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목회자의 인식이 부족해서’가 81명(3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해서’가 그 다음을 이었다(64명, 27.1%).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응답은 전체의 17%(41명), ‘이미 다른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가 27명(11.4%)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었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는 ‘교회에 청소년 한부모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교회 내 좋지 않은 시선이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있었고, ‘교회 자체가 복지사업에 큰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표 15. 교회 지원 프로그램 미운영 사유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교회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41	17.4
이미 다른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27	11.4
목회자의 인식이 부족해서	81	34.3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64	27.1
기타	8	3.4

(5)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인식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회가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표 16>과 같이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203명으로 전체 연구 참여자의 86%는 긍정 응답을 한 반면, 21명(8.9%)은 ‘잘 모르겠다’, 12명(5.1%)은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응답자가 교회의 지원 역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든 기독교인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6.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현황(n=236)

구분	빈도(명)	백분율(%)
예	203	86
아니오	12	5.1
잘 모르겠다	21	8.9
합계	236	100

(6)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분석 결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서비스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물어보았을 때, ‘아니오(12명, 5.1%)’ 또는 ‘잘 모르겠다(21명, 8.9%)’라고 응답한 33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를 물었고, 그 분석 결과는 다음 아래의 <표 17>과 같다.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으로 나타났고, 8명(24.2%)은 ‘우선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이 많다고 생각해서’, 3명(9.1%)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2명(6.1%)은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1명(3.0%)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명(3.0%)은 ‘기타’로 나타났다.

표 17.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지원 미동의 및 모르겠음 응답 사유 분석 결과(n=33)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이미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2	6.1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3	9.1
국가나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18	54.5
우선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대상(ex. 장애인, 노인 등)이 많다고 생각해서	8	24.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3.0
기타	1	3.0
합계	33	100

(7)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 (복수 응답)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이 133명(22.0%)으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ex. 성경적 상담, 자조집단)’이 131명(21.7%), ‘현금지원(ex.생활비, 자녀 교육비, 법률 자문비 등)’이 72명(11.9%),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67명(11.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ex.검정고시)’ 65명(10.7%), ‘주거 및 자립지원’ 59명(9.8%),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39명(6.4%),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이 37명(6.1%), ‘기타’ 2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청소년 한부모 대상 교회 현실적 실천 방안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빈도(명)	백분율(%)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	133	22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	131	21.7
현금지원(ex. 생활비, 자녀 교육비, 법률 자문비 등)	72	11.9
취업 교육 및 일자리 연계	67	11.1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원 프로그램	65	10.7
주거 및 자립지원	59	9.8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	39	6.4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정책 정보 제공	37	6.1
기타	2	0.3
합계	605	100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의 개인적 인식뿐 아니라 이들이 인식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현황과 지원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기독교인들의 한부모 청소년 및 이들의 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주요 발견을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주요 발견 및 논의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주변 지인 중 청소년 한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가 사역자라는 점이나 대형교회를 다니는 경우

가 많다는 표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 있고, 청소년 한부모라는 범주에 20대 초중반의 미혼모까지 포함하여 응답한 결과일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가 더 이상 고립된 소수의 예외적 집단이 아님을 시사하며, 이는 최근 공중과 매체에서 청소년 한부모의 삶을 주요하게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얻은 것과 무관하지 않겠다. 이에 이웃사랑의 사명을 받은 기독교인과 교회는 다중적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와 그 가정을 외면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이 긍정적 지지로 이어진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에 이를 검증하기 위한 후속 연구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인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응답한 집단은 편견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았던 반면, 관심이 낮다고 응답한 집단은 높은 수준의 편견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정보 부재와 낮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한 SmithBattle(2020) 및 국내 선행연구(김영미·이화명, 2018 ; 김화미 외, 2024)의 발견과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특정 대상에 대한 정보 부재나 낮은 관심이 사회적 거리감을 유발하고, 부정적 고정관념을 별다른 비판 없이 수용하여 낙인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Allport(1954)의 접촉 가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접적 교류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수록 이들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수정될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편견이 유지 혹은 강화되는 기제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이들 중 일부는 범죄의 피해자인 것 등(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4)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 관심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다. 더불어 어떤 정보의 제공이나 경험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 높아진 관심이 편견 감소나 실질적인 지지로 이어지는 지 등의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국내외 연구들이 주로 청소년 한부모 당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편견이나 낙인을 다룬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기독교인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관심과 편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인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와 교회의 편견이 결코 낮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나 교회에서 청소년 한부모는 도덕적 결함, 무책임한 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 시선으로 인식되거나 일탈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함을 보고한 여러 국내외 연구의 발견과 일치하며(김지연 외, 2013 ; 성정현·김희주, 2016), 기독교 동

체 내에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다소 불편한 주제로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일부 뒷받침한다(조혜정, 2014, 최혜림, 2024 ; Ngcobo, 2009 ; Walker, 2015). 공동체의 인식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행동양식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한 이재무·박인수(2021)의 연구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청소년 한부모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를 고려할 때(이선희 외, 2021 ; 백혜정, 김지연, 2013), 기독교인과 교회가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하여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깊은 고찰과 논의가 필요하겠다.

넷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기독교인 개인의 인식 수준과 그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며 흥미로운 부분이다. 즉,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도는 교회나 사회보다 높고, 편견은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독교인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국 사회나 교회 집단보다 포용적인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긍정적 사회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다(Festinger, 1957 ; 최규원·유승호, 2022 재인용). 그럼에도, 이 발견은 기독교인 개개인이 가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이나, 돕고자 하는 의지가 실제 공동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역이나 행동으로 확장 혹은 연결되지 못하고, 개인 수준의 내적 다짐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인식의 차이는 이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과 지원 현황의 간극으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6%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회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고, 교회가 공적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가족 공동체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했으나, 실제 교회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약 58%)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회 내 지원 프로그램 운영 비율도 8.5%에 불과하였다. 이는 한국교회가 노인이나 아동 복지에는 적극적인 반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는 매우 소극적이거나 거의 전무하다는 박유미(2022)와 이준우(2017) 등의 선행 연구의 발견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특히 지원 부재의 주요 원인으로 ‘목회자와 성도의 인식 부족’이 지목되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이들을 목회적 돌봄 대상으로 바라보는 공동체적 인식 전환에서 출발해야 하며, 교회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잠재적 의지를 복지적 실천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인 수준의 긍정적 인식이 실제 교회 차원의 지원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동시에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인식과 실천 간의 간극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교회 규모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편의표집으로 인한 표본의 동질성 혹은 표본 크기의 제한으로 집단 간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동시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이 성별이나 연령, 결혼 여부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보다 신앙 연수, 사역 경험,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간접적 접촉 경험 등 다른 변수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연령에 따른 인식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연령과 무관하게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흥미로운 발견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 교회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지원방안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자녀 돌봄과 양육지원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리·정서 서비스 지원 21.7%, 현금지원 11.9%, 이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학업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단편적·일시적 지원을 넘어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 돌봄을 교회가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자녀 돌봄 및 양육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필요로 하며 가장 크게 느끼는 욕구이다. 이재희(2022)와 조숙인 외(2023)는 청소년 시기 임신과 출산 직후 원가족의 지원 단절과 제도적 공백 시기에 이루어지는 집중적 돌봄 지원이 이후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자립 역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분포되어 있다는 강점을 살려 공간적 인프라와 성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출산 지원, 산모 돌봄, 임시 보육, 아기용품 제공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바인(Vine)센터는 만 24세 이하 미혼모에게 숙식, 의료, 자립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적 실천 사례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입소자와 아기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양육 및 자립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박지훈, 2024).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심리·정서 지원은 교회의 고유한 강점과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영역이다. 김영미·이화명(2018)과 남미애(2013)는 사회적 낙인과 우울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부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SmithBattle & Phengnum(2022)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32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문헌연구에서 지역사회의 수용과 지지체계가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보호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회의 성경적 상담 및 소그룹 기반의 공동체 모임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자책하고 정죄하기보다 재해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최혜림, 2024; Walker, 2015), 이는 국외 선행연구에서 강조하는 지지체계의 보호적 기능과 그 맥을 같이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양부모 가구의 60% 수준에 불과하고(여성가족부, 2025), 양육과 학업·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변수정, 2023), 교회는 긴급 생활비 지원, 성도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자리 연계, 검정고시 준비 지원 등을 통

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인들이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실제 사역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청소년 한부모의 복합적 욕구에 주목하고, 교회 내 실천 전담 부서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첫 번째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의의가 크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개인, 사회, 교회 차원의 인식 현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탐색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분야 연구와 사역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를 고립된 소수 집단이 아닌 ‘우리 곁의 이웃’으로 재조명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첫째, 비확률적 편의표집 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및 중대형 교회 소속 기독교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에 관심이 높은 층이 표본에 다수 포함되어 전체 기독교인의 인식 수준이 다소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응답자 중 교회 사역자를 포함한 종교직 종사자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한부모와의 직간접적 경험 비율이 일반 기독교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역 현장에서 다양한 취약계층과 접촉 빈도가 높은 사역자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경험 및 관심 수준이 일반 성도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응답자의 90% 이상이 장로교단에 속하여 교단 간 비교에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됨에 따라 측정 신뢰도와 타당도를 엄밀하게 검증함에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한 다문항 척도를 개발·적용하여 보다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지역, 교단, 교회 규모 등을 고려한 확률표집을 통해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직업군 및 사역 경험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하거나 일반 성도만을 별도로 표집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대표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더 큰 표본을 확보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 및 교단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항 척도에 대한 개발연구와 더불어 사례연구 등의 질적연구를 병행하는 혼

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 및 지원 실태를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목회자의 복지 사역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인과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회가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건강한 자립과 회복을 위해 감당해야 할 실천적 역할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명의식 확립과 전문 부서 구축이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나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포함하여 창조-타락-구속-완성(회복)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디아코니아(Diakonia)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에 복지실천 사역 부서를 설치하여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성도들에게 생명 존중과 성경적 결혼관 등 말씀에 기반한 교육의 역할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합적 돌봄 서비스와 영적 지지 체계의 제공이다. 교회는 예배, 교육, 상담, 식사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가빈·황혜원, 2025).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임신과 출산, 양육 및 자립의 과정에서 겪는 다중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인적 돌봄을 실천할 수 있다. 위험군 발견 시 조기에 개입하여 이들이 건강한 성인이자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포함하여 교회 지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거점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재정 및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형 교회는 대형 교회 혹은 관련 사역에 대한 경험과 관심이 높은 교회와의 협력이나 지역 단위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동참할 수 있겠다. 거점 복지 사역부 설치를 통해 전국적인 위기 대응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모델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국가의 제도적 노력을 넘어 교회가 복음 전파와 사회적 돌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때, 소외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김가빈·황혜원 (2025).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한 청년들의 시설 생활 경험 연구: 권리기반 관점을 중심으로.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7(2), 147-170.
- 김가은 (2023). 예능 프로그램의 청소년부모 재현과 서사의 균형 찾기: MBN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 시즌 1의 서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553-565.
- 김미숙 (2000).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0(1), 59-90.
- 김민선·마은희 (2023).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탐색: 기독교 노인과 비기독교 노인 비교 연구.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5(1), 1-22.
- 김영미·이화명 (2018). 양육 청소년 미혼모의 적응유연성이 긍정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편견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 18(7), 153-164.
- 김영정 (2020). “일탈자”에서 권리주체로: 청소년 한부모의 재생산권, 교육권, 노동권. **이화젠더법학**, 12(1), 69-109.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201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I: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연구보고 13-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화미·신정원·조명선 (2024). 한국 미혼모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요인.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8(3), 385-397.
- 김혜영 (2009).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차별의 기제와 특징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6, 7-41.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박미진 (2023). 한부모가족의 다차원적 빈곤 연구 - 정책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70(3), 163-198.
- 박유미 (2022). 구약에 나타난 혼외 자녀 연구를 통한 교회의 포용성 넓히기. **구약논단**, 28(2), 238-268.
- 박주희 (2023).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이동 경험과 주거권 인식: 광주지역 거주자의 주거 이동 경험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1), 103-139.
- 박지훈 (2024). “청소년 미혼모 위한 보금 자리... 생명의 소중함 되새긴다.” 국민일보, 2024.09.0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25190552>
- 백혜정·김지연 (2013).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 시 상황과 양육태도 및 행동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4), 87-117.
- 백혜정·김지연·김혜영·방은령 (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s://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 변수정 (2023).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보건복지포럼**, 319, 59-74.
- 성정현·김희주 (2016). 미혼모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관한 소고. **가족과 문화**, 28(1), 33-58.
- 손병덕 (2007). 지역사회 민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교회역할 연구. **총신대논총**, 27, 367-383.
- 손병덕 (2023). 1인 가구 기독교인의 정신건강 실태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교회교육복지·복지실천연구**, 5(2), 40-55.
- 손병덕 (2024). 한국교회의 이웃 사랑 실천과 사회적 책임: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연구**, 6(2), 101-116.
- 양혜원·김희수 (2011). 한국 대형교회 복지사업의 현황 및 발전적 역할 모색. **신앙과 학문**, 16(3), 173-209.
-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도자료(검색일 2024.11.14.).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 오혜정 (2022). 기독교사회복지 및 교회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 학술연구 동향: 2003년부터 2022년 9월 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42, 607-643.
- 은주희·임고운 (2020).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131-159.
- 이선희·김수지·서해인 (2021).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2), 1-23.
- 이영호·박지윤 (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10대에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 부모를 대상으로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13-132.
- 이윤정 (2024). 미혼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생활 및 자녀돌봄 정책 지원 효과: 양육에 대한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44(3), 226-251.
- 이재무·박인수 (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2), 111-135.
- 이재은 (2022). 빅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유아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27(1), 33-58.
- 이재희 (2022).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육아정책연구소.
- 이준우 (2017). 공공신학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 사회복지실천의 성격과 과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 333-366.

- 제해중 (2020). 교회의 5대 본질적 기능 재고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교회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233-246.
- 조숙인·배윤진·이정아·송경희·김희수 (2023). **취약·위기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연구(II): 청소년부모 양육역량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조혜정 (2014). 미혼모와 기독교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내외통제성의 비교. **기독교 교육정보**, 43, 295-318.
- 주유선·김기태·김보미. (2019).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연구**(연구보고서(수시) 2019-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규원·유승호 (2022). E스포츠 팬덤의 인지 부조화 과정과 해소에 대한 연구 - LCK T1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6, 71-144.
- 최현주·양미연 (2025). 청소년 한부모 관련 학술연구 동향 분석: 국내 등재지(KCI)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44(1), 145-175.
- 최현주·조성숙 (2024).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에 근거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6(4), 187-209.
- 최혜림 (2024). 미혼모 가정을 포용하는 ‘하나님 공동체-가족’에 대한 목회신학적 성찰: 하갈과 이스마엘, 마리아와 예수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목회상담학회**, 43, 319-347.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Addison-Wesley.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 2024). *Pregnancy Resulting from Sexual Violence*.
-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erd Statistics. (2026). *One-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in SPSS Statistics*. Lund Research Ltd. <https://statistics.laerd.com/spss-tutorials/one-way-anova-repeated-measures-using-spss-statistics.php>
- Ngcobo, B. F. (2009). *The psycho-social experiences of unwed teenage mothers in faith communities: A qualitative study*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KwaZulu-Natal). University of KwaZulu-Natal ResearchSpace.
- Pérez, L. A. (2013). Unveiling social awareness through literacy practices in an EFL class. *Colombian Applied Linguistics Journal*, 15(2), 184-204.
- SmithBattle, L. (2020). Walking on eggshells: An update on the stigmatizing of teen mothers.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Child Nursing*, 45(6), 322-327.
- SmithBattle, L., & Phengnum, W. (2022). An integrative review of the research on teen mothers' resilience.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45(1), 161-175.

Walker, J. E. II. (2015). *A how-to guide to single-parent ministry: An inside look to the single-parent world in the Christian community* [Senior thesis, Liberty University]. Scholars Crossing.

기독교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연구: 교회의 지원방안 탐색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ristian Perceptions of Adolescent Single Parents: Focusing on Exploring Church Support Measures

송현아 (총신대학교)

정유경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교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가지는 '본인의 관심과 편견'뿐 아니라 이들이 지각하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관심과 편견'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개신교인 236명이며, 2025년 6월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상당수가 지인 중 한부모가 있거나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과 편견 사이에는 뚜렷한 음의 관계가 파악되었다. 즉, 관심이 높을수록 편견이 낮았다. 셋째, 기독교인들은 '본인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관심'은 '한국교회나 사회가 보이는 관심'보다 높으며, 편견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부모 지원과 관련한 '교회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실제 교회의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한국교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인 인식조사, 청소년 한부모, 교회지원, 기독교 사회복지

AI 시대의 노동·자본 담론: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성경적 경제학적 해석*

Labor and Capital Discours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Text-Mining Analysis and a Biblical Economic Interpretation

김성민 (Sung Min Kim)**

김미경 (Olivia Hye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w scholarly discourse on labor, capital, and employment has shifted around the public diffusion of generative AI, and reads those shifts through the lens of biblical economics. Drawing on 839 English-language abstracts retrieved from the Web of Science (as of 2 April 2026), we compare a pre-ChatGPT corpus (through 2022; n = 292) with a post-ChatGPT corpus (2023–April 2026; n = 547) using term-frequency analysis, Word2Vec embeddings, and LDA topic modeling. We find that post-ChatGPT discourse invokes labor and employment more frequently and increasingly associates automation with augmentation—a shift that is robust across random seeds—even as "job" remains tightly bound to insecurity and displacement in both periods. Justice- and dignity-related vocabulary, although rising, stays comparatively thin. The biblical corpus, read heuristically, foregrounds relational vulnerability, moral responsibility, and stewardship. This research suggests that Korean Christian scholarship and churches—working alongside enforceable public institutions—may help enrich the moral vocabulary of economic debate in the AI era.

Key words: generative AI, text mining, Word2Vec, LDA, Korean church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10일 게재확정.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서 제공해 주신 유익한 논평과 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는 본 논문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남아 있는 모든 오류와 견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 대검찰청(Supreme Prosecutors' Office) 연구사.

*** 한국고용정보원(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부연구위원 교신저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ohk28@keis.or.kr

1. 서론

2022년 11월 OpenAI의 ChatGPT 공개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대중적 확산을 촉발하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빠르게 가속화시켰다. Acemoglu와 Restrepo(2018)가 분석한 ‘인간과 기계의 경주(race between man and machine)’는 이론적 시나리오를 넘어 현실적 정책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SBTC)와 소득 불평등의 관계는 다시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경제적 변화는 기독교 학문 공동체에도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최근 국내 연구는 생성형 AI 이후 노동과 소명의 문제를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서미경(2025)은 AI 시대 진로교육을 직업 소명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일의 의미를 정체성·관계성·목적의 차원에서 다시 설명하였고, 김광태(2025)는 조용한 사직 현상을 소명 상실과 의미 상실의 구조적 표현으로 해석하여 현대 노동의 위기가 단순한 태도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서미경(2024)은 생성형 AI 시대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논하며 존재론·인식론·윤리 차원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다만 기존의 신앙-학문 통합 연구는 대체로 규범적(normative) 논의에 무게를 두어 왔으며,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에 기반한 탐색적·계량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본 연구는 이 간극을 메우는 하나의 시도로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인 Word2Vec 임베딩과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AI 경제 담론의 구조적 변화를 탐색적으로 포착하고, 이를 성경적 경제관과 대비하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접근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ChatGPT 공개를 전후하여 AI 학술 담론에서 노동·자본·고용 관련 어휘의 의미 구조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둘째, 성경 텍스트(KJV)에 나타난 경제 관련 어휘의 의미망은 현대 AI 경제 담론과 어떤 점에서 다른 도덕적 강조를 보이는가? 셋째, 이러한 관찰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실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생성형 AI와 노동·자본 담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노동·경제 윤리,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의 학술적 활용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범위와 코퍼스 구성, 빈도 분석·Word2Vec·LDA 등 분석 방법과 그 한계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ChatGPT 전후 AI 관련 학술 담론의 양상과 KJV 코퍼스의 의미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그 결과로부터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문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생성형 AI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는 크게 대체(substitution) 관점과 보완(augmentation) 관점으로 구분된다. Autor(2015)는 자동화가 정형화된(routine) 업무를 대체 하되, 비정형화된 인지적·대인적 업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과업 기반 프레임워크(task-based framework)를 제안하였다. Acemoglu와 Restrepo(2020)는 AI 도입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대체 효과(displacement effect)’와 ‘생산성 효과(productivity effect)’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고용 영향이 결정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의 산업용 자동화와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Eloundou 등(2023)은 GPT 모델이 미국 전체 직업의 약 80%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고임금·고학력 직종에서 노출도(exposure)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 SBTC) 이론이 예측하지 못했던 ‘역방향 숙련 편향(reverse skill bias)’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Brynjolfsson 등(2023)은 생성형 AI를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GPT)’로 규정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기나 인터넷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2. 기독교 세계관과 노동·경제 윤리

기술과 노동에 대한 기독교 학문 공동체의 논의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러한 논의의 인식론적 전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Pearcey(2004)는 『Total Truth』에서 계몽주의 이후 서구 지성사에 자리 잡은 ‘사실/가치 이분법(Fact/Value Split)’을 분석한다. 이 도식에서 과학적·경제적 지식은 객관적 ‘사실(fact)’의 영역에, 종교적·도덕적 신념은 주관적 ‘가치(value)’의 영역에 배치되며, 그 결과 사회과학 담론에서 신앙적·도덕적 어휘가 ‘비학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생긴다. 본 연구가 AI 경제학이라는 학술 담론에 성경적 프레임워크를 견주어 보는 것은, 이러한 이분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공적 적실성을 묻는 학문적 시도로 위치 지을 수 있다. 다만 후술하듯, 본 연구의 어휘 빈도·의미망 결과가 이 이분법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정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적 관찰임을 분명히 한다.

국내 기독교경제학 논의는 ‘기독교경제학’의 자기정의와 방법론에서 출발해 왔다. 김승욱(2008)은 한국 기독교경제학을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주류경제학을 전면 부정하기보다 기독교 세계관에 비

추어 비판적으로 발전시키는 접근이 생산적이라고 보았다. 황희영(2009)은 성경적 경제학이 윤리·방법론 비판을 제기해 왔으나 공유된 인식체계와 방법론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분석 틀의 재구축을 제안하였다. 이종철(2013)은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가 약화된 근원을 공리주의적 경제인 개념과 효율성 중심 인간관에서 찾았다.

노동의 의미와 소명 문제를 다룬 국내 연구도 본 연구의 배경을 이룬다. 이명현(2011)은 카이퍼의 노동문제관을 분석하며 노동자의 삶과 이해가 자본과 구별되는 영역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방룡(2010)은 종교별 노동윤리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비교하였고, 윤종인(2016)은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종교활동가구에서 노동·저축이 특별히 더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눔은 더 활발하다고 보고하였다. 분배와 취약성에 관한 논의로 황의서(2010)는 사랑이 결여된 자기이익이 외부성·무임승차·빈부격차를 낳는다고 보았고, 조규봉(2020; 2024)은 토라의 경제관을 안식일·희년·약자 배려의 틀로 정리하며 이를 센(Sen)의 역량 접근과 연결하였으며, 조혜신(2018)은 희년법의 핵심을 관계성·공동체 책임·돌봄에서 찾고 이를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하였다. 이들 연구는 AI 시대 노동·자본 담론을 해석할 때 취약성·돌봄·공동체 책임의 언어를 함께 호출할 필요를 시사한다.

3. 텍스트 마이닝의 학술적 활용과 의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은 정형화되지 않은 대량의 글에서 의미 있는 패턴과 지식을 추출하는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기법의 총칭이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수백·수천 편의 논문을 일일이 읽고 요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일정한 규칙과 통계에 따라 대신 수행하여 글 속에 잠재된 구조와 경향을 드러내는 기술이다. 예컨대 어떤 주제어가 시기별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어떤 단어들이 서로 짝지어 나타나는지, 문헌 전체가 몇 개의 주제 묶음으로 나뉘는지를 분석자의 인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절차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쉬운 대규모 담론 연구에서 관찰을 수치로 환원하여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는 장점을 지닌다(Grimmer & Stewart, 2013). 다만 그 산출물은 어디까지나 단어의 ‘함께 나타남(공기, co-occurrence)’에 관한 통계이므로, 의미의 최종 해석은 여전히 연구자의 몫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이 점을 전제로, 빈도 분석으로 ‘무엇이 얼마나 자주 논의되는가’를, Word2Vec으로 ‘어떤 개념이 어떤 개념과 가까운 맥락에서 쓰이는가’를, LDA로 ‘문헌 전체가 어떤 주제들로 짜여 있는가’를 단계적으로 살핀다. 세 기법은 각각 빈도·의미·주제라는 서로 다른 층위를 비추므로, 함께 사용할 때 담론의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신앙과 학문’ 영역에서도 텍스트 마이닝이 실제 연구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심규진(2025)은 기독교 세계관 관련 문헌 202편을 대상으로 TF, TF-IDF, 동시출현 네트워크,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국내 연구 동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신학·학문 분야에서도 대규모 문헌의 구조와 주제 변화를 분석하는 데 텍스트 마이닝이 유효한 방법론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AI 경제 담론과 성경 텍스트의 의미 구조를 병렬 비교하는 탐색적 시도를 제시한다.

III. 데이터 및 연구 방법론

1. 데이터 수집: Web of Science 학술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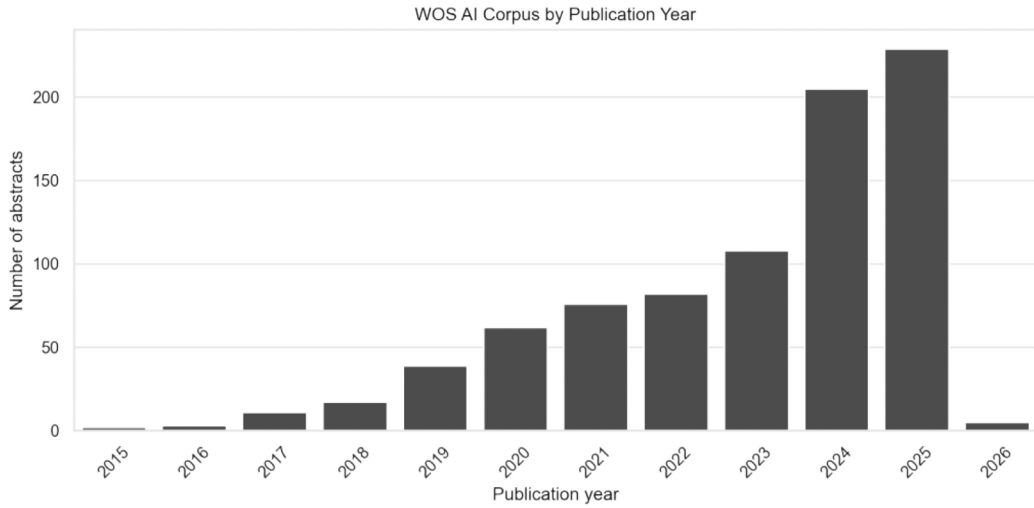
Web of Science(WoS)는 SCIE·SSCI 등 핵심 저널을 포함하는 학술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로 체계적 문헌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Mongeon & Paul-Hus, 2016). 본 연구는 WoS Core Collection에서 ‘generative AI’,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chatbot’, ‘ChatGPT’, ‘large language model’ 중 하나 이상과, ‘labor’, ‘employment’, ‘wage’, ‘inequality’, ‘job’, ‘workforce’, ‘capital’, ‘productivity’, ‘economic’ 중 하나 이상을 동시에 포함하는 논문을 주제어(Topic)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2015~2026년, 언어는 영어, 초록이 존재하는 문헌으로 한정하였으며, 2026년 4월 2일 기준 최종 839편이 분석 코퍼스로 확정되었다.

839편을 ChatGPT 공개(2022년 11월)를 기준으로 두 시기로 구분하였다. ChatGPT는 공개 직후 가장 빠르게 확산된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 학술적 관심의 자연스러운 시점 표지(time marker)가 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이 시점 구분을 인과적 처치(treatment)가 아니라 서술의 편의를 위한 시기 표지로 사용한다. <표 1>에 시기별 기술 통계를 제시하였다.

<표 1> WoS AI 경제 담론 코퍼스 기술 통계

구분	문서 수	토큰 수	기간
Pre-ChatGPT (≤2022)	292	68,891	2015-2022
Post-ChatGPT (≥2023)	547	131,831	2023-2026
합계	839	200,722	2015-2026

Post 시기 논문 수(547편)는 Pre(292편)의 약 1.9배이며, 토큰 수에서도 유사한 차이를 보인다. 이



<그림 1> WoS AI 경제 담론 논문의 연도별 출판 추이 (2015-2026)

러한 양적 차이는 이후 빈도 분석에서 만 토큰당 정규화(per 10,000 tokens)로 보정한다.

<그림 1>은 연도별 수록 논문 수를 보여준다. 2015년(2편)부터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108편) 이후 2024년(205편)·2025년(229편)으로 빠르게 늘었다. 다만 연간 증가 추세 자체는 ChatGPT 공개 이전인 2019~2022년에도 이미 관찰되며(2021년 76편, 2022년 82편), 따라서 후술하는 시간 간 차이는 ChatGPT라는 단일 사건에 전적으로 귀속될 수 없고, AI 연구 전반의 장기 성장세 위에서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2. 데이터 수집: KJV 성경 텍스트

성경 텍스트 분석을 위해 Python의 NLTK(Natural Language Toolkit) 라이브러리에 수록된 King James Version(KJV) 전문을 활용하였다. KJV는 1611년 초판 이래 영어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이다. 전체 KJV 코퍼스는 30,103개 구절, 1,010,654개 토큰(단어)으로 구성되며, 불용어(the, a, is 등 분석에 불필요한 일반 단어) 처리 후 27,278개 구절, 304,617개 토큰, 12,324개 고유 어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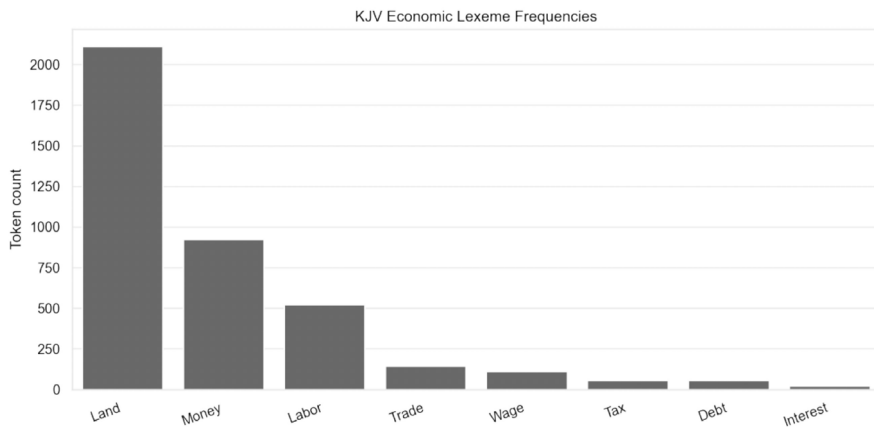
성경 텍스트에서 경제 관련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8개의 경제 범주를 사전에 정의하였다. 이 범주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토지(Land), 화폐(Money), 노동(Labor), 상거래(Trade), 임금(Wage), 세금(Tax), 부채(Debt), 이자(Interest)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에 해당하는 성경적 어휘를 할당하였다.

<표 2> KJV 성경 경제 관련 어휘 빈도 분석 (총 3,957회)

경제 범주	출현 빈도	세부 어휘(빈도)
토지(Land)	2,112	land(1,701), field(289), fields(59), lands(46), estate(17)
화폐(Money)	925	gold(412), silver(320), money(136), shekel(43), talent(14)
노동(Labor)	524	work(411), labour(86), workers(22), toil(4), worker(1)
상거래(Trade)	147	buy(56), sell(35), price(32), merchant(12), market(7), trade(5)
임금(Wage)	112	reward(73), hire(23), wages(16)
세금(Tax)	57	tribute(36), custom(20), taxes(1)
부채(Debt)	56	pledge(21), lend(16), borrow(8), debt(7), debtor(4)
이자(Interest)	24	usury(24)

<표 2>는 KJV 성경에서 추출된 경제 관련 어휘의 빈도를 보여준다. 토지(Land) 관련 어휘가 2,112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며, 이는 고대 농경 사회에서 토지가 가장 핵심적인 생산 수단이었음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점은 화폐(Money) 범주에서 ‘gold(금, 412회)’와 ‘silver(은, 320회)’가 ‘money(돈, 136회)’보다 훨씬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대 경제에서 화폐가 실물 귀금속에 기초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금’과 ‘은’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신성(神聖)과 순결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자(Interest) 범주에서 ‘usury(고리대금)’가 유일하게 24회 등장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현대 영어의 ‘interest(이자)’가 아닌 ‘usury’가 사용된 것은 성경이 이자를 중립적 경제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22장 25절은 “네가 만일 나와 함께한



<그림 2> KJV 성경 경제 관련 어휘 범주별 출현 빈도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라고 명령하고 있다.

3. 분석 방법론

1) 두 코퍼스의 비교 가능성에 관한 전제

본 연구는 KJV 코퍼스와 WoS 코퍼스를 직접적 등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두 코퍼스는 장르(경전 서사 대 학술 초록), 시대(17세기 초 영어 대 21세기 영어), 언어 사용역(register), 저술 목적, 문체, 단어 분포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한 코퍼스에서 특정 단어쌍의 의미적 거리가 다른 코퍼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곧바로 “성경적 경제관과 현대 AI 경제 담론의 우열”이나 “차이의 증명”으로 환원할 수 없다. 또한 두 모델은 서로 독립적으로 학습되어 벡터 공간의 축이 정렬(align)되어 있지 않으므로, 코사인 유사도의 절대값을 코퍼스 간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본 연구는 KJV 분석을 현대 담론을 비추어 볼 대안적 도덕 어휘를 탐색하기 위한 해석적 렌즈(heuristic lens)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즉 “두 코퍼스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텍스트가 환기하는 어휘적 강조(취약성·관계성·칭지기성)가 현대 담론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는 비교를 통한 우열 판정이 아니라, 현대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덜 호명되는 가치 어휘를 식별하기 위한 지혜 탐색적 접근이다.

2) Word2Vec: 단어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하기

Word2Vec(Mikolov et al., 2013)은 컴퓨터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단어를 숫자들의 목록(벡터)으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비유하자면, 지도에서 서울과 부산의 위치를 좌표(위도, 경도)로 표현하듯, 모든 단어를 다차원 공간의 좌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은 이 공간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왕’과 ‘여왕’은 가까이 위치하고, ‘왕’과 ‘사과’는 멀리 위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kip-gram 방식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텍스트에서 하나의 단어(타겟 단어)를 선택한 후, 그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학습한다. 예를 들어 ‘job’이라는 단어 주변에 ‘insecurity’, ‘displacement’, ‘market’ 등의 단어가 자주 나타난다면, 컴퓨터는 이 단어들이 의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학습한다. 수만 편의 논문에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각 단어의 ‘의미적 DNA’라 할 수 있는 벡터가 만들어진다.

두 단어 벡터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를 계산하면 두 단어가 얼마나 비슷한 맥

락에서 사용되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측정할 수 있다. 1에 가까울수록 두 단어가 매우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됨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관련이 없음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사도를 통해, 예를 들어 ‘job’이 ‘insecurity(불안)’라는 단어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ChatGPT 전후로 그 연결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시기의 논문들에서 ‘job(일자리)’이라는 단어가 ‘insecurity(불안)’, ‘displacement(대체)’, ‘burnout(소진)’ 같은 단어들 곁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Word2Vec은 ‘job’의 벡터를 이 단어들의 벡터와 가까운 위치에 배치한다. 반대로 ‘job’이 ‘creativity(창의)’나 ‘meaning(의미)’과 자주 어울린다면 그 방향으로 끌려간다. 따라서 한 단어의 ‘이웃 단어 목록(nearest neighbors)’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단어가 해당 담론 안에서 어떤 정서와 함의를 띠고 사용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특정 단어쌍의 유사도뿐 아니라 각 단어의 최근접 이웃을 함께 제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며, 이는 시기별로 독립 학습된 두 모델의 절대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표 3> Word2Vec 모델 파라미터 설정

파라미터	WoS 코퍼스	KJV 코퍼스
알고리즘	Skip-gram (sg=1)	Skip-gram (sg=1)
벡터 차원(vector_size)	100	100
윈도우 크기(window)	5	5
최소 빈도(min_count)	2	3
학습 반복(epochs)	15-20	20
난수 시드(seed)	42	42

<표 3>은 두 코퍼스에 적용한 Word2Vec 모델의 설정값을 정리한 것이다. 각 설정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풀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벡터 차원(vector_size)’은 한 단어를 몇 개의 숫자로 표현할지를 정하는 값으로, 차원이 클수록 단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으나 그만큼 충분한 양의 텍스트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두 코퍼스 모두 100차원으로 통일하여 비교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둘째, ‘윈도우 크기(window)’는 한 단어의 ‘문맥’을 그 앞뒤 몇 개 단어까지로 볼지를 정하는 값으로, 5로 설정하여 한 단어를 중심으로 좌우 다섯 단어까지를 함께 학습하였다. 셋째, ‘최소 빈도(min_count)’는 너무 드물게 나타나는 단어를 분석에서 제외하는 기준이다. 한두 번만 등장하는 단어로는 안정적인 의미 벡터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며, 이 기준 때문에 빈도가 낮은 일부 표적

어휘가 특정 시기 어휘집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은 결과 해석에서 별도로 고려한다. 넷째, ‘학습 반복(epochs)’은 동일한 텍스트를 몇 번 반복해 학습할지를 뜻하며, 반복이 많을수록 의미 관계가 더 또렷해진다. 학습 방식으로는 한 단어를 입력해 그 주변 단어들을 예측하는 Skip-gram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비교적 드문 단어의 의미도 잘 포착한다는 점에서 특정 경제·노동 어휘의 의미망을 추적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모든 모델은 동일한 난수 시드(seed = 42)와 단일 작업자(worker = 1) 환경에서 학습하여, 같은 코드를 실행하면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도록 하였다.

Word2Vec 코사인 유사도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신중히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시기별로 독립 학습된 두 모델의 벡터 공간은 정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일 단어쌍의 코사인 값을 시기 간에 빼서 얻은 ‘변화량’은 정밀한 추정치가 아니라 방향성에 관한 정황적 단서로만 읽어야 한다. 둘째, 작은 코퍼스(특히 Pre 시기)에서는 결과가 난수 시드·반복 횟수·최소 빈도 임계값에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 동일 단어쌍의 값이 사양 변경에 따라 적지 않게 흔들렸으며, 이를 결과 해석에 반영하였다. 셋째, 일부 표적 어휘는 빈도가 낮아 임계값 미만으로 어휘집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어떤 단어쌍이 한 시기에 ‘없음(N/A)’으로 나타나는 것은 해당 개념의 부재가 아니라 표층 어휘의 희소성에 따른 측정 한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시기 간 변화량보다 각 시기 내부의 이웃 어휘 구조(within-period neighbors)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우선한다.

2) LDA 토픽 모델링: 문서 속 숨겨진 주제 찾기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Blei et al., 2003)는 대량의 문서 집합에서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제(topic)’를 통계적으로 추정해 주는 기법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LDA는 ‘모든 문서는 몇 개의 주제가 일정 비율로 섞여 있는 혼합물이며, 각 주제는 특정 단어들이 자주 함께 등장하는 단어 묶음’이라고 가정한다. 예컨대 한 논문을 ‘의료 60% + 윤리 30% + 교육 10%’와 같이 여러 주제의 조합으로 보고, 수많은 문서에 걸친 단어의 동시 출현 패턴을 거꾸로 추적하여 ‘어떤 단어들이 한 주제를 이루는가’와 ‘각 문서가 어떤 주제를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동시에 추정한다. 그 결과 각 주제는 이를 대표하는 상위 키워드 목록으로 제시된다.

이때 핵심 선택은 ‘주제를 몇 개(K)로 나눌 것인가’이다. K가 너무 작으면 서로 다른 주제가 뭉뚱그려지고, 너무 크면 하나의 주제가 잘게 쪼개져 해석이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비교의 기준선으로 K = 5를 사용하되, 그 타당성을 토픽 일관성(topic coherence) 지표인 c_v (Röder et al., 2015)로 함께 점검하였다. 일관성은 한 주제를 이루는 상위 단어들이 실제 문헌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함께 등장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값이 높을수록 사람이 보기에 ‘말이 되는’ 주제임을 뜻한다. 본

연구는 K를 4부터 20까지 바꾸어 가며 일관성을 계산하고(<그림 5>), 그 결과를 토대로 K = 5 해상도에서 관찰된 주제 구조가 더 세분화된 해상도에서도 유지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이로써 Pre-ChatGPT와 Post-ChatGPT 코퍼스에 대해 독립적으로 LDA를 학습하여 두 시기의 주제 구조를 직접 대조하였다.

3) 분석 설계: ChatGPT 전후 비교

본 연구의 분석 전략은 WoS 코퍼스를 ChatGPT 공개를 전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Word2Vec·LDA 모델을 독립 학습하고 담론 구조를 기술적으로 대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후 비교는, 어떤 사건의 전과 후에 찍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피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다. ChatGPT의 공개는 생성형 AI에 대한 사회적·학술적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분기로 널리 받아들여지므로, 그 전후의 담론을 견주어 보면 ‘AI와 노동·자본을 둘러싼 학술적 언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본 설계는 통제집단(control group)과 반사실적 추세(counterfactual trend)를 갖추지 못하므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이 요구하는 평행추세(parallel trends) 가정을 설정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기 간 차이는 ChatGPT의 인과적 효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시간에 따른 담론 구조의 변화를 기술하는 탐색적·기술적 대조로 한정된다. 앞서 <그림 1>에서 보았듯 관련 연구의 양적 증가세는 ChatGPT 이전부터 존재하므로, 본 연구가 관찰하는 변화는 AI 연구 전반의 장기 추세 위에 놓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IV. 분석 결과

1. ChatGPT 전후 주제별 어휘 빈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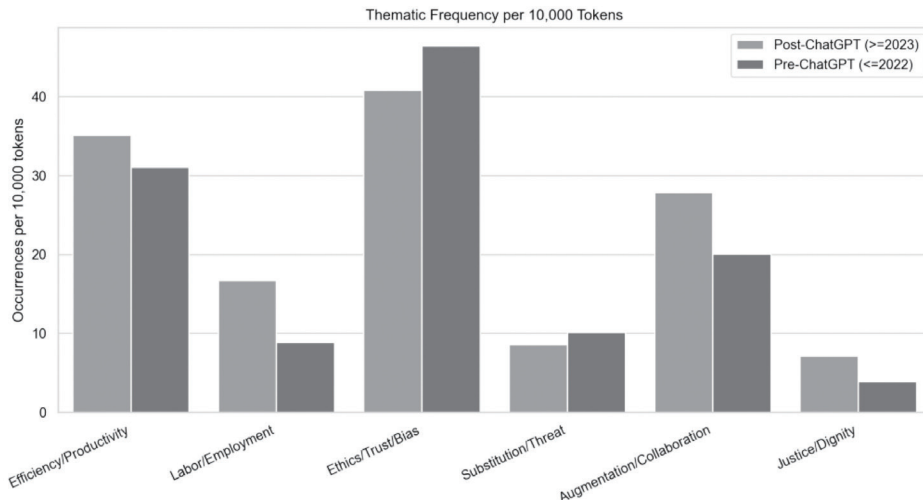
ChatGPT 전후 시기별 주제 범주의 어휘 출현 빈도를 만 토큰(per 10,000 tokens)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하였다. 정규화란, 두 시기의 전체 텍스트 양이 다르기 때문에(Pre: 68,891 토큰, Post: 131,831 토큰), 단순 빈도를 비교하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준(만 단어당 출현 횟수)으로 환산하는 것이다.

<표 4> ChatGPT 전후 WoS 담론 주제별 어휘 빈도 비교

주제 범주	Pre-ChatGPT (per 10K)	Post-ChatGPT (per 10K)	변화율
효율성/생산성(Efficiency)	31.06	35.12	+13.1%
노동/고용(Labor/Employment)	8.85	16.69	+88.6%
윤리/신뢰/편향(Ethics/Trust/Bias)	46.45	40.81	-12.1%
대체/위협(Substitution/Threat)	10.16	8.57	-15.6%
보완/협력(Augmentation/Collaboration)	20.03	27.84	+39.0%
정의/존엄(Justice/Dignity)	3.92	7.13	+81.9%
성경적 어휘(Biblical Lexicon)	0.00	0.08	N/A

<표 4>의 결과는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을 보여준다. 첫째, 노동/고용 관련 어휘가 만 토큰당 8.85에서 16.69로 약 89% 증가하였다. 이는 ChatGPT 이후 AI의 고용 영향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거의 두 배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AI가 더 이상 ‘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보완/협력(Augmentation) 범주의 어휘가 20.03에서 27.84로 약 39% 상승한 반면, 대체/위협(Substitution) 범주는 10.16에서 8.57로 약 16% 감소하였다. 이는 학술 담론의 프레임이 ‘AI가 인간을 대체한다’에서 ‘AI가 인간을 보완·증강한다’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노동자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 간극이야말로 본 연구의 핵심 논점이 된다.



<그림 3> ChatGPT 전후 WoS 담론 주제 범주별 어휘 빈도 비교

셋째, 성격적 어휘 범주는 두 시기 모두에서 사실상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손으로 선별한 소수 어휘의 원시 빈도이며, AI·경제 초록이라는 장르 특성상 종교 어휘가 드문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수치를 “공적 학문에서 종교적 사고가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증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해당 어휘가 이 특정 코퍼스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기술적 관찰로만 제시한다.

2. Word2Vec 의미망 분석: WoS 코퍼스

<표 5>는 ChatGPT 전후 핵심 경제 용어 쌍의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변화를 보여준다. Word2Vec 모델을 통해 학습된 벡터 공간에서, 단어 쌍 간 유사도의 변화는 해당 개념들 사이의 의미론적 거리(semantic distance)가 학술 담론 내에서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준다.<표 5>는 본 연구의 핵심 발견을 담고 있다. Word2Vec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시기별로 독립 학습된 두 모델의 좌표축이 서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기 간 유사도의 ‘절대적 차이’보다 (가) 각 시기 내부에서 한 단어가 어떤 단어들과 가까이 놓이는가(최근접 이웃)와 (나) 변화의 방향성을 우선 단서로 삼는다.

가장 안정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은 ‘일자리(job)’의 의미망이다. Post-ChatGPT 시기에서 ‘job’의 최근접 이웃은 ‘insecurity(불안)’, ‘displacement(대체)’, ‘crafting(직무 재설계)’, ‘career(경력)’, ‘burnout(소진)’ 등으로 나타나, 일자리가 불안·대체·소진의 어휘망 안에 놓여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이 구조는 난수 시드를 바꾸어 모델을 반복 학습해도 거의 변하지 않아<표 5>의 ‘job-insecurity’는 두 시기 모두 0.85 이상의 높은 값을 유지, 본 연구가 가장 신뢰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자동화(automation)’의 의미가 ‘대체’에서 ‘증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automation-augmentation’의 유사도는 Pre 시기보다 Post 시기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이 상승 방향은 시드를 20여 차례 바꾸어 학습한 경우에도 두 시기의 분포가 서로 겹치지 않을 만큼 일관적이었다. 다만 표적 어휘 ‘augmentation’의 절대 빈도가 크지 않으므로 유사도의 정확한 크기 자체는 신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automation-substitution’은 Post 시기에 다소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요컨대 학술 담론의 프레임은 ‘AI가 인간을 대체한다’에서 ‘AI가 인간을 보완·증강한다’로 이동하고 있다.

<표 5> ChatGPT 전후 핵심 경제 용어 쌍의 코사인 유사도 변화

단어 쌍	Pre-ChatGPT	Post-ChatGPT	해석
job - insecurity	높음(≈0.92-0.97)	높음(≈0.85-0.90)	양 시기 모두 강한 결합(지속)
job - displacement	N/A(빈도 0)	0.81	Pre는 어휘 부재에 따른 측정 한계
automation - substitution	0.47-0.63	0.39-0.53	악화 경향(방향만)
automation - augmentation	0.34-0.57	0.65-0.71	상승 경향 (크기는 사양 민감)
bias - fairness	높음(≈0.82-0.89)	높음(≈0.76-0.82)	양 시기 모두 강한 결합
employment - labor	N/A('labor' 1회)	0.79-0.87	Pre는 저빈도에 따른 측정 한계
capital - labor	N/A('labor' 1회)	0.70-0.80	Pre는 저빈도에 따른 측정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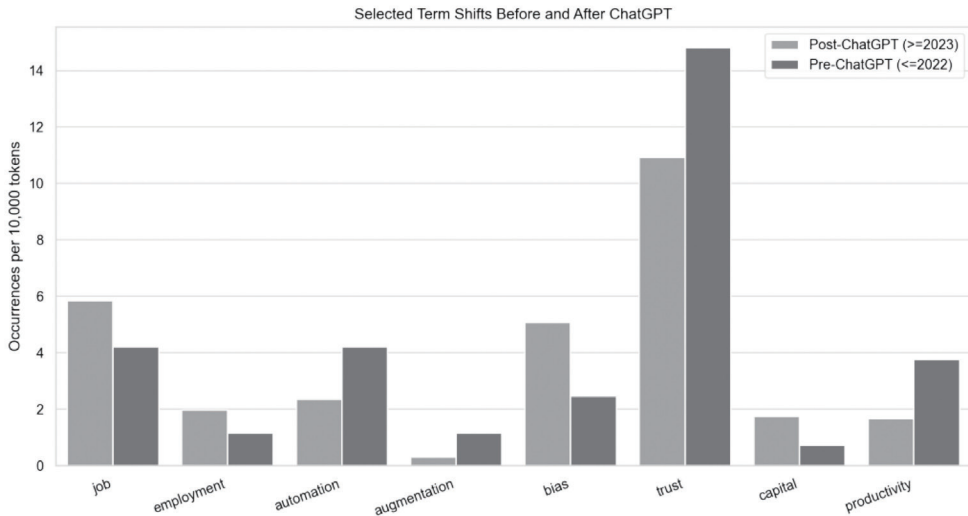
그러나 이 ‘증강 낙관’은 미시적 불안과 병존한다. 앞서 보았듯 ‘job’은 두 시기 모두에서 불안·대체와 강하게 결합된 채로 남아 있다. 즉 거시적 담론이 점차 낙관적 언어를 채택하는 동안에도,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를 둘러싼 불안의 어휘는 악화되지 않고 지속된다. 거시 담론의 ‘증강’ 프레이밍과 미시적 수준의 실존적 불안 사이의 이 간극(gap)이야말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며, 정책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관찰이다.

한편 ‘자본-노동(capital-labor)’과 ‘고용-노동(employment-labor)’의 관계는 Post 시기에서 비교적 뚜렷한 의미 이웃을 형성한다. 다만 Pre 시기에 이 쌍들이 산출되지 않은 것(N/A)은 개념의 부재라기보다, 해당 시기 코퍼스에서 표층 어휘 ‘labor’의 출현 빈도가 분석 임계값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측정상의 한계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럼에도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형 자본이 노동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가 후기 담론에서 더 자주 논의된다는 점은,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의제의 전면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후기 담론에서 ‘증강’ 프레이밍이 강해지는 경향과 일자리-불안 결합의 지속이라는 두 흐름이 병존하며, 이 긴장은 ‘강화’가 아니라 ‘지속’의 형태로 강건하게 확인된다.

<표 6> 핵심 단어쌍 유사도의 시드 기반 평균과 95% 구간

단어 쌍	Pre 평균 [95% 구간]	Post 평균 [95% 구간]
job - insecurity	0.967 [0.961, 0.973]	0.880 [0.865, 0.893]
automation - augmentation	0.573 [0.531, 0.625]	0.736 [0.695, 0.757]
automation - substitution	0.619 [0.590, 0.645]	0.535 [0.477, 0.590]
bias - fairness	0.891 [0.855, 0.920]	0.821 [0.799, 0.840]
employment - labor	N/A (빈도 임계값 미만)	0.852 [0.838, 0.866]
capital - labor	N/A (빈도 임계값 미만)	0.804 [0.787, 0.823]
job - displacement	N/A (빈도 0)	0.820 [0.808, 0.830]

<표 6>은 난수 시드를 반복하여 모델을 다시 학습했을 때(Pre 20회, Post 10회) 각 단어쌍 유사도의 평균과 95% 구간을 보여준다. 각 시기 내부의 추정값은 시드를 바꾸어도 매우 안정적이며(표준편차 ≤ 0.034), 특히 ‘automation-augmentation’의 시기 간 상승은 두 시기의 95%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을 만큼 일관적이다. 반면 Pre 시기에 일부 단어쌍이 산출되지 않은 것은 표적 어휘의 빈도가 분석 임계값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20회의 반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개념의 부재가 아니라 측정상의 한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ChatGPT 전후 핵심 경제 용어의 빈도 변화 (per 10K tokens)

3. Word2Vec 의미망 분석: KJV 성경 코퍼스

<표 7>은 KJV 성경 텍스트가 경제적 개념을 현대 경제학과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poor(가난)’의 의미망이다. 현대 경제학에서 빈곤(poverty)은 통상적으로 소득 수준, 구매력, 소비 패턴 등 물질적·양적 지표로 정의된다. 그러나 성경 텍스트에서 ‘poor’는 ‘needy(궁핍한 자, 0.741)’와 ‘fatherless(고아, 0.641)’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성경이 가난을 단순한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관계적 고립과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KJV 성경 경제 어휘 쌍의 코사인 유사도

단어 쌍	코사인 유사도	신학적 해석
poor - needy	0.741	가난의 관계적 정의: 궁핍한 자와의 동의어적 연결
rich - poor	0.527	부와 빈곤의 긴장 관계: 도덕적 대비 구조
labour - work	0.487	노동의 이중적 의미: 수고(labour)와 창조 참여(work)
servant - lord	0.498	경제적 관계의 위계적 구조: 청지기직의 근원
faithful - servant	0.426	충성된 종의 원형: 달란트 비유의 경제윤리
poor - brother	0.341	가난한 자에 대한 형제적 연대의 의무

‘rich(부유함)’가 ‘needle(바늘, 0.678)’과 강하게 연결된 것은 마태복음 19장 24절의 예수님 말씀 —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 이 벡터 공간에 각인된 결과이다. 이 발견은 흥미롭고도 심원한 함의를 갖는다. 현대 AI 경제 담론에서 부(wealth)와 자본(capital)은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부유함은 영적 위험과 도덕적 경고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4. LDA 토픽 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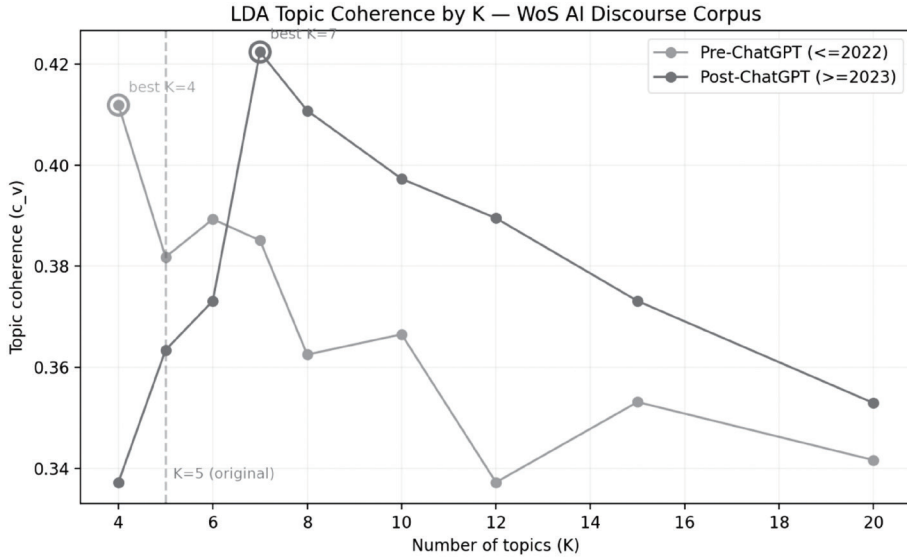
<표 8>에서 두드러진 구조적 전환은 다음과 같다. 첫째, Pre-ChatGPT의 ‘ML 방법론’ 토픽(기술 개발 중심)이 Post-ChatGPT에서 ‘체계적 문헌검토’ 토픽(영향 평가 중심)으로 이동하여, 연구의 초점이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로 옮겨 갔음을 보여준다. 둘째, Post-ChatGPT에서 ‘AI 교육 혁신’ 토픽이 새롭게 부상하여 교육 분야의 AI 활용이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셋째, 두 시기 모두에서 분배 정의·인간 존엄·공동체적 돌봄을 정면으로 다루는 토픽은

뚜렷한 단일 주제로 분리되지 않았다.

다만 이 세 번째 관찰은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정 주제가 $K = 5$ 해상도에서 별도 토픽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그 담론의 ‘부재’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토픽 수를 늘려 가며 주제 구조의 변화를 검토하였다(〈그림 5〉). 그 결과 Post-ChatGPT 코퍼스에서는 일관성 지표가 $K = 7$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픽 수를 10개로 늘리면 ‘job·work·employees’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고용 토픽과 ‘ethical·trust·privacy’를 중심으로 하는 윤리·신뢰·거버넌스 토픽이 별도로 분리되어 출현하였다. 즉 노동·고용 및 윤리에 관한 논의는 더 세분화된 해상도에서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더 높은 해상도에서 드러나는 이 토픽들조차 주로 고용·서비스·신뢰·프라이버시의 언어로 짜여 있으며, 분배 정의나 인간 존엄, 공동체적 돌봄을 규범적 중심으로 삼는 주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완전한 부재’가 아니라 ‘상대적 희소(thin presence)’로 규정한다.

<표 8> ChatGPT 전후 LDA 토픽 구조 비교 ($K=5$)

시기	토픽	명명	핵심 키워드 (상위 6개)
Pre	T0	ML 방법론	energy, technologies, forecasting, machine, learning, hybrid
Pre	T1	ML 알고리즘	learning, machine, ai, review, algorithms, decision
Pre	T2	산업 디지털화	ai, service, technology, digital, robots, industry
Pre	T3	의료/교육 AI	health, ai, care, mental, education, healthcare
Pre	T4	챗봇 신뢰	ai, chatbot, user, trust, consumers, social
Post	T0	체계적 문헌 검토	review, technologies, healthcare, challenges, literature, systematic
Post	T1	AI 교육 혁신	learning, students, education, writing, teachers, chatbots
Post	T2	인간-AI 상호작용	service, chatbots, employees, social, impact, robots
Post	T3	기술 수용	use, acceptance, technology, perceived, intention, adoption
Post	T4	디지털/그린 혁신	digital, medical, innovation, performance, green, transformation



〈그림 5〉 LDA 토픽 수(K)에 따른 주제 일관성(c_v) 변화 — WoS 코퍼스

V. 논의: 한국교회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는 세 가지 핵심 발견으로 요약된다. 첫째, ChatGPT 이후 AI 담론에서 자동화는 점차 ‘대체’보다 ‘증강’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자리는 두 시기 모두에서 불안·대체와 강하게 결합된 채 남아 있었다(거시적 낙관과 미시적 불안의 병존). 둘째, 성경 코퍼스는 빈곤을 관계적 취약성의 맥락에서, 부를 도덕적 긴장의 맥락에서 호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AI 경제 담론에서 소명·안식·희년·청지기직 등 규범적 어휘는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발견으로부터 한국교회의 실천적 역할을 네 가지 차원에서 논의한다.

1. 대안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교회: 정책적 공백을 메우기

일자리-불안 결합이 두 시기 모두에서 강하게 지속된다는 관찰은, AI 시대의 고용 불안이 일시적 우려가 아니라 담론에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년 현재, 한국 정부는 ‘디지털 뉴딜 2.0’과 ‘AI 일자리 전환 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적 안전망은 주로 청년층과 IT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년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KJV 분석에서 가난이 ‘needy·fatherless’와 함께 호명되는 경향은, 취약성을 소득 빈곤만이 아니라 관계적 결핍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환기한다. 시편 82편 3-4절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라고 명령한다. 사도행전 4장 34-35절은 초대 교회의 경제적 나눔을 증언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집이나 밭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국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위한 대안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AI 실업 위기 교인을 위한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 운영: 교회 내 IT 전문 교인들이 멘토가 되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특히 고령 교인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AI 기초 활용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3) 교회 기반의 ‘일자리 나눔 네트워크’ 구축: 교회 연합체 차원에서 AI 관련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교회의 공간·인력·신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지역 단위의 촘촘한 연결망을 통해 공적 전달체계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의 개인에게 도달할 수 있다. 직업 재훈련과 재취업 연계는 정보 비대칭과 심리적 위축이 큰 전환기 노동자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신뢰 기반의 공동체는 이러한 비공식적 지원이 작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교회가 AI 시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Putnam(2000)이 지적했듯, 종교 공동체는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이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회복력(resilience)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한국교회가 이 역할을 재발견한다면, AI 시대의 노동 전환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 실천만으로는 거대한 기술 자본의 비대칭을 통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의 미시적 실천은 국가의 거시 제도와 접속될 때 실효성을 갖는다. 예컨대 희년 원리를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한 조혜신(2018)의 연구처럼, 비시장적 취약계층 보호는 기본소득·근로연계 급여·디지털 전환 기금 등 강제력 있는 재분배 제도와 결합될 필요가 있다.

2. 청지기적 자본 윤리와 AI 이윤의 분배

자본-노동(capital-labor)의 의미 결합이 Post 시기에 더 뚜렷해진 것은, 생성형 AI가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학술 담론의 전면으로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 생성형 AI의 핵심 생산요소인 데이

터·알고리즘·연산 인프라는 전통적 물질 자본과 달리 무형 자본(intangible capital)의 성격을 띤다. 무형 자본은 복제의 한계비용이 낮고 규모와 결합에서 수익이 체증하는 경향이 있어(Haskel & Westlake, 2018), 소수 사업자로의 집중과 승자독식(winner-takes-most)을 구조적으로 강화한다. 자본-노동 간 기능적 소득분배(factor share)가 자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Acemoglu & Restrepo, 2018) 또한 이러한 집중과 맞물린다.

KJV 분석에서 ‘servant-lord’(0.498)와 ‘faithful-servant’(0.426)가 가깝게 놓인 것은, 성경 텍스트가 경제적 자원을 ‘소유’가 아니라 ‘위탁’의 틀에서 다루는 청지기직(stewardship)의 어휘를 풍부하게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위탁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주인은 종에게 자산을 맡기고(위탁), 종은 그 운용 결과를 보고하며(책임), 성과는 개인적 축적이 아니라 위탁자의 목적에 종속된다. 이 구조는 현대 기업이론의 수탁자 의무(fiduciary duty)나 이해관계자 모형(stakeholder theory)과 형식적으로 유사하며, 자본을 ‘절대적 처분권’이 아니라 ‘조건부 위탁’으로 재서술하는 분석적 어휘를 제공한다. 요컨대 청지기 개념은 규범적 당위가 아니라, 자본의 정당성을 ‘소유의 사실’이 아니라 ‘운용의 책임’에서 찾는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위탁-책임의 어휘는 AI 자본의 집중을 다루는 현행 정책 논의와 구체적 접점을 갖는다. 첫째, 분배 측면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와 디지털서비스세 논의는 초과이윤의 일부를 공적 영역으로 환수하는 장치로, ‘위탁된 자본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발상과 연결된다. 천연자원 수익을 주민 배당으로 전환한 알래스카 영구기금(Alaska Permanent Fund)은 집중된 자산의 수익을 공동체로 순환시킨 제도적 선례를 제공한다. 둘째, 접근 측면에서 데이터 이동권(GDPR 제20조)·상호운용성, 그리고 경쟁법상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논리(예: EU 디지털시장법의 게이트키퍼 규율)는 데이터·모델에 대한 접근을 분산시켜 집중을 완화한다. 셋째, 책임 측면에서 알고리즘 책임성·투명성 의무와 ESG 공시의 법제화는 ‘운용 결과에 대한 보고’라는 청지기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 경제 담론의 기여는 새로운 정책 수단을 발명하는 데 있다기보다, 이미 논의되는 분배·접근·책임의 제도들에 일관된 규범적 정당화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본을 위탁으로 보는 관점은 초과이윤의 환수와 접근의 분산이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한지를 설명하는 언어를 제시하는 한편, 혁신 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위탁의 목적과 책임의 범위—을 함께 묻게 한다. 한국의 맥락에서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 경제·경영 연구가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살림’의 관점에서 재구성해 온 흐름과 자연스럽게 접속될 수 있다.

3. 비시장적 노동 가치의 회복: 소명(Vocation)의 재발견

AI 경제 담론에서 ‘vocation(소명)’을 비롯한 비시장적 노동 가치의 어휘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관찰은, 노동의 가치가 주로 시장 가격과 생산성으로 측정되는 경향과 정합적이다. 반면 KJV에서 ‘labour-work’(0.487)의 결합은 성경 텍스트가 노동을 수고(labour)와 일·창조 참여(work)라는 두 층위에서 동시에 파악함을 보여준다. 전도서 2장 24절이 수고 가운데 누리는 만족을 말하듯, 노동의 가치는 산출물의 시장 가격만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내재한 의미에서도 발생한다. 이 이중성은 노동을 오직 ‘생산성’과 ‘고용 가능성’으로 환원하는 시장 논리의 사각을 드러낸다.

Keller와 Alsdorf(2012)는 이 사각을 노동의 ‘우상화(idolization)’와 ‘경멸(disdain)’이라는 두 극단으로 정리한다. 노동이 우상화되면 정체성이 직업적 성취에 종속되어, AI에 의한 직무 대체가 곧 존재론적 위기로 경험된다. 이는 본 연구가 관찰한 ‘job’-‘insecurity’의 지속적 결합이 가리키는 불안과 맞닿는다. 반대로 노동이 경멸되면 돌봄·관계·봉사처럼 시장에서 낮게 평가되는 활동이 평가 절하된다. 소명 개념은 노동의 가치를 시장 가격이 아니라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과 관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노동을 소득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행위주체성(agency)의 실현으로 보는 센(Sen)의 역량 접근과 형식적으로 공명한다(조규봉, 2020 참조). 요컨대 소명은 규범적 구호가 아니라, 시장 지표가 포착하지 못하는 노동의 차원을 식별하는 분석적 렌즈로 기능한다.

이 렌즈는 AI 시대의 구체적 노동 문제에 적용될 때 설명력을 얻는다. 생성형 AI는 번역·문서작성·코딩처럼 코드화 가능한 인지 과업을 빠르게 대체하는 반면, 환자의 손을 잡고 외로운 노인의 말벗이 되는 관계적·신체적 돌봄은 대체하기 어렵다. 따라서 AI의 확산은 인간 돌봄 노동의 상대적 희소성과 가치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돌봄은 생산성 향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노동집약 부문이어서(Baumol, 1967의 ‘비용질병’), 시장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상대가격 상승과 과소공급이 동시에 나타나기 쉽다. 초고령화 속 요양보호사 부족·저임금·높은 이직률은 이 메커니즘의 전형적 징후다. 따라서 비시장적 노동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서적 호소가 아니라,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정하는 측정·보상·시간의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로 구체화된다.

제도적 구체화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 차원에서 가계생산 위성계정(household satellite accounts)과 생활시간조사는 돌봄·가사 등 비시장 노동을 국민계정의 가시권으로 끌어들여, ‘보이지 않던’ 가치를 정책 대상으로 전환한다. 둘째, 시간·경계 차원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프랑스의 2017년 노동법 도입 이후 여러 국가에서 논의되는—는 안식의 통찰을 노동 시간 경계의 제도로 번역한다. 이 맥락에서 안식은 종교적 의무이기 이전에, 인간의 회복과 관계를 위한 비효율의 의도적 확보, 곧 상시 가동을 지향하는 최적화 논리에 대한 제도적 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기독교 노동 담론의 기여는 이러한 제도들이 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조건인지를 설명하는 일관된 가치 언어를 제공하는 데 있다.

4. 크리스천 학문 공동체의 사명: “보이지 않는 공백”을 채우기

본 연구가 관찰한 도덕 어휘의 상대적 희소성은, Pearcey(2004)가 ‘사실/가치 이분법(Fact/Value Split)’으로 명명한 근대 학문의 분업과 정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기술 지식이 ‘사실’의 영역에, 가치·규범 어휘가 ‘가치’의 영역에 배치되면서, 후자는 공적 학술 담론에서 주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본 연구가 관찰한 어휘적 희소성은 장르(학술 초록)·표본(영어·WoS)·측정 도구(소수 어휘 사전)의 제약을 함께 반영하므로, 이를 ‘배제의 증명’이 아니라 추가 검토를 요하는 정황적 단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단서는 분명한 과제를 제기한다. 곧, 효율성과 시장가치 중심으로 좁아진 경제 담론의 어휘를 분석 가능한 형태의 규범 개념으로 확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확장은 성경적 경제 개념을 현대 경제학·정책의 언어로 ‘번역(translate)’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여기서 번역이란 종교적 명령을 정책으로 직접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담은 구조적 원리를 추출하여 세속적 제도 설계의 가설로 재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아래에서는 안식·희년·살롬 세 개념을 예로 들어, 각 개념에서 도출되는 설계 원리와 그 현대적 대응물, 그리고 유추의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

첫째, 안식(Sabbath)은 ‘의도적 비효율(intentional inefficiency)’의 원리로 번역될 수 있다. 안식 규정의 경제적 핵심은 생산의 주기적 중단을 제도화하여 인간과 토지의 소진을 방지하는 데 있다. 그 현대적 대응물은 노동시간의 상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알고리즘적 상시 가동에 대한 제동 장치다. 이 번역의 한계는, 안식이 본래 예배적·공동체적 리듬이었던 반면 현대의 노동시간 규제는 주로 건강·안전 논리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논리는 ‘효율성의 극대화가 그 자체로 궁극 목적일 수는 없다’는 전제를 공유하며, 이 전제는 24시간 최적화를 지향하는 AI 운영 환경에서 점차 구체적 정책 쟁점이 되고 있다.

둘째, 희년(Jubilee)은 ‘집중의 주기적 해소’라는 원리로 번역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관점에서 가장 풍부한 함의를 갖는다. 레위기 25장의 희년 제도는 50년마다 토지를 원소유 가문에 돌려주고, 채무로 예속된 자를 해방하며, 토지 거래 가격을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레 25:15-16). 그 바탕에는 ‘토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인간은 사용권을 위임받았을 뿐’(레 25:23)이라는 전제, 즉 절대적 소유가 아니라 한시적 용익(usufruct)이라는 관념이 있다. 7년마다의 채무 면제(신 15장)와 결합될 때, 이 제도의 경제적 기능은 분명해진다. 핵심 생산자산의 영

구적 집중과 항구적 채무 예측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주기적 재설정(periodic reset) 장치다.

AI 시대에 핵심 생산자산은 토지에서 데이터·모델·연산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희년의 원리는 ‘소유의 한시성’과 ‘주기적 재설정’이라는 두 설계 명제로 추출되어 다음과 같은 현대적 제도와 대응한다. (i) 지식재산의 한시성—저작권·특허의 존속기간—은 이미 ‘영구 독점의 방지’라는 희년적 원리를 부분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ii) 데이터 이동권과 상호운용성은 데이터의 잠금(lock-in)을 풀어 접근을 재분배한다. (iii) 공공 데이터 신탁(data trust)과 공공 연산 자원은 집중된 자산을 공동 이용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통로다. (iv) 디지털세로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은 ‘주기적 분배’를 소득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으로, 조혜신(2018)은 희년법의 원리를 기본소득과 직접 연결한 바 있다. 다만 이 유추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토지는 경합재(rival good)이고 원소유자가 특정되지만, 데이터는 비경합적이며 ‘원소유자로의 반환’이라는 개념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또한 희년은 신정적·언약적 공동체의 제도였으므로 세속 국가에 직접 이식될 수 없다. 그럼에도 희년이 제공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처방이 아니라 ‘어떤 자산도 무기한·무제한으로 한 주체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설계 원리이며, 이 원리는 데이터·AI 거버넌스의 분배·접근 논의에 규범적 좌표를 제공한다.

셋째, 샬롬(Shalom)은 ‘다차원적 번영 지표’의 원리로 번역될 수 있다. GDP나 1인당 소득은 물질적 산출만을 측정하지만, 샬롬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관계의 화목, 공동체의 건강, 생태적 온전함을 포괄하는 통전적 번영을 가리킨다. 이 원리는 이미 진행 중인 ‘성장 너머(beyond GDP)’의 측정 논의—OECD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UN 인간개발지수, 부탄의 국민총행복 등—와 직접 맞닿는다. 기독교 경제학의 기여는 새로운 지표의 발명이라기보다, 이러한 다차원 지표가 왜 단순한 보조 통계가 아니라 번영의 본래적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AI 도입의 평가에 관계적·공동체적 차원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이상의 번역 작업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 경제 개념이 공적 정책의 대안을 ‘대체’하기보다 그것을 ‘정당화하고 방향 짓는’ 규범적 어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안식은 효율성의 한계를, 희년은 집중의 한계를, 샬롬은 번영의 범위를 묻게 한다. 크리스천 학문 공동체의 고유한 기여는 바로 이 물음들을 검증 가능한 가설과 측정 가능한 지표의 형태로 공적 담론에 제출하는 데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AI 시대의 경제 담론과 성경적 경제관을 교차적으로 살핀 탐색적·학제적 시도이다. WoS 839편 초록에 대한 Word2Vec·LDA 분석 결과, ChatGPT 공개를 전후

하여 AI 경제 담론의 의미 구조가 ‘대체’에서 ‘증강’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일자리-불안 결합은 두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했고, 분배 정의·존엄·돌봄의 도덕 어휘는 상대적으로 약게 나타났다. KJV 코퍼스는—직접 비교의 대상은 아니되 해석적 렌즈로서—빈곤·노동을 관계적 취약성과 청지기성의 맥락에서 호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관찰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문이 소명·청지기적·공동체적 책임의 언어로, 그리고 국가의 거시 제도(기본소득·디지털세·알고리즘 책임성·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와의 접촉을 통해, 공적 논의를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결과 해석의 범위를 규정한다. 첫째, 본 설계는 통제집단·평행추세를 갖추지 못하므로 시기 간 차이는 기술적 대조일 뿐 ChatGPT의 인과효과로 읽을 수 없다. 둘째, 장르·시대·언어가 달라 KJV와 WoS의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없으며, KJV 분석은 해석적 렌즈로 제한된다. 셋째, 시기 간 코사인 변화량은 정밀 추정치가 아니라 정황적 단서이며, 저빈도 어휘의 N/A는 측정 한계일 수 있다. 넷째, 주제 빈도는 소수 어휘 사전에 의존하므로 구성 타당도의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영어·WoS 초록에 국한되어 한국어 담론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어 성경 및 한국 AI 담론 데이터를 포함한 확장 분석, 시기 간 비교를 위한 정렬된 통시 임베딩(예: aligned diachronic embeddings)과 Sentence-BERT 등 트랜스포머 기반 기법의 적용, 그리고 어휘 사전의 외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분석의 깊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김광태 (2025). 조용한 사직과 소명 상실: 조직이론과 기독교 소명 개념의 통합적 고찰. **신앙과 학문**, 30(3), 5-38.
- 김방룡 (2010). 종교별 노동윤리 및 경제성장. **신앙과 학문**, 15(2), 41-73.
- 김승욱 (2008). 한국 기독교 경제학의 유형과 발전 방향. **신앙과 학문**, 13(1), 9-44.
- 서미경 (2024). 생성형 AI 시대, 헤르만 바빙크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신앙과 학문의 통합 연구. **신앙과 학문**, 29(4), 177-207.
- 서미경 (2025). AI시대, 진로 환경의 변화와 진로교육의 방향: 직업 소명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30(4), 137-163.
- 심규진 (2025).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연구 동향 분석. **신앙과 학문**, 30(2), 85-107.
- 윤종인 (2016). 노동, 저축, 나눔의 윤리에 대한 실증적 고찰 -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1(3), 247-268.
- 이명현 (2011). 아브라함 카이퍼의 노동문제관: '우리의 강령'과 '수공노동'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6(3), 211-241.
- 이종철 (2013). 주류경제학에서 윤리성 논제 실종 문제의 근원. **신앙과 학문**, 18(2), 67-105.
- 조규봉 (2020). 토라의 경제관과 경제학적 함의. **신앙과 학문**, 25(3), 121-144.
- 조규봉 (2024). 이 시대 고아, 과부, 거류민은?: 성경과 센(Sen)의 관점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4), 131-153.
- 조혜신 (2018). 희년법 원리의 제도적 구현 가능성에 관한 小考 - 기본소득 제도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3(3), 263-294.
- 황의서 (2010). 시장경제와 사랑. **신앙과 학문**, 15(1), 185-205.
- 황희영 (2009). 성경적 경제학의 재구축을 위한 인식 체계의 탐색. **신앙과 학문**, 14(1), 261-296.
- Acemoglu, D. & Restrepo, P. (2018). The race between man and machine: Implications of technology for growth, factor shares,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8(6), 1488-1542.
- Acemoglu, D. & Restrepo, P. (2020). Robots and jobs: Evidence from US labor marke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8(6), 2188-2244.
- Autor, D. H. (2015). Why are there still so many jobs? The history and future of workplace autom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9(3), 3-30.
- Baumol, W. J. (1967). Macroeconomics of unbalanced growth: The anatomy of urban crisis. *American Economic Review*, 57(3), 415-426.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Brynjolfsson, E., Li, D. & Raymond, L. R. (2023). *Generative AI at work* (NBER Working Paper No. 3116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Eloundou, T., Manning, S., Mishkin, P. & Rock, D. (2023). GPTs are GPTs: An early look at the labor market impact potential of large language models. *arXiv*. <https://arxiv.org/abs/2303.10130>
- Grimmer, J. & Stewart, B.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3), 267-297.
- Haskel, J. & Westlake, S. (2017). *Capitalism without capital: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ller, T. & Alsdorf, K. L. (2012). *Every Good Endeavor: Connecting Your Work to God's Work*. Dutton.
- King James Bible.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11)
- Mikolov, T., Sutskever, I., Chen, K., Corrado, G. S. & Dean, J. (2013).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6, 3111-3119.
- Mongeon, P. & Paul-Hus, A. (2016). The journal coverage of Web of Science and Scopus: A comparative analysis. *Scientometrics*, 106(1), 213-228.
- Pearcey, N. (2004).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Crossway Books.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AI 시대의 노동·자본 담론: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성경적 경제학적 해석

Labor and Capital Discourse in the Age of Generative AI: Text-Mining Analysis and a Biblical Economic Interpretation

김성민 (대검찰청)

김미경 (한국고용정보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AI 확산 이후 노동·자본·고용을 다루는 학술 담론의 변화 양상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성경적 경제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6년 4월 2일 기준 Web of Science에서 수집한 영문 초록 839편을 ChatGPT 공개(2022년 11월)를 전후한 두 시기—Pre-ChatGPT(~2022, 292편)와 Post-ChatGPT(2023~2026.4, 547편)—로 구분하여 빈도 분석, Word2Vec 임베딩,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였고, KJV 성경에는 별도의 Word2Vec 모델을 학습시켜 비교를 위한 해석적 참조 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후기 담론은 노동과 고용을 더 자주 호출하고 자동화를 대체보다 증강과 연결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일자리(job)는 두 시기 모두에서 불안(insecurity)·대체(displacement)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정의·존엄·분배를 설명하는 어휘는 상대적으로 얇게 나타났다. 성경 코퍼스에서는 가난과 노동이 시장 생산성보다 관계적 취약성, 도덕적 책임, 청지기성의 맥락에 놓이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다만 두 코퍼스는 장르·시대·언어·목적이 크게 달라 직접적 등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이를 우열 비교가 아니라 현대 담론을 비추어 볼 대안적 도덕 어휘를 탐색하는 해석적 렌즈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찰은 AI 담론이 노동 문제를 더 넓게 논의하기 시작했음에도 취약성·돌봄·비시장적 인간가치를 해석할 도덕 언어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교회와 기독교 학문이 소명·청지기직·공동체적 책임의 범주로 공적 논의를 보완할 여지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제어: 생성형 AI, 텍스트 마이닝, Word2Vec, LDA, 한국교회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고기숙 (Ki Sook Ko)**

ABSTRACT

This qualitative study explores how students at a Christian university perceive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aiming to inform the direction of faith-based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Data were collected from 44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a “Christian Worldview” course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B University during the second semester of 2022. Through group discussion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qualitative data were gathered and analyzed using inductive thematic analysis and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The analysis of the qualitative data identified a total of five categories, nineteen themes, and seventy-one meaning units. The five main categories are as follows: (1) empathy toward socially marginalized groups, (2) efforts for community restoration, (3) components of Christian social worker identity, (4) social work practice grounded in Christian values, and (5) faith-based sources for future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Christian empathy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at the essence and practical elements of Jesus’s empathy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raining processes. Universities and field practice settings need to systematize efforts for community restoration and training for Christian social worker identity, including the biblical foundations, principles, and examples of social welfare, as well as virtues such as trust, sincerity, and respect.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10일 게재확정
이 논문은 2026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충남 천안시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ksko@bu.ac.k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applying the core elements of social work practice grounded in Christian values while seeking inclusive ways to practice them without explicitly emphasizing religious overtones. It also proposes developing practical programs that incorporate Scripture, prayer, faith-based fellowship and activities, and faith-based reflection, and operating these programs in cooperation with churches.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identity of Christian social workers, Christian values,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이라는 열매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엡 2:8-10; 요 15:12). 성경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돌보는 일을 신앙인의 중요한 책임으로 제시하며, 이 가르침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중요한 신앙적 과제로 가르친다. 예를 들어, 레위기와 신명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돌보고 보호함으로써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하며(레 19:9-10; 신 15:7-8), 아모스서는 억압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회복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암 5:11-12, 24). 이러한 구약의 가르침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적 연대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구약의 이러한 메시지들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심화하고 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모범을 제시하셨으며, 그 외 다양한 사역에서 가난한 자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삶 가운데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다. 이처럼 성경은 기독교 신앙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 차원을 아우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사회복지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근대 사회복지의 시초로 알려진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와 인보관(Settlement House) 운동에서 기독교인 자원봉사자들은 실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엄명용 외, 2011: 48-49), 이는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복지실천의 원동력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은 근대 사회복지의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50년대 전후의 전근대적 복지행정기에는 종교단체와 외원단체들이 주도하여 고아와 기아 등 요보호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설립하였다(권중돈, 2022: 84-85). 이때 사회복지를 실천한 대표적 단체로는 기독교 세계봉사회(Christian World Service)가 있다(엄명용 외, 2011: 59). 이러한 기독교적 활동은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복지 전문화와 함께 강조된 종교적 중립성은 사회복지실천이 특정 종교적 기반을 넘어 보편적이고 공공적인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최무열, 2004: 12). 이에 따라 많은 사회복지기관은 프로그램 제공 시 종교적 색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독교적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실천의 방향은 실천가가 전제하는 인간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Vanderwoerd(2016)는 사회복지실천과 교육에 내재된 가치 전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에서 세계관에 대한 성찰이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욕구를 지닌 전인적 존재로 이해하게 하며, 이러한 인간 이해는 실천 현장에서 소외된 이웃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박창우, 2009).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전인적 접근과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이준우, 2024). 최근 기독교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일부 있으나 여전히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 중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조화롭게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 직면하는 주요 실천 딜레마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을 원조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방법을 활용하는 문제였다. 공공 성격을 가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실천할 때 기도나 전도와 같은 실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종교 중립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벗어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양혜원, 2017). 이러한 환경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다양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적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필요성과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단순히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재단의 성격, 운영이념, 역사와 전통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실천가가 어떠한 인간관, 가치관, 신앙관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원조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미래 실천가인 대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화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발전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한 연구들은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분석하거나(박창우, 2021), 기독교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정상원·한은영, 2023),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박일연·노길희, 2013). 또한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사례를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김희수·양혜원, 2008 ; 양혜원, 2017).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기독교인, 교인, 현직 기독교 사회복지사, 기독교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 실천 경험, 역할 인식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수업 운영을 질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양혜원, 2024). 이 연구는 강의계획서, 수업과정기록, 과제물, 강의평가 등을 분석하여 수강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고민하고 인식을 발전시키며, 그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터득해 가는 학습 성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습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교수법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 기반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수업 운영의 중요성과 효과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만 해당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수업 운영과 그 학습 성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의미, 실천 준비 요소,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는 고유성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향후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진입할 잠재적 실천가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맥락 속에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고 의미화해 가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어떠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은,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구조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차세대 실천가들이 신앙과 전문성을 통합해가는 인식의 경험을 파악하여,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방향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대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가?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에 대해 대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문헌검토

1.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개념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가치체계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한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 자유와 평등, 이타주의, 인간의 회복 등은 두 체계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들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의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난다.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부적응을 개선하며, 사회정의와 개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는 생-심리-사회적(bio-psycho-social) 접근 방법을 활용한다. 반면, 기독교사회복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로 이해한다. Kuyper에 따르면, 인간의 기원은 단지 생물학적 부모에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세계 질서 속에서 이해된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존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요컨대 인간은 단순히 생물학적·육체적 차원으로만 설명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Kuyper, 최용준·임경근 역, 2023).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서는 인간의 회복은 단순히 물질적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회복과도 깊이 연결된다. 기독교사회복지는 샬롬(shalom)과 디아코니아(diakonia)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와 통전적 인간 회복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접근은 인간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존재로 보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영적이고 전인적 접근 및 회복을 중시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적 구원을 포함한 전인적 회복을 지향한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상적 기반인 샬롬과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샬롬은 개인과 공동체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가정·사회·국가 차원의 평화와 질서, 정의로운 사회 형성, 상호지원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적·사회적·영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전인적 회복의 이상과 연결된다(최무열, 2004: 14).

디아코니아는 샬롬의 이상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개념으로, 봉사와 헌신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섬김을 포괄하며, 경제적·심리적·관계적·사회적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해방을 지향하는 실천적 의미를 지닌다(최무열, 2004: 15). 따라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개인 및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체화하려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샬롬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상을, 디아코니아는 그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 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기독교인, 교회, 기독교 이념에 기반한 기관과 단체가 사회문제의 예방과 해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물질적·심리적·사회적·영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전인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실천으로 이해된다.

2.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성경적 근거와 실천 사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바로의 압제와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신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법을 제정하셨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억압을 반복하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20~23장)에서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과 남편 없는 아내에 대한 보호를 명령하며,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폭넓게 연구한 한 연구자는 공의가 단순히 올바른 재판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념임을 강조한다. 그는 공의의 예로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돌려주라는 명령(신 24:13), 억울함과 압박, 궁핍을 해소하라는 요청(시 72:1), 종이 왕의 대접을 받도록 하라는 가르침(사 19:28), 적은 소득을 보전하게 하라는 권고(잠 16:8), 헐벗은 자를 입히라는 명령(사 25:8), 곤고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신원하라는 요청(잠 31:9), 빈민에 대한 학대를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전 5:8), 그리고 가난한 자를 변호하라는 권면(렘 22:15)을 들고 있다(최옥채, 2019).

이러한 공의는 오늘날 사회복지에서 관심을 두는 대상자들과 그들의 문제들을 성경이 이미 깊이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약에 나타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약자도 살기 좋은 사회, 곧 약자의 복지가 물처럼 흐르고, 약자를 위한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사회(사 11:6-7, 암 5:24)로 요약될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마태복음 25:31-40의 최후 심판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강조하신다. 이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접근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나눔 공동체로서 구제와 도움을 실천했던 사례가 나타난다. 초대교회는 일곱 집사를 통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재산과 소유를 나누었으며(행 2:41-47), 집사뿐 아니라 사도들 역시 가난한 이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행 11:29-30).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이상에도 불구하고, 초대 공동체 안에는 실제 생활 장면에서 긴장과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르트 타이센은 고린도전서 11:17-34에 나타난 “바울의 사회적 관심”을 분석하면서, 당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간의 불화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교회 내에서 부유층이 모임을 주최할 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보다 자신과 지위가 비

스한 이들에게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바울은 주의 만찬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권면·중재하여, 형제자매가 다시금 하나 된 공동체로서도록 이끌었다(Meeks, 박규태 역, 2021: 378-380). 이 맥락에서 Keller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라도 형편이 어려운 이들, 불우하고 낙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만 맡길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Keller, 조수아 역, 2024: 20).

예수님은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본보기를 제시하셨다(눅 10: 25-37).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적혀 있는지를 되물으셨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대답하였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답하셨다.

Keller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한 지역으로, 가파르고 험난하여 ‘피의 길’로 불리며 강도들이 자주 출몰했다. 강도들에게 습격당한 한 유대인이 길에 쓰러져 있었으나, 제 사장은 이를 보고도 멀리 돌아갔고, 레위인 또한 외면하였다. 그들은 종교적 의무나 규율을 우선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멈추어 서서 강도당한 유대인을 붙잡히 여기며,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밤새 간호하였다. 다음 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비용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하였다(Keller, 이지혜 역, 2017: 8-12).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하시며, 선한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임을 강조하셨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안전과 편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고 치료하며, 경제적 도움과 사후관리까지 책임졌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자비를 실천하였다. 폭력 피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공감과 기술, 자원을 동원해 돕는 그 실천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공감과 능력, 자원을 동원하여 도울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례를 통해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실천 예시는 현대 사회복지 현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적용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나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사례들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실천적 사랑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반으로 한 영적 회복과 전인적 돌봄을 포함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자료는 B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학부에 개설된 전공학문 기반 ‘기독교 세계관’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¹ 연구 참여자는 수업 참여 학생 총 44명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참여자 개개인의 심층적 진술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44명 개별 특성을 나열하는 대신 집단 전체의 특성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학생 13명(29.5%), 여학생 31명(70.5%)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1명(2.3%), 2학년 25명(56.8%), 3학년 15명(34.1%), 4학년 3명(6.8%)이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부 34명(77.3%), 경상학부 외(경찰학, 문화예술, 컴퓨터공학)가 10명(22.7%)이었다. 기독교 신앙 여부는 기독교인이 14명(31.8%), 기독교인(무교, 타종교 등)이 30명(68.2%)이었다.²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n=44)

구분	범주	빈도(%)
성별	남학생	13 (29.5)
	여학생	31 (70.5)
학년	1학년	1 (2.3)
	2학년	25 (56.8)
	3학년	15 (34.1)
	4학년	3 (6.8)
전공	사회복지학	34 (77.3)
	경상학부 외(경찰학, 문화예술, 컴퓨터공학)	10(22.7)
기독교신앙 여부	기독교	14 (31.8)
	비기독교(무교, 타종교 등)	30 (68.2)
	합계	44(100)

1)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을 통해 도출된 전체 자료 중, 본 논문의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유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 중 특정 영화(예수는 역사다) 매체 관련 토론 자료는 저자의 선행연구(고기숙, 2024)에서 활용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동일한 수업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되, 수업 후반부인 9~14주차에 다루어진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의 인식’ 관련 자료만을 선별하여 새롭게 분석하였다. 즉 선행연구가 영화를 통한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경험에 주력했다면, 본 연구는 학생들이 지닌 신앙적 가치관이 사회복지실천과 만나 어떻게 전문적 인식으로 구체화 되는지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공통의 원자료 수집 환경을 공유하지만,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질문, 분석 단위 및 학술적 초점이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적 연구이다.

2) 해당 수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학 전공생을 대상으로 운영되지만, 희망할 경우 타 학부 학생도 수강할 수 있다. 이들 타 학부 참여자들 역시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인식을 진술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독교 대학생” 참여자 선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2. 자료수집방법

본 수업의 교재는 『섬기는 리더를 위한 복지 길라잡이』(장종현 편저, 2018)이다. 전반부에는 주로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고, 후반부에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실천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후반부인 9주차부터 14주차 기간의 내용은 사회복지전문가의 기독교적 영성,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복지실천, 행복, 사회적 소수자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 기독교의 창으로 본 사회정의와 공동체 정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적 리더십 등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9~13주차에 이루어진 조별 토론과 14주차에 별도의 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 자발적 참여자 3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다. 조별 토론은 9~13주차에 5~8명으로 구성된 8개 조를 중심으로, 각 수업 시간(총 1시간) 중 약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연구자 1인이 교수자로서 수업을 운영하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8개 조의 토론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각 조를 순회하며 토론 과정을 촉진하였다. 토론 질문은 교수자가 제시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약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리더의 준비는 어떠한가 하는가?”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14주차에 자발적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1회, 약 90분간 이루어졌다. 이때 사용한 질문은 조별 토론 질문보다 한층 심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현장에서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떠한 실천 동기를 가져야 할까요?”, “예비 전문가로서 기독교사회복지실천가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요 4:5-15)를 통해 본 ‘기독교적 사회복지실천’의 특징과 깨달음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경적 리더십은 어떤 모습인가요?” 등이 포함되었다.

모든 조별 토론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편안한 의사소통을 위해 녹음 대신 조별 보고서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별도의 녹음 없이 토론을 마친 후 각 조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조장이 이를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별 보고서 형식을 취한 이유는 학생들이 토론 중 자신이 한 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의미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44명의 자료를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질적 분석의 깊이 문제를 보완하고,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방식이었다. 심층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조별 토론 보고서 A4 용지 기준 100쪽가량, 인터뷰 전사본 15쪽가량으로, 총 115쪽가량에 해당한다.

본 수업은 과목의 성격상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지향하는 수업으로 Overman과 Johnson이 통

합수업을 위해 제안한 BWI(Biblical Worldview Integration)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BWI 방식은 수업 내용을 기독교 세계관의 큰 이야기와 의미 있게 연결하는 수업 설계 틀로 이해해 볼 수 있다(Overman & Johnson,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역, 2007). 즉, 성경 구절을 단순히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 자체를 하나님-창조-타락-구속-완성(회복)의 관점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까지 조망하게 하는 방식이다. 연구자는 이 모델을 본 수업에 응용·적용하였다. 요약하면, 먼저 교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표를 기독교 세계관(창조-타락-구속-완성), 성경 내 다양한 내러티브, 성경적 가치들과 연결한 뒤, 질문과 토론으로 일관되게 전개하였다. 아울러 수업 후에는 연구자이자 교수자로서 성찰일지를 통해 자체 수업 평가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왜 배우는가”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함께 사유하는, 지식-신앙-삶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탐색하기 위해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초점은 자료로부터 의미와 주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조별 토론 보고서와 심층 인터뷰 자료를 김인숙(2024)이 제시한 귀납적 주제분석의 절차와 Strauss와 Corbin의 지속적 비교방법(Strauss & Corbin, 신경림 역, 2001)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의 5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전체 맥락 파악과 자료 숙지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에 대해 어떠한 태도, 인식,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였다. 둘째, 개방코딩을 통해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를 줄 단위 또는 문단 단위로 자세히 검토하면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요 진술을 선별하고, 각 진술에 내포된 의미를 코드로 명명하였다. 셋째, 도출된 코드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관련 의미들을 묶어 주제로 유목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주제가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자료의 의미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넷째, 유목화된 주제들을 더 높은 수준의 추상적 개념으로 통합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범주 간의 논리적 연결성, 주제와 범주의 적절성, 그리고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와 범주가 참여자들의 실제 진술과 경험을 왜곡 없이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자료와 분석 결과를 반복적으로 대조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해석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최종 범주와 주제를 확정하였다.

4. 질적 연구의 평가 및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평가 기준인 신뢰성(credibility), 중립성(confirma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 일관성(dependability)을 연구 전 과정에 적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289-331). 먼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가나 판단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수업 현장의 맥락과 참여자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론과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개인적·신앙적 관점이 자료 수집 및 해석에 과도하게 개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교수자이기도 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편향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전 과정에서 성찰일지를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분야 연구자 및 기독교 학문 관련 교수들로부터 연구문제, 분석 틀, 분석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자료 해석의 일관성과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이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맥락, 참여자 특성,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이 일관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조별 토론지, 심층 인터뷰 전사본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본 연구의 맥락과 절차를 이해하고, 연구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윤리적 고려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수업 시작 시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여부가 성적 평가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가 연구 참여와 자료 제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 평가는 출석, 중간고사와 기말시험, 과제 제출 여부 등 사전에 공지된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진행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조별 토론지와 심층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학기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시작함으로써 수업 평가와 연구 자료 분석을 분리하였다. 아울러 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 보장을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분석 및 결과 제시 과정에서 제외하거나 범주화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로서 기독교적 가치와 사회복지전문직 실천의 통합에 관한 학술적 탐구를 지속해 왔으며, 목회학(M.Div) 과정을 이수하여 신학적 기초와 이론적 민감성을 갖추었다. 또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지에 게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 코딩, 범주화, 타당성 검토에 이르는 질적 분석 절차를 수행하였다.

IV.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분석 결과, 총 5개의 범주, 19개의 주제, 71개의 의미가 도출되었으며, 이 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제시되어 있다. 아래 표 2 참조.

표 2.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의 결과

의미	주제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 경험함. 장애인이동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 희귀난치질환 가진 아이들과 노숙인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임.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생각.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1.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이 도움을 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함을 느꼈음. 소수자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봄. 	(2) 도움 의식 고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거노인들처럼 보호자가 없는 경우 국가의 지원 필요. 공동체 정신을 갖추고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음. 소수자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나도 어느 때 소수자가 될 수 있을 것임.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에 대해 다름을 인정하고 인격체로 인정함. 소수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주변 이혼가정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소수자에 대해 편견 없는 시선 필요함. 	(1)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함.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 주변인들에게 베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함. 1인분 이상의 삶을 살고 싶음. 	(2) 직접적 실천 행동의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해야 함.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문가 되고 싶음. 주변에 미혼모가 있는데 차별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싶음. 	(3) 권리옹호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실천해야 함.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하며 실천. 사람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존중해야 함. 	(4)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았음. • 기독교와 복지의 접목에 대해 알 수 있었음. • 기독교가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됨. 	<p>(1)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p>	<p>3.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신뢰, 성실함이 중요함. • 정직, 공정, 근면, 성실한 사람이어야 함. •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함. • 클라이언트를 품어야 할 것임. 	<p>(2)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 •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회복지사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어 사람을 대해야 함. • 성경적 동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함. 	<p>(3)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 뿐 아니라 교회밖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야 함. •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음. 	<p>(4)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의 사랑을 현장에서 실천해야 함. •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대하는 것처럼 실천에 임해야 함. •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을 본받아야 함. • 예수님의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랑, 나눔, 헌신을 실천해야 함. 	<p>(1) 기독교적 사랑 위에 튼튼한 기초 세우기</p>	<p>4.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겠음. •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회복지사를 이해해 볼 수 있었음. • 모든 클라이언트를 공정하고 동등한 자세로 대해야 함 •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모습 중요함. 	<p>(2)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노력. • 이상적 세상,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 • 좋은 세상을 위해 주님과 교제, 기도, 묵상, 성령충만에 힘쓰는 일. • 공정, 공평, 지도자와 종교인들 더 정의로운 삶 지향. 	<p>(3)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성과 영성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함. •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함. • 인품이 좋지 않으면 진정한 도움을 못 줄 것임. • 클라이언트의 종교적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실천 	<p>(4) 기독교 사회복지사로서 역량 갖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말씀 통해 위로를 받음. •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보며 신을 믿게 됨. • 기독교적 활동 통해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나에게 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함. 	(1) 성경 말씀의 힘	5. 미래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신앙적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머니 천국으로 가시도록 기도하여 잘 이별할 수 있었음. • 기도 후 문제가 점차 해결되는 경험을 함. • 번아웃 증 중 찬양과 기도 통해 안정감 찾았던 경험 있음. • 친구 어머니의 질병 완치에 종교적 힘이 큰 도움이 되었음. 	(2) 기도의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독교인 친구가 금주하며 성경 통해 위안받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 생각이 생김. • 종교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발전을 경험함. • 청년부 목사님과 일년에 두번 정도 만나 조언과 기도를 들음. • 기독교인 동기의 친절한 행동을 보며 좋은 영향 받음. 	(3)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한 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을 읽으며 내면세계를 성찰하는 경험을 가짐. • 종교 통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보며 행복감 가짐. • 무교인데 종교를 가졌더라면 삶에 긍정적 영향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며 삶이 회복되는 경험을 함. 	(4) 신앙적 성찰의 힘	

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참여자들은 주로 노인과 장애인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이들은 노인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 특히 고독사 문제와 독거노인의 삶의 질 저하에 공감하고 있었다(참여자 2).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에 관한 관심도 두드러졌는데, 한 참여자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지적하며 시각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제약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참여자 38). 이 외에도, 참여자들은 노숙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희귀성 난치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겪는 고통(참여자 34), 그리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참여자 7)이 어려움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³

최근 들어 쓸쓸하게 고독사로 돌아가신 노인들의 사연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가 이들에게 관심을 덜 가졌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정말로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참여자 2).

길을 걷다 보이는 노숙인들이 사회적인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욕구에 기반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합니다(참여자 34).

3) 참여자들의 직접적이고 생생한 토론 자료는 지면 관계상 2~3개가량 제시하였다.

(2) 도움 의식 고취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며,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한 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고민하였다(참여자 6). 또 다른 참여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참여자 13). 또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참여자 8). 이외에도 여러 참여자는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고 표현하였다.

사회복지전공생으로서 나는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장애인 소수자들이 자립하는 힘을 갖도록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주고 싶으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3).

주변에 사회적 소수자 중 장애인을 유독 많이 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대하며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하게 하지 않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참여자 8).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지향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여자는 수업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다(참여자 18). 다른 참여자는 사회적 약자를 적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관심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참여자 2).

수업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업 내용이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 저의 삶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과 또 사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학생 18).

독거노인들의 경우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들도 힘을 보태주어야 한다.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참여자 2).

2.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1)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참여자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을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기본이며, 더 나아가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참여자 1). 한 참여자는 이혼 가정 등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5). 또 다른 참여자는 학교 내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0). 대부분 참여자들도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며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참여자 16).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우리와는 완전 거리가 멀다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소수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관점을 고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1).

저는 현재 장애인 복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싶으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힘쓰고자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지도하는 것도 사회복지사로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6).

(2) 직접적 실천 행동의 의지

참여자들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인 실천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참여자는 주변에 여성, 아동, 노인 등 소외된 이들이 많다고 하며 이들의 취약함을 잘 파악하여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참여자 19). 한 참여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참여자 18). 또한, 다수의 참여자들은 주변인들에게 베푸는 삶을 지향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참여자도 있었다(참여자 32). 한 참여자는 자신의 실천 행동 의지를 ‘1인분 이상의 삶’으로 표현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참여자 20).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1인분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면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득만을 위한 삶을 살기 쉽기 마련입니다. 이런 삶은 사랑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참여자 20).

나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적 소수자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이 있습니다. 사회정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위해서는 소수자를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9).

(3) 권리 옹호 노력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였다(참여자 13).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참여자 9). 한 참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하며, 장애인 권리 옹호를 중요한 실천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참여자 16). 또 다른 참여자는 아는 사람 중에 미혼모가 있는데,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하였다(참여자 6).

제 주변엔 미혼모가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울일 수 있는 관심은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분이 어떠한 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차별을 하더라도 저는 감싸주고 싶습니다(참여자 6).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참여자 16).

(4)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참여자들은 사람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귀하게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참여자 3, 37, 38). 한 참여자는 사회가 사람을 주로 능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2). 한 참여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11).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귀하게 대하라는 말씀을 듣고 사회복지 전문가는

동료와 클라이언트 관계에 있어서 신뢰의 자세와 감사의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38).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동기를 바탕으로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늘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37).

3.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

(1)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게 나타났다(참여자 2). 참여자들은 기독교 대학교에서 학습하며, 기독교와 사회복지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참여자 10). 또한, 이들은 기독교와 사회복지를 접목하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으며(참여자 17),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다(참여자 15).

성적에 맞춰 대학을 오다 보니 기독교 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매주 채플을 듣고, 사회복지전공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0).

기독교는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업을 듣기 전에는 영성에 대해 이해를 못했는데 수업을 듣고 난 후 영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5).

(2)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들

많은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정한 덕목들이 필요하며, 이 덕목으로 신뢰, 성실, 감사, 다름 인정, 존중, 용기, 인내, 따뜻한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등을 꼽았다. 한 참여자는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전문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 또 다른 참여자는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7).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는 기독교사회복지사들에게 더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와 부드러운 자세, 예의를 갖추어야 하

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특히 약자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참여자 3).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 진심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합니다(참여자 7).

(3)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참여자가 있었다(참여자 1).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제공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춘 태도로 대해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17).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제공하며(참여자 22), 성실과 겸손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0). 기독교사회복지사는 성경적 동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3).

비종교인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마인드를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매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으면 힘들거나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참여자 1).

세상의 시련으로 관계 속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적 영성을 지닌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에게 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참여자 17).

(4)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에는 개인의 신앙과 실천을 통합하는 삶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 전문가는 단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참여자 26). 또한, 한 참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참여자 15).

교회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일상생활에서, 직장 및 학교에서 하나님과 이웃,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부터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참여자 26).

사회복지 실천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지속적인 훈련과 그룹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15).

4.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1) 기독교적 사랑 위에 튼튼한 기초 세우기

참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대했던 마음을 기억하며,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참여자 25).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한 참여자는 그 사랑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을 보았고(참여자 12),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보았다(참여자 18). 또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약자의 어려움과 연약함,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며(참여자 13), 헌신하고 나누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았다(참여자 20).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독교적으로도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여자 12).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약자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어려움과 연약함에 공감하고 성실하게 나아가야 합니다(참여자 13).

(2)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기

여러 참여자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복지실천을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36). 많은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한 참여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6). 특히, 참여자들은 성경 속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임을 발견하였다(참여자 34).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 보여주신 선입견과 편견 없는 태도가 클라이언트를 그 사람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라고 여기고 있었다(참여자 10).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신 모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자세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참여자 18). 또한,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깊은 인상을 받은 참여자들이 있었다(참여자 20, 34).

사회복지를 전공하기 전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읽을 때 일차원적으로 성경에 관한 내용만 이해했다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난 이후 예수님을 사회복지사에 대입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아 직접 실천하고 싶습니다(참여자 16).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동등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깊은 필요를 알아차리셨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정역량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인에게 물을 청한 이유가 단순히 목이 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신 것으로 보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공감하며 다가가는 법을 본받고자 합니다(참여자 34).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과 상종하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점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모든 클라이언트를 공평하고 동등한 자세로 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10).

(3)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

기독교적 신앙이 깊은 참여자 중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예도 있었다(참여자 34). 참여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히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함을 표현하였다(참여자 10). 또한,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깊은 교제, 기도와 묵상, 성령 충만을 통해 영적 성숙을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참여자 34).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를 가장 먼저 신경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매일 하는 것...나를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연습을 날마다 계속하며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사는 일이 제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참여자 34).

사회적 지위와 부를 얻는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편법이 많아지면 사회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사회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더욱더 정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참여자 10).

(4)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역량 갖추기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데 관심을 가졌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적 동기가 기독교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역량의 출발점이라고 인식하였고(참여자 15), 이를 위해 매일 전공 공부와 함께 성경 읽기를 병행하고자 하였다(참여자 17). 참여자들은 대상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참여자 20). 그러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인품을 겸비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자 21).

여러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는 단순히 지성과 전문성뿐 아니라, 영성도 겸비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자들 가운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독교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였다(참여자 2). 이는 사회복지기관에서 다양한 종교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면서 기독교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배움을 통해, 일상에서 여가 시간을 줄이고 지식을 함양하는 시간을 배치하여 매일 전공 공부와 성경 읽기를 병행하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다잡게 되었습니다(참여자 17).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지식을 쌓아 대상자에게 옳은 복지를 적재적소에 제공해드리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참여자 20).

아무리 복지 분야에 박학다식한 사람일지라도 인성, 인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사람들의 삶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신경 쓰고, 그에 맞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사회복지현장에 임해야 합니다(참여자 21).

5.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신앙적 원천

(1) 성경 말씀의 힘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 중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의 힘이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불안, 불행감을 느낄 때, 성경 말씀과 기독교적 활동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는다고 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 큰 힘이 되며, 이를 통해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2). 한 참여자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

습임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싶다고 하였다(참여자 5). 한편,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기독교인 친구가 성경을 통해 금주를 유지하고 위안을 얻는 모습을 보며, 기독교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참여자 3).

나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나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늘 불안한 상태이고… 전혀 행복하지 않고 쓸쓸해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저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참여자 2).

기독교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놀면서 왜 술을 안 마시는지 물어봤더니 예배드릴 때 금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 친구를 보면서 종교는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와 똑같이 기독교인 지인들을 보면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으며 위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참여자 3).

(2) 기도의 힘

참여자들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위로와 지혜, 힘이 필요할 때 기도가 내적 안정과 용기를 제공하는 주요 자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참여자들은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하면 기적처럼 차분해진다고 했고(참여자 20), 소진 상태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안정감을 회복한다고 하였다(참여자 36). 또 다른 참여자들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위로받고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하였고(참여자 7), 또 다른 참여자는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경우도 있었다(참여자 13). 한 참여자는 기도 후 문제 상황이 점차 해결되는 경험을 하였으며(참여자 31), 또 다른 참여자는 어린 시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해결된 경험이 있었다며 회상을 공유하였다(참여자 28). 할머니가 좋은 곳(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 이별할 수 있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고(참여자 30), 친구 어머니의 질병 완치에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표현한 예도 있었다(참여자 12).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기 전, 무대에 올라가기 전, 발표를 하기 전 심적으로 부담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불안한 감정에 잘 빠지는 성격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적처럼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 전후의 차이는 확실했습니다(참여자 20).

제가 제일 사랑하던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좋은 곳(천국)으로 가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 의지로 인해 저는 슬픔만이 있던 장례식장에서 그나마 마지막엔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게 할머니와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참여자 30).

(3)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한 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인 교제와 활동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원동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았음을 진술했다(참여자 25). 한 참여자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언니와의 교류에서 큰 정서적 도움을 받았다(참여자 16). 또 다른 참여자는 학교에서 만난 기독교인 동기의 친절함 행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하였다(참여자 1). 참여자들은 목회자와의 만남에서도 조언과 기도를 통해 삶의 힘을 얻고 있었다(참여자 25). 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존감, 대인 관계 능력, 적응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참여자 26).

청년부 목사님과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개인적으로 만나 평소 생각해둔 고민과 앞으로의 신앙 생활, 진로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며 같이 기도해주십니다. 교회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하며 서로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참여자 25).

선교, 워십, 성가대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물론 큐티, 말씀 묵상, 악기 등 수많은 경험을 교회에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종교활동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은 배가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참여자 26).

(4) 신앙적 성찰의 힘

참여자들은 신앙적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기독교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신앙의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고 있었다(참여자 18). 흥미로운 점은 비기독교인 참여자들 또한 기독교에 대한 성찰을 통해 신앙이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무교이지만 종교를 가졌더라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하며, 신앙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참여자 27). 또 다른 비기독교인 참여자는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신을 믿어보고 싶다고 하며(참여자 38), 신앙이 위기 상황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로에 주목하였다. 또 다른

참여자는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께 기댈 수 있다는 점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였다(참여자 11).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기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지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사회복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려운 사람에게 고민 없이 도움을 줬던 성경 말씀처럼 나도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참여자 11).

나는 무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가졌다면 하고 생각했을 때 종교는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나의 내면세계를 성찰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 나의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심리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참여자 2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의 본질과 고유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독교와 사회복지를 다루는 수업에 참여한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전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인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준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드러났다.

첫째,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을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출발점으로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 장애인, 노숙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공감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자립 지원,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문헌고찰에서 살펴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핵심 가치인 샬롬과 디아코니아가 예비 전문가인 대학생들의 인식 속에 구체화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은 개인과 공동체의 전인적 평화를 지향하는 샬롬의 비전 및 구약의 공의의 개념을 학생들이 자신의 실천적 지향점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준비로 공동체 회복과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먼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 적극적인 실천 행동, 권리 옹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요약된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동등한 존재로 존중하며, 차별과 편견을 배제하고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또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하고 공동체 통합에 기여하려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 더 나아가 차별 예방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일부 참여자들은 신앙적 태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물리적 지원을 넘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며, 더 나아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사랑의 원리를 현장에서 디아코니아적 봉사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기독교사회복지사의 정체성은 기독교와 복지의 연관성에 대한 자각, 기독교사회복지사의 덕목, 사람과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 신앙과 실천의 통합을 지향하는 삶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가 사회정의와 공동체성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뢰, 성실, 존중 등 기본 덕목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적 영성을 바탕으로 한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참여자들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지원을 제공하고, 성경적 동기를 기반으로 클라이언트를 존중하며, 세상에 빛과 소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신앙과 연결하여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ausen과 Funabashi(2024)의 연구와도 연결하여 논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한 태도 사이에 강한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도와 교회 활동 참여와 같은 신앙적 실천이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동기를 제공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이 신앙과 사회복지실천의 연결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신앙과 실천의 통합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으로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과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은 네 가지 핵심 요소로 요약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의 기초로 삼아 약자에 대한 공감과 나눔, 헌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기독교적 사랑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근본이라는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Van der Walt(2017)는 나눔이 받는 이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나눌 때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하게 자기 것이 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선입견과 편견 없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공평하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자세를 실천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회복으로 이해하고, 정의로운 삶과 영적 성숙을 통해 이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윤혜경·손동신(2025)이 요보호 아동 지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실천과 정의의 구현으로 파악한 논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본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볼 때, 취약 아동을 중심에 두고 권리 옹호, 연계·협력,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적 영역에서 가시화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개인과 관계뿐 아니라 제도 차원에서도 구현되도록 지향하는 실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성경적 동기를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기술뿐 아니라 신앙적 인품과 영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가치와 종교를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적 접근을 적절히 실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되게 하는 고유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지향하는 참여자들의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사회복지사들의 실천 경험에서 기독교적 정체성, 기독교적 사명으로서의 사회복지, 기독교적 인간관, 사회복지실천의 자세 등이 주요 주제로 나타난 김희수·양혜원(2008)의 연구 결과와도 연결된다.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신앙적 원천으로는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참여, 신앙적 성찰 등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성경 말씀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기도와 신앙적 교제, 성찰을 통해 실천의 힘과 방향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일반 사회복지실천이 주로 인간의 변화 가능성, 사회적 지원을 근거로 삼는 것과 달리,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신앙적 자원과 성경적 근거를 함께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McRay 등은 성경 말씀이 인간이 죄로 인해 소망이 없거나 가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상태에서의 구속과 희망, 치유는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설명한다(McRay et al., 김혜정 역, 2022: 23). King과 Cutsinger(2023)의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대학 석사과정생들의 기독교 영성은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힘과 희망, 지침을 제공한다. 여기서 영성은 말씀, 교제, 성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참여자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고 실천의 동기를 제공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기도는 내적 안정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며, 신앙적 교제와 활동은 정서적 지지와 관계 형성, 성장을 촉진하고, 신앙적 성찰은 내적 회복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이 단순

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영적이고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대학과 실천 현장에 제언하면, 먼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독교적 공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사회복지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사회복지사 혹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공감은 사회복지실천에서 핵심적인 태도와 기술로 알려져 있으나, 이를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나 기술로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공감은 마음과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가장 온전히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질병을 앓는 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공감하시며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하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감의 본질과 실천적 요소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기독교사회복지 예비 전문가를 위한 훈련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회복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대학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공감을 기반으로 공동체 정신을 내면화하고, 약자와 함께 살아가는 신념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훈련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훈련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근거, 원리와 사례를 포함하여 기독교와 복지의 접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뢰, 성실, 존중 등의 기본 덕목과 기독교적 리더십에 필요한 내용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가치 기반 실천의 핵심 요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의 기초로 삼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실천하기, 실천의 궁극적 목적 깨닫기, 기독교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일반 사회복지실천과 구별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고유성 회복의 과정은 클라이언트의 자율성 존중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은 신앙적 동기에 기반하지만, 실제 실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핵심 윤리인 클라이언트의 다양성 존중과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실천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나아가는 태도와 연결하여 인식하였다. 연구자는 기독교적 가치가 전문직 윤리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게 만드는 윤리적 기반으로 작용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기독교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는 종교적 색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포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원천인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신앙적 성찰을 실제 교육·실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때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 성찰 등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 박종삼(2023)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기독교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교회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해방 이후에도 미션 계통 대학교와 신학교 등 기독교 관련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던 기독교·교회 재단, 그리고 NGO 간의 협력이 지속되어 왔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는 사회복지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클라이언트의 종교 및 영성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기독교인 클라이언트에게는 기독교적 원천들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문제해결을 촉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비기독교인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러한 원천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간접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 논의로 이어지며, 장유정(2024)은 통합적 가르침이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학교를 기독교 학교답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학생들의 실천 인식 역시 이러한 통합적 가르침을 통해 예비 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소명 의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의 기독교 사회복지실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 결과의 전이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첫째, 연구자-교수자 이중 지위에 따른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자가 해당 과목의 교수자로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참여자들이 성적 평가나 교수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 어렵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적 처리가 종료된 이후에 자료 분석을 시작하고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나 더욱 엄격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즉, 향후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제3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인터뷰나 관찰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참여자들이 더 솔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 설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료 수집 관련하여, 본 연구는 44명 전체의 수업 토론 보고서와 성찰지를 주요 분석 자료로 삼아 인식의 외연을 넓혔으나, 이는 참여자 개개인의 내밀한 삶의 경험과 역동을 깊이 있는 기술로 담아내는 데에는 인터뷰 방식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자 3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보완하여 질적 자료의 깊이를 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의 심층 면담 비중을 높여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기숙 (2024). 영화를 활용한 기독교 세계관 수업 참여 경험: B 기독교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9(3), 83-113.
- 권중돈 (2022).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김인숙 (2024). **질적연구의 방법과 분석**. 집문당.
- 김혜정·심은정·조인효 역 (2022). **현대정신병리학**. McRay, B. W., Yarhouse, M. A. & Butman, R. E. (2016). *Modern Psychopatholog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학지사.
- 김희수·양혜원 (2008). 기독교 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신앙과 학문**, 13(3), 115-164.
- 박규태 역 (2021). **1세기 기독교와 도시 문화: 바울 공동체의 사회 문화 환경**. Meeks, W. A. (1983)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IVP.
- 박일연·노길희 (2013). 교인들의 교회사회복지사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교회와 사회복지**, 24, 83-117.
- 박종삼 (2023). 교회론, 목회론과 기독교사회복지 실천신학의 정립방향. **기독교사회복지**, 5, 51-86.
- 박창우 (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복지의 방향. **신앙과 학문**, 14(1), 147-174.
- 박창우 (2021). 그리스도인 사회복지사의 기독교사회복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신학과 실천**, 76, 695-716.
- 신경림 역 (2001). 근거이론의 단계.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현문사.
-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11).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 양혜원 (2017).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3), 141-189.
- 양혜원 (2024). 기독교 세계관 기반 사회복지실천기술론수업 운영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회교육·복지 실천 연구**, 6(1), 62-82.
- 윤혜경·손동신 (2025). 개혁주의생명신학의 하나님나라운동 실천을 위한 요보호 아동 지원선교. **생명과 말씀**, 41, 142-177.
- 이준우 (2024). 한국 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고찰: 김덕준, 박종삼, 이부덕의 기독교사회복지 사상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복지**, 6, 7-39.
- 이지혜 역 (2017). **여리고 가는 길 : 비탈지고 안전하지 않은 인생길**. Keller, T. J. (1989) *Ministries of Mercy: The Call of the Jericho Road*. 비아토르.
- 장유정 (2024).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새로운 접근의 필요. **생명과 말씀**, 39, 119-158.
- 장중현 편저 (2018). **섬기는 리더를 위한 복지길라잡이**. 뷰리.

- 정상원·한은영 (2023). 기독교인의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 *기독교 사회복지*, 5, 87-108.
- 조수아 역 (2024). *집사를 말하다*. Keller, T. J. (1985) *Resources for Deacons*. 두란노.
- 최무열 (2004). *한국교회와 사회복지*. 나눔의 집.
- 최옥채 (2019). 사회복지실천 가치로서 성경의 공의에 관한 탐색 : 공의의 용례와 성경해석학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1(2), 251-277.
- 최용준·임경근 역 (2023). *반혁명 국가학1: 원리*.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De beginselen. 국제제자훈련원.
- King, D. & Cutsinger, M. (2023). Faith Integration: Student Perspectives on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in a Christian Master of Social Work (MSW) Program. *E-Journal of Religious and Theological Studies*, 9(7), 338-350.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Vanderwoerd, J. R. (2016). The Promise and Perils of Anti-Oppressive Practice For Christians in Social Work Education. *Social Work & Christianity*, 43(2), 153-188.
- Tausen, B. M. & Funabashi, A. (2024). Faith in Actio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Religiosity, Race, and Social Justice among Christ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52(2), 206-219.
- Van der Walt, B. (2017). Sharing an integral Christian worldview with a younger generation: Why and how should it be done and received?. *In die Skriflig*, 51(1), 1-11.

기독교 대학교 학생의 기독교사회복지실천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hristian Social Work Practice

고기숙 (백석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 학생들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신앙에 기반한 사회복지교육과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는 2022년도 2학기 B대학교 사회복지학 부에 개설된 '기독교 세계관' 교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 44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집단 토론과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주제분석과 지속적 비교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결과, 총 5개의 범주, 19개의 주제, 71개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다섯가지 주요 범주는 첫째, 취약계층에 대한 공감, 둘째,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 셋째,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의 요소들, 넷째,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 다섯째, 미래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신앙적 원천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적 공감 교육을 강화하고, 예수님의 공감의 본질과 실천적 요소를 훈련 과정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대학과 실천 현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훈련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성경에 나타난 사회복지의 근거, 원리, 사례뿐 아니라 신뢰, 성실, 존중과 같은 덕목이 포함된다. 또한 본 연구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요소를 적용하되, 종교적 색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포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성경 말씀, 기도, 신앙적 교제와 활동, 신앙적 성찰을 포함하는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기독교사회복지실천, 기독교사회복지사 정체성, 기독교적 가치, 질적 연구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과 교사양성 체계 모색: 기독교대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Structural Gaps i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he Reconfiguration of Teacher Education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장유정 (You Jung Jang)**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gap between the institutional recognition of alternative schools and the absence of a systematic framework for teacher professional formation. Focusing on the national teacher education system, the study analyzes the Teacher Certification Ordinance, teacher professional standards,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s, and related policy discourses to identify the teacher model assumed by the state.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national system defines teacher professionalism primarily as an institutional form based on qualification requirements, course completion, and performance-oriented competencies, and tends to frame teachers as professional practitioners who implement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is structure, elements such as educational purpose and teacher identity are not sufficiently addressed. In contrast, alternative schools are grounded in specific educational purposes and philosophies, emphasizing holistic growth, community-oriented life, and the integration of knowledge and lived experience. This divergence produces a structural tension between the state-defined teacher model and the teacher professionalism required by alternative schools, resulting in a structural gap in teacher professional formation following institutionaliz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rgues for the need to move beyond a uniform teacher education model toward a purpose-oriented framework of teacher professional formation. As an illustrative case, it proposes a model of Christian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8일 최종수정, 6월 10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2026년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2026년 5월 23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과 정책적 과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 사례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침례신학대학교(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yjjang@kbtus.ac.kr

alternative school teacher education that integrates theological foundations, disciplinary expertise, and practical teaching competence. In particular, a multi-layered structure linking theological institutions, comprehensive universities, and training institutes, along with multiple teacher education pathways, is suggested as a feasible approach to achieving both alignment with national standards and the holistic formation of teachers.

Key words: teacher education system, teacher professionalism, alternative schools, professional formation framework,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I. 서론

학교교육의 질은 궁극적으로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좌우된다. 교사는 단순한 교육과정 실행자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구체화하는 존재이다. 파머(Palmer, 2000: 37-38)는 오늘날 “교사 때리기”가 “하나의 대중 스포츠”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하면서, 교육개혁은 제도나 예산, 교과서 개편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무엇), “어떤 방법과 기술이 동원되어야 하는가”(어떻게),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르치는가”(왜)라는 전통적인 질문에 더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가”(누구)라는 질문을 던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학교교육의 성격과 질이 교육과정이나 제도 자체보다도 그것을 구현하는 교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권위, 전문성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과 교사에 대한 과도한 민원 제기, 수업 및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직접적 개입 등은 교사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로 환원하려는 사회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공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공교육 체제 안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있었다.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안교육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 지위의 한계로 ‘학교’ 명칭 사용이 제한되었던 기관들이 일정 조건 하에 ‘학교’로 불릴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 이는 대안교육을 공적 교육제도 안에서 승인한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실시한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안학교 교사의 지원 동기로 “대안적 삶의 가치 추구”와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는 대안학교가 특정한 교육 목적과 가치 지향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일 보고서는 대안교육기관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 온 결과, 재정적 기반과 교육 환경이 열악하며, 운영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지원 체계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대안학교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이 교사 전문성과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해 왔다. 대안교육이 제도적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교사 자격과 양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한병선, 2006), 교사 재교육을 위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배지현 외, 2013). 또한 대안학교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교사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박상진, 2015). 나아가 기존 교원양

성과정이 대안학교의 특수성과 교육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대안학교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어려운 획일적 교원 양성 체계의 한계가 논의되었으며(장유정, 2025), 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요구가 나타났다(김성천, 2020). 특히 교사 전문성이 교과 지식이나 수업 기술을 넘어 교육의 지향과 신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이은실, 2020),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과 재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이종우, 2013 ; 황규석, 2021 ; Sinai Chung, 2022 ; 김명자, 2015).

이처럼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의 중요성과 별도의 양성 체계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대안학교가 법적으로 ‘학교’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국가 교원 양성 체계와 대안학교의 교육 목적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학교의 제도적 승인 이후 교사의 전문성 형성 체계가 어떠한 논리로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 교원 양성 체계는 공교육의 안정성과 최소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형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현재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전문성과 이를 형성하는 국가적 체계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구조적 공백이란 대안학교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목적과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교사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안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양성 및 재교육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대안학교 교사양성의 필요성이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국가 교원양성체제가 전제하는 교사상과 대안학교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왜 이러한 요구가 기존 체계 안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대안학교 교사양성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보다,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밝히는 데 의의를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국가 교원양성체제를 규정하는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교원 전문성 관련 정책 문서와 교원양성기관 평가 체계를 분석하여 국가가 전제하는 교사상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대안교육 관련 선행연구와 정책 자료를 검토하여 대안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교사 전문성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양성과 관련된 연구와 실제 운영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대안학교 교사양성 체계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상을 구조적

으로 도출하고 그 성격을 분석한다. 둘째,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형성과 전개 과정 및 교육적 특성을 분석하여, 대안학교의 정체성과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사 전문성의 성격을 도출한다. 셋째, 양자 간의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고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넷째, 대안학교 유형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목적이 분명한 대안학교의 한 유형을 사례로 하여 교사양성 과정의 방향을 제안한다.

II.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는 교사상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 이수 기준, 전문성 개발 방향 등을 법령과 정책 문서를 통해 규정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국가가 교사를 어떠한 전문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교사상을 전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상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 교원 전문성 관련 정책 문서, 교원양성기관 평가 체계를 중심으로 국가 교원 양성 체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되는 교사 전문성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1.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분석

2024년 10월 2일에 일부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교원의 자격 취득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은 교원 자격의 종류와 검정 방식, 교직과목 이수 기준, 교육실습 요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원 양성 체계의 기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교원자격검정령」은 교원 자격 검정 방식을 시험검정과 무시험검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교원 양성에서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교직과정을 통한 무시험검정 경로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한 교직과목 이수과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전문성을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원양성 과정은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이수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전공 영역에서는 일정 학점 이상의 전공 이수과 함께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 영역 이수를 요구하고, 교직 영역에서는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을 포함한 일정 학점 이상의 이수를 요구한다. 또한 교직 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성인지 교육 이수과 같은 추가 요건이 포함되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

는 최소한의 직무 수행 역량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또한 시행규칙은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영역과 학점 기준을 별표 체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표시과목별 전공 이수 기준은 교육부장관 고시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교원양성의 내용이 법령-시행규칙-고시로 이어지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규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교원양성기관은 국가가 제시한 이수 기준과 구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며, 교사의 전문성 역시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 취득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교사 전문성이 교육의 목적이나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라기보다, 일정한 이수 요건과 절차를 충족함으로써 확보되는 제도적 전문성의 형태로 구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공교육의 안정성과 최소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직과목 이수와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직무 역량을 준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사 전문성은 주로 이수 학점, 교육과정 이수 여부, 자격 취득 절차와 같은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교원자격 취득 과정에서는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 기준과 교육실습 시간, 일정 횟수 이상의 성인지 교육 이수 및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요건이 제시되며, 실제 대학의 교원양성 교육과정 안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자격 취득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제도적 기준은 이수 요건과 절차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반면, 교사의 교육관이나 세계관 형성과 같은 정체성 차원의 전문성은 제도적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교사의 전문성을 특정 교육철학이나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일정한 이수 요건과 자격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제도적 전문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교사는 특정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존재라기보다 국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보편적 전문직으로 전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 언급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의 존재는 국가 교원 양성 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임시 교원양성기관은 교사 수급의 급격한 불균형이 발생하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된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원 자격 체계가 교사의 전문성 형성이라는 관점뿐 아니라 국가의 교원 수급 정책과 행정적 필요에 의해 조정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20조 제5항은 교원양성기관의 장에게 사회적·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직과목 영역과 이수 학점, 표시과목 기준 등이 법령과 고시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원양성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변화는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과목 명칭 조정이나 교육 내용 보완, 디지털 교육이나 인권 교육과 같은 요소의 추가는 가능하지만, 교사 전문성의 철학적 재정의나 특정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한 교사교육 체계의 근본적 재구성은 제도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안정성과 최소 전문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된 제도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목적이나 교사의 정체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 교원 전문성 기준과 정책 담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2. 교원 전문성 기준 및 정책 분석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후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규정된다. 이는 교사 전문성이 개인의 교육관이나 정체성보다는 제도적으로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구조 속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원자격 검정은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 교육 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등 다양한 요소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교사 전문성이 형성의 결과라기보다 검정 가능한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무시험검정 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교사 전문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기보다 ‘인증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자격 중심 구조 위에서, 최근 교사 전문성은 정책 문서를 통해 ‘역량’의 형태로 확장되어 제시되고 있다.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제시하며, 교사를 협력자, 수업 기획자, 소통·중재자, 혁신가로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21). 또한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 교과지식, 수업지도, 다교과 역량, 인성, 학습자 이해, 현장 이해 등을 제시하고, 미래 소양 함양, 현장 참여형 교육과정 운영, 다층적 적·인성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러한 접근은 교사 전문성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량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제시는 교사의 역할과 요구 역량을 확장하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교사 전문성의 내용적 기준이나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한다. 제시된 역량들은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능적·실천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러한 역량이 어떠한 교육 목적과 연결되는지, 또는 교

사가 어떠한 인간 이해와 교육관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제도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징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체계에서도 확인된다.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원의 역량, 교육과정 운영, 실습형 교육, 적·인성, 교육환경, 교육 성과 등을 중심으로 교원양성의 질을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여부를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이는 교사 자격이 ‘어떠한 교사로 형성되었는가’보다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했는가’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직 적·인성 영역은 교사 전문성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과 기준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게 제시된다. 정책 문서들은 적·인성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답지 검사, 대학 생활기록, 결격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이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21).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성’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부적격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기능할 뿐, 교사의 교육관이나 소명, 정체성과 같은 존재적 차원의 전문성을 형성하거나 검증하는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교직 적·인성 검증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조건을 판별하는 데에는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은 교원 자격체계의 유연화와 양성경로의 다양화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경우 목적형 양성을 유지하되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경우 양성과 임용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직이수 과정과 교육대학원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교육부, 2021). 이는 기존의 단일하고 경직된 교원양성체제로는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정책 수준에서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연화 논의는 주로 양성 규모의 조정, 기관 기능의 재배치, 경로의 부분적 다양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 전문성의 내용적 기준이나 교육 목적에 근거한 교사상 자체를 재구성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화의 필요성은 인지되고 있으나 그 변화는 여전히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정책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 자격제도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문 자격으로서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수·학습 전문가로서의 성장 유도 기제가 미흡하고, 1급 정교사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 유발 구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이동엽·김혜진·이주연, 2024). 특히 교원 자격제도는 본래 교원의 전문

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원의 수급 확보와 관리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김갑성(2021)은 우리나라의 교원 양성체제 논의가 교육 규모의 효율성 확보, 교원 수급 조절, 양성기관 구조 개편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 문제에 집중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교원 전문성 강화나 미래 교원 역량 함양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설계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이는 교원양성체제가 교사의 형성 과정 자체를 중심에 두기보다, 교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배치하며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구조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최근 정책 평가 체계는 교사 전문성을 성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부 자체 평가 체계는 정책 효과, 성과목표 달성도, 수혜자 체감도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원양성 및 교원정책 역시 목표 달성 여부와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교육부, 2025). 이러한 접근은 정책 운영의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교사 전문성을 교육의 목적과 정체성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 측정 가능한 성과와 결과의 관점에서 파악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TALIS 2024 분석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생 구성의 다양화, 디지털 환경 대응, 개별화 학습 지원 등 점점 더 확장된 ‘다차원적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전문성 개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효능감, 수업 자율성, 직무 만족도는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이 전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교사의 자기 이해와 신념 형성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혜진·김혜자, 2025). 성과가 교사의 자기 이해와 신념 형성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김혜진·김혜자, 202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현행 교원양성체제는 교사 전문성을 다양한 제도적 기준과 수행 역량, 그리고 정책적 평가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 근거한 통합된 교사상으로 수렴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전문성은 점차 세분화되고 확대되고 있으나, 교육의 목적과 정체성과의 관계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 결과 교사는 교육의 목적을 성찰하고 형성하는 존재라기보다 주어진 교육과정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산출하는 기능적 전문직으로 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3.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는 교사상의 특징

앞서 「교원자격검정령」과 시행규칙, 교원 전문성 관련 정책 문서, 교원양성기관 평가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 전문성을 제도적 기준, 수행 역량, 그리고 정책적 평가를 틀 안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교사 전문성은 자격, 역량, 성과의 방식으로 구성되며, 이는 국가 교원양성체제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상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사 전문성은 기술적·기능적 역량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 전문성을 주로 수업 설계와 실행, 평가, 학생 지도 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정책 문서에서 제시되는 전문성 기준은 교과지식, 수업지도, 학습자 이해, 평가 능력 등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교사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습을 조직하는 전문적 실행자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전문성은 수행 가능한 역량의 확보와 발휘를 통해 입증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무엇을 위해 가르치는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구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교육 목적과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다. 국가 교원 양성 체계에서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나 교사의 세계관, 교육철학과 같은 요소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교사 전문성은 자격 기준 충족과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수행 역량의 확보를 통해 규정될 뿐,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나 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지는 않는다. 이는 교사 전문성을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적 질문이 아니라,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충족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구조를 형성한다. 그 결과 교육의 방향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며, 교사 전문성은 교육 목적과 분리된 채 기능적 요소 중심으로 구성된다.

셋째, 교사는 공교육 체제 내에서 성과 중심의 실천가로 전제된다.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를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하고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적 실천가로 이해한다. 특히 정책 평가 체계가 성과목표 달성과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교사 전문성은 교육의 과정이나 의미보다는 결과와 성과를 통해 판단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사를 교육의 목적을 성찰하고 형성하는 존재라기보다, 주어진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산출하는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교사상은 교사가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스스로 성찰하고 형성하는 존재라기보다, 주어진 교육과정과 제도적 요구를 충실히 실행하는 존재로 이해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는 교사 전문성이

특정한 교육철학이나 인간관에 기반하여 형성되기보다,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역량과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교사가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주어진 교육체제와 정책 환경에 적합하게 기능하도록 형성되는 경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교사는 교육의 목적을 형성하는 주체라기보다, 당대의 교육 담론을 실행하고 재생산하는 존재로 자리매김될 위험을 지닌다.

특히 교육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명시적 논의가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황에서, 교사 전문성은 불가피하게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정책 방향을 전제한 채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약화시키며, 교육이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양승훈이 “많은 대학의 강의실에서는 그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신앙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도 맥을 같이한다(양승훈, 1999: 249). 교원양성기관 역시 교육의 목적과 세계관에 대한 성찰을 충분히 다루지 않는 한, 교사는 결국 당대의 지배적인 교육 담론을 전제한 채 양성될 가능성이 높다.

III. 대안교육의 성격과 교사 전문성 요구

앞 장에서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는 교사상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제는 기존 공교육 맥락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지만, 다른 교육 목적과 지향을 전제로 하는 교육 맥락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특히 기존 교육의 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며 형성된 대안교육의 흐름은,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안교육의 형성과 전개 과정, 그리고 교육적 특성을 검토하여 대안학교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의 성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교원 양성 체계와의 차이를 구체화하고, 다음 장에서 논의할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1. 대안교육의 개념과 형성: 기존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응답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 체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형성된 교육적 시도이다(이종태, 2002: 13). 대안교육은 단순히 기존 교육을 보완하는 새로운 교수방법이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전제하고 있는 인간관과 사회관, 그리고 교육의 목적 자체를 다시 묻는 비판적 실천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은 하나의 고정

된 교육 모델로 규정되기보다는, 기존 교육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실천들의 총체, 즉 alternative education이 아니라 alternatives in educ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이종태, 2002: 21-22). 이는 대안교육이 특정한 형태로 정형화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와 맥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재구성되는 교육적 흐름임을 의미한다.

대안교육의 등장 배경에는 근대 공교육 체제가 지닌 구조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교육은 국가 중심의 제도 운영, 표준화된 교육과정, 경쟁과 성취 중심 평가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는 학습자의 다양성과 개별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창의성, 자율성, 정서적 발달과 같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성경·최윤정, 2025). 특히 교육이 사회적 효율성과 경쟁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육이 삶과 분리된 지식 전달 과정으로 축소되었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서구와 제3세계 전반에서 다양한 교육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진보주의 교육, 신교육운동, 그리고 프레이리, 일리치, 레이머와 같은 사상가들의 논의는 교육을 억압적 구조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실천으로 재정의하며, 기존 학교 제도의 전체 자체를 문제 삼았다(황규석, 2004 ; 박창훈, 2020). 이처럼 대안교육은 단순히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서 출발한 세계적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획일적 입시 중심 교육 체제에 대한 비판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 요구가 확산되면서, 기존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적 교육공동체가 등장하였다(이종태, 2002 ; 이종태, 2013 ; 허가람·성열관, 2023). 이후 대안학교 설립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이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였고, 특성화학교 도입, 각종학교 인가,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대안교육은 공적 교육 체제 안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강대중, 2010 ; 박상진·이종철, 2022).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의 출발점은 기존 공교육 체제를 보완하는 데 있지 않다.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 체제가 전제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인간 이해로는 더 이상 교육의 본질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교육의 틀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적과 가치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출발점의 차이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뿐 아니라, 그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기존 교원 양성 체계와는 다른 요구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어떤 교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

지며, 이는 이후 대안학교의 교육적 특성과 교사 전문성 요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대안학교의 교육 목적과 특성

대안교육의 교육적 특성은 그것이 어떠한 문제의식과 사상적 흐름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대안교육은 근대 공교육 체제가 지닌 획일성, 경쟁 중심 구조, 인간과 자연의 분리, 그리고 개인주의적 교육관의 한계를 비판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습자의 경험과 성장을 중시하는 진보주의 교육사상, 그리고 기존 학교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소외를 낳는다는 사회비평주의적 관점과 결합되며 발전해 왔다(이종태, 2002: 14-15).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안교육은 탈산업사회와 탈근대사회로의 전환을 반영하여, 객관적 진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과 경험을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적 관계를 인정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또한 기존 공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배제해 왔던 자율, 협력, 공동체, 삶의 기술과 같은 가치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내용과 가치를 중시하는 특성으로 인해 교육은 상대적으로 형식성과 체계성이 약화된 형태를 보인다(이종태, 2002: 118-119). 이러한 발생 배경과 특징은 대안교육이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 목적과 인간 이해를 전제로 형성된 교육임을 보여주며, 이는 구체적인 교육이념과 실천 방식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대안교육은 인간관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대안교육은 학습자를 수동적 지식 수용자가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독립된 인격을 지닌 개체로 이해하며, 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삶의 경험을 존중한다. 이는 교육을 통해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이러한 인간관은 최근 공교육에서도 중요한 교육 원리로 강조되고 있으나, 대안교육은 이를 교육과정 구성과 학교 운영 전반을 조직하는 핵심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이종태, 2002: 35 ; 허창수, 2021 ; 한그루, 2019 ; 송순재, 1997).

둘째, 대안교육은 관계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쟁과 성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구조를 비판하며 협력, 존중, 평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를 개인 간 경쟁의 장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대안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지향하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을 삶의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는

특징을 보인다(이종태, 2002: 35-37 ; 허창수, 2021).

셋째, 대안교육은 삶과 생명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지향한다. 생명존중 사상과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며, 지식 전달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노작과 체험, 생활 속 실천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절된 활동이 아니라, 삶과 통합된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들며,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와 자연과의 관계를 함께 형성하도록 한다(이종태, 2002: 36-37 ; 허창수, 2021).

이와 같은 특성은 실제 대안학교 현장에서도 확인된다. 이병곤(2023)의 연구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이념과 철학에서 ‘생태, 환경, 생명, 자연’과 같은 가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관계, 소통, 협력’, ‘돌봄, 존중’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 또한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 자율’, ‘자치, 자립’과 같은 자기 결정성과 관련된 가치, 그리고 ‘전인’, ‘통합’, ‘영성’과 같은 존재적·통합적 교육 개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대안교육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간, 관계, 생명, 삶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라 할 수 있다(이병곤, 2023: 60-66).

이러한 특징을 종합하면,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의 획일화, 경쟁 중심 구조, 비인간화된 교육 환경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교육의 목적을 기능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삶의 형성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길재·김지선·박태양, 2022). 이는 교육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에 두는 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육적 전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특성은 대안학교가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 목적과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기존 교원 양성 체계와는 다른 요구를 발생시킨다. 대안학교 교사는 단순히 교과 내용을 전달하거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구현하고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안교육은 기존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 전문성 개념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교육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과 그 현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안교육은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 목적과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서도 상이한 수준의 요구를 제기한다. 대안학교 교사는 단

순히 교과 내용을 전달하거나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삶의 형성을 돕는 존재로 이해되며, 교육 철학과 신념을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단일한 기능적 역량이 아니라 복합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대안학교 교사들은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 능력, 공동체 운영 역량, 교육 철학과 신념, 소명의식, 그리고 자기 성찰을 포함하는 복합적 전문성을 인식하고 있다(이은실, 2020). 특히 교사의 교육 철학과 신념은 단순한 인식 차원을 넘어 실제 수업과 교육 실천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며, 학교의 교육 이념과 교사의 신념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신념과 실천의 일치하는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김나린, 2016 ; 김우인, 2015). 이와 같은 전문성은 단순히 외부에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관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반성적 성찰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교육 실천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김우인, 2015). 또한 이러한 전문성은 개인의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공동체 속에서 공유되고 발전되며, 소명에 대한 헌신, 지속적인 자기 계발,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촉진된다(이은실, 2020).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의 전문성은 더욱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교사는 기독교 세계관을 교과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영성과 인성, 소명의식, 변혁적 교육 실천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역량을 동시에 요구받는다(김성천, 2020). 이는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교수 능력을 넘어, 삶의 방향과 가치 실천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성격을 지님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대안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 철학과 신념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교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변소영, 2019 ; 김선영·소경희, 2014). 또한 교사들은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자율성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실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조진영, 2018).

또한 대안학교 교사의 역할은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교사는 학생과의 인격적 관계 형성을 통해 교육을 실천하며, 경청과 대화를 중심으로 한 소통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교수·학습 관계를 넘어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한성중, 2020 ; 양태승, 2024 ; 이종철·임고운, 2023).

그러나 이러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 요구와 달리, 대안학교 교사의 근무 현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안학교 교사들은 근무 시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인력 부

족으로 인해 높은 노동 강도를 경험하며,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동심·정수인, 2017 ; 김명자, 2015). 특히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들이 일정 기간 이후 소진을 경험하거나 직업 지속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김명자,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 교사들은 높은 교육적 신념과 자발적 선택에 기반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인교육, 학생의 자아실현, 공동체적 삶의 형성에 대한 신념은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전문성 형성이 제도적 지원보다는 개인의 헌신과 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사 양성과 재교육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교원양성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김성천, 2020 ; 황규석, 2021 ; 장유정, 2025). 특히 교원자격증 미보유 교사의 존재, 전공과 담당 교과와의 불일치, 초임 교사 교육의 부족 등은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황규석, 2021).

결과적으로 대안학교 교사는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과 실제 교육 환경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며, 교사 전문성 문제를 개별 교사의 역량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IV.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

대안교육은 여러 차례의 법제화 과정을 거치며 ‘학교’로서의 제도적 지위를 부분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그 교육을 실제로 구현하는 교사 전문성의 형성과 지원 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앞 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안학교는 기존 공교육과는 다른 교육 목적과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교사에게도 상이한 전문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기존 교원 양성 체계와 충분히 접합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에서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나타나는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제도화의 비대칭과 교사 전문성의 미설계

대안교육은 여러 차례의 법제화 과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교육체제 안에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특히 199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1998년부터 인가가 이루어지면서 제도화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각종학교로서의 인가(「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그리고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안학교는 다양한 형태로 제도권 안에 편입되었다(김희용, 2006 ; 박상진, 2021). 특히 등록제의 도입은 기존의 인가 중심 제도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대안학교들이 ‘합법적 교육기관’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박상진·이종철, 2022: 3). 이는 공교육 체제 외부에서 형성된 교육 수요와 실천이 제도 변화의 동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안교육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남정, 2022).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는 학교라는 기관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전문성의 형성과 지원 체계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교원 자격과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은 대안학교에 대해 교장·교감 자격 규정(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원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필요한 교원 정원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산학겸임교사 등을 통해 예외가 허용된다. 반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위와 실무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통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제도의 법적 지위와 학력인정 여부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사 자격 기준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기준이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논의와 설계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의 제도는 대안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내용과 형성 방식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교사 자격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교사가 어떠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기준과 형성 체계는 여전히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김희용(2006)은 대안학교 제도화 초기 단계에서 이미, 기존 교원 양성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안교육의 특수성과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교사의 자율적 선발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대신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사 재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교사 자격증 체계만으로는 대안교육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교사 자격 체계를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으며, 대안교육의 제도화가 교사 전문성 체계의 설계로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구조적 진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2. 국가 교사상과 대안교육 교사상 간의 구조적 긴장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고 있는 교사상과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상 간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앞서 II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를 자격, 역량, 성과를 중심으로 규정하며, 교육과정을 충실히 실행하는 전문적 실천가로 이해한다. 이는 공교육의 안정성과 최소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타당성을 지니지만, 교육의 목적과 인간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안교육의 맥락과는 상이한 전제 위에 놓여 있다. 반면 III장에서 살펴본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간관, 공동체, 생명, 삶을 중심으로 교육을 재구성하며, 교사를 교육 철학과 가치의 실천자로 이해한다. 대안학교 교사는 신념과 실천의 일치로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삶을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요구된다. 이러한 교사상은 교과 지식이나 수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한 기능적 전문성 개념을 넘어, 소명의식, 정체성, 관계 형성 능력, 공동체 참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전문성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교육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교원 양성 체계만으로는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 긴장을 형성한다. 국가의 교원 양성 체제가 전제하는 교사상이 제도적 기준과 직무 수행 능력에 기반한다면,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교사상은 교육 목적과 가치의 구현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교원 양성 체계 안에서 두 교사상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게 만들며,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이 기존 체계 안에서 충분히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 역시 이러한 구조적 긴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의 제4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교사 선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소명의식, 영성, 인성, 학교 이념에 대한 동의와 같은 가치적이고 존재적인 요소들이었으며, 교과 전문성은 그보다 낮은 순위에 위치하였다.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역시 교과 전문성보다 낮은 후순위 요소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박상진·이종철, 2022: 63). 이러한 제도적 구조는 실제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일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의 교원자격증 소지 비율은 4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인가 대안학교에서 요구되는 기준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박상진·이종철, 2022: 65). 특히 교사 선발 기준에서 교원자격증의 중요도는 2016년 36점에서 2022년 13점으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박상진·이종철, 2022: 62-64). 이는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기존 공교육 중심의 자격 및 기능 중심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한 인식의 차이를 넘어, 대안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 기준과 현 교원 양성 체제의 제도적 기준 사이에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교원자격증이 반드시 대안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현장에서 공유되고 있으며, 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보다 해당 교사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해석된다(박상진·이종철, 2022: 65). 또한 교사 양성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이러한 긴장을 확인시켜 준다. 기존 교원 양성 체계는 공교육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한계를 인식하며 출발한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교사 양성 체계와 재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장유정, 2025 ; 김성천, 2020).

이와 함께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은 복합적이며 관계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다.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 능력, 소명의식, 정체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전문성은 교사의 자기 성찰과 공동체적 학습, 자율성과 책임이 결합된 교육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은실, 2020). 특히 태도 역량과 협력적 관계 형성 능력은 교사 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되며, 이는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이 단순한 기능적 역량을 넘어서는 특성을 지님을 보여준다(강성구, 2021). 물론 교사 정체성과 교사 주체성, 교육의 목적에 대한 성찰은 최근 공교육 교사 전문성 논의에서도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교원양성체제는 여전히 자격과 역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안학교에서는 교사의 정체성, 소명, 교육철학이 교사 전문성의 부가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실천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나아가 미래형 대안교육 논의에서도 이러한 전문성 요구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역사회 연계 교육, 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기술 기반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사 역량이 요구되며, 통합적 학습 경험 설계 능력, 협업 능력, 윤리적 판단 능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길재·김지선·박태양, 2022).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사양성 교육은 여전히 이론 중심, 지식 전달 중심, 현장 연계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박민정·최임숙, 2022).

이와 동시에 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체계의 미비 역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자격증 미보유 교사의 존재, 전공과 담당 교과 불일치, 초임 교사 교육의 부족 등은 대안학교 교사

의 전문성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황규석, 2021). 이러한 문제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교육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종우(2013)는 대안학교의 양적 확대에 비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대안교육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 교사양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한계로 지적한다. 이는 교사 전문성 형성이 개별 교사의 경험과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도적 차원의 양성 및 재교육 체계가 부재함을 시사한다.

한편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 영성, 인성, 지성을 갖춘 소명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사 자격 인증 프로그램이나 고등교육기관 중심의 양성 모델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체계적 제도라기보다 보완적 시도에 머물러 있다(Sinai Chung, 2022 ; 장유정, 2024). 또한 교사 공동체와 협력적 학습 구조는 교사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정미, 2015 ; 변소영, 2019). 결과적으로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은 요구 수준에 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는 교사상과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상은 서로 다른 교육 목적과 전문성 기준 위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두 체계 사이에는 구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긴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긴장은 단순한 차이를 넘어,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이 기존 교원 양성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나아가 이는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교사 전문성 문제를 개별 교사의 역량 차원이 아니라 교육 제도와 교원 양성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V.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 형성을 위한 교사양성 체계의 모색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 형성과 관련된 논의는 기존 교원 양성 체계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대안교육이 공교육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교육 목적과 철학을 기반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체계를 단순히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을 형성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대안학교는 단일한 교육모형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지향과 실천 방식이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모든 대안학교를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획일적 교사양성체계를 설계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안학교가 지닌 교육철학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면, 그 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대안학교 교사양성의 방향을 제안함에 있어, 이러한 다양성을 전제로 하되 교육 목적과 이념이 분명한 특정 유형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이종태(2002)가 제시한 고유이념형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그 중 하나의 사례로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대학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1. 대안학교 유형의 다양성과 교사양성의 한계

대안교육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존 교육의 한계로 인식하고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는 법적 지위, 교육제도와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철학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존재하며, 각기 서로 다른 교육 목적과 실천 방식을 지닌다(강대중, 2010 ; 김성경·최윤정, 2025). 이종태(2002)는 대안학교를 자유학교형, 생태학교형, 재적응학교형, 그리고 고유이념형으로 구분하며, 이들 유형이 각기 다른 교육철학과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대안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철학과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교사 전문성 역시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 유형이 요구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설계된 교사양성체계로는 이러한 다양성을 충분히 포괄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즉, 공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기존 교원 양성 체계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한 교사양성체계 역시 대안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안학교 교사를 위한 공식적인 양성 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단일한 교사양성 모델을 제시하기보다는 교육 목적과 철학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정 유형을 중심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특히 이종태(2002)가 제시한 유형 가운데 고유이념형 대안학교는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 철학적 신념에 기반하여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비교적 분명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유이념형 대안학교는 교육의 목적과 가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는 교사양성의 내용과 방식이 교육 목적과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 설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교사 전문성을 단순한 기능적 역량의 집합이 아니라 특정한 교육철학을 구현하는 실천적 능력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고유이념형 대안학교의 한 사례로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전반을 이를 기반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교육 목적과 이념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은 교육철학, 신앙, 삶의 실천이 통합된 형태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하게 되며, 이는 기존 교원 양성 체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기독교 대안학교만의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유형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모든 대안학교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한 교사양성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대안학교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 목적과 철학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으로서 교육 목적에 기반한 교사양성 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은 대안학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모델이라기보다, 목적 기반 교사양성 체계의 하나의 사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 제안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의 필요성은 관련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비 교사교육과 관련된 초기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의 전문성이 단순한 교과 지식이나 교수 기술에 국한될 수 없으며, 기독교교육학 개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교육방법론과 같은 이론 과목과 더불어 인간관계 훈련, 학생 상담, 영성 훈련 등 인격적·영적 형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이종우, 2013). 이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이 신앙, 인격, 관계 능력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님을 초기부터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프로그램 중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성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된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과정 재구성, 실제 수업 운영, 그리고 현장 기반 피드백을 통해 신앙, 전문성, 현장성을 통합하는 실천 중심의 교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교사 전문성이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통합적 과정 속에서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장유정, 2025).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문 사범대학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Sinai Chung, 2022). 이러한 논의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이 더 이상 개

별 학교나 교사의 자발적 노력에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제도적 차원의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공식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기독교 대안학교 관련 연구소와 기독교교육(학)과가 개설된 신학대학들이 협력하여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사 양성 과정을 모색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교사양성 프로그램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관련 기관과 대학들은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자격 기준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학)과의 교육은 하나님의 교육을 교육의 원안으로 이해하고, 교육의 본질을 신학적·교육학적으로 탐구하는 공통의 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교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 방식에 근거한 교육의 실재를 탐구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전제 위에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신앙과 통합하여 해석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곧 소명, 정체성, 그리고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 실천 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공동체적 삶 속에서 신앙과 배움을 통합적으로 살아내는 실천 능력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육이 삶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하여, 모든 교육활동이 공동체적 관계와 실제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은 교과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교사양성 과정은 대학의 기독교교육학적 기반 위에 연수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교육과정 이수 중심을 넘어, 교육 철학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와 면접을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평가 체계를 포함한다. 아울러 기존 교사양성에서 지적되어 온 현장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실습과 교육봉사를 강화함으로써, 신앙과 교육철학, 그리고 실제 교육 수행 능력이 통합된 형태의 교사 전문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시도는 기존 교원 양성 체계가 지닌 한계를 넘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인 정체성, 소명, 그리고 실천적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

히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이론적 제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사양성 프로그램과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최근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와 실제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대학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의 구체적 구성과 운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은 신앙적 정체성, 교육철학, 그리고 실제 수업 수행 능력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실제 교육과정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 신학대학(K대학)의 기존 운영 사례를 토대로 이를 일반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K대학은 이미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교사양성 체계의 방향과도 상당 부분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K대학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은 기독교교육 관련 전공필수, 신앙 형성을 위한 신학 BASIC, 기독교 대안교육 전공과 이를 심화하기 위한 선택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기독교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적과 철학을 반영하는 동시에, 현행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의 구성 요소와도 일정 부분 정합성을 갖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공 영역에서는 교과교육을, 교직 영역에서는 교직이론, 교육실습을 포함하며, 교직 적성·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과 같은 기타 요건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구성

표 1. K대학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 과정

전공필수	신학 BASIC(MD)	기독교대안교육(MD)	전공선택
§ 기독교교육개론 § 연령별기독교교육 § 기독교가정생활교육 § 교육목회론 § 교회교육론 § 성인교육론 § 교육실천 I, II	§ 구약성서개론 § 신약성서개론 § 조직신학개론 § 교회사개론	§ 교육철학 § 기독교대안교육 § 교육심리 § 교육공학 § 생활지도와상담 § 기독교세계관으로 교과바라보기 § 대안교육현장세미나 § 대안교육현장실습	§ 미래사회과기독교교육 § 기독교교육과정탐구 * 교육학개론 * 기독교세계관으로 교과가르치기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 수료증 필수요건 RGKE 동아리 1년 이상 필수 참여 교육철학 에세이 제출			
성인지교육, 교직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전공선택과목이나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정의 학생은 필수로 수강하여야 함

은 국가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 기준과의 접점을 형성하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교과 해석과 교육 실천, 그리고 신앙과 삶의 통합이라는 기독교 대안교육의 지향성을 교육과정 전반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K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과 바라보기’와 ‘기독교 세계관으로 교과 가르치기’와 같은 교과 통합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 지식을 신앙에 근거하여 재구성하고 실제 수업으로 구현하는 역량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비교과 프로그램인 RGKE(Restoring God’s Kingdom in Education) 활동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실제 대안학교 현장에서 방과후 수업을 설계 및 운영하고, 그 과정을 반복적으로 성찰하며 개선하는 경험을 축적한다. 이는 교과 내용의 재구성, 수업 설계, 실행, 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교사 전문성을 이론이 아닌 실천 속에서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구조는 신앙과 교육철학이 실제 교육 행위 속에서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기독교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본질을 교사양성 과정 안에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교사양성 과정이 단순한 교과 이수 체계를 넘어, 교육 철학과 실제 수업 수행 능력을 통합적으로 형성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교과 전문성의 체계적 확보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특히 현행 교원자격 체계에서 요구되는 전공 50학점 중 기본이수 21학점 이상을 충족하는 문제는 신학대학 단일 체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학대학과 종합대학 간의 연계를 통한 전공 전문성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원양성기관과 종합대학 간 협력을 통해 교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교육부, 2021). 구체적으로는 신학대학이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철학, 교사 정체성 형성을 담당하고, 종합대학이 교과 전공 지식의 심화를 담당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교사 전문성을 균형 있게 형성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수원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교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연수원은 교과별 심화 과정과 현장 적용 중심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세계관과 교육철학이 실제 교과 수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학점 이수 중심의 자격 획득을 넘어, 교사의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실제 수업 수행 능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포트폴리오와 면접 중심의 평가 체계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격체계의 유연화와 양성경로의 다양화는 단일한 교원양성체제로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양성 규모와 경로의 조정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정 교육 목적과 철

학에 기반한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교육부, 2021).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논의를 확장하여, 교육 목적에 기반한 교사양성 경로의 다양화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양성 경로를 단일한 방식으로 한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진 복수의 경로를 통해 전문성을 형성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의 경로는 학부 단계에서 교과 전공을 중심으로 전문 지식을 형성하고, 대학원 단계에서 기독교교육학적 교육관과 세계관, 그리고 교사로서의 소명을 심화하는 방식이며, 반대로 학부 단계에서 기독교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과 방향성을 형성하고, 대학원 단계에서 교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경로 또한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복수 경로는 현행 교원양성체제 안에서 그대로 구현되기에는 구조적 제약을 지닌다. 현재의 자격 체계는 학부 단계의 전공과 교직 이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교육을 학부에서 이수한 경우 교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대학원 진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하며, 반대로 일반 대학원에서 교과와 관련한 학문을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정이 교원자격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 경로 구조는 교사 전문성을 단순한 자격 요건 충족이 아니라, 신앙과 세계관, 교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 실천이 통합된 형태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교사양성 경로의 다양화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목적에 기반한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안은 기존 교원 양성 체계가 지닌 한계를 넘어,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전문성의 핵심 요소인 정체성, 소명, 그리고 실천적 전문성을 통합적으로 형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신학대학-종합대학-연수원 간의 연계를 통해 교과 전문성과 신앙적 세계관, 그리고 교육 실천 능력을 함께 형성하는 다층적 구조는, 국가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일정 수준 확보하면서도 기독교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적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제도적 인정 이후에도 교사 전문성 형성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 교원 양성 체계가 전제하는 교사상과 대안교육이 요구하는 교사상 간의 구조적 간극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 역량, 성과 중심의 기능적 기준으로 규정하는 반

면, 대안학교는 교육의 목적과 철학, 공동체적 삶, 관계 중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긴장을 형성하며, 그 결과 대안학교의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최근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와 목회데이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대안학교 교육이 교육적 성과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조사에서 만족 비율은 ‘만족+매우 만족’ 응답을 합산한 값으로 제시되는데, 학생 만족 비율은 일반학교 53%(매우 만족 16.6%)에 비해 대안학교는 72%(매우 만족 38%)로 나타났으며, 학부모 만족 비율 역시 일반학교 38%(매우 만족 5.8%)에 비해 대안학교는 91%(매우 만족 65.6%)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목회데이터연구소). 이러한 결과는 대안학교가 단순한 대안적 시도를 넘어, 학습자와 학부모의 경험 차원에서 높은 교육적 만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안학교 교사가 요구받는 높은 수준과 다층적 성격을 지닌 전문성을 형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안학교의 제도적 인정이 교사 전문성 체계의 설계로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적 차원의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학교 교사양성에 있어 단일한 보편적 모델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기반한 전문성 형성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사례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신학대학, 종합대학, 연수원이 연계된 다층적 구조와 학부와 대학원을 통한 복수의 교사양성 경로는, 국가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도 대안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안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은 교사 전문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대안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교육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 및 재교육 체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교원 양성 규모나 경로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목적과 철학에 기반한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를 설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대안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 형태가 공교육 체제 안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대중 (2010).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하이시습.
- 교육부 (2021).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교육부.
- 교육부 (2024).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교육부.
- 교육부 (2025). **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교육부.
- 교육부 (2025).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기독교대안학교와 일반학교 학교만족도 비교 조사 연구 결과 발표**. 발표자료: 2026년 4월 16일. 경신중고등학교 언더우드기념관.
- 김동심·정수인 (2017). 공립 대안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교사의 소진, 임파워먼트 및 직무만족도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35(3), 151-177.
- 김명자 (2015). 기독교대안학교 교사의 교육체험에 대한 질적 연구: Max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7, 55-87.
- 김선영·소경희 (2014). 교사들이 기대하는 ‘교육과정 자율권’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15(4), 55-79.
- 김성경·최윤정 (202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외 대안 교육 및 대안학교 연구동향 분석.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6(1), 27-57.
- 김우인 (2021). **한국 대안학교 영어교사들의 교사신념과 교수행위**.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성천 (2020). 기독교대안학교 교사 양성과 재교육 시스템의 변화 방향. **신앙과 학문**, 25(3), 35-75.
- 김혜진·김혜자 (2025). TALIS 2024 결과분석: 교사의 다차원적 전문성과 지원 과제. **KEDI 연구 브리프**, 24. 한국교육개발원.
- 김희용 (2006). 대안학교의 제도화 과정과 법제화 방향에 관한 논의. **교육사상연구**, 19, 45-66.
- 대한민국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64호).
- 대한민국 (2024).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 34925호, 2024. 10. 2. 일부개정).
- 대한민국 (2026).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 대한민국 (2026).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일부개정).
- 박남정 (2022). 공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교육문화연구**, 28(4), 83-102.
- 박민정·최임숙 (202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교사역량 및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예비교사의 요구 분석: 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30(5), 71-93.
- 박상진 (2006). **기독교학교교육론**. 예영커뮤니케이션.
- 박상진 (2015). 인구 전망에 따른 기독교학교의 미래 분석. **장신논단**, 47(1), 317-350.

- 박상진 (202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장신논단**, 53(1), 329-354.
- 박상진·이종철 (2022). **기독교대안학교의 미래를 고민하다: 제4차 기독교대안학교 실태조사**. 씬이있는 교육.
- 배지현·박소영·안광제 (201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대안학교(학력인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부.
- 변소영 (2019). **교사 신념에 근거한 대안학교 과학교과 운영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송순재 (1997). 공교육과 대안학교운동. **신학과세계**, 33, 233-263.
- 양승훈 (1999). **기독교적 세계관**. CUP.
- 양태승 (2024). **대안학교 교사 공동체와 소통에 관한 연구: 교육철학 공유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길재·김지선·박태양 (2022). 제도권 내 미래형 대안교육의 방향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40(1), 141-162.
- 이동엽·김혜진·이주연 (2024).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 **KEDI 연구 브리프**, 22,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곤 (2023) 대안교육 현장의 교육철학. **대안교육 20년을 말한다**. 민들레.
- 이은실 (2020).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인식하는 교사 전문성의 의미와 성장 방식. **기독교교육정보**, 63, 183-219.
- 이정미 (2015).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공동체의 집단적 수업성찰 사례연구. **기독교교육정보**, 47, 231-263.
- 이종우 (2013). 한국 기독교대안학교의 교사교육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기독교교육정보**, 37, 159-200.
- 이종철·임고운 (2023). 대안학교 학부모와 교사의 상호 인식과 관계 특징: 한 종교계 미인가 대안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20(1), 53-80.
- 이종태 (2002).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민들레.
- 이종태 (2013). 대안교육에 대한 소고. **교육비평**, 32, 8-110.
- 장유정 (2024). 신앙을 통합한 가르침: 새로운 접근의 필요. **생명과 말씀**, 39, 119-158.
- 장유정 (2025). 대안학교 교사양성의 새로운 모색: 방과후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현장기반 프로그램 제안. **기독교교육정보**, 87, 151-193.
- 조진영 (2018). **초등학교 교사의 자율성에 관한 질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교육개발원 (2023).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편람(일반대학용)**. 한국교육개발원.
- 한그루 (2019). **대안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 탐색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병선 (2006). 한국의 대안교육 성과와 과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6(1), 61-67.
- 한성중 (2020). 대안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이야기. **함께 여는 국어교육**, (139), 148-161.
- 허가람·성열관 (2023). 일반학교를 경험한 학생들의 중·고 통합 공립 대안학교 선택 이유와 학교생활 경험 분석. **교육학연구**, 61(6), 379-409.
- 허창수 (2021). 한국 대안교육의 교육철학으로서의 비판교육학 논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477-387.
- 현병호 (2001). 대안교육의 의의와 현황 그리고 전망. **진보평론**, (10), 101-123.
- 황규석 (2004). **기독교 대안학교의 운영 및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황규석 (2021). **기독교대안학교 교사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Sinai Chung (2022). Nurturing Christian School Educator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2, 95-121.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의 구조적 공백과 교사양성 체계 모색: 기독교대안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Structural Gaps in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he Reconfiguration of Teacher Education Follow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lternativ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Christian Alternative Schools

장유정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대안학교의 제도적 인정 이후에도 교사 전문성 형성에 대한 국가적 설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가 교원 양성 체계를 구성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전문성 기준, 교원양성기관 평가 체계 및 관련 정책 담론을 분석하여, 국가가 전제하는 교사상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 교원 양성 체계는 교사의 전문성을 자격 기준과 이수 요건, 수행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도적 전문성의 형태로 규정하며, 교사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전문적 실천가로 전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이거나 교사의 정체성과 같은 요소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학교는 특정한 교육 목적과 철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적 삶, 그리고 삶과 삶의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국가 교원 양성 체계와 대안학교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 간에는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며, 대안학교 제도화 이후 교사 전문성 형성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안학교 교사양성에 있어 단일한 보편적 모델이 아니라 교육 목적에 기반한 전문성 형성 체계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사례로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양성 과정의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신학대학, 종합대학, 연수원이 연계된 다층적 구조와 복수의 교사양성 경로를 통해, 국가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일정 부분 확보하면서도 신앙, 정체성, 교과 전문성, 그리고 교육 실천이 통합된 교사 전문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교원 양성 체계, 교사 전문성, 대안학교, 구조적 공백, 기독교대안학교

목회자의 일중독 형성과 회복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A Christian Counseling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and Recovery of Workaholism among Pastors: Focusing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Ministry Identity

엄고운 (Koun Eo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astoral workaholism from the perspective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ministry identity and to explore its formation process and recovery within a Christian counseling framework.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consequences of workaholism, such as excessive work, occupational stress, and burnout. In contrast, this study seeks to explain how pastoral workaholism develops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ministry identity, and the unique context of pastoral ministry.

The findings suggest that achievement motivation can function as a mechanism through which pastors seek to confirm their self-worth and existential meaning when it becomes closely integrated with ministry identity. In this process, achievement-oriented motivation may gradually transform into compulsive involvement through emotional labor, emotional exhaustion, and weakened self-regulation. Consequently, workaholism emerges not merely as excessive working behavior but a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persistent work-related thoughts and compulsive work engagement. Furthermore, pastoral workaholism affects not only the individual's psychological well-being but also family relationships and communal functioning.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counseling, pastoral workaholism should be understood not simply as a behavioral problem but as a distortion of the relational order among God, self, and others. Accordingly, recovery involves more than behavioral regulation or workload reduction. It requires the restoration of identity, the reordering of relationships, emotional healing, and spiritual

* 2026년 2월 10일 접수, 6월 7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일반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기독교상담학) 박사 수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16-36, peri316@naver.com

reorientation toward a God-centered life. Positive psychology may provide useful psychological resources for recovery, such as strengths, resilience, meaning, and positive relationships. However, the ultimate meaning and direction of recovery should be interpreted within the Christian counseling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and resto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conceptualizing pastoral workaholism as a multidimensional phenomenon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ministry identity, emotional exhaustion, relational contexts, and spiritual meaning systems. It also provides a Christian counseling foundation for promoting healthy ministry practices and sustainable pastoral life.

Key words: pastor, workaholism, achievement motivation, ministry identity, Christian counseling, emotional exhaustion

I. 여는 글

현대 사회에서 일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과로의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삶의 균형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관계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리적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Oates, 1971 ; Schaufeli et al., 2008). 특히 일에 대한 몰입이 개인의 정체성과 긴밀히 결합되는 맥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며, 일은 더 이상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확인하는 중심적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Clark et al., 2016 ; Griffiths et al., 2018).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 몰입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결과라고 하기보다, 특정한 심리적·사회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개인은 일을 수행하는 주체이기보다 일에 의해 규정되는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Spence & Robbins, 1992 ; Scott et al., 1997).

목회자의 사역은 이러한 구조가 더욱 응축되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목회자는 설교, 상담, 행정, 돌봄 사역 등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문인으로서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받으며, 그 사역은 일반 직업과 달리 소명(calling)에 근거한 전인적 헌신을 전제한다(Kirwan, 정동섭 역, 2007). 동시에 사역의 범위와 종료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사역은 시간과 역할의 경계를 넘어 삶 전반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김남식, 2005b).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역은 직무 수행을 넘어 개인의 신앙적 충실성과 존재적 정체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일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Kirwan, 정동섭 역, 2007 ; 하재성, 2015).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목회자의 과도한 사역 몰입을 ‘과로’, ‘직무 스트레스’, ‘소진’과 같은 결과적 현상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으며(Maslach & Leiter, 2016 ; Bakker & Demerouti, 2017), 이러한 몰입이 어떤 심리적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사역과 정체성이 긴밀하게 연결된 목회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동기 구조’, ‘역할 정체성’, 그리고 ‘사역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접근이 요구된다(조숙자, 2009 ; 김남식, 2005a).

목회자의 사역 몰입은 소명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사역 수행이 자기 가치와 정체성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거나 강박적 동기에 의해 유지될 경우 일중독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한다(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건강한 몰입과 일중독이 모두 높은 수준의 업무 투자를 포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일중독은 자발성이 아닌 내적 강박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chaufeli et al., 2008). 그러나 목회자의 사역 환경이 이러한 전이 과

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서적·관계적·영적 요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목회자의 일중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학문적 공백이기도 하다.

연구자는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하며 목회자의 사역이 개인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헌신과 희생은 신앙적 미덕으로 강조되지만, 그 이면에서 목회자 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과 관계적 상실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연구자 역시 가족의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목회자인 아버지가 자신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채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가족 또한 개인의 아픔보다 역할 수행을 우선적으로 요구받는 현실을 경험하였다. 또한 과도한 사역 몰입으로 인해 가족 체계 전체가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목회자 사례를 접하면서, 목회자의 헌신과 일중독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었다.

연구자의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연구자로 하여금 목회자의 사역이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 관계, 정서, 영적 의미 체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하였다. 목회자의 경우 사역은 소명과 헌신의 언어로 이해되기 때문에 과도한 몰입이 신앙적 열심이나 책임감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심리적 소진이나 관계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문제로 인식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다. 과도한 사역 몰입은 개인의 건강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교회 공동체의 관계 구조와 사역 문화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목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헌신과 책임감이라는 긍정적 가치 속에 가려져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의 사역 몰입은 개인의 심리적 차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 체계와 공동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사역 몰입은 개인적 성향이나 헌신의 정도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사역 정체성, 관계적 책임, 공동체의 기대, 영적 의미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사역이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헌신과 강박적 몰입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목회자는 왜 자신의 고통과 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리고 ‘건강한 사역 헌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강박적 몰입과 일중독으로 전이되는가?’라는 질문은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목회자의 일중독을 개인의 성향이나 단일 요인으로 환원하지 않고, 동기 구조와 사역 환경, 그리고 사역 정체성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현상으로 이해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목회자의 일중독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그 과정을 기독교상담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목회자의 사역과 삶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일중독의 회복을 정체성, 관계, 영성의 재정렬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이 사역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강박적 몰입과 일중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형성 구조를 통합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성취동기와 성취지향성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동기 개념으로, 개인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 욕구를 의미한다. 머레이(Murray, 1938)는 인간의 행동을 '욕구'와 환경적 '압력'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면서, 성취와 관련된 욕구가 행동의 방향과 강도를 조직하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 관점은 성취동기를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고정된 특성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적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였으며, 이후 성취 관련 연구들이 동기의 상황적·맥락적 특성에 주목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맥클렐랜드(McClelland, 1965)는 성취동기를 개인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개념화하고, 이를 학습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강화되는 동기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성취동기를 욕구의 표현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성취 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직해 가는 심리적 경향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성취동기가 높은 개인은 도전적인 과업을 선호하고 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유능감과 만족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성취동기가 자기효능감 및 인지적 해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하며(Elliot & McGregor, 2001 ; Schunk & DiBenedetto, 2020),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경험과 해석을 통해 조정·강화되는 역동적 동기 체계로 기능함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성취동기는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동의 선택과 지속을 구조화하는 핵심 심리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성취동기를 목표 달성을 향한 욕구로만 이해하는 접근은 행동의 질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동일한 성취를 지향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외적 보상이나 평가에 의해 유지되는지,

혹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내적 의미에 기반하여 지속되는지에 따라 그 경험의 양상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은 동기의 양뿐 아니라 질적 특성이 수행과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Deci et al., 2017 ; Van den Broeck et al., 2016), 이는 성취동기가 단순한 욕구의 강도를 넘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고 내면화되는가와도 관련됨을 시사한다. 즉 성취동기는 외적 보상에 의해 유지되는 목표 추구가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시키는 동기 체계로 이해될 수 있다.

동기의 질적 특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성취지향적 행동이 적응적 몰입으로 나타날지, 혹은 강박적 몰입으로 전이될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성취동기는 개인 내부에 고정된 특성이라기보다 환경적 요구와 의미 해석의 과정 속에서 조정되고 강화되는 역동적 동기 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는 행동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성취지향성(achievement orientation)이라 할 수 있다. 성취지향성은 개인이 목표를 설정하고 해석하며,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경향성을 포함한다(Dweck, 1986 ; Elliot & McGregor, 2001). 일반적으로 성취지향성은 목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숙달지향성과 수행지향성으로 구분된다. 숙달지향성은 과업 자체의 이해와 성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수행지향성은 평가와 비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성취지향성은 단순한 수행 태도를 넘어 개인이 성취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와 연결하는지를 보여주는 심리적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성취지향성이 자기 가치의 평가 방식과 결합될 때 그 기능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취가 자기 가치의 핵심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목표 추구는 성장과 유능감의 경험을 넘어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요구로 변화할 수 있다. 스펜스와 로빈스(Spence & Robbins, 1992)는 일중독을 과도한 업무 몰입과 강박적 내적 동기의 결합으로 설명하였고, 스콧 등(Scott et al., 1997)은 높은 성취 기준과 자기비판적 태도가 강박적 일중독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보았다. 최근 연구에서도 일중독은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과도하고 강박적인 노동 욕구로 이해되며, 직무 몰입이나 성실성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Aziz & Covington, 2024). 장기 추적 연구 역시 일중독의 지속성과 변화에 성격 특성뿐 아니라 직무 동기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Kun et al., 2025). 성취지향성은 본래의 성장 지향적 기능에서 벗어나 불안을 조절하고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기제로 변형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성취는 선택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회피하기 어려운 내적 요구로 전환된다.

전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는 불안과 자기 가치의 조건화이다. 성취지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은 점차 자신의 가치를 수행 결과에 의존하여 평가하게 되며, 성취는 단순한 목표 달성을 넘어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성취는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안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구로 전환된다 (Clark et al., 2016). 개인은 성취를 통해 일시적으로 불안을 완화할 수 있으나 그 경험은 다시 더 높은 기준과 자기 요구를 생성하며 불안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일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불안이 강화되는 역설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의 정체성이 직무 수행과 강하게 결합될 때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직업적 성취가 자기 가치의 핵심 근거로 기능하는 경우 수행 결과는 곧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로 경험될 가능성이 높다(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때문에 일중독은 건강한 직무몰입(work engagement)과 구별될 필요가 있다.

직무몰입은 자율성과 의미에 기반하여 활력과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인 반면, 일중독은 일을 중단할 경우 불안과 죄책감을 경험하며 스스로 업무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강박적 특성을 지닌다 (Schaufeli et al., 2008). 따라서 높은 수준의 사역 헌신 자체가 곧 일중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취동기에서 성취지향성을 거쳐 일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절된 개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심리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성취동기는 성취지향성으로 구체화되고, 성취지향성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자기 가치의 조건화와 강박적 몰입을 거쳐 일중독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취지향성은 점차 강박적 몰입으로 변형되며 궁극적으로 일중독으로 심화되는 경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일중독은 단순한 업무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 구조와 자기 가치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일중독(workaholism)의 개념과 전이 구조

일중독은 단순히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는 행동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초기 연구에서 오츠(Oates, 1971)는 일중독을 일에 대한 강박적이고 통제하기 어려운 의존 상태로 설명하였으며, 이후 스펜스와 로빈스(Spence & Robbins, 1992)는 과도한 업무 몰입과 내적 강박이 결합된 심리적 특성으로 개념화하였다. 후속 연구들은 일중독을 과도한 업무 행동과 지속적인 일 관련 사고가 결합된 상태로 설명하며, 일을 하지 않을 때조차 업무로부터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강박적 특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한다(Schaufeli et al., 2008 ; Clark et al., 2016 ; Aziz & Covington, 2024). 따라서 일중독은 높은 직무 헌신이나 성실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건강한 직무몰입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심리 구조를 가진다.

즉, 일중독은 과도한 업무량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업무 행동은 개인의 동기 체계, 자기 개념, 정서 경험, 환경적 요구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성취동기와 성취지향성은 일중독 형성의 중요한 심리적 토대를 제공한다. 성취지향성은 본래 성장과 유능감의 경험을 촉진하는 적응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성취가 자기 가치의 주요 근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수행 결과는 과업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존재 가치와 연결된다. 성취는 더 이상 선택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인식되며, 개인은 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성취지향성이 강박적 몰입으로 전환되는 심리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Spence & Robbins, 1992 ; Scott et al., 1997).

이와 같이 자기 가치가 수행 결과와 밀접하게 결합되면 실패 가능성은 단순한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경험될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성취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취 경험은 더 높은 기준과 새로운 자기 요구를 생성하며, 개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그 결과 일은 성장과 자기실현의 수단을 넘어 불안을 조절하고 자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게 되며, 업무 행동은 점차 강박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성취지향성이 강박적 몰입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일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Scott et al., 1997 ; Clark et al., 2016).

일중독의 형성에는 정서적 과정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조직 환경은 지속적인 관계 관리와 감정 표현을 요구한다. 감정노동은 자신의 실제 감정과 조직이 요구하는 정서 표현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되며(Hochschild, 1983), 상당한 심리적 자원을 소모하게 된다. 대인관계 중심 직무에서는 공감과 친절, 인내와 수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외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정서 조절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정서적 자원의 고갈과 피로가 누적될 수 있으며, 이는 정서적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Maslach & Leiter, 2016 ; Bakker & Demerouti, 2017). 특히 자기 가치가 성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Crocker & Wolfe, 2001), 개인은 소진 상태에서도 업무를 중단하기보다 더욱 과도하게 몰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일중독 형성의 중요한 심리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Scott et al., 1997 ; Clark et al., 2016).

정서적 자원의 소모가 장기간 지속되면 소진이 발생한다(Maslach & Leiter, 2016 ; Bakker & Demerouti, 2017). 소진은 피로의 축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던 심리적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가깝다. 정서적 자원이 감소하면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역시 약화된다(Baumeister et al., 2007). 업무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거나, 휴식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일을 지속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Inzlicht & Friese, 2019 ; Inzlicht et al., 2021).

이러한 자기조절 기능의 약화는 업무 행동을 더욱 강박적으로 만드는 토대가 된다. 자기조절 능력이 감소하면 개인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행동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Baumeister et al., 2007 ; Inzlicht & Friese, 2019), 일중독자의 경우 업무 수행이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정서조절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다(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일을 수행하는 순간에는 긴장이 완화되지만 업무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시 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업무 행동과 강박적 사고는 서로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며(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개인은 일을 통해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일로 인해 더욱 소진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일중독은 과도한 업무량의 결과가 아니라 성취동기와 성취지향성, 자기 가치의 조건화, 정서노동, 정서적 소진, 자기조절 약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심리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중독의 핵심은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 일을 통해서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믿게 되는 심리적 구조에 있다.

3. 목회자의 사역 몰입에서 일중독으로의 전이와 그 영향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앞서 살펴본 일중독의 일반적 형성 구조를 토대로, 본 절에서는 이를 목회자의 사역 환경과 기독교상담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목회자의 사역 몰입은 일반 직무 환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성취지향적 구조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지만, 소명, 헌신, 공동체의 기대가 결합된 사역 환경 속에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목회자의 사역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 존재 의미와 정체성 형성에 깊이 관여하며, 직업을 삶의 의미와 소명으로 경험할 때 개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Dik & Duffy,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성취지향성은 수행 태도를 넘어 사역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과도한 몰입 역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역 경험은 단순한 과업 수행이 아니라 정체성과 의미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 사역 몰입이 일중독으로 전이되는 구조적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조숙자, 2009).

목회자의 사역은 일반 직업과 달리 직무와 정체성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분리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닌다. 많은 직업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역할 수행 역시 일정 부분 중단될 수 있지만, 목회자의 사역은 설교와 상담, 심방, 교육, 돌봄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사역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삶 전반을 포괄하는 역할로 경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은 사역에 대한 헌신을 촉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과 삶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과도한 책임감과 자기 희생을 정당화하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McMinn, 2011 ; 조숙자, 2009).

목회자는 설교, 상담, 행정, 돌봄 사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중 역할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정서적·관계적 요구에 노출된다. 이러한 환경은 정서 상태의 반복적 전환과 조절을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특성을 지니며(Hochschild, 1983 ; Brotheridge & Grandey, 2002), 장기적으로 정서적 자원의 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관계 중심 사역에서 요구되는 정서 표현과 조절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상태와 외부의 기대 사이를 지속적으로 조율하도록 만들며, 이는 정서적 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Grandey & Melloy, 2017 ; Maslach & Leiter, 2016). 충분한 회복 없이 정서적 소모가 반복될 경우 정서적 소진이 누적되며(Maslach & Leiter, 2016 ; Bakker & Demerouti, 2017), 이는 일중독 형성과 심화 과정의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서적 소진은 자기조절 기능의 약화를 동반한다. 반복적인 정서 소모와 회복의 결핍은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저하시켜 통제감의 감소를 초래하며(Baumeister et al., 2007), 의사결정과 행동 통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Inzlicht & Friese, 2019 ; Inzlicht et al., 2021). 목회자의 경우 사역이 단순한 직무를 넘어 소명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Pargament, 1997 ; Dik & Duffy, 2009), 자기조절의 약화는 행동 조절의 어려움을 넘어 ‘사역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적 당위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이 결합되면서, 자율적 목표 추구를 가능하게 하던 동기 구조는 점차 자기 가치 유지와 불안 조절을 위한 강박적 기제로 전환될 수 있다(Crocker & Wolfe, 2001 ; Deci et al., 2017). 사역은 더 이상 선택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불안과 죄책감을 유발하는 내적 요구로 경험되며, 개인은 업무 지속을 통해 심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강박적 사고와 과도한 업무 행동은 상호 강화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정서적 소진과 강박적 몰입은 상호작용하며 지속적인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Schaufeli et al., 2008 ; Kun & Kökönyei, 2025). 결과적으로 개인은 일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일로 인해 더욱 소진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목회자는 공동체의 기대와 신뢰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자신의 피로와 한계를 드러내기 어렵게 인식할 수 있으며, 사역 중단이나 거절이 책임 회피 또는 영적 부족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경험하기도 한다(조숙자, 2009 ; 하재성, 2015). 이에 따라 헌신과 강박적 몰입의 경계는 점차 모호해지고, 개인은 소진을 인식하면서도 사역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일중독의 영향은 개인 내부에 머물지 않고 관계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일중독적 몰입은 시간적·정서적 가용성을 감소시켜 가족 및 친밀한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목회자의 경우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자신의 정서적 필요와 가족 관계는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서적 단절과 관계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Lee & Iverson-Gilbert, 2003 ; 유송이, 2018), 일과 삶의 경계가 모호한 사역 구조는 관계적 소진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관계적·영적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구조 속에서 파악한다(Collins,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2008 ; McMinn, 2011 ; 강연정, 2019). 이러한 관점에서 일중독은 강박적 동기, 지속적인 일 관련 사고, 과도한 업무 행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Clark et al., 2016 ; Schaufeli et al., 2008), 존재 의미와 궁극적 의존의 대상이 왜곡된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개인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 일에 의해 지배되는 ‘자기 노예화(self-enslavement)’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Seeburger, 1993).

김규보(2023)는 중독을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자기-이웃의 관계가 전도된 상태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중독은 단순한 심리·행동적 문제를 넘어 관계 질서와 의미 체계의 왜곡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담적 개입 역시 행동 조절과 증상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왜곡된 관계와 정체성, 삶의 중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목회자의 사역 몰입은 사역 환경과 정체성, 그리고 의미 구조가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정서적 소진과 자기조절 약화와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강박적 몰입과 일중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개인의 의지나 헌신의 정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서, 성취동기와 자기 가치, 정서적 경험, 관계적 요구, 영적 의미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목회자의 일중독은 업무량의 증가나 과로 현상에 국한하여 이해하기보다 심리적·관계적·영적 차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회복 역시 업무 행동의 조절에 머무르기보다 정체성의 재확립, 관계의 회복, 정서적 돌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삶의 중심을 재정렬해 가는 통합적 과정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4. 목회자의 일중독 회복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와 제언

일중독의 회복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살펴볼 것은 목회자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일중독은 단순히 업무량의 증가나 과도한 헌신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없

다. 보다 근본적으로 ‘나는 무엇을 통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통로이다. 그러나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사역의 열매와 성과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를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역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행위에서 벗어나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지닌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목회자의 일중독은 성취동기, 사역 정체성, 관계적 책임, 그리고 영적 의미 체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복은 업무량을 줄이거나 행동을 조절하는 수준에 머물 수 없으며, 일중독을 유지시켜 온 심리적·관계적·영적 구조를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의 문제를 인지·정서·행동·관계·영성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구조 안에서 파악한다(Collins,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2008 ; McMinn, 2011 ; 강연정, 2019). 강연정(2019)은 기독교상담이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단순한 증상 제거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의 왜곡과 관계적 단절, 영적 불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목회자의 일중독 회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회복의 출발점은 정체성의 재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일중독은 일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는 심리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성취가 자기 가치의 주요 근거가 될 때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의 궁극적 가치를 성취나 역할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하며(Collins,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2008), 회복은 사역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포함한다. 지속적인 업무 중심의 삶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시간과 정서적 가용성을 감소시키며 관계적 단절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Lee & Iverson-Gilbert, 2003). 회복은 가족과의 친밀성을 회복하고, 동료 목회자 및 공동체와 상호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며, 모든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신념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성을 회복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서적 회복 역시 중요한 차원이다. 목회자는 사역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실과 갈등, 좌절과 피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채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억압된 정서는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어 소진과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Maslach & Leiter, 2016 ; Bakker & Demerouti, 2017). 정서적 회복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피로와 슬픔, 분노와 공허함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마주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회복은 영적 재정렬의 과정을 포함한다. 기독교상담학적 관점에서 일중독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지 아닌 다른 대상에 의해 지배되는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Welch, 2013 ; May, 2005 ; 김규보, 2023). 이러한 영적 재정렬은 하나님보다 앞서 있던 일과 성취의 자리를 내려놓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과정이며,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긍정심리학은 이러한 회복 과정에 유용한 심리학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 감사, 희망, 의미와 같은 긍정적 자원은 목회자가 사역 외의 삶의 영역을 재발견하고 보다 균형 잡힌 자기 이해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Seligman, 2011). 김경미(2014)는 긍정심리치료가 제시하는 용서, 감사, 낙관성, 영성과 같은 요소들이 기독교상담과 접점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의미와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긍정심리학은 기독교상담을 대체하는 이론이라기보다 회복을 지원하는 보완적 자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종합하면, 목회자의 일중독 회복은 업무 행동의 조절이나 업무량 감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성취와 수행에 의해 규정되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단절된 관계를 재구성하며, 억압된 정서를 통합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렬해 가는 통합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목회자의 일중독을 행동상의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정체성, 관계, 정서, 영성이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심리학이 제공하는 강점과 회복탄력성, 의미 탐색의 자원은 이러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의미와 방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될 때 보다 온전한 회복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본고는 목회자의 일중독을 과로 현상이나 개인의 성향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 그리고 목회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 현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성취동기가 성취지향성으로 구체화되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역 정체성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정서노동, 정서적 소진, 자기조절의 약화를 거쳐 강박적 몰입으로 전이되며 궁극적으로 일중독으로 심화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과로, 직무 스트레스, 소진과 같은 결과적 현상에 주목해 온 것과 달리, 목회자의 일중독을 심리적·관계적·영적 차원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회자의 일중독은 업무량 증가나 과도한 헌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과 정체성이 긴밀하게 결

합되는 가운데 일이 존재 의미와 자기 가치의 근거로 기능할 때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일중독은 행동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체성과 의미 체계의 문제이며, 성취와 사역이 인간 존재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때 나타나는 왜곡된 몰입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목회자의 일중독을 기독교상담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회복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독교상담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와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인간의 문제를 정체성·관계·정서·영성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구조 안에서 조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회자의 일중독 회복은 업무 행동의 조절이나 심리적 기능의 회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자기-이웃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재정립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일중독은 강박적 업무 행동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자기-이웃의 관계 질서가 왜곡되는 가운데 형성되는 존재론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회복 역시 행동 수정이나 업무량 조절에 국한되지 않으며, 왜곡된 정체성과 관계 질서, 삶의 의미 체계가 재정립되는 통합적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목회자의 일중독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할 뿐 아니라 건강한 목회자 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사역 문화를 위한 기독교상담학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수행된 이론적 연구라는 점에서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실제 목회자의 일중독 경험을 직접적으로 탐색하지 못하였다. 목회자의 일중독은 교단 문화, 교회 규모, 사역 형태, 가족 체계 등 다양한 맥락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경험 자료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중독의 형성 및 회복 구조는 이론적 통합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설명력과 적용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목회자의 실제 사역 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일중독의 형성과 회복 과정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취동기-성취지향성-사역 정체성-정서노동-정서적 소진-자기조절 약화-강박적 몰입-일중독으로 이어지는 전이 구조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요구된다. 아울러 기독교상담적 개입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목회자의 일중독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실천적 개입 전략 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건강한 목회자 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사역 문화 구축을 위한 기독교상담학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 김경미 (2014). 긍정심리치료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평가: 용서, 감사, 낙관성, 영성을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2(1), 9-37.
- 김규보 (2023). 중독에 대한 기독교 병리학적 진단: 죄의 범주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31(1), 5-35.
- 김남식 (2005a). 일중독: 일의 신학. **상담과 선교**, 47, 17-37.
- 김남식 (2005b). 목회자의 역할 갈등과 소진에 관한 연구. **목회와 상담**, 5, 87-115.
- 유송이 (2018). **일중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정동섭 역 (2007).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본 현대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과 신학의통합을 위한 변증**. Kirwan, W. T. (1984). *Biblical Concepts for Christian Counseling: A Case for Integrating Psychology and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예찬사.
- 조숙자 (2009). **목회자들의 일 중독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하재성 (2015). 목회자의 우울증과 탈진: ‘거룩한’ 자기착취의 성과. **복음과 상담**, 23(1), 315-341.
-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2008).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Collins, G. R. (2007) *Christian Counseling Third Edition*. 두란노.
- Aziz, S. & Covington, C. (2024). Beyond the 9-to-5 grind: Workaholism and its potential influence on human health and disease. *Frontiers in Psychology*, 15, 1345378. <https://doi.org/10.3389/fpsyg.2024.1345378>
- Bakker, A. B. & Demerouti, E. (2017). Job demands-resources theory: Taking stock and looking forward.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2(3), 273-285. <https://doi.org/10.1037/ocp0000056>
- Baumeister, R. F., Vohs, K. D. & Tice, D. M. (2007). The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6), 351-355. <https://doi.org/10.1111/j.1467-8721.2007.00534.x>
- Brotheridge, C. M. & Grandey, A. A. (2002). Emotional labor and burnout: Comparing two perspectives of “people work”.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1), 17-39. <https://doi.org/10.1006/jvbe.2001.1815>
- Clark, M. A., Michel, J. S., Stevens, G. W., Howell, J. W. & Scruggs, R. S. (2016). Workaholism among leaders: Implications for leadership effectivenes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9(4), 849-874.

- Clark, M. A., Michel, J. S., Zhdanova, L., Pui, S. Y. & Baltes, B. B. (2016). All work and no play? A meta-analytic examination of the correlates and outcomes of workaholism. *Journal of Management*, 42(7), 1836-1873.
<https://doi.org/10.1177/0149206314522301>
- Crocker, J. & Wolfe, C. T. (2001). Contingencies of self-worth. *Psychological Review*, 108(3), 593-623.
- Deci, E. L., Olafsen, A. H. & Ryan, R. M.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in work organizations.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19-43. <https://doi.org/10.1146/annurev-orgpsych-032516-113108>
- Dik, B. J. & Duffy, R. D. (2009). Calling and vocation at work.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7(3), 424-450.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10), 1040-1048.
- Elliot, A. J. & McGregor, H. A. (2001). A 2 × 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3), 501-519.
- Grandey, A. A. & Melloy, R. C. (2017). The state of the heart: Emotional labor as emotion regulation reviewed and revised.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22(3), 407-422.
- Griffiths, M. D., Demetrovics, Z. & Atroszko, P. A. (2018). Ten myths about work addiction.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7(4), 845-857.
<https://doi.org/10.1556/2006.7.2018.05>
- Hochschild, A. R. (1983).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nzlicht, M. & Friese, M. (2019).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ego depletion. *Social Psychology*, 50(5-6), 370-378. <https://doi.org/10.1027/1864-9335/a000398>
- Inzlicht, M., Werner, K. M., Briskin, J. L. & Roberts, B. W. (2021). Integrating models of self-regul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72, 319-345.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61020-105721>
- Kenyhercz, V., Mervó, B., Lehel, N., Demetrovics, Z. & Kun, B. (2024). Work addiction and social functioning: A systematic review and five meta-analyses. *PLOS ONE*, 19(6), e0303563.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303563>
- Kun, B. & Kökönyei, G. (2025). Long-term chronicity of work addiction: The role of personality and work motivations. *BMC Psychology*, 13, 578. <https://doi.org/10.1186/s40359-025-02907-6>

- Maslach, C. & Leiter, M. P. (2016). Understanding the burnout experience: Recent research and its implications for psychiatry. *World Psychiatry*, 15(2), 103-111. <https://doi.org/10.1002/wps.20311>
- May, G. G. (2005).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HarperCollins.
- McClelland, D. C. (1965). Toward a theory of motiv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20, 321-333.
- McMinn, M. R. (2011).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2nd. ed.). Tyndale House Publishers.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Oates, W. (1971). *Confessions of a workaholic*. World Publishing.
- Pargament, K. I. (1997). *The Psychology of Religion and Coping*. Guilford Press.
- Schaufeli, W. B., Taris, T. W. & Bakker, A. B. (2008). *It takes two to tango: Workaholism is working excessively and working compulsively*. in Burke R. J. & Cooper C. L. (Ed.) *The long work hours culture: Causes, consequences and choices* (pp. 203-226). Emerald Group Publishing.
- Scott, K. S., Moore, K. S. & Miceli, M. P. (1997). Workaholism and its consequenc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8, 287-314.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Free Press.
- Spence, J. T. & Robbins, A. S. (1992). Workaholism: Defini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8(1), 160-178.
- Van den Broeck, A., Ferris, D. L., Chang, C.-H. & Rosen, C. C. (2016). A re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s basic psychological needs at work. *Journal of Management*, 42(5), 1195-1229. <https://doi.org/10.1177/0149206316632058>
- Welch, E. T. (2013).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P&R Publishing.

목회자의 일중독 형성과 회복에 대한 기독교상담학적 이해: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을 중심으로

A Christian Counseling Understanding of the Formation and Recovery of Workaholism among Pastors: Focusing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Ministry Identity

엄고운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자의 일중독을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형성 과정과 회복 방향을 기독교상담학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기존 연구들이 목회자의 일중독을 주로 과로, 직무 스트레스, 소진과 같은 결과적 현상 중심으로 설명해 온 반면, 본 연구는 성취동기와 사역 정체성이 목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일중독이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목회자의 성취동기는 사역 정체성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자기 가치와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정서노동, 정서적 소진, 자기조절 약화를 거쳐 강박적 몰입으로 전이되고 궁극적으로 일중독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중독은 단순한 업무 과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일 관련 사고와 강박적 업무 행동이 반복되는 상태로서, 개인의 심리적 영역뿐 아니라 가족 및 공동체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독교상담학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일중독은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자기-이웃의 관계 질서가 왜곡된 상태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은 업무 행동의 조절을 넘어 정체성의 회복, 관계의 재정렬, 정서적 회복,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영적 재정렬을 포함하는 통합적 과정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심리학은 강점, 회복탄력성, 의미, 관계와 같은 회복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회복 과정을 지원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 의미와 방향은 기독교상담학적 인간 이해 안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는 목회자의 일중독을 성취동기, 사역 정체성, 정서적 소진, 관계적 맥락, 영적 의미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논의를 확장하였으며, 건강한 목회자 정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사역 실천을 위한 기독교상담학적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목회자, 일중독, 성취동기, 사역정체성, 기독교상담, 정서적 소진

성령의 성화 사역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 연구 : 개혁주의적 조망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i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s Sanctification: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김성준 (Sungjun Kim)**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theological identity of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progressive sanctification, a central theme in Reformed pneumatology. In contemporary Korean churches, both counseling and coaching have been widely employed as ministries for healing and growth. Yet the uncritical appropriation of secular psychology and humanistic self-development discourse has often obscured their theological boundaries and weakened their ministerial identity. In response, this study conducts a 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drawing on John Calvin's and Herman Bavinck's doctrines of the Holy Spirit, sanctification, and humanity as theological norms, while critically engaging Gary R. Collins's coaching theory and major Korean studies on Christian counseling and coaching.

First, this study argues that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corresponds to the twofold movement of sanctification, namely, the mortification of the old self and the vivification of the new self. In this regard, Christian counseling may be understood as a ministry of restorative sanctification that addresses sin, woundedness, and distorted patterns of the self, whereas Christian coaching may be understood as a ministry of progressive and missional sanctification that assists believers in discerning and practicing their God-given gifts and calling. Second, the study proposes a triadic model of ministry in which genuine change is attributed to the sovereign work of the Holy Spirit, while counselors and coaches function as assisting instruments under the unity of Word and Spirit. Third, it presents a four-stage continuum

* 2026년 5월 9일 접수, 6월 6일 최종수정, 6월 11일 게재확정

** 고신대학교(Kosin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과 박사과정,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194, june0712@daum.net

of sanctification—restorative, transformative, practical, and missional—and argues that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are not separate programs but complementary forms of ministry whose relative emphasis varies along a single sanctifying process. Finally, by applying the Reformed doctrine of common grace and special grace, this study suggests theological criteria for the critical appropriation of secular therapeutic and coaching methods, and proposes an integrated congregational ministry framework in which counseling, coaching, and discipleship are organically related in an ecosystem of healing, growth, and sending.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ends that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should be understood as complementary ministries of *cura animarum* within the unified sanctifying work of the Holy Spirit, and that such an understanding provides a theological and practical framework for the recovery of ministerial identity in the Korean church.

Key words: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coaching, Reformed pneumatology, progressive sanctification, *cura animarum*

I. 서론

포스트모던 사조의 확산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기술 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현대인에게 전례 없는 존재론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은 인간의 고유성과 경계를 상대화하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김진아, 2022; 임준섭, 2021).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 역시 신자의 내면적 상처와 관계의 파편화, 영적 무기력과 소외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과 같은 조력 사역의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특히 조성국(2004)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독교교육과 조력 사역은 시대가 변할수록 성경적 인간상의 이상을 현실의 목회 현장 안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한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미 20세기 초 헤르만 바빙크가 성경적 인간 이해와 심리 전반을 다루는 성경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근대 심리학의 발달 속에서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해하는 신학적 인간학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Bavinck, 1920 ; Bavinck, 1923).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인공지능과 포스트휴머니즘이 야기한 인간 이해의 혼란 속에서,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어떠한 신학적 인간론을 전제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한다(Bavinck, 1967 ; VanBelzen, 2007).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목회 현장에서 상처 입은 성도의 치유와 성숙, 리더십 개발과 소명 실현을 돕는 도구로 활발히 수용되어 왔다(서우경, 2009; 홍석고, 2017; 권순달, 2015). Collins(2009)는 기독교 상담을 죄와 상처로 인해 파편화된 내면을 복음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는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회복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성장 중심의 사역으로 이해하였다. 조영우(2020) 역시 크리스천 코칭의 목적을 세속적 자기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 실현으로 재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 과정에서 세속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도입되면서, 조력 사역의 신학적 경계와 정체성은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 강연정, 2019). 정하윤과 도미향(2021)은 회복탄력성과 자기결정성에 기초한 코칭 접근이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정희정(2023)은 이러한 흐름이 개혁주의적 인간 이해와 충돌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 상담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상대화한 채 정서적 안정과 자아 통합에 머무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보다 인간 잠재력의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

조영우, 2020).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참된 변화와 회복은 단순한 정서적 카타르시스나 자기 확신의 강화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최정호, 2010 ; 홍인택, 2020). 안정삼(2016)은 성령의 성화 사역을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 안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화가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점진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홍인택(2020)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의 성화 교리를 분석하면서, 성화의 열매를 단순한 정서적 안정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 거룩의 실제적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바빙크 역시 『개혁교의학』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을 옛 사람을 점점 더 죽이고 새 사람을 점점 더 살리는 유기적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이 과정이 인간의 지성·정서·의지 전체를 새롭게 질서 짓는 일임을 강조하였다(Bavinck, 1967 ; 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많은 연구와 현장 실천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서로 다른 학문 영역이나 기법으로 분절하여 다루거나, 프로그램 차원의 병렬적 결합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성령의 성화 사역이라는 교의학적 전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서우경, 2009 ; 강연정, 2019).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조력 사역이 직면한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요청된다. 첫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에 기초하여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안정삼, 2016 ; 권혜령, 2019). 둘째, 두 사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어떠한 유기적 상관관계를 이루는지를 규명해야 한다(안정삼, 2016 ; 권혜령, 2019). 셋째, 이러한 신학적 통찰이 실제 목회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성화 단계에 따른 통합적 사역 체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안경승, 2026 ; 이혜정, 2023).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개혁주의적 통전 틀 안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과 코칭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는 대체로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담과 코칭의 실천적 통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들이다(서우경, 2009 ; 홍석고, 2017 ; 권순달, 2015). 둘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을 중심으로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고찰한 연구들이다(전요섭, 2004 ; 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 권혜령, 2019). 셋째,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기초와 개념을 정립하려는 연구들이다(김정규, 2006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 김수연, 2023 ; 김정화, 2026 ; 박혜숙, 2024). 넷째, 통합 상담 모델과 사례개념화에 관한 신학적 논의들이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 유미경, 2018 ; 이혜정, 2023 ; 안경승, 2026).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조력 사역의 신학적 방향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어느 한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두 사역의 통합을 기법적 차원에서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령의 점진적 성화와 그 이중 역동(죽임과 살림)이라는 신학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성화의 연속체(IV장, 그림 1 참조) 위에서 두 사역이 어떠한 비중과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모형화할 것이다(Bavinck, 1967 ; DeGraaff & Olthuis, 1978).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Theoretical Literature Review)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연구의 논리적 일관성과 방법론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단계의 구조화된 분석 절차를 거쳤다.

첫째, 신학적 규범 및 실천적 대상 문헌의 선정이다.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존 칼뱅(John Calvin)의 『기독교 강요』와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의 『개혁교의학』을 교의학적 핵심 규범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칼뱅의 문헌은 성화의 ‘죽임과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을 가장 원형적으로 제시하며, 바빙크의 문헌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세속 학문을 어떻게 전유할 것인지에 대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아울러 크리스천 코칭의 실천적 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코칭의 목적을 ‘자기실현’이 아닌 ‘소명’으로 재조정한 Gary R. Collins의 『Christian Coaching』 및 국내 주요 크리스천 코칭 연구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핵심 개념의 비교 및 대조 분석이다. 선정된 문헌들을 바탕으로 ‘회복적 성화(옛 사람의 죽임)’와 ‘진취적·선교적 성화(새 사람의 살림)’라는 신학적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기능적 특성과 교차 분석하여 두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을 규명하였다.

셋째, 통합적 모형 구성 및 목회적 사례 적용이다. 분석된 개념을 토대로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중첩되고 전환되는 ‘통합적 관계 모형(IV장, 그림 1 참조)’을 구조화하였다. 나아가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세속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목회 현장의 영혼 돌봄(cura animarum) 체계에 적용하여 실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 본 논문은 II장에서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 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살피고, III장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논의하며, IV장에서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두 사역의 관계 모형을 도식과 함께 제시할 것이다. 이어 V장에서는 교회 현장에서의 통합 사역 체계를 논의하고, VI장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맺고자 한다.

II.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 사역의 신학적 기초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종교적 습관의 강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신자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의 적용 과정으로 이해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성화는 인간의 자율적 자기계발이나 심리적 균형의 산물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실현되는 영적 변혁의 과정이다(최정호, 2010 ; 안정삼, 2016).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신학적 기준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두 사역이 모두 인간의 변화와 성숙을 다루지만, 그 변화의 궁극적 원인과 방향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사역의 본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1. 성령의 사역과 성화의 본질

칼뱅은 성령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신자에게 실제로 적용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곧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 안에 현실화되며, 성화 역시 이 구속 적용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성령은 단지 신앙의 보조적 요소가 아니라, 신자의 회개와 믿음, 중생과 성화, 인내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다(최정호, 2010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바빙크는 성화를 인간 존재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 인격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유기적 사역으로 설명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는 성화가 단순히 내면의 종교 감정이나 도덕 의지의 강화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지성·정서·의지와 관계,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질서화하는 과정임을 뜻한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성화는 심리적 안정이나 행동 수정의 차원을 넘어, 존재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재형성되는 사건으로 이해된다(홍인택, 2020 ; 안정삼, 2016).

또한 개혁주의 성령론은 성화를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며 언약적인 사건으로 본다. 성령은 신자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시고, 그 연합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러므로 성화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몰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 그리고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웃 사랑과 소명적 삶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권혜령, 2019 ; 홍인택, 2020).

2.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 통일성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의 사역을 언제나 말씀의 사역과 분리하지 않는다. 칼뱅은 성령과 말씀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역사한다고 보았으며,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문자로, 말씀 없는 성령 이해는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Calvin, 원광연 역, 2003). 바빙크 역시 말씀은 성령의 외적 도구이고 성령은 말씀의 내적 효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두 사역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하였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러한 통일성은 바빙크의 인간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조성국(2017)과 조피터계춘(2018)은 바빙크의 성경심리학적 인간론을 분석하면서, 타락한 인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묵회적 돌봄과 치유의 참된 토대가 마련됨을 논증하였다. 이는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단순한 심리적 위로를 넘어 성령의 갱신 사역에 의존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실천에서도 결정적 의미를 지닌다. 기독교 상담이나 크리스천 코칭이 아무리 정교한 경청 기술과 질문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성령의 통일된 사역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인간 중심적 변화 담론으로 전락할 수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반대로 말씀만을 선언하면서도 실제 인간 이해와 변화 과정에 대한 분별이 결여될 경우, 조력 사역은 추상적 권면이나 도식적 처방에 머물 수 있다(권혜령, 2019 ; 이해정, 2023).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조력자는 성령의 자리를 대신하는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봉사하는 도구적 존재로 이해되어야 한다. 전요섭(2004)은 기독교 상담의 변화 주체가 상담자 자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였고,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다양한 기법 수용 여부 역시 말씀의 규범성과 성화의 목적 안에서 분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점은 상담자와 코치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문성이 성령의 주권과 말씀의 규범 아래 놓일 때에만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3. 성화의 이중 역동성

개혁주의 성화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화를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으로 이해한다는 점이다. 칼뱅은 회개를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전 존재적 전환으로 설명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이 전환은 부정적 측면에서 죄와 자기중심성의 약화를 포함하고, 긍정적 측면에서 의와 순종, 사랑과 경건의 증대를 포함한다. 이러한 이중 역동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John Owen)의 사상에서도 깊이 있

게 다루어진다. 강현선(2012)은 오웬의 정서 이해를 분석하면서, 죄를 죽이는(mortification) 과정이 억압적인 금욕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참된 정서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적극적인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안정삼(2016)은 이러한 성화의 구조를 ‘죽임’과 ‘살림’의 이중 운동으로 정리하면서, 신자의 성화가 어느 한순간에 완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점진적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홍인택(2020)도 성화의 열매를 단지 불안 감소나 자존감 회복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 그리고 실제적 거룩의 삶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개혁주의 전통에서 성화는 상처의 치유만도 아니고, 잠재력의 실현만도 아니라, 죄의 권세가 약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점차 회복되어 가는 이중적이며 유기적인 과정이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이러한 이중 역동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직접적인 틀을 제공한다. 곧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애착, 거짓 자기 이해 등 ‘옛 사람’의 질서가 해체되고 다루어지는 회복적 성화의 국면과 더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소명을 식별하고 실천하는 ‘새 사람의 살림’의 국면과 더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서우경, 2009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물론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된 단계가 아니라, 하나의 성화 과정 안에서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상호보완적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 점진적 성화와 전인적 변화

개혁주의 성화론은 신자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점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웨스트민스터 전통과 이를 계승한 개혁주의 교의학은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며, 여전히 죄와의 싸움 속에서 점차 진전된다고 보았다(홍인택, 2020 ; Bavinck, 박태현 역, 2011). 이는 성화의 현실이 언제나 긴장과 불완전성을 포함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참된 변화가 느리고 복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매우 현실적인 인간 이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진성은 조력 사역이 조급한 성과주의나 단기적 문제 해결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하게 한다. 실제로 많은 코칭 및 상담 담론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가시적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개혁주의 성화론은 인간의 깊은 변화가 하나님 앞에서 장기적이고 유기적인 여정임을 상기시킨다(강연정, 2019 ; 이혜정, 2023). 따라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모두 단기적 효과성의 언어를 넘어, 점진적 성화의 시간성과 전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점진적 성화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바빙크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 지성과 감정, 개인과 공동체성이 유기적으로 얽힌 통일체로 보았으며, 성령의 사역 역

시 이러한 전 존재를 향한다고 이해하였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그러므로 기독교 상담은 정서적 회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크리스천 코칭 역시 목표 달성과 수행 향상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양자 모두 하나님 형상 회복과 소명적 삶이라는 더 넓은 성화의 목적 아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5.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구분과 연계

개혁주의 전통은 세속 학문과 문화의 성과를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다. 바빙크와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일반은총의 교리를 통해,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일정한 질서와 통찰, 문화적 유익을 허락하신다고 보았다(Bavinck, 1967 ; DeGraaff & Olthuis, 1978). 이런 의미에서 심리학이나 코칭학의 일부 통찰 역시 인간 이해와 관계 회복, 동기 형성, 행동 변화에 관한 유익한 관찰을 제공할 수 있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그러나 일반은총의 산물은 특별은총의 빛 아래서 비판적으로 분별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의 통합이 단순한 병렬적 결합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경적 인간론과 구원론, 성화론의 목적 안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선영(2011)과 유미경(2018)도 세속 심리치료 기법이 제한적으로 유익할 수 있으나, 그것이 인간 중심적 자아 강화나 자기 승배의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원리는 크리스천 코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희정(2023)은 세속 코칭이 인간 잠재력에 대한 낙관주의를 전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더불어 성령의 주권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개혁주의 관점에서 크리스천 코칭 기법은 단순히 목표 달성과 성취를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성화 사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별되고 재배치되어야 한다(정희정, 2023 ; 조영우, 20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성화는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 통일성 안에서,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이중 역동을 따라, 점진적이고 전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안정삼, 2016). 또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과 연계는 세속 상담 및 코칭 기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적 기준 아래에서 유익하게 전유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 정희정, 2023).

이러한 신학적 기초 위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서로 분리된 경쟁 영역이 아니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과 강조점을 지닌 상호보완적 조력 사역으로 이

해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과 상호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서우경, 2009 ; 전요섭, 2004 ; 조영우, 2020).

III.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조망

앞 장에서 살펴본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단순한 대화 기법이나 실천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이해해야 할 조력 사역으로 보게 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두 사역의 차이와 관계를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신학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이 성화의 어떤 국면과 더 깊이 연결되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기독교 상담을 주로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주로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두 사역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대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화의 점진적 여정 안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적 구분이다(안정삼, 2016 ; 조영우, 2020).

1. 기독교 상담의 신학적 정체성: 회복적 성화

기독교 상담은 인간의 고통과 죄, 상처와 왜곡, 관계의 파괴와 영적 혼란을 다루면서, 복음 안에서 회복과 화해를 지향하는 조력 사역이다(전요섭, 2004 ; 권혜령, 2019). 전요섭(2004)은 기독교 상담의 본질을 세속 심리상담과 구별하면서, 인간 변화의 궁극적 주체를 상담자나 기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단지 심리적 증상을 완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죄와 상처로 인해 왜곡된 인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영혼 돌봄의 사역이다.

강연정(2019)은 기독교 상담의 통합이 세속 상담이론과 성경 구절을 병렬적으로 결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성경적 인간론과 구원론, 성화론의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해정(2023)도 기독교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경험을 분석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단순히 정서적 증상이나 기능 저하의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의 핵심은 문제 자체의 제거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드러나는 죄와 상처,

관계의 왜곡, 잘못된 자기 이해를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재구성하도록 돕는 데 있다(강연정, 2019 ; 이해정, 2023).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성화의 여정 중에서도 특별히 ‘회복적 성화(Restorative Sanctification)’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회복적 성화란 죄와 상처, 왜곡된 정서와 관계의 파편화 속에 있는 신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직면하고, 옛 사람의 질서가 해체되며, 복음 안에서 존재의 회복을 경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기독교 상담은 바로 이러한 회복적 국면에서 내담자가 죄책감과 수치, 상실과 외상, 왜곡된 애착과 거짓 신념을 다루며, 회개와 위로, 용서와 화해, 질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심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권혜령, 2019 ; 전요섭, 2004).

2.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 : 진취적·선교적 성화

크리스천 코칭은 일반 코칭과 마찬가지로 질문, 경청, 목표 설정, 실행 점검 등의 과정을 포함하지만, 그 목적과 인간 이해, 변화의 방향성에서 분명한 신학적 차이를 가진다(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Collins(2009)는 Christian coaching을 단순한 성과 향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잠재력과 은사, 사명을 식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관계적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크리스천 코칭은 자기실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돕는 소명 지향적 사역이다.

조영우(2020)는 기독교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을 논하면서, 코칭의 목적을 세속적 성공이나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 실현으로 재정의하였다. 정희정(2023)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관점에서 세속 코칭의 인간 잠재력 낙관주의를 비판하며,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인정하는 동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크리스천 코칭은 인간의 가능성을 무조건 긍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성화적 조력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이러한 관점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성화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진취적·선교적 성화(Progressive & Missional Sanctification)’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여기서 진취적 성화란 이미 일정한 회복을 경험한 신자가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정렬해 가는 국면을 의미하며, 선교적 성화란 그 변화가 개인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와 사명, 섬김과 파송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국면을 의미한다(조영우, 2020 ; 권순달, 2015). 따라서 크리스천 코칭은 상처의 치유 자체보다는, 회복된 존재가 은사와 소명, 책임과 실천, 리더십과 사역의 방향을 구체화하도록 돕는 진

취적 국면에 더 큰 비중을 둔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홍석고, 2017).

3.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공통 기반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위와 같이 기능과 강조점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몇 가지 본질적 공통 기반을 공유한다. 첫째, 두 사역 모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타락으로 왜곡된 존재로 이해하며, 참된 변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하재성(2026)은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성령의 고백을 기독교 상담과 연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적 속성이 곧 조력 사역에서 내담자를 치유하는 관계적 원형이 됨을 강조하였다. 둘째, 두 사역 모두 인간의 변화가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성화의 진전이라는 더 깊은 차원을 가진다고 본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셋째, 두 사역 모두 조력자를 변화의 절대 원인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이해한다. 상담자든 코치든 상대를 바꾸는 주체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청지기적 위치에서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신학적 토대를 가진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넷째, 두 사역 모두 개인의 내면만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 삶의 방향, 사명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인적 성격을 공유한다(권순달, 2015 ; 이혜정, 2023).

실제로 서우경(2009)은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대화 방식과 변화 촉진 원리에서 일정한 접점을 가진다고 분석하였고, 두 접근이 적절히 연계될 때 내담자 혹은 피코치의 변화가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배타적 사역이 아니라, 동일한 성화 여정 속에서 서로를 보완하는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우경, 2009 ; 권순달, 2015).

4. 회복적 성화와 진취적 성화의 관계 및 차별적 기능

본 연구가 제안하는 회복적 성화와 진취적 성화의 구분은 성화의 본질을 기계적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점진적 성화 안에서 두 사역이 서로 다른 강조 국면을 담당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개념적 장치이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이 틀 안에서 볼 때,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개입 초점과 질문 양식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 상담은 주로 무너진 존재의 기반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질문 양식 역시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는가”, “어떤 왜곡이 형성되었는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와 같이 옛 사람의 상처와 죄의 해체에 가깝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비교적 회복된

기반 위에서 목표 명료화와 소명 분별을 촉진하는 데 강점을 지닌다. 코칭의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어떤 순종이 필요한가”, “어떤 실행이 가능한가”와 같이 새 사람의 실천과 미래 지향적 변화에 더 가깝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그러나 실제 성화의 과정에서는 회복과 진취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코칭 과정 중에 미해결 상처가 드러나 기독교 상담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기독교 상담 과정 속에서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구체적 실행과 책임 구조를 세우는 코칭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담과 코칭을 제도적으로 구획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의 성화 여정에서 어떤 국면의 돌봄이 더 적절한지를 분별하는 신학적 통찰과 사례개념화 능력이다(안경승, 2026 ; 이해정, 20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은 복음 안에서 죄와 상처를 다루며 존재의 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명과 파송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 정희정, 2023). 따라서 두 사역은 서로 경쟁하거나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다른 국면과 기능을 담당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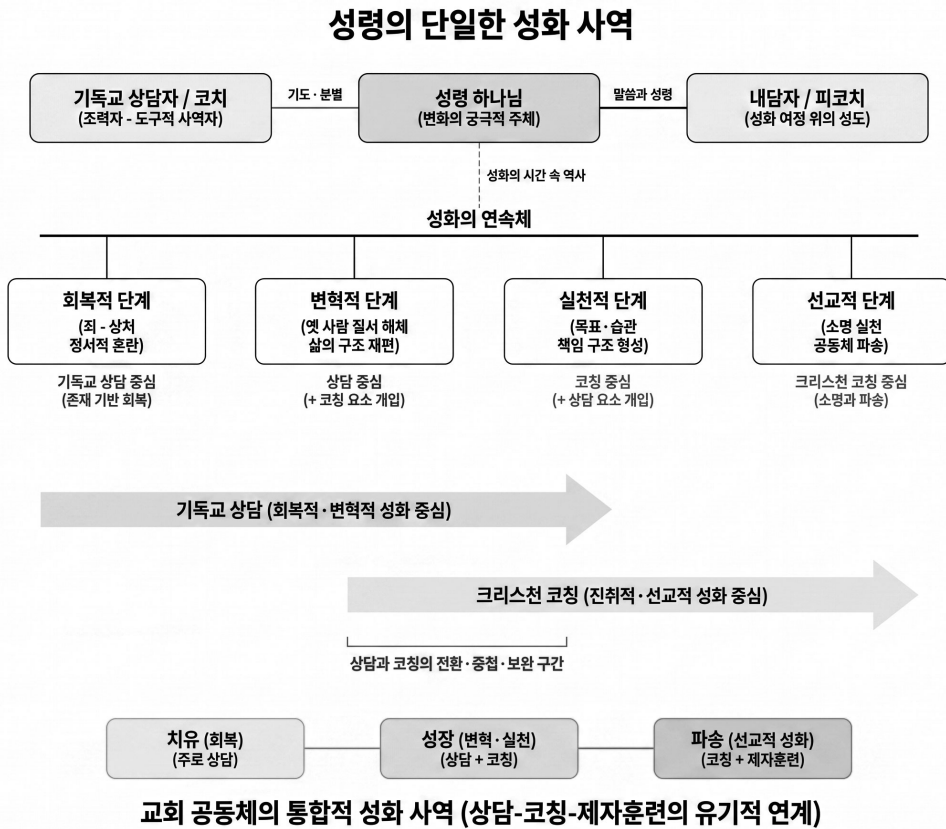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정체성 이해를 바탕으로,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모형화하고 앞서 언급한 ‘그림 1’의 도식을 통해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서우경, 2009 ; 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IV.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의 상담과 코칭의 관계

앞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을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을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어디까지나 강조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지, 두 사역을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고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제 목회 및 돌봄 현장에서는 상담과 코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서로 교차하며,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연속적이고 상보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서우경, 2009 ; 조영우, 2020).

본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단순한 병렬 구조나 기능적 분업으로 설명하기보다, 성화의 연속체라는 통합적 틀 안에서 재구성하여, 이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독자가

전체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적 관계 모형을 ‘그림 1’로 시각화하여 제시한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그림 1]. 성령의 성화 사역 안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통합 관계 모형

이 ‘통합 관계 모형(그림 1)’은 성령을 변화의 주체로 두는 삼자적 사역 역동을 상단에 배치하고, 회복에서 선교로 이어지는 4단계 성화 연속체를 중앙에 두며, 하단에는 각 단계별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상대적 비중 및 상호 전환 구간을 시각화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세 가지 차원(연속체 내 위치, 전환 지점, 삼자적 역동)에서 논의할 것이다.

1. 네 단계 성화의 연속체와 조력 사역의 위치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성화의 과정을 네 단계의 연속체로 제시한다. 이는 성화를 인위적으로 분절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돌봄과 조력 사역의 현장에서 상담과 코칭의 초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분석 틀이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첫째, '회복적 단계'는 죄와 상처, 정서적 혼란, 관계 파괴, 왜곡된 자기상으로 인해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이해의 재구성, 고통의 해석, 수치와 죄책의 처리, 관계적 상처의 회복이 중요하며, 따라서 존재의 치유를 돕는 기독교 상담이 절대적인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 이해정, 2023).

둘째, '변혁적 단계'는 단순한 상처 치유를 넘어 삶의 내적 구조가 복음 안에서 재편되는 국면이다. 여기서는 잘못된 신념, 반복적 죄의 패턴, 왜곡된 관계 방식이 점차 새로워지고 옛 사람의 논리에서 새 사람의 질서로 이동하는 변화가 일어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홍인택, 2020). 이 단계에서도 기독교 상담의 접근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래 지향적 질문과 삶의 새로운 선택을 요청하는 코칭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개입되기 시작한다(서우경, 2009).

셋째, '실천적 단계'는 내적 변화가 구체적 삶의 습관, 책임 구조, 목표 설정, 관계적 실천으로 연결되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는 단지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전면에 등장하며, 크리스천 코칭의 강점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조영우, 2020). 피코치는 이 단계에서 자신의 은사와 한계, 부르심과 책임을 분별하며, 실제적인 실행 계획과 점검 구조를 세워 나가며(홍석고, 2017 ; 정희정, 2023), 실제 장석남(2015) 연구에도 확인된 바 있다.

넷째, '선교적 단계'는 변화가 개인적 안정과 성장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과 파송, 공동체적 책임과 사명 실천으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이 단계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소명 구체화, 사역적 리더십 형성, 공동체적 헌신, 직업과 사명의 통합을 도우며 성화가 삶의 내면을 넘어 세상 속 증언의 형태로 드러나도록 돕는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모형에서 볼 수 있듯, 성화는 내면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파송으로 나아가며,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그 여정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비중을 달리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2.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전환 및 중첩 지점

성화의 연속체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이 고정된 경

계선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돌봄의 과정에서는 상담이 코칭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 있으며, 반대로 코칭이 진행되다가 다시 상담으로 되돌아가야 할 시점도 존재한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그림 1’의 하단부는 변혁적 단계와 실천적 단계 사이를 두 사역의 ‘전환·중첩·보완 구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상담에서 코칭으로의 전환은 대체로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과 왜곡을 어느 정도 직면하고, 정서적 안정과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하며, 미래의 선택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자기 붕괴 상태에서 벗어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넘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을 때 코칭적 개입이 효과를 발휘한다(홍석고, 2017 ; 조영우, 2020). 이 시점에서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 이후의 공백을 메우며, 성화의 방향성을 구체적 순종의 형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반대로 코칭에서 상담으로의 전환은 목표 설정이나 실행 과제 수행 과정 속에서 미해결 상처, 심층적 수치, 관계 외상, 반복적 자기방해 패턴이 드러날 때 요구된다. 겉으로는 실행력이나 의지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다루어지지 않은 상처와 왜곡된 자기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강연정, 2019; 이해정, 2023). 이때 코치는 단순히 동기부여나 계획 수정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재 문제의 핵심이 존재 기반의 회복 영역에 속하는지를 분별하고 필요할 경우 상담적 돌봄으로 연결해야 한다(서우경, 2009).

결국 두 사역의 전환 기준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피조력자의 영적 상태와 성화 과정의 성격이다. 현재 그 사람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해석과 치유인지, 아니면 선택과 실행, 책임과 방향 설정인지에 따라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비중이 달라져야 한다(안경승, 2026 ; 조영우, 2020).

3. 삼자적 사역 역동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단순한 기능 비교를 넘어 신학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림 1’의 최상단이 보여주듯, 개혁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참된 변화와 성화는 궁극적으로 조력자의 기술에서 나오지 않으며,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에 근거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따라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는 ‘상담자-내담자’ 또는 ‘코치-피코치’라는 이자적(dyadic) 관계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반드시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중심에 두는 ‘삼자적(triadic) 역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전요섭, 2004 ; 정희정, 2023). 이 삼자적 구조 안에서 성령은 변화의 궁극적 주체이며, 상담자와 코치는 도구적·칭지기적 위치를 가진다. 상담자와 코치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별과 동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역

자이다(강연정, 2019 ; 전요섭, 2004).

이러한 삼자적 사역 역동은 기독교적 조력 사역을 세속적 변화 모델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 세속 모델이 조력자와 대상자의 상호작용 자체에 무게를 두는 반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그 관계 한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주권적 개입을 전제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정희정, 2023). 따라서 상담자는 회복의 대화를 통해, 코치는 실행의 대화를 통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섬기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종속된 도구라는 점에서 깊은 신학적 연속성을 가진다.

4. 통합적 관계 모형의 의의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는 ‘문제 해결 대 성장 촉진’이라는 단순 이분법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양자는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회복, 변혁, 실천, 선교로 이어지는 연속체 위에 놓인 상호보완적 조력 사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안정삼, 2016 ; 안경승, 2026).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단일한 목적 안에서 둘을 단절시키지 않는다. 둘째, 이 모형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례를 보다 정교하게 분별하도록 돕는다. 어떤 성도는 상담이 절실하지만 코칭을 받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충분한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계속 상담적 돌봄에만 머물러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서우경, 2009 ; 이혜정, 2023). 성화의 연속체 모형은 이처럼 조력의 부적합성을 줄이고, 각 사람의 현재 성화 상태에 더 적합한 도움을 연결하게 하는 목회적 기준을 제공한다. 셋째, 이 모형은 교회 안에서 상담, 코칭, 제자훈련 등을 하나의 통합적 사역 생태계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연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상담적 돌봄을, 방향 설정과 실행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코칭적 동행을, 공동체적 성숙과 파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자훈련과 사역 훈련을 연결함으로써, 교회는 단편적인 프로그램 나열을 넘어 보다 유기적인 성화 사역 체계를 갖출 수 있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이런 점에서 상담과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일은 학문적 작업을 넘어, 교회의 영혼 돌봄(cura animarum) 구조를 실천적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의미를 가진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관계 모형을 바탕으로,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 아래 세속 상담 및 코칭 기법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비판적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목회 현장의 통합적 실천 체계와 개별 사례(Burnout)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V. 기독교 사역 현장을 위한 통합적 제언

앞 장에서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구조화하고, 두 사역이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전환되고 보완되는 통합적 모형(그림1)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모형이 실제 목회 현장과 돌봄 사역에서 유효한 실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분별하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둘째, 이 모형이 교회 현장의 실천적 체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권순달, 2015 ; 안경승, 2026). 본 장에서는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교리를 틀로 삼아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제시하고, 교회 내 통합적 돌봄 체계 및 사례개념화를 통한 목회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관점에서의 기법 수용 기준

한국교회는 다양한 세속 심리학 기법과 코칭 방법론을 무비판적 수용과 무조건적 배척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고민해 왔다. 개혁주의 전통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구분은 이 양극단을 극복하는 중요한 신학적 해석 틀을 제공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 DeGraaff & Olthuis, 1978).

일반은총의 관점에서 볼 때,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 안에는 인간 이해와 관계 형성, 의사소통, 동기 유발 및 행동 변화 촉진에 관한 유익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Bavinck, 박태현 역, 2011). 예를 들어 공감적 경청, 인지행동치료의 구조화된 질문, 긍정적 탐구, 실행 책임 점검 등은 하나님께서 일반은총 아래 허락하신 인간 행동의 원리에 관한 경험적 관찰의 산물이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자와 크리스천 코치는 이러한 기법 자체를 불신앙적이라고 배척할 필요가 없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돌봄의 도구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서우경, 2009 ; 홍석고, 2017).

그러나 일반은총의 산물은 유용성이 신학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특별은총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고 비판적으로 전유(appropriation)되어야 한다(이선영, 2011). 기독교 상담과 코칭이 세속 기법을 수용할 때 지켜야 할 신학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첫째, 변화의 궁극적 주체성 기준이다. 세속 기법이 인간 내부의 잠재력이나 자율성에 변화의 근원적 능력을 두는 반면(조영우, 2020), 기독교 조력 사역은 성령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를 변화의 근

원으로 삼아야 한다(전요섭, 2004). 따라서 조력 과정은 인간의 자기 신뢰를 극대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변화의 목적론적 기준이다. 세속 모델의 목적은 고통 감소, 기능 향상, 자아실현에 집중되어 있다(정희정, 2023). 그러나 기독교적 돌봄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 확장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소명 실현이다. 아무리 효과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속적 성공주의나 인간 중심적 자기 숭배를 부추긴다면 기독교 사역의 틀 안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권혜령, 2019). 셋째, 인간 이해의 기준이다. 기독교적 돌봄은 인간을 선한 잠재력의 결정체로 낙관하거나 무의식의 노예로 취급하는 환원주의를 경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과 동시에, 부패하여 거짓 자기(false self)를 형성하기 쉬운 존재라는 성경적 긴장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강연정, 2019).

이러한 세 가지 기준(주체성, 목적성, 인간 이해)은 세속 기법을 단순히 “좋다/나쁘다”로 관별하는 선을 넘어, 어떤 기법을 ‘기독교 세계관의 틀 안에서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실천적 지표가 된다.

2. 교회 내 통합적 돌봄 통합 체계화

상담과 코칭을 성화의 연속체 관점에서 통합하는 일은, 개별 사역자의 방법론적 변화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전반적인 돌봄 체계 재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 상담을 문제 있는 소수를 위한 특수 사역으로, 코칭을 리더 양성을 위한 별도 훈련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다(권순달, 2015 ; 조영우, 2020). 본 연구가 제안한 모형에 따르면, 교회는 성도의 전인적 성화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층위가 순환하는 ‘영혼 돌봄(cura animarum)’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치유 층위 (회복적 돌봄): 정서적 고통, 관계 파괴, 중독, 심층적 수치를 경험하는 성도들을 위해 전문적 기독교 상담과 상처 회복 사역이 전면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존재 기반을 다시 세우는 기초 공사이다(전요섭, 2004 ; 이혜정, 2023).

2) 성장 층위 (성장 촉진 및 코칭적 동행): 기초적인 정서적 안정을 회복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신앙과 일상의 불일치를 극복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도록 돕는 크리스천 코칭 체계가 제공되어야 한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 홍석고, 2017).

3) 파송 층위 (공동체적 책임과 사명): 내적 방향성이 정립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의 멘토링이나 세상 속 직업 소명 현장으로 나아가 섬길 수 있도록 제자훈련 및 사역 훈련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도를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 되어야 한다(정미영, 2026 ; 조영우,

2020 ; 권순달, 2015).

이 통합적 체계는 고정된 일방통행 프로그램이 아니다. 코칭 훈련(성장 층위)을 받던 중 내면의 깊은 상처가 드러난 성도는 안전하게 기독교 상담(치유 층위)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내담자는 자연스럽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코칭 그룹(성장 층위)으로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담과 코칭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치유-성장-파송’의 통합 체계 안에서 순환할 때, 돌봄의 효과성은 극대화된다(서우경, 2009 ; 이혜정, 2023).

3. 통합 모형의 목회적 적용: 사역 소진(Burnout) 사례개념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상담과 코칭의 통합적 관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이론적 모형이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떠한 실천적 효용을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회 돌봄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평신도 리더의 사역 소진(Burnout)’이라는 가상 사례(vignette)를 구성하여 사례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를 시도하고자 한다.

심각한 영적 무기력과 사역 회피, 그리고 가정 내 갈등을 겪고 있는 40대 평신도 리더 A집사의 사례를 본 연구의 4단계 성화 연속체 모형에 대입해 보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연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1) 회복적 국면: 기독교 상담의 개입

사역 소진으로 우울감에 빠진 A집사에게 초기부터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혹은 “어떤 새로운 목표를 세울 것인가?”를 묻는 코칭적 접근은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다(안경승, 2026). 이 시기에는 철저히 기독교 상담 중심의 개입이 요구된다. 상담자는 A집사가 사역에 과도하게 몰두하게 된 이면의 율법주의적 완벽주의, 타인의 인정을 향한 결핍,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왜곡된 하나님 이미지를 다루어야 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이 단계의 목표는 A집사가 성과 중심의 기제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스스로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일, 곧 ‘옛 사람의 질서’를 해체하는 회복적 성화를 겪어내는 것이다.

2) 변혁 및 실천적 국면: 상담에서 코칭으로의 전환

상담을 통해 우울감이 감소하고 십자가의 수용을 통해 자아 정체성이 재구성된 시점(변혁적 단계)에 이르면, A집사는 “이제 다시 가정과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예전처럼 일하다가 다시 쓰러질까 두렵습니다”라고 호소하게 된다.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 상담에서 크리스천 코칭으로 무

게 중심이 이동해야 하는 목회적 전환점이다(서우경, 2009 ; 이해정, 2023). 이 국면에서 코치는 A 집사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질문하며 분별을 돕는다(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나아가 사역의 양을 줄이고 가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스스로 설정하게 하고 실행을 점검한다. 코칭적 동행은 A집사가 과거의 소진 패턴으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책임 구조 안에서 일상을 유지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된다.

3) 선교적 국면: 소명의 재발견과 파송

회복과 실천의 여정을 거친 A집사는 맹목적인 사역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과 한계를 인지하는 성숙한 리더로 자라난다. 크리스천 코칭의 지지를 통해, 그는 타인의 시선에 끌려 여러 사역을 떠맡는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한두 가지 핵심 부르심에 집중하며, 남은 에너지를 공동체의 상처 입은 자들을 돕는 멘토로 흘려보낸다(조영우, 2020). 이는 변화가 내면에 머물지 않고 이웃을 향해 확장되는 선교적 성화의 구현이다.

결론적으로 사례개념화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단절되거나 취사선택할 대상이 아니다. 영혼의 치유부터 소명의 실천까지 한 사람의 전인적 성화를 통합적으로 돕기 위해, 교회 현장에서 반드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필수적인 동반 사역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개혁주의 성령론과 성화론을 토대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상담과 코칭은 모두 중요한 돌봄 사역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세속 심리학과 무한 긍정의 자기계발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유입되면서 그 신학적 경계와 목적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칼뱅과 바빙크의 성령론과 인간론을 규범적 척도로 삼고,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를 ‘성화의 연속체’ 안에서 재구성함으로써 두 사역이 성령의 성화 역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조력 사역임을 논증하였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전요섭, 2004).

본 연구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성화의 이중 운동, 곧 ‘옛 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살림’이라는 구조 안에서 명확한 신학적 정체성을 지닌다.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자기 이해와

관계의 파열을 다루며 존재 기반을 치유하는 사역으로서 성화의 회복적 국면과 긴밀히 연결된다. 반면 크리스천 코칭은 회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책임 안에서 삶의 방향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사역으로서 성화의 진취적·선교적 국면과 깊이 관련된다. 두 사역은 다루는 초점과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두 성도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으로 이끄는 성령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본질적 연속성을 가진다(안정삼, 2016 ; 홍인택, 2020 ; 조영우, 2020).

둘째, 참된 변화는 인간의 기술이나 통찰 자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관점에서 상담자와 코치는 변화의 생산자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 아래에서 섬기는 도구적 청지기이다. 따라서 조력 사역은 성령-조력자-피조력자라는 삼자적 역동(triadic dynamic)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기독교적 돌봄을 단순한 심리기술이나 성과 향상 프로그램으로 환원하는 세속 담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적 기준을 제공한다(전요섭, 2004 ; 강연정, 2019 ; 정희정, 2023).

셋째, 두 사역의 관계는 단절적 병렬 구조가 아니라 성화의 연속체(회복적-변혁적-실천적-선교적 단계) 안에서 교차하고 중첩되는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본 연구가 제시한 통합 관계 모형(Figure 1)은 어떤 성도에게는 자아의 붕괴를 다루는 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일정 수준의 현실 검증 능력을 회복한 이후에는 구체적 순종과 책임 구조를 형성하는 코칭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상담과 코칭은 한 사람의 성화 여정을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가장 온전한 효과를 발휘한다(서우경, 2009 ; 안경승, 2026 ; 이해정, 2023).

넷째,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의 유기적 관계는 세속 기법의 비판적 수용 기준을 제시한다. 세속 상담이론과 코칭 기법의 방법론적 유용성은 일반은총의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으나, 변화의 궁극적 주체성, 변화의 지향점(소명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죄악된 본성에 대한 인간관은 반드시 특별은총의 빛 아래에서 기독교적으로 재배치되고 전유되어야 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 강연정, 2019 ; 이선영, 2011).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본 연구가 지니는 학문적 차별성과 실천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학문적으로는, 그동안 문제 해결(상담)과 목표 달성(코칭)이라는 기능적 이분법으로 흩어져 있던 두 사역의 정체성을 ‘성화의 이중 역동(회복과 진취)’이라는 조직신학적 교리로 재정립함으로써, 실천신학과 교의학의 간극을 메우고 학제 간 대화의 튼튼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천적으로는, 삼자적 사역 역동과 4단계 성화 연속체를 시각화한 모형(그림 1)을 통해 목회 현장에서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를 ‘평신도 사역 소진(Burnout)’ 사례와 교회의 ‘치유-성장-파송’ 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 그리고 제자훈련이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돌봄 생태계(cura

animarum)로 통합될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권순달, 2015 ; 안경승, 2026 ; 조영우, 2020).

결론적으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분리되거나 대립될 사역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주권 아래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는 필연적 동반 사역이다. 이러한 이해는 한국교회가 무분별하게 혼재된 조력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혼돌봄의 사명을 새롭게 세우는 데 중요한 실천적 토대가 될 것이다(Calvin, 원광연 역, 2003 ; Bavinck, 박태현 역, 2011 ; Collins, 양형주·이규창 역, 2012).

다만, 본 연구는 주로 개념적 문헌연구와 신학적 해석에 기초하였으므로, 제안된 통합 모형이 다양한 목회 현장(예: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상담기관과 일반 목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며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본 연구의 통합 모형을 실제 교회와 돌봄 기관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질적·양적 사례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 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 강현선 (2012). **존 오웬의 정서 이해**.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권순달 (2015). **한국교회 신자의 전인성장을 위한 코칭의 목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 권혜령 (2019). 영혼돌봄의 성경적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청교도 문헌연구를 통한 기독교상담적 원리 고찰. **복음과 상담**, 27(1), 7-42.
- 김수연 (2023). 크리스천 코칭 모델 개발을 위한 성경적 개념화 연구. **신학과 실천**, 86, 987-1016.
- 김정규 (2006). **성경적 코칭(Coaching)의 개념과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김정화 (2026). **크리스천 부모의 영적 성숙을 위한 SOUL 코칭모델 프로그램 적용**.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진아 (2022). **인공지능시대의 성경적 인간이해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활성화 방안**.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박태현 역 (2011). **개혁교의학**. Bavinck, H. (1985). *Gereformeerde dogmatiek*. 부흥과개혁사.
- 박혜숙 (2024). **크리스천 부모코칭프로그램의 구성과 도구개발: TREASURE Talk 코칭모델 활용**.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우경 (2009). 크리스천 코칭과 상담의 비교 및 통합적 적용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33-60.
- 안경승 (2026). 영혼의 상태와 삶의 방향을 분별하는 기독교상담. **복음과 상담**, 34(1), 111-134.
- 안보현 역 (1993). **기독교상담의 성경적 기초**. Collins, G. R. (1993).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생명의말씀사.
- 안정삼 (2016). **성령의 사역에 관한 연구: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양형주·이규창 역 (2012). **코칭바이블**. Collins, Gary R (2009). *Christian Coaching: Helping Others Turn Potential into Reality*. IVP.
- 원광연 역 (2003). **기독교 강요**. Calvin, J. (1559).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유미경 (2018). **자존감 증진을 위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기독교상담학적 적용 연구**. 박사학위논문.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 이선영 (2011). 성경적 상담에서 일반 은총 심리학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복음과 상담**, 17(1), 101-131.
- 이혜정 (2023). **기독교상담 사례개념화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임준섭 (2021). **과학주의적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기독교교육의 인간학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장석남 (2015). **코칭을 활용한 다락방 리더 훈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5R코칭 리더십 활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전요섭 (2004). 변화의 주체로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기독교상담적 이해. **복음과 상담**, 3, 1-32.
- 정미영 (2026). **성경적 제자양육 개념과 토마스 레너드 코칭 이론의 통합적 분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 정하윤·도미향 (2021). 중년기 여성을 위한 회복탄력성 향상 코칭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한국코칭연구**, 14(2), 215-247.
- 정희정 (2023). 개혁주의생명신학과 크리스천코칭. **생명과 말씀**, 37, 94-131.
- 조성국 (2004). 한국 기독교교육의 교육적 인간상의 이상과 현실. **기독교교육논총**, 10, 21-45.
- 조성국 (2017).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교육을 위한 성경심리학적 인간론. **성경과 신학**, 81, 51-82.
- 조영우 (2020). 기독교 세계관 기반 크리스천 코칭: 개념화와 실행. **인문논총**, 37, 230-281.
- 조피터계춘 (2018). **바빙크의 인간론에 나타난 목회상담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최정호 (2010). **칼빈의 인간론에 관한 개혁주의적 이해: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 하재성 (2026). 니케아 신경에 나타난 성령의 고백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 상담**, 34(1), 205-231.
- 홍석고 (2017). 코칭의 목회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기독교문화연구**, 22, 33-56.
- 홍인택 (2020).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의 율법과 성화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Bavinck, H. (1920). *Bijbelsche en religieuze psychologie*. J. H. Kok.
- Bavinck, H. (1931). *Magnalia Dei (Our Reasonable Faith)*. J. H. Kok.
- Bavinck, H. (1985). *The doctrine of God* (W. Hendriksen, Trans.). Baker Book House.
- DeGraaff, A. H. & Olthuis, J. H. (1978). *Joy in Learning: The Curriculum of the Christian School*. Wedge Publishing Foundation.
- VanBelzen, J. A. (2007). *Psychology of Religion: Autobiographical Accounts*. Springer.

성령의 성화 사역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관계 연구 : 개혁주의적 조망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Counseling and Christian Coaching in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s Sanctification: A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김성준 (고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개혁주의 성령론의 핵심 주제인 점진적 성화의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두 사역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현대 한국 교회에서 상담과 코칭은 성도의 치유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력 사역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나, 세속 심리학과 인본주의적 자기계발 담론의 무비판적 수용으로 인해 그 신학적 경계와 사역 정체성이 적지 않게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 칼뱅과 헤르만 바빙크의 성령론·성화론·인간론을 신학적 규범으로 삼고, 게리 R. 콜린스의 코칭 이론과 국내 기독교 상담·코칭 관련 연구들을 이론적 문헌 연구 방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의 신학적 토대는 성화의 이중 운동인 '옛 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림'에 각각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죄와 상처, 왜곡된 자아를 다루는 회복적 성화의 사역으로,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소명을 분별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진취적·선교적 성화의 사역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된 변화의 주체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두고, 상담자와 코치를 말씀과 성령의 통일성 아래에서 섬기는 조력적 도구로 이해하는 삼자적 사역 역동 모형을 제시하였다. 셋째, 성화를 회복적·변혁적·실천적·선교적 단계로 이어지는 연속체로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은 서로 분리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성화 과정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사역임을 논증하였다. 넷째, 개혁주의의 일반은총과 특별은총 교리를 바탕으로 세속 심리·코칭 기법에 대한 비판적 전유의 기준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담자의 '영혼의 좌표'를 분별하는 사례개념화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담·코칭·제자훈련이 '치유-성장-파송'의 생태계를 이루는 통합 사역의 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과 크리스천 코칭을 성령의 단일한 성화 사역 안에서 통전적 영혼 돌봄 (cura animarum)을 수행하는 상보적 사역으로 이해해야 함을 논증하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 조력 사역의 신학적 정체성 회복과 통합적 사역 실천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기독교 상담, 크리스천 코칭, 개혁주의 성령론, 점진적 성화, 영혼 돌봄

나치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독일교회의 태도에서 살펴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의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German Church's Attitude toward Nazi Persecution of the Disabled**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ttitude of the German church at the time regarding the Nazi repressive policies of forced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programs for the disabl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it seeks to explore the essential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from a theological perspective within the context of a Christian worldview. The Nazi regime's policies of oppression against the disabled were the result of considering the disabled and the mentally ill as 'lives unworthy of living', based solely on criteria of 'race' and 'usefulness'. In response, most Christian churches at the time displayed attitudes ranging from indifference to complicity and cooperation regarding the Nazi regime's policies on the disabled. Three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se research findings. First, establishing a view of humanity that recognizes the absolute and unconditional dignity of all human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is an essential element. Second,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and Christians includes inclusive church ministry rather than discrimination or segregation toward the disabled. Third, the co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urch and the state lies in fulfilling God's will through cooperation and respect, while acknowledging each other's unique functions and roles within God's sovereignty and authority.

Key words: Hitler's disability policy, social responsibility of church, church-state relationship

* 2026년 2월 10일 접수, 6월 12일 최종수정, 6월 12일 게재확정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초등특수·유아교육과 교수,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e.ac.kr

I. 서론

교회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골자로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또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김정훈, 2023: 46-47 ; 최용준, 2020: 38-39).

신앙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세나 국가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견지한다. 이 입장은 인류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 세기 동안 언제 어디서나 거의 소외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특히 독일 나치(1933- 1945)는 국가 차원에서 무자비한 장애인 탄압 정책을 펼쳤다. 히틀러는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의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강제 불임시술과 강제적 안락사를 저질렀다(Aly, 2005: 55-59). 장애인 복지나 교육에서 기독교 사상과 교회는 공적 사회복지 시스템 형성의 기초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개선에 공헌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실적 이해 측면에서는 시대나 문화적 배경 또는 문맥적인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성경해석의 오류로 오랫동안 왜곡도 없지 않다. 루터(Luther)는 기형아를 사탄에 의해 바뀐 영혼 없는 ‘살덩어리(lump of flesh)’로 묘사했고, 또한 쓸데없이 먹고 마실 뿐이므로 출생 후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고도 했다. 뇌전증이나 정신 질환도 귀신 들린 것으로 보아 교회조차도 장애 발생 원인을 지나친 전통적 미신과 인과응보 사상에 두기도 했다(Mattner, 2000: 21-23).

여기에서,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또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은 무엇인가?’라는 기본 질문이 제기된다.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social responsibility)이란, 교회론에서 교회의 속성과 본질, 사명 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의미로써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기능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김재성, 2023). 교회라는 조직체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일련의 하나님 주권 중심의 성경적 세계관을 본질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왜곡된 세상의 권세나 가치관에 대해 교회는 무시하거나 무관심보다는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현실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기독교 본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은경, 2012: 177-180).

1933년 나치의 권력 장악 후 모든 공공 생활 영역을 체계적으로 국가화하는 소위 ‘일체화’(Gleichschaltung)’에 따라 기독교계도 국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개신교계가 초기에는 히틀

리의 반공주의와 반자유주의 등 정치 이념에 공감했다. 또 가톨릭도 나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이를 실천하는 동질적 독일인 집단을 의미하는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에 호응했다. 더욱이 양측 모두 베르사유 조약을 불공정하고 수치스러운 조약으로 여긴 나머지 개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독재 정권은 두 교파에게 히틀러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1932년 여름 독일 기독교인회(Deutsche Christen)가 창립되어 나치당은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을 포섭하고자 했다. 1933년 나치당원 뮐러(Müller)가 독일 기독교인 회의 새 제국 주교로 선출되면서, 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상실하였다. 그는 교회 단체에게 히틀러 청소년단(Hitlerjugend)에 복종하도록 강제했고, 교회 내에도 소위 ‘총통 원칙’(Führerprinzip) 아래에서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겼다. 1933년 늦여름에는 교회 직원과 관련하여 소위 ‘아리아인 조항’(Arierparagraph)이 도입되어 유대인의 전문직 종사를 금지하고 공개적인 차별을 시작했다. 1933년 9월, 독일 기독교인회와 제국 교회(Reichskirche)에 대항하는 목회자 비상 동맹(Pfarrernotbund)이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유대인, 신티족, 로마족, 공산주의자, 정적 및 동성애자 등 소위 ‘제국의 적’들은 나치에 의해 공개적으로 차별받고 체포되었다. 1934년 바르멘신학선언(Barmer Theologische Erklärung)에서 비상동맹 회원들은 나치당의 인종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Krumeich, 2010: 106-110).

나치 정권 이전(1930-1933년)에도 가톨릭교회는 나치즘이나 나치당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비스마르크(O. v. Bismarck) 정부 내에 가톨릭 정당의 영향력을 억제하려 했던 ‘문화투쟁’(Kulturkampf)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히틀러는 교회를 거둬 지지하고, 1933년 정부 선언에서 ‘교회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칭송하자, 구교는 나치 정권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1933년 3월 24일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 제정으로 가톨릭교회의 모든 법적 보호 장치는 사라졌다. 1933년 교황 피우스(Pius XII, Eugenio Pacelli) 12세 때 독일제국과 바티칸의 협약(Konkordat)에 따라 가톨릭 서적 배포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지만 성직자나 사제의 정치활동은 금지되고, 나치의 공포 정치 시기(1933-1939)에 정권에 따르지 않는 성직자들은 박해를 받고 투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33년부터 소위 ‘제국의 적’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어 1935년 반유대주의법인 뉘른베르크법(Nürnberger Gesetze) 제정으로 유대인들이 주 대상이었다. 교회는 이러한 비인도적인 정치적 조치뿐만 아니라, 1938년 11월의 유대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까지도 침묵을 지켰다. 더 나아가, 제2차 대전 후,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에 따라 독일 제국은 장애인에 대한 계획적인 안락사 범죄를 행했다. 그들에게 장애인인 ‘제거해야 할 불필요한 국가의 짐’으로 여겼는데, 이는 강인하고 근면해야 하는 나치의 독일인 이미지나 경제나 군사 분야에 부합하지 않은 존재로 본 까닭이다. 이때

1941년 8월, 가톨릭 주교 폰 갈렌(von Galen)은 설교에서 장애인 살해를 강력히 비판하여 큰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살해를 막을 명시적 법이 없었고, 단지 공개적인 비난에 그쳤기 때문에 종전까지 은밀하게 이어졌다. 또한 유대인 홀로코스트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침묵을 지켰지만, 개신교 측에서 나치 정권에 공개적 항의에는 1934년 바르멘 선언에서 비판한 본회퍼(D. Bonhöffer) 목사가 있다(Piper, 2007).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야후 독일 검색 포털서비스(de.yahoo.com/)를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검색어를 통해 각종 논문, 참고문헌, 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어 연구 목적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 개괄적 분석 후,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교회의 반응과 태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본 연구는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과 이를 통한 교회의 태도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 고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의 핵심 내용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서 이에 대한 당시 가톨릭과 개신교 등 기독교계의 전체적인 태도에 대해 개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시 교회의 태도를 통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신학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히틀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행한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에 대해 개관한다.

둘째, 히틀러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교회의 주요 태도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 강제적 불임 시술(Sterilization)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정신 질환자나 지적 장애인 등 약 40만 명이 강제적 불임 시술의 희생자였다. 또 최소 25만 명의 정신 질환자, 지적 및 지체장애인이 소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분류되어 강제적으로 안락사를 당하였다.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나 존재 의미를 지나치게 경제적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이는 1930년대 초 대공황 시기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둘러싼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 강제적 불임시술

나치 시대는 건강한 독일인에게만 자녀 생산이 허락되는 규정에 따라 유전적 장애나 정신질환자는 강제적 불임 시술을 받아야 했다. 인종 위생과 우생학의 핵심 기반에는 1852년 고비노(A. Gobineau)의 ‘인종 이론(race theory)’과 1864년 스펜서(H. Spencer)의 사회적 다윈주의, 즉 생물학적 진화는 적자생존 법칙을 따른다고 하였다. 또 골턴은 1833년 우생학을 정립했고, 1895년에 플뢰츠(A. Plötz)가 ‘인종 위생’ 용어를 도입했다. 여기서 소위 ‘긍정적 우생학’, ‘긍정적 인종 위생’의 목표는 사회적 존경을 받거나 바람직한 가계의 다산을 장려하는 유전 인자의 개선이었다. 그러나 ‘부정적 우생학’, ‘부정적 인종 위생’은 미래 세대의 건강한 생존 보장을 위해 ‘나쁜 유전자’는 제거하여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려고 했다. 우생학과 인종 위생 개념은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덴마크, 핀란드도 1920년대 후반부터 복지 국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불임 시술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27년 독일 ‘카이저 빌헬름 인류학·인간 유전학·우생학 연구소’와 1931년의 ‘독일 정신의학 연구소’의 설립은 이미 나치의 인종 정책을 과학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었다(Raim, 2013: 45-49).

1933년 7월 14일 나치 정권 수립 직후 강제 불임 시술법인 ‘차세대 유전성 질병예방법(Gesetz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이 제정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의학적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인 유전적 결함 가능성, 즉 나치의 인종적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는 ‘열등한’ 경우 강제적 불임시술이 합법화된 것이다. 선천적 정신박약, 조현병, 순환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 유전성 성 헌팅턴 무도병, 유전성 시각장애, 청각 장애, 중증 유전성 신체 기형, 중증 알코올 중독 등이 대상자였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총 40만 명의 남녀가 희생되었고, 그중 약 5천 명이 열악한 의료 환경과 수술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이는 주로 외과적인 시술이었지만, 38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엑스선과 라듐 방사선을 사용하기도 했다(Piper, 2007: 55-60).

이 법의 정치적 배경은 인구나 인종 정책을 위한 조치였고, 유전적 장애인의 생식을 금하고, 인종 혼합에 맞서고, 다자녀를 둔 ‘가치’ 있고 건강하며 인종적으로 ‘유능’한 가정의 의도적 육성이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당시 유전적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사이코패스, 유전적 범죄자, 반사회적 행위자를 위한 지출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소비 감소의 심화 현상을 우려했던 것이다(Benzenhöfer, 2006: 15-17).

또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연합군의 라인란트(Rheinland) 점령 때에 일부 흑인 군인과 독일 여성 간에 태어난 독일 아이들은 소위 ‘흑인 수치’, ‘독일의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에 1936년 라인란트 해방 후 나치는 400-800명을 라인란트 사생아로 등록해 1937년까지 강제 불임

기술을 단행했다. 이는 유전 건강법에 따른 우생학적 조치나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인종적 이유로 총통 명령과 제국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밀경찰(Geheime Staatspolizei) 특별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또 인종차별적이고 노동 경제적인 이유로 여성 강제 노역자에게 강제 불임기술과 강제 낙태가 행해졌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는 유전 건강법을 어기면서 건강한 수감자에게도 대량 불임기술이 있었다(Bock, 1986: 45-71).

2. 안락사 프로그램

19세기 후반 인종적으로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둘러싼 우생학 논쟁이 있었는데, 이는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긍정적 우생학’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나치즘 치하에서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된 사람에게 자행된 국가적 범죄를 단순히 우생학에서 정당성을 찾기에는 희생자 수나 대량 살상의 근간이 된 세계관의 극단성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나치 정권은 사회적 약자의 멸절 정책을 ‘안락사(Euthanasia)’라 했는데,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을 뜻하는 단어의 냉소적 변형이다. 이 본부가 베를린 티어가르텐가(Tiergartenstr.) 4번지로 일명 ‘T-4’라 불리고, 책임자인 보울러(P. Bouhler)는 의사, 간호사들과 함께 많은 병약자와 장애인 살해에 가담했다(Klee, 1983: 55-60).

1920년 법학자 빈딩(K. Bining)과 정신과 의사 호헤(A. Hoche) 저서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 멸절의 허가’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미 논란이 되었는데, 후일 나치의 ‘안락사’ 정책에 핵심 토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이 ‘삶의 가치가 없는 존재’로 분류되고,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병자나 장애인 살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왜곡되었다. 안락사 프로그램은 대개 제2차 대전과 함께 시작되지만, 국가적 대량 학살의 구체적 준비는 이미 1939년 초였다. 또한 동년 8월 18일 제국 내무부의 ‘아동 안락사’ 관련 극비 문서인 회람령은 수천 명 아동의 조직적 대량 학살의 단초였고, 이어 성인들까지 포함되었다. 나치는 의사와 조산사에게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영유아를 제국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처음에 3세까지의 아동이고, 이후에는 16세까지로 했다. 전국 40여 곳의 정신병원 내 소위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은 실험 대상이고, 루미날, 모르핀 등의 약물 주사나 영양실조로 약 5천 명이 숨졌다. 또 병들거나 장애 성인에 대한 조직적 살해를 위한 준비도 진행했는데, 보울러와 브란트는 나치로부터 1939년 10월에 서면 승인을 받았다. 특히, 전쟁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명령은 전쟁 시작일인 1939년 9월 1일로 소급 기재되었다(Hamm, 2005: 45-47).

이처럼 안락사 프로그램은 사회적 다윈주의의 원시적 형태에서 비롯되었고, 나치에 의해 극단적으로 변질되었다. 나치는 1930년대에 ‘안락사’ 문제를 대중과 학생에게 선동하고 주입했고, 1939

년 초에 모든 관련 시설의 환자마다 등록 양식을 작성토록 했다. 여기에는 환자 병력, 입원 기간, 근로 능력 및 회복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특히 정신분열증, 간질, 뇌염, 정신박약, 마비, 헌팅턴 무도병, 노인성 치매나 기타 신경학적 말기 질환자(취업 불가능이나 단순 작업 가능한 자), 5년 이상 시설 입원 환자, 범죄 혐의가 있는 정신 질환자, 독일 시민권이 없거나 독일 관련 혈통이 아닌 자가 대상이었다. 이러한 등록 서류를 통해 베를린의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생사를 결정했고, 대상자들은 비영리 구급차 단체(Gemeinnützige Krankentransportgesellschaft)에 의해 학살시설로 이송된 후 가스로 살해되었다(Kaiser et al., 1992: 236-240).

당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서 약 3만 명, 나치의 점령지, 합병지에서 15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종전 시에는 병으로 노동 불가능한 강제 수용소 수감자 중 2만 명도 살해되었다. 이때 나치는 대량 학살의 정당화 근거로 ‘자비의 행위(Gnadenakt)’, ‘구원의 행위(Akt der Erlösung)’라 표현했다. 나치는 자주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을 인용했고, 1940년 4월 3일 친위대(SS) 책임자인 브락(V. Brack)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요성을 심고 안락사 프로그램을 선동하였다.

…수많은 온갖 종류의 불치 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인류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짐이 되어 끝없는 치료비를 초래한다. 동물처럼 무의미하게 살고, 반사회적이며, 생명의 가치도 없다. 이들은 타인의 음식을 빼앗아 갈 뿐이며, 종종 두 배, 세 배의 치료가 필요하다. 오늘날 건강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수용된 치료 가능한 환자의 보존을 위해서 이런 존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 사회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준다(이하 생략).(Aly, 1985: 32-38).

당시 관련 병원과 정신과 병동 원장은 관련 당사자에 대해 베를린에 보고하였는데, 보고서 양식에는 파란색 ‘-’는 ‘생존’, 빨간색 ‘+’는 살해 대상으로 ‘사망’을 의미했다.

III. 나치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독일교회의 주요 태도 개관

1933년 나치는 권력 장악 후 소위 ‘일체화(Gleichschaltung)’로 사회의 전 영역은 물론 독일교회의 사회적 영향력도 완전히 억제하는데 종교 정책의 목표를 두었다. 이때 히틀러식 경례 거부나 강제 노역자 식량 공급, 뼈라 제작, 반히틀러 운동가 은닉 등의 저항과 더불어 42차례 암살 계획과 실

행도 있었다(Berthold, 1981: 50-55).

당시 양대 교파인 개신교와 가톨릭계는 나치 이념과 정책이 본질적으로 기독교 사상에 반함에도 소수 외에는 대부분 저항 의지나 노력은 거의 없었다. 사실 반기독교적인 인종주의나 사회적 다원주의 정책은 기독교회가 정치 이념에 야합하고 독재자와 정권의 신성화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등 실질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처럼 교회는 히틀러의 전국적인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거의 무관심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독일 신학자이자 역사가인 카이저(J.-C. Kaiser)는, 당시 거의 모든 교회 관계자는 대량 학살에 공개적 비판이 없었고, 교회 설교나 교구 모임에서도 대중의 인식 개선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기독교계 일부의 항의도 미약하고 온건하여 전후에 교회는 나치 정권에 대한 저항 용기가 없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한 예로, 많은 개신교 병원에서 직원들은 ‘차세대 유전성 질병 예방법’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강제 불임 시술에 동참했음을 시인했다(Kaiser et al., 1992: 38-41).

당시 개신교회는 통일된 의견이 없었는데, ‘독일 기독교인’, ‘고백교회’ 등 나치당 정부나 교리 등에 따라 분열되었고, 28개의 지역 교회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 연맹이라는 느슨한 연합체로 연결된 정도였다. 더구나 루터(M. Luther)의 ‘두 왕국 교리’로 인해 개신교회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는 개신교의 전통’이 존재하여 세속 권력과 특정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가톨릭교회는 나치의 장애인 강제 불임 시술에 반대했지만, 안락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가톨릭교회는 바티칸과 독일 제국 간의 국가 조약인 제국 협약으로 교회 투쟁의 종식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다. 또 가톨릭교회는 비밀경찰 특별위원회의 수사를 통해 협박에 취약했는데, 이는 수천 건의 아동 학대 사건에 연결되어 많은 사제와 가톨릭 보호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이 계류 중이었다. 이에 독일 가톨릭계는 1945년 8월 23일 사목 서한을 통해 가톨릭교회가 지난 12년간 나치 범죄의 가담 사실을 고백했다. 또 개신교회(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 EKD)도 1945년 10월 18/19일 ‘슈투트가르트 고백서’를 통해 자신들도 독재 정권에 적극 동조했음을 최초로 인정했다(Aly, 2005: 12-15).

이에 나치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에 대한 당시 독일 기독교계의 태도를 연대기 형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김용환, 2021: 144-145; <https://theologe.de>).

나치의 장애인 강제 불임시술과 안락사 정책의 우생학적 이론의 배경에 정신과 의사 호헤(A. Hoche), 법률가 빈딩(K. Binding)의 저서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 멸절의 허가’(1920)가 있다. 특히 호헤의 부친은 개신교 목사였고, 호헤는 ‘정신 장애인’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도덕적 부담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바탕으로 ‘안락사’가 범죄도, 부도덕한 행위도 아닌 가능하고 유용한 행위라 주장했다(Klee, 1985: 35-39).

반면에, 의사이며 아동복지시설 운영자 멜처(E. Meltzer)는 1925년 논문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낙태 문제’에서 ‘정신 장애인에 대한 살해 주장은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법적, 윤리적 이유로 거부되어야 한다’며 빈당과 호혜를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 발표전인 1920년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의 부모에게 ‘전문가가 자녀를 불치병인 정신 장애로 진단한 경우, 고통 없이 자녀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 물었다. 이에 부모들의 73%가 동의했고, 그의 연구 결과는 나치의 장애인 살해 책임자들이 국가가 명령한 ‘안락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었다(Aly, 2013: 28-35).

특히, 1920년대 유대인 탄압과 함께 ‘안락사’라 불릴 장애인 말살이 신학계에서도 이미 준비된 셈이었다. 가톨릭 도덕 신학자 마이어(J. Mayer)가 1927년 저서 ‘정신 질환자의 합법적 불임시술’을 출간했다. 그는 당시 새로운 우생학에 대해 수용적 입장을 가졌으며 자신의 저서에 ‘사회적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언급하며 우생학, 심지어 안락사까지 정당화했고, 1940년에는 나치 돌격대 지도자 하르틀(A. Hartl)에게 안락사에 대한 가톨릭 입장을 보고서로 작성하였다. 그는 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해 “유전적인 정신질환자들은 본능적 삶에서 비이성적인 동물 수준이다”라며, 신약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벤허 2: 12)”를 인용했다. 이에 그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지 못하고 전체 공동체에 위협하거나 어떤 범죄를 통해 공동체를 타락시키려 한다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죽이는 것은 칭찬받을 만하고 유익하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저서 출판 13년 후인 1940년 장애인 살해에 앞서 강제적 불임시술이 단행되었다. 사실 바티칸은 개신교 입장과는 달리 1930년 장애인 탄압 정책을 반대했지만, 독일 로마 가톨릭 기관은 이후 불임 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을 국가의 ‘정당방어(Notwehr)’라는 명분 아래 개신교 기관들처럼 당국과 협력했다(Bock, 1986: 58-60).

개신교계도 가톨릭에 못지않은 잔혹한 사고방식이 만연했다. 1931년 3월 25일, 바이에른주 노이엔데텔자우(Neuendettelsau) 선교회는 마이저(H. Meiser) 수석 교회 평의원과 협의를 거쳐 최초로 나치당(NSDAP)을 ‘극비 회담’에 초청한 개신교 기관이었다. 약 30명의 개신교 신학자 앞에서 이 지역 선교회 책임자인 에펠라인(F. Eppelein)은 환영사에서 “우리는 나치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정당과도 이 같은 방식으로 교류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후 노이엔데텔자우의 장애인 대다수는 독일 전역으로 강제 이송되어 죽음을 맞이하였다.

1931년 5월에 헤센주 트레이사(Treysa)에서 독일 개신교 국내선교회 소속 기관 책임자들이 ‘개신교 우생학 회의’를 열었다. 이때 불임 시술과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 가능성이 논의되었고, 소위 ‘트레이사 선언’은 장애인의 강제 불임 시술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베텔 출신의 저명한 목사 폰 보델슈빙(von Bodelschwingh)은 이것이 ‘예수의 뜻’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미 1929년 1월 29일 ‘삶의 가치가 없는 생명인가?’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신체와 정신이 약한 열등

한 자들의 증가'를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을 피하는 방법으로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제시했다. 1934년부터 베텔(Bethel)의 약 3,000명의 장애인 중 최소 1,176명이 강제로 불임 시술을 받았는데, 그는 이를 환영하였다. 또 1938년 7월 21일 히틀러에게 충성 서약을 하기도 했지만, 국가의 교회 정치 개입이 증가하고 나치의 인종주의적 목표가 명확함에 따라 후에는 나치즘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939년 'T-4'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환자의 조직적 살해가 시작되었다 이때 그는 나치와 협력을 지연시켜 자신이 운영한 요양 및 치료시설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등 기독교 신념에 따라 이들의 살해를 적극적으로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치의 학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당국과 주요 의사들과 토론하며, 히틀러의 개인 주치의 브란트(K. Brandt)에게 직접 범죄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Hellmann, 1988: 55-61).

당시 교회 기관 수장들은 장애인의 멸절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불일치하였다. 1931년 국내 선교 중앙위원회 '의료' 부서 책임자이며, 우생학자인 하름젠(H. Harmsen)은 국가가 범죄자와 전쟁 상황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를 파괴할 권리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1940년 이후의 대량 학살은 교회 당국의 광범위한 무언의 동의와 공모하여 자행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시설의 장애인 가족들은 교회를 믿고 맡겼지만, 교회의 책임자들이 이미 장애인 살해 여부를 비밀리에 논의·동조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때 중증과 경증 장애인에 대해 교회 지도자들도 장애 정도에 따라 '살 가치가 있는' 또는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각각 구분했다(Klee, 1985: 88-90).

1933년 7월 14일 이미 '차세대 유전성 질병 예방법'은 장애인 강제 불임 시술을 의무화했는데, 이는 국내 선교 기관 대표들의 1931년 '트레이사' 선언의 요구가 나치로부터 수용된 것이었다. 1933년 독일 중서부 쇼이에른 안 데어 란(Scheuern an der Lahn) 지역 국내 선교부의 개신교 치료교육 및 요양원 책임자 토트(K. Todt)는 타 기관의 책임자들처럼 유전병 자녀의 출산 방지법에 열광하였다. 그는 "우리는 악을 뿌리부터 척결하기 위한 서막인 총통의 인종 위생 조치를 환영한다. 이 조치는 악의 근원과 싸우는 전주곡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새로운 제3 제국 건설에 기꺼이 봉사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 지지했다(Klee, 1983: 44-50). 그 후 1941년 이 지역 개신교 기관들은 메제리츠-오브라발데(Meseritz-Obrawalde) 강제 수용소로 가는 장애인들의 중간 기착지고, 교회 기관에 위탁된 이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또 1940- 1941년에 베른부르크(Bernburg)의 국립 치료 및 요양 병원에서도 큰 희생이 있었지만, 동일한 단지 내에 있는 개신교 오버린 하우스의 여집사들은 무저항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1933년부터 개신교 여수도원(Diakonissenmutterhaus)에서는 히틀러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있었다. 독일의 가장 오래된 개신교 여수도원 소식지에 여집사 오버마이어(A. Obermeier)의 민족사회주의를 칭송하는 노래까지 실

리기도 했다(Hamm, 2005: 69-72).

1933년 9월에는 함부르크의 개신교 복지기관 라우헤 하우스(Rauhe Haus) 설립 100주년 기념일에 회장 쉬르마허(T. Schirmacher) 목사는 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동하였다. “우리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격대(Sturmabteilung), 교회의 친위대(Schutzstaffel)로 맞이한다. 여러분은 궁핍, 비참함, 절망, 죄악, 부패와 싸우는 용감한 돌격대원, 친위 대원... 독일에서 개신교 집사들은 민족사회주의와 함께 한다”라고 했다. 이후 개신교 집사들의 나치 돌격대 가입이 늘고, 또 1933년 7월에 개신교 복지기관인 디아코니(Diakonie)가 나치 돌격대로부터 강제 수용소 운영권을 받았다. 그곳 교회 직원은 모두 나치 돌격대원이며, 개신교 국내 선교부로부터 임금을 받았다(Klee, 1985: 38-43 ; 61-71).

1937년 4월 5일 개신교 노이엔데텔자우(Neuendettelsau) 복지 시설의 정신과 의사이자 나치당원이자 루터교인 뵈크(R. Bökh)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없는 모든 환자는 짐이다. 어떤 사람을 멸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창조주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손에 권력을 준 사람에게 달려 있다. 오직 총통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 허용되어 있다”라 했다. 그는 나치의 장애인 정책을 일부 따른 보델슈빙 목사의 추천으로 이 기관에 10년간 수석 의사로서 교회 시설에 위탁된 2천여 명의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후 1939년 노이엔데텔자우 장애인 복지 시설의 책임자이며 개신교 신학자인 라우러(H. Lauerer)도 루터교의 ‘두 왕국 교리’를 인용해 장애인에 대한 계획적이고 압박한 대량 학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학적 승인을 하였다. “...우리 루터교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가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가가 행동할 때 반대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신의 재임 기간 중 나치 정권은 약 1,200명의 환자를 노이엔데텔자우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한 후 결국 안락사를 자행했다. 이는 기독교계가 민족사회주의의 ‘안락사’ 이념과 장애인 정책에 재차 공감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Klee, 1985: 180-185).

1940년 1월부터 소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의 말살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동년 4월 바이에른주 개신교 기관에서 대상자 등록이 있고, 이어서 가스실에서 살해되었다. 또 같은 해 4월 15일 바이에른 복음주의 루터교회는 1940년 4월 20일 히틀러 생일에 대대적인 지지와 찬양 일색의 성명서 발표를 하기도 했다(Wehr, 1989: 175).

그 반면, 베스트팔렌(Westfalen) 주 개신교 신학자, 목사인 빌름(E. Wilm)은 ‘불치병 환자 살해’에 대한 비판적 강연 때문에 1940-1941년에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또 고백교회 소속 신학자 뎀(H. Diem)은 1940년 뷔르템베르크 지역 주교 부름(T. Wurm)에게 보낸 신학 보고서에서 신학적 근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이웃을 미워하는 것, 전쟁 중 정당방위가 아닌 한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부인하거나 협박이나 약속에 넘어가 교회를 떠

나서도 안 된다'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어 로베탈(Lobetel) 지역 정신 장애인 시설장인 개신교 브라우네(P.-G. Braune) 목사도 초기에는 나치에 우호적이지만, 이어지는 나치 독재의 횡포에 비판한 기독교계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치의 'T-4' 작전에 직면해 1940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당시 개신교 국내선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전국 인맥을 활용해 조직적 살인 프로그램의 진행을 조속히 밝혔고, 동년 7월 9일 제국 총리실에 '환자 살해 반대 각서'를 보내며 폭로했다. 이에 그는 국가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방해 혐의로 8월 12일 게슈타포에 의해 자택 압수 수색 후 연행되었다. 그는 1940년 10월 31일 석방되었는데, 석방되기 전 국가와 당에 반하는 어떤 행동도 더 이상 없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는 1954년 사망할 때까지 로베탈 지역의 요양원 원장으로써 종전 때까지 많은 환자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데 공헌했다(Berthold, 1981: 46-55).

1940년 7월부터 장애인들은 바이에른 개신교 복지 시설에서 선별되어 죽음의 가스 실로 이송되었다. 특히 바이에른 노이엔데텔자우에 있는 개신교 장애인 시설은 독일의 타 복지 시설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이송되어 희생되었다. 이때 개신교 의료 책임자였던 뵈크는 이미 장애인들을 소위 '유용성'에 따라 분류했다. 그리고 복지기관인 디아코니(Diakonie) 지도부는 공식 지시를 통해 여집사들에게 장애인 이송 시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책임을 묻는다고 경고하기도 했다(Wehr, 1989: 89-91).

한편, 1940년 7월 19일 개신교 신학자이며 목사인 부름(T. Wurm) 주교는 서신을 통해 제국 내무장관 프리크(W. Frick)에게 뷔르템베르크주 그라페네크(Grafeneck) 가스 시설의 장애인 살해에 반대 의사를 전했다. 그는 유대인 박해나 전쟁에 대해 처음에는 총통과 당이 기독교적 원칙을 지켰다고 봤지만, 장애인 '멸절' 등 나치의 반교회적, 비인간적인 본성이 점점 더 드러남에 따라 당국에 강력히 항의했다. 그 예로, 교육에서 교회 배제, 안락사 프로그램, 유대인 말살 정책에 반대했지만, 결국 권위에 대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은 할 수 없었다. 특히 부름(T. Wurm) 등 개신교 지도자들의 항의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단지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그들이 작성한 서한은 비공개였고, 강단에서도 해명되지 않았다. 이는 고백교회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1940년 10월 12일 라이프치히의 제9차 신앙고백 총회(Bekenntnissynode)서 안락사에 대한 신학적 보고서 의뢰 수준으로만 그쳤다(Klee, 1985: 69, 72).

한편, 1941년 8월 3일, 뮌스터의 가톨릭 주교 폰 갈렌(von Galen)은 나치 초기부터 게슈타포의 공포 정치나 가톨릭 수도원 몰수, 특히 병원과 요양원의 환자와 장애인 살해를 십계명 중 제5계명(살인하지 말라)을 어긴다고 공개 비판했다. 또 장애인 탄압은 '생명에 대한 범죄'이므로, 그는 동년 7월 28일 뮌스터 지방 법원 검찰청과 경찰청장에게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우리의 형제자매이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혹은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명권을 박탈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생산적인 존재로, 타인에게 생산적인 존재로 인정받아야만 살 권리가 있는가?”라 반문했다. 특히 람베르트 성당의 설교에서 안락사 범죄를 강력히 비판했고, 그의 설교는 복사되어 제국 전역에 배포되었다. 그는 설교에서 장애인을 비생산적이라 하여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살해하는 정권을 비난한 소수의 독일 주교였다. 그는 “만약 비생산적인 동료 인간을 죽일 수 있다는 원칙을 세우고 적용하면, 우리 모두 늙고 쇠약해질 때 불행을 겪게 될 것이다”라 했다. 특히 게슈타포가 수도원을 해산하고 수도승과 수녀들을 고향에서 추방하자, 설교에서 독일의 법치주의 부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같은 해 7월 13일 뮌스터의 람베르트 성당 강단에서 “모든 독일 시민과 국가 공동체는 비밀경찰의 물리적 우월성과 공포 정치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누구나 언젠가 집에서 끌려 나와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밀경찰의 지하실과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될 것이다”라 설교했다. 당시 지역 나치 관리들이 설교 후 주교의 체포를 요구했지만, 가톨릭이 지배적인 베스트팔렌의 소요 사태를 우려했다. 특히 선전부 장관 괴벨스(J. Göbbels)는 “전쟁 중에는 가톨릭 순교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최종 승리 이후’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다. 결국, 독재 정권에 의해 ‘국가의 적’으로 간주한 갈렌은 자신의 지위와 교인들의 지지로 종전까지 처벌받지 않고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나치 폭정에 대한 ‘양심의 승리’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이러한 저항적 설교가 이미 6만 명이 넘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즉 1940년 1월부터 1941년 8월까지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들은 사실 교회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1940년 11월 27일에서야 로마 교황청은 독일의 안락사 문제를 다루며 무고한 국민에 대한 국가적 범죄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기독교회들은 거의 침묵을 지키며 안락사를 불가피하게 수용하였고, 일부 개인들의 용감한 행동들도 외부에 공개적인 발설보다는 대부분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개신교 측에서도 모든 항의 서한과 편지들은 내부에서만 처리되었다. 이는 1945년 5월 8일 이후야 공개되어, 독일 교회사에서 어두운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Aly, 2013: 20-29).

특히 1944년 7월 30일 독일 개신교 교회 사무국과 개신교 교회 신임 평의회(der Geistliche Vertrauensrat der Evangelischen Kirchen)는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시도를 규탄하며, 충성 전보를 통해 히틀러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였다.

우리는 지도자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와 더불어, 지도자가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시대의

냉혹한 요구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게 순종하겠다는 새로운 충성의 서약과 결의를 다집니다(Das Evangelische Deutschland, 30.7.1944).

IV.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히틀러 정권이 장애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 등의 탄압 정책에 대해 당시 독일 기독교계가 보인 태도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신학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을 본질적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인간(생명)관 정립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로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Image of God)’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창 1:26-27). 인간이 가지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 양식인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 도덕적 또는 영적 자질을 포함하는데, 이는 인간을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등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Stott, 박영호 역, 1985: 184-185). 또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엡 4:24)’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골 3:10)’라 표현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승구, 2003: 131-132). 이어 김선권(2025: 210, 221)은 세 가지 범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였다. 먼저 실제적 해석으로는 이성적 영혼, 기능적 해석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 수행, 관계적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 및 타자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각각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으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재창조하심은 창조 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고귀한 존재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기본법(GG) 제1조 (1)항에 ‘인간의 존엄성은 저촉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 명시하고 있다. 헤셀베르거(Hesselberger, 1999: 60)는 법적인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칸트의 철학적 관점뿐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용하고 있다. 또 독일은 기본법상 평등권에 있어서, 남녀, 혈통, 인종, 언어, 출신 국가,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불이익과 특혜를 금지하였다. 특히 1994년의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제3항에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누구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첨가되어 장애인을 특정하여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나 편견 등 편애 주이나 특권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인정할 것을 강조(신 1: 16-17; 10:17; 16:18-19; 욥 31: 13-15; 잠 14:31; 갈 3:28; 약 2:1-9 등)한다. 이는 모든 인간은 개인의 특성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자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입성할 형제이자 자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히틀러는 인종주의와 사회적 다윈주의를 중심으로 ‘인종’과 ‘유용성’에 따라 차별과 불이익을 넘어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보고 강제적 불임 시술과 ‘안락사’ 범죄까지 자행했다. 이러한 나치 정치 이념과 국가의 불의한 권력 앞에 당시 기독교회는 대부분 무기력과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 독일의 대부분 신학자, 교회 지도자나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시설 책임자들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을 망각한 채 국가의 범죄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더욱이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인해 인간관은 더욱 왜곡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오늘날 산업 사회에서 인간상도 상업주의의 타산적 문화로 인해 제품만 아니라 노동, 교육, 과학, 예술 등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일련의 매매, 거래, 교환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인간관계도 경제성, 생산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타산적 관계나 첨단기술을 통해 증가한 간접적인 접촉이 오히려 더 비인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임일남 외, 2003: 30-35). 한 예로,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생명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즉, 개정안은 기존의 ‘인공임신중절’ 개념에 약물 투여 등을 포함하고, 임신주수와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며, 유전적 질환, 강간 등 기존의 5가지 허용 사유를 삭제하였다. 이는 본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이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낙태 지원법으로 둔갑했음을 알 수 있다(국민일보, 2026). 그 밖에도 ‘연명의료 중단’(동아일보, 2026)이나 ‘자살’(뉴스 1, 2026) 등 생명 윤리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교회는 올바른 성경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사회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통합적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성경 전체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사는 약 160회 정도로 매우 많이 볼 수 있다. 구약에서 일부 장애를 차별이나 죄의 결과 등 부정적인 시선(레 21:16-23; 삿 16:21 등)도 있지만, 보호와 소망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섭리(레 19:14; 신 27:18 등)로도 나타난다. 특히 신약의 사복음서에서만 약 56곳에서 장애인과 환자 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치유 사역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장애인에 대해 무의미하고 배척하거나 차별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유와 구원 및 사회적 통합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이계윤, 1996: 55-56 ; 김기흥, 2023:

56).

이러한 성경적 장애(인)관이 있음에도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현실적으로 일반 사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별성이 있는가? 그 단적인 한 예로, 교육부(2026)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유·초·중·고 일반 학교의 장애 학생 통합비율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2021: 72.2%; 2022: 72.8%; 2023: 73.3%; 2024: 73.7%; 2025: 74.1%)를 보인다. 그에 반해, 한창희(2016: 41-4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총 38,249개 교회 중 발달장애인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교회는 약 0.2% 정도(73개 교회)로 장애인에 대한 교회 내 통합은 물론 분리적인 측면조차도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독교계의 장애인 인식 조사(이만식, 2009: 54; 한정우·장옥례, 2018: 201-206 등)에서도 동정심을 비롯하여 시혜, 자선적 차원 등 부정적 이미지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 목회자 등의 장애인이나 장애인 사역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도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선도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짐작할 수 있다(김중복, 2005 ; 김성원·허계형, 2017: 148-149).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엄연히 장애인교회와 비장애인교회가 각각 분리 존재하고 있어 교회조차도 장애인이나 장애 아동을 배려하지 않고 차별하는 교회나 주일학교 교육 시스템 운영은 교회로써의 사회적 책무성을 방기하고 있는 형국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 등 장애인 사역을 둘러싼 교회의 본질적인 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한국 장애인신학회 창립 총회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장애인신학회는 발기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 사역은 단순한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학적·선교적 과제”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장애인 사역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이제는 장애인신학을 정립해 교회 안팎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25). 특히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많은 무관심이나 부정적 태도는 먼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바른 해석과 설교를 통해 성경적 장애(인)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이은미, 2013 ; 박혜전·조영길, 2009). 또한 목회자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신학대학교(원)의 교육과정에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교과목의 필수적인 편제를 통해 올바른 인식과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이금섭·배내운·이민호, 2005: 311).

셋째,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성 인식에서 올바른 성경적 이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교회-국가의 관계성 확립은 개인적으로나 사회 공동체적으로 모두 중요한데, 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국가(정치)적 선택과 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기독교와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자신들과의 경쟁이나 위협으로 간주하여 발전과 확

산을 막았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인류의 모든 문제해결 방안을 가진 최종적인 구원자이자 권위자로 여기기도 했다. 즉 국가가 준(準)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교회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억압하며, 때로는 공개적으로 목숨을 빼앗는 등의 박해를 가했던 것이었다.

독일의 개신교 윤리학자 홀트하우스(Holthaus, 2010)는 나치 시대처럼 국가가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국가-교회 간 관계를 ‘박해받는 신앙’으로 구분했다. 그 밖에도, 그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경우처럼 국가 위에 군림하며 지배한 형태의 ‘정치화된 신앙’, 교회와 국가가 서로 의식적으로 철저히 거리를 두는 ‘분리된 신앙’,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이 국가(정치)에 무지한 ‘무관심한 신앙’ 유형으로 관계성을 구분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국가에 대한 관계성 정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형으로 ‘변혁적 신앙’을 말한다. 사실 신앙은 영원한 구원이자 초월적 영역이며, 정치는 세상의 안녕에 대한 것으로 성격상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하지만 신앙과 정치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도 가지는데, 즉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육신의 안녕과 구원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조직 공동체이자 시민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든 원치 않든 여전히 세상 안에서 정치적 존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복음적 가치관으로 사회 변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사회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참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회적 책무성을 위한 권리이자 의무 이행을 위한 선한 기회라 볼 수 있다.

또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성에서 루터(M. Luther)의 ‘두 왕국 이론(Zwei-Reiche-Lehre)’이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교회를 각각 분리된 권력으로 이해했다. 특히 루터파 교회의 이 주장은 나치가 전체주의적 이념의 정당성과 합리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이용되었다는 논란도 있다. 즉 세상 왕국과 영적 왕국은 서로 독립적인 통치 원리 입장에서 영적 왕국인 교회의 기능이 사적영역과 개인적 경건의 영역에만 국한되므로, 세상 왕국에 관련된 일은 교회도 세상의 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해석이다(김용환, 2021: 118, 122). 그러나 루터의 ‘두 왕국 이론’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 중 어떤 해석이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전자의 두 왕국은 상호 독자적이고 불간섭의 이분법적인 대립 구도이지만, 후자는 모두 각각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 있지만,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츠빙글리(H. Zwingli), 부처(M. Bucer)와 칼뱅(J. Calvin) 등은 개혁신교 전통에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서 기독교 공동체적인 삶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함께 고유한 기능과 사명을 주장했다. 또한 나치 저항운동에 적극적이었던 바르트(Bart)와 본회퍼(Bonhöffer)도 그리스도론적으로 세상과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교회와 국가는 고유한 기능과 임무를 인정하며, 교회의 국가화나 국가의 교회화에 반대했다(김선영, 2015: 43, 45, 59, 78 ; 길상엽, 2020: 85-93 ; 최윤배, 2020: 175-180;).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실현을 위한 서로 다른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고유한 사명이 있는 반면에,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비본질적 도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적 권위를 세속 정부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나 세속 정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이분법적인 태도는 옳지 못하다. 특히,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 즉 생명 윤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 정책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성경적 세계관이 충분히 적용 및 반영되도록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따라야 할 것이다(김영한, 2012: 12-13 ; 길상엽, 2020: 82-83).

더 나아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나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위협할 경우, 입헌주의를 기초로 한 민주사회에서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한 기존 질서 파괴나 국가권력의 전복 등 폭력적 저항은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정완, 2018: 57, 61-63 ; 김민석, 2025: 80-81, 90). 이는 교회-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유효한데, 루터도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키는 권력이 아닌 이상 세상 당국과 공권력에 순복할 것을 권했다. 또 인권을 무시하고 살인하는 독재정 권이라도 무력을 통한 제거는 반대했는데, 이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맡길 것을 강조한 것이다(김기련, 2003: 145-146). 칼뱅의 신정 통치적 사상도, 만일 국가나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정책과 명령의 경우에 국민으로 하여금 모든 권위의 주체이자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불복종할 의무(행 5: 29)를 지지한다. 그럼에도 무분별한 무력, 폭력, 민중의 무질서한 반란 등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법적 질서나 신앙적 양심으로 비폭력적 저항 등 제도 내에서 합법적 저항과 저지 수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 세속 질서 속에서 폭력이나 무질서한 반란을 통한 것은 용인되지 않으며, 공론의 장에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소통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오갑, 2021: 127- 129; 김민석, 2025: 103-107).

결론적으로, 히틀러 정권은 수많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한낱 ‘인종’과 ‘유용성’만을 기준으로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간주하여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무자비하게 자행했다. 이러한 나치 정권의 무모하고 반기독교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해 일부 신학자나 목회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신·구 교회 반응과 태도는 침묵을 지나 동조 및 부역 등의 형태를 보인 것이다. 즉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인간(장애인)관, 교회관이나 국가관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존재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다. 더군다나 더욱 고도화된 인공지능(AI)이나 다양한 가치관들이 혼합된 다원화 시대인 21세기 교회는 생명 윤리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올바른 성경적 입장을 정립하여 빛과 소금으로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절박함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나치 정권 12년 간의 장애인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기독교계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히틀러 정권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국가적 범죄에 대해 기독교 교파나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국내에서 자료수집의 한계를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나치 정권에 저항 또는 동조한 기독교 교파나 단체 및 기관을 중심으로 자세한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 정립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25). 2025 특수교육통계.
- 길상엽 (2020).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종교의 자유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36, 82-111.
- 김기련 (2003). 폭력과 전쟁에 대한 마틴 루터의 입장. **韓國教會史學會誌**, 13, 123-150.
- 김기흥 (2023). 사복음서 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 치유사역에 나타난 통합교육적 함의. **신앙과 학문**, 28(2), 51-71.
- 김민석 (2025). 국민 저항권에 대한 공공신학적 접근-법률적·신학적 고찰. **한국조직신학논총**, 79, 79-126.
- 김선권 (2025). 기독교 신학과 인공지능: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간 이해와 신학적 응답. **갱신과 부흥**, 36, 201-236.
- 김선영 (2015). 그리스도는 세상 왕국과 무관하다? -루터의 두 왕국론 재고-. **韓國教會史學會誌**, 40, 41-86.
- 김성원·허계형 (2017). 장애 통합 사역 지원 요소에 대한 예비 목회자들의 인식. **개혁논총**, 43, 127-155.
- 김영한 (2012). 복음주의적 정치관: 정치에 대한 교회의 자세와 역할. **조직신학연구**, 17, 12-38.
- 김용환 (2021). **독일 제3제국 시대의 국가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 김정완 (2018). 한국 헌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정보 기본권', 저항권, 정부형태, 대통령의 임기를 중심으로-. **비교법 연구**, 18(3), 43-89
- 김정훈 (2023). 성경학자가 본 교회와 선교. **아프리카와 미래**, 3, 33-74.
- 김재성 (2023). **현대 개혁주의 교회론** 1, 2. 킹덤 북스.
- 김종복 (2005). **현대 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 2005 대회 발표 자료.
- 박영호 역 (1985).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인 답변**. Stott, John R. W. (1984).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기독교문서선교회.
- 박혜전·조영길 (2009). 장애인 재활과 기독교적 소명. **신앙과 학문**, 14(3), 135-175.
- 이계윤 (1996).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 한국특수교육연구소 출판부.
- 이금석·배내운·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회교육**, 377, 52-57.
- 이승구 (2003).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 이오갑 (2021). 칼뱅의 정치사상과 민주주의-관현과 국민의 복종 및 저항권을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65, 105-142.
- 이은경 (2012). 한국의 정치 변화와 교회의 정치에 대한 사회 참여 연구. **신학과 선교**, 41, 177-202.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임일남·이병헌·윤길근·정황순 (2003). **교육학개론**. 동문사.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도서 출판 CUP.
- 최윤배 (2020). 개혁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조직신학논총**, 58, 167-211.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 복지 시설 이용인의 지역 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 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Aly, G. (1985). *Medizin gegen Unbrauchbare*. In: Götz Aly, Jochen August, Peter Chroust(Hg.): Aussonderung und Tod. Die klinische Hinrichtung der Unbrauchbaren. Beiträge zur nationalsozialistischen Gesundheits- und Sozialpolitik. Rotbuch.
- Aly, G. (2005). *Hitlers Volksstaat*. Raub, Rassenkrieg und nationaler Sozialismus. Fischer Verlag.
- Aly, G. (2013). *Die Belasteten. 'Euthanasie' 1939-1945*. Eine Gesellschaftsgeschichte. Fischer Verlag.
- Benzenhöfer, U. (2006). *Zur Genese des Gesetzes zur Verhütung erbkranken Nachwuchses*. Verlag Klemm & Oelschläger.
- Berthold, W. (1981). *Die 42 Attentate auf Adolf Hitler*. lanvalet.
- Bock, G. (1986). *Zwangsterilisation im Nationalsozialismus*. Studien zur Rassenpolitik u. Frauenpolitik. Westdeutscher Verlag.
- Das Evangelische Deutschland, 30.7.1944. <https://theologe.de/euthanasie.htm> (검색일 2025.10.12.)
- Hamm, M. (2005). *"Lebensunwert": zerstörte Leben*. Zwangsterilisation und "Euthanasie". Verlag für akademische Schriften.
- Hellmann, M. (1988). *Friedrich von Bodelschwingh d. J.* Widerstand für das Kreuz Christi. Brockhaus.
- Hsselberger, D. (1999). *Das Grundgesetz*. Kommentar fuer die politische Bildung. 11. Aufl. Neuwied. Luchterhand.
- Holthaus, S. (2010). *Christsein und Politik: Zum Verhaeltnis von Staat und Kirche*. Institut fuer Ethik & Werte, Giessen. <https://ethikinstitut.de/politische-ethik/christsein-und-politik-zum-verhaeltnis-von-staat-und-kirche/>(검색일 2026.6.12.)
- Kaiser, J-C., Nowak, K. & Schwartz, M. (1992). *Eugenik, Sterilisation, "Euthanasie"*. Politische Biologie in Deutschland 1895-1945. Eine Dokumentation. Berlin, Dok. Nr. 184.

- Klee, E. (1983). *“Euthanasie” im NS-Staat*. Die “Vernichtung lebensunwerten Lebens”. Fischer Verlag.
- Klee, E. (1985). *Dokumente zur “Euthanasie”*. Frankfurt/M.: Fischer Verlag.
- Krumeich, G. (2010). *Nationalsozialismus und Erster Weltkrieg*. Klartext Verlag.
-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Kohlhammer.
- Piper, E. (2007). *Kurze Geschichte des Nationalsozialismus von 1919 bis heute*. Verlag Hoffmann und Campe.
- Raim, E. (2013). *Zwangssterilisierungen und “Euthanasie” vor Gericht*. Oldenbourg Verlag.
- Wehr, G. (1989). *Gutes tun und nicht müde werden: Ein Jahrhundert Rummelsberger Diakone*. Claudius.
- 국민일보 2025. 12. 6.일자.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 꿈꾼다”. <https://v.daum.net/v/20251206160746565>.(검색일 2026.4.9.).
- 국민일보 2026. 4. 29.일자.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란... “낙태 허용 우려, 태아보호해야”. <https://v.daum.net/v/20260428160133413>.(검색일 2026.6.7.).
- 뉴스1 2026. 5. 31.일자. “청소년 사망원인 14년째 ‘자살’ 1위...정부, 실현가능 대책 모색”. https://v.daum.net/v/20260531150848856?s=print_news(검색일 2026. 6.1.).
- 동아일보 2026. 6. 2.일자. ““연명의료 중단’ 앞당기는 방안 공론화...적극 검토할 때 됐다”. <https://v.daum.net/v/20260602232602201>.(검색일 2026.6.5.).

나치의 장애인 탄압에 대한 독일교회의 태도에서 살펴본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의 신학적 고찰

A Theological Examination of the Church's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German Church's Attitude toward Nazi Persecution of the Disabled

김기흥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써 나치의 장애인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프로그램의 탄압 정책에 대한 당시 독일교회의 태도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적 입장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회적 책무성에 대해 신학적 입장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나치 정권의 장애인 탄압 정책은 오로지 '인종'과 '유용성'을 기준으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을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간주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계 교회도 나치 정권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무관심이나 동조 및 협력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세 가지 함의가 도출되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모든 인간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존엄성을 가진 인간관의 정립이 필수 요소이다. 둘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성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분리보다는 통합적 교회 사역이 포함된다. 셋째, 교회와 국가 관계의 핵심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 속에서 각자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과 존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히틀러의 장애인 정책, 교회의 사회적 책무성, 교회-국가 관계성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2025년 9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6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1월 31일
2호	6월 30일	4월 30일
3호	9월 30일	7월 31일
4호	12월 31일	10월 31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안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

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 (5)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6)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을 경우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7)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본 규정의 개정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 세칙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편집위원회 규정 제3조 및 제 19조, 20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 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다음 호에 재투고하여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재심사는 가능한 처음 심사자 3인에게 다시 의뢰하고, 심사자는 '게재 가' 혹은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를 허락한다.
- (6)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하며, 재심사에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게재 가' 판정 이후 다음 호까지 최종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7) 투고자는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메일(faithscholar@naver.com)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 (8)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 (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이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를 제외하고 논문 심사자를 선정한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이 개정된 규정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2022년 7월 1일	개정
2023년 7월 1일	개정
2025년 9월 22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 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 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 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출처는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 Kim &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이윤리, 2007b: 27)

⑩ 한글 번역서 인용의 경우: (Jackson, 전광철 역, 2013: 7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①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 해당 내용에 각주로 입력한 프롬프트, 사용날짜와 시간, 사용된 인공지능 도구의 이름과 버전을 명시해야 한다.

예시 1) 이 그림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였음. “사자와 어린양이 뛰노는 그림을 생성하라”, 2025. 9. 15. 오후 3시, ChatGPT 5.0 Pro. (ChatGPT 유료 사용자의 경우 link 추가)

예시 2) 이 문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하였음. “공학윤리에서 위험과 안전을 주제로 토의할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성하라”, 2025. 9. 15. 오후 3시, Gemini 2.5 Flash.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내용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그림 1.1(Figure 1.1), 그림 1.2(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그림 1(Figure 1), 그림 2(Figure 2), 그림 3(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표 1(Table 1), 표 2(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표 1.1(Table 1.1), 표 1.2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표 1(Table 1)으로 표시한다.

③ 표(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표(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

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단행본, 번역서, 학술지,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잡지의 영어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고,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일반 논문의 경우, 논문이 실린 논문집의 해당 페이지를 끝부분에 표시한다. 인터넷 자료와 신문기사의 제목은 큰따옴표(“ ”) 안에 넣는다. 저자가 2인일 경우 한글 저자는 두 저자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두 저자 사이에 & 를 넣는다. 저자가 3인 이상일 경우 한글 저자는 저자들 가운데 중점(·)을 붙이고, 영어 저자일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by Playe, G.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 Haydon, G.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 Vining, A.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Gill, D. W. (1979). *The word of God in the Ethics of Jacques Ellul*.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US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Kang, Y. H., Park, J. Y., Nah, B. H. & Kim, M. J.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Title”. Retrieved from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국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③ 편저:

박준영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대학교 출판부.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김진숙·권지성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http://www.worldview.or.kr> (검색일 2005.11.11.).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 ⑨ 번역서: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학지사.
10. 게재료 납부 : 논문 투고자는 투고 시 7만원의 심사료(영문논문 심사료 10만원)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3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4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1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6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5일 개정

2025년 9월 22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8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지

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중복투고(이중투고)”라 함은 동일한 연구결과를 2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기간이 겹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일정기간 투고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지침

제19조(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

제1항. 연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윤문, 단순 번역, 편집, 아이디어 도출, 자료조사, 단순 분석작업, 이미지 생성 등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

제1항.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고,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얻어진 모든 자료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있다.

제21조(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의 공개)

제1항. 투고자가 연구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 그 사실을 가능한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이 때 입력한 프롬프트, 사용 날짜와 시간, 사용된 인공지능 도구의 이름과 버전을 명시해야 한다.

제2항. 1항에도 불구하고 윤문, 번역, 편집 같은 연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 작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제22조(편집자와 심사자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제1항. 편집자와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 중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부분을 식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항. 편집자와 심사자는 논문 심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향후의 도치 않은 표절을 비롯한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투고된 논문 전체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동열 (서울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손화철 (한동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권오병 (경희대학교)		김동혁 (연세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감 사	이명현 (인천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총 무	박지희 (건국대학교)		박해일 (경희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송재일 (명지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신응철 (송실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안소영 (경상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황혜원 (청주대학교)
	유재봉 (성규관대학교)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손화철 (한동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31권 제2호 (통권 107호), 2026년 6월호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동열 (서울대학교)

편집인 손화철 (한동대학교)

디자인 이지온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72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39길 8-1, 3층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eon@gmail.com(대표메일)

faithscholar@naver.com(논문투고)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